

2018 오픈 드라마 작품집 — 상권

	2	0	1	8	
오	펜				
			드	라	마
	작	품	집		
		—	상	권	

스	릴	러
김	지	훈
김	민	경
이	정	연
정	수	훈
안	은	빈
류	솔	아

안	녕	싱	크	홀	
파	고				
경	계	의	여	자	들
인	출	책			
나	쁜	판	사		
소	년				

로	맨	스
이	아	연
김	도	연
백	선	영

물	비	늘							
각	색	은	이	미	시	작	됐	다	
막	걸	리	에	설	탕	두	스	푼	

## 작품집을 출간하며

“문화가 없으면 나라가 없다.”

CJ그룹은 전 세계인이 일상에서 우리의 영화, 드라마, 음악, 음식을 맘껏 즐기며 행복을 누리는 세상을 그립니다. 한류의 세계화를 선도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를 더 넓은 세상,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문화의 산업화를 통한 사업보국’을 실천해왔습니다.

문화산업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작자의 열정이 존중되고, 그들의 꿈과 재능이 실현될 기회가 많아질수록 문화산업의 뿌리는 튼튼해지고 열매는 풍성해집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창의적인 인재를 키워내는 국가와 기업들이 문화산업을 주도할 것입니다. 오픈을 더욱 진화, 확장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해를 거쳐 40명의 드라마 작가들을 만났습니다.

작가들 모두가 현 시대상을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풀어내고,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글쓰기에 매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20명의 작가는 tvN 드라마 스테이지를 통해 단막극 데뷔를 하였고, 몇 작가들은 미니시리즈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외 다수의 작가들도 여러 제작사들과 미니시리즈 계약을 체결하여, 집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여러 제작사들로부터 신인 작가들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인 작가,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업계의 목마름이 깊었음을 느낍니다. 콘텐츠업에서 재능 있는 작가들을 찾아내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고 필요한 일인지 깨닫습니다.

오픈은 멈춰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업계와 소통을 하고 질문을 던지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습니다. 작가들의

창작역량이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프로그램을 다듬겠습니다.

신인 작가들이 연출자, PD, 작가 등 다양한 창작자들과 더 넓고 깊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더 많은 신인 작가들이 제작 현장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실험적인 단막극을 통해 업계의 토양을 다지고 다양성을 확장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픈의 모든 성과를 업계와 공유하겠습니다.

오픈 2기 작가들의 고된 창작의 결실이 담겨 있는 작품집은 제작사, 방송사, 연출자, PD 등 작가를 찾고 있는 업계 곳곳에 배포됩니다. 드라마 작가를 꿈꾸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작가들의 재능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번 작품집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과 도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박수를 받아야 할 사람은 고된 창작자의 과정을 견디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야기를 만들어낸 오픈 2기 작가들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좋은 이야기에 대한 열정과 집념은 다음 행보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애정 어린 조언으로 신인 작가들의 첫걸음을 함께해준 멘토들과, 특강, 세미나 등을 통해 그간 쌓아온 본인만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해준 선배 연출자, PD, 작가를 비롯한 오픈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CJ ENM 대표이사 허민희

## 오픈 소개

오픈(O'PEN)은 작가(Pen)를 꿈꾸는 이들에게 열려 있는(Open) 창작 공간과 기회(Opportunity)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CJ ENM이 드라마제작 자회사 스튜디오 드래곤, CJ문화재단과 협력해 신인 드라마/영화 작가 선발, 대본/시나리오 기획개발 및 완성, 단막극 제작과 편성, 제작사와 작가를 연결하는 비즈매칭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창작자 발굴, 육성, 데뷔 지원사업입니다.

### 2018 오픈 드라마 주요 프로그램

단막극 공모	단막극 대본 접수
신인작가 선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심사를 거쳐 신인작가 20명 선발
감독 멘토링	단막극 대본 수정, 미니시리즈 기획
작가 멘토링	미니시리즈 기획, 집필
특강/세미나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드라마 기획, 소재 개발, 작법, 캐릭터 등에 대한 토론, 세미나
현장취재/견학, 인터뷰	이야기 소재 발굴, 완성도 제고, 현장감 등을 위해 현장취재/견학, 인터뷰 지원
단막극 제작	단막극 10편 제작
단막극 편성/방영	tvN <드라마스테이지> 10편 편성/방영
작품집 발간	단막극(20편) 작품집 발간, 드라마 제작사, 방송사, PD 등에게 배포
비즈매칭	PD, 작가, 제작사, 방송사 등 업계 전문가들과의 인적 교류, 비즈매칭 기회 제공

### 감독 멘토진

<라이브> 김규태 감독  
<청춘시대> 이태곤 감독  
<국수의 신> 김종연 감독  
<쌈 마이웨이> 이나정 감독

### 작가 멘토진

<흑기사> 김인영 작가  
<블랙> 최란 작가  
<그냥 사랑하는 사이> 류보라 작가

### 특강/세미나

미니시리즈 기획 — <천국의 계단> 이장수 감독  
미니시리즈 소재 개발 — <슬기로운 감빵생활> 신원호 감독  
미니시리즈 작법 — <나의 아저씨> 박해영 작가  
캐릭터라이징 — <출출한 여자> 윤성호 감독  
장르물 작법 — <무법 변호사> 윤현호 작가

### 현장취재/견학, 인터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남부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서울지방경찰청  
범죄피해자심리전문요원, 해양경찰청, 여수항공대,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  
관세청, 인천공항, 서울소방방재본부, 용산소방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 성범죄자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한국증권거래소  
은평경찰서, 구로경찰서 등

차례

스릴러	김지훈 · 안녕! 싱크홀	11
	김민경 · 파고(波高)	61
	이정연 · 경계의 여자들	125
	정수훈 · 인출책	185
	안은빈 · 나쁜 판사	247
	류솔아 · 소년(少年)	295
로맨스	이아연 · 물비늘	337
	김도연 · 각색은 이미 시작됐다	393
	백선영 · 막걸리에 설탕 두 스푼	449

# 안녕! 싱크홀

김지훈

---

## 작의

이 드라마에는 인생의 싱크홀에 추락한 두 사람이 등장한다. 성격도, 처한 상황도 다르지만 둘 다 많은 위로를 필요로 한다. 이 작품을 통해 이들과처럼 암담한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괴롭고 외로운 순간은 끝나간다고. 지옥 같은 현실이지만, 그래도 새로운 삶은 있다고.

---

## 등장인물

### 김병태(47세, 남) 펜션 주인

성실하게 잘 살아왔다. 나름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 다니면서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모았다. 사랑하는 아내와 토끼 같은 딸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차, 문득 월급만으론 미래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그간 모은 돈 털고 용자 받아서 펜션 사업에 뛰어들었다. 오랜만에 만난 고교 동창 박사장을 통해 시세보다 싸게 구입한 전망 좋은 펜션. 그런데... 원래 사기는 지인에게 당한다고 했던가. 박사장이 펜션 주변에 리조트를 세우기 시작한다. 하루 종일 공사하는 소음에 견딜 수 없다. 당연히 손님도 없다. 아내는 이혼을 선언했고 아이마저 빼앗길 위기다. 살아오던 삶이 갑자기 부정당하고 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평탄하다고 생각했던 인생이 거침없이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왜 한 번도 꿈수 부린 적 없는 내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신에게 따지고 싶다.

### 오경수(31세, 남) 경찰공무원 준비생

5년간 온갖 알바를 전전하면서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고, 결국 기적적으로 필기에 합격했다. 남은 건 면접뿐이다. 면접이라면 자신 있었다. 이제 정말 꽃길만 남았구나 싶었다. 눈물 나게 행복했다. 하지만 면접을 앞두고 얼토당토않은 사건에 휘말리면서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당한다. 깊은 수렁으로 추락한 경수는 그 수렁에서 헤쳐 나올 용기도 기력도 모두 상실한다. 경수는 단 며칠만이라도 폭 쉬었다가 제대로 망한 이번 생을 버리려 한다.

김지훈  
hochoe@daum.net

- 2011 • 전주 시나리오 공모전 <해무> 대상
- 2013 • 영화사 통 <녹슨 총> 각본
- 2018 • 오픈 드라마 부문 당선
  - tvN 드라마 스테이지 <안녕! 싱크홀> 극본

한유림(28세, 여) 회사원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해서 작은 충격에도 심장이 멎는다. 하루하루가 살얼음을 걷는 기분이다. 회사 연수원 자리를 알아보려 병태 펜션 인근을 지나가다 갑자기 꺼진 싱크홀에 차량이 전복되고 그 충격으로 심장이 멎는다.

박사장(47세, 남) 리조트 사장

세상을 버리느니 친구를 버리는 게 낫다. 처음부터 사기꾼은 아니었다. 하지만 성실하고 정직하게만 살기에는 세상이 요지경이다. 속으면 네 탓, 안 속아도 네 능력. 안 미안하냐고? 안 미안하다. 왜냐? 내가 사기당할 때도 아무도 나한테 안 미안해했으니까. 병태의 친하지 않은 고교 동창이다.

그 외

병태 아내(43), 병태 딸(6), 유림 부, 경찰 등.

---

### 줄거리

‘완벽하던 내 인생, 왜 갑자기 시궁창?’

아내가 이혼서류를 남기고 떠난 날 병태는 삶을 꾸려갈 모든 기력을 잃는다. 설상가상으로 어렵사리 마련한 펜션엔 손님이 단 한 명도 없다. 사실 당연한 일이다. 인근에서 들려오는 리조트 공사 소음을 벗 삼아 펜션에 쉬러 올 손님은 없다. 은행에서는 밀린 대출이자를 빌미로 펜션을 빼앗으려 혈안이 돼 있다. 지인들부터 제2, 제3금융권까지 돈 빌릴 구멍을 찾아 술하게 뛰어다녀도 봤지만 이젠 희망이 없다. 이번 생은 여기까진가 보다. 그래, 죽자. 병태가 나무에 목을 매려는 순간 핸드폰이 자지러지게 울린다.

‘시작부터 치열하기만 했던 내 인생, 이제 그만하고 존엄하게 죽고 싶다.’

병태는 방값 한 푼 벌겠다고 자살을 다음으로 미룬다. 비에 흠뻑 젖은 채 나타난 손님, 경수. 경수는 한눈에 보기에 도 수상하다. 한밤중에 혼자 깊은 산속 펜션을 찾아온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경수의 눈빛과 태도가 이상하다. 뭔가를 감추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게다가 그가 끌고 온 엄청난 사이즈의

캐리어가 자꾸 눈에 거슬린다. 설마 시체가 담겨 있는 건 아니겠지? 병태는 경수를 손님으로 받기가 영 꺼림칙한데. 그런 병태의 마음을 간파한 듯, 경수가 5만 원 다발을 내민다. 병태는 놀라며 경수의 가방을 뚫어져라 본다. 설마, 저 가방 안에 현금이? 병태는 침을 꿀꺽 삼킨다.

그날 밤, 병태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을 깬다. 처음엔 박사장의 공사현장에서 난 소음인 줄 알았다. 아니었다. 경수의 방에서 난 소리였다. 병태가 의아해하며 경수의 방으로 들어선 순간, 기합한다. 경수가 자살을 시도하고 있던 것이다. 한발만 늦었어도 경수의 사체를 치울 뻔했다. 병태는 경수를 당장 내쫓으려 한다. 하지만 경수의 한마디에 멈칫한다.

“잘 죽게 해주세요. 돈 드릴게요.”

경수는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생을 마감하고 싶었다. 그래서 병태에게 3천만 원을 자신의 목숨값으로 제안한다. 경수의 조건은 두 가지다. 자신이 펜션에서 편히 죽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것, 또 죽은 다음 자신을 양지바른 곳에 고이 묻어달라는 것이다. 경수는 자신이 고아라 찾을 사람도 없어서, 장사에 절대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병태를 설득한다. 병태는 솔직히 솔깃해한다. 지금 자신의 처지에 3천만 원은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당장이 중요한 법이다. 그 돈이면 은행이자도, 펜션 보수공사도, 아내에게 송금도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시간을 갖고 펜션을 매각하면 된다. 그래도 어찌 죽겠다는 사람을 방치한다 말인가! 안 될 말이다, 절대.

‘이판사판 막판이다.’

은행에서 최후통첩이 온다. 병태는 펜션에서 기어코 쫓겨날 판이다. 게다가 아내가 아이마저 데려가려 한다. 도리고 나발이고, 막말로 객사할 사람 거둬주고 시신도 고이 수습해주는 게 오히려 더 인간적인 거 아닌가? 합리화인가? 모르겠다. 병태는 경수와 거래를 한다. 경수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눈물까지 쏟는다.

‘왜 안 죽어? 언제 죽어?’

곧 죽을 것처럼 말하던 경수가 막상 계약을 하고 나니 죽지 않는다. 아침 운동을 시작하질 않나, 비타민까지 챙겨 먹는다. 빈둥빈둥 한량도 이런 한량이 없다.



병태는 하루라도 빨리 돈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빨리 죽으라 채근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또 하루하루 시체랑 사는 거 같아 찻찻한 기분까지 든다. 결국 병태가 폭발한다.

너 언제 죽을 거니? 그 말에 발끈한 경수가 선언한다. 오늘 밤…!

경수는 계획대로 편히 죽을 수 있을까?

병태는 계약대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안녕! 싱크홀

김지훈

## #1 프롤로그

어두운 가운데 빗물 떨어지는 소리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 위로…

병태(E) 사람 살려!

조금 밝아지면 진흙 아래 깔려 있던 병태가 “푸하” 가깝스로 헤쳐 나온다.  
병태는 빗물이 떨어지고 무너진 건물에 갇혀 있다. 병태가 조금만 움직여도 건물이 빠져덕거리며 금방이라도 붕괴될 듯 위태롭다.  
병태는 사방을 더듬으며 탈출구를 찾지만… 없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가는 목소리…

경수(E) … 사장님…

병태가 소리 나는 방향을 매섭게 쏘아본다. 붕괴로 인해 건너편이 막혀 있다.

병태(E) 모든 게 다… 저 손님 때문이다.

병태의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 위로-  
타이틀. “안녕! 싱크홀”

## #2 리조트 건설현장(낮)

[○○리조트 공사현장] 현수막이 걸려 있고, 공사가 한창이다.  
병태가 한 사내, 박사장과 드잡이를 하고 있다. 병태, 한여름 띄약벌 아래

얼굴이 시뻘겋다.

병태 공사 멈추랬지! 이려고도 니가 친구냐.  
박사장 졸업하고 몇 번이나 봤다고 친구 타령이야!  
그리고, 친구라서 펜션 샀어? 니 돈 벌겠다고 샀잖아.  
병태 니가 속여서 팔았잖아.  
박사장 시세보다 싸게 넘긴 게 속인 거냐?  
병태 리조트 짓는 거 왜 숨겼냐! 천벌 받을 거야, 이 사기꾼 놈아!  
박사장 천벌? (코웃음) 처벌 받기 전에 얼른 꺼져!

박사장이 인부들에게 눈짓을 하자 병태는 인부들에게 끌려  
내동댕이쳐진다.

병태 진짜 누구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박사장(E) 니 집 가서 죽어!  
병태 (분해서 죽을 맛이다)

### #3 펜션 마당(낮)

인서트.  
펜션 전경.

병태가 터덜터덜 텅 빈 펜션으로 들어온다. 멀리서 들려오는 공사장 소음.  
병태는 펜션을 둘러보고 한숨. 안채로 들어간다.

### #4 병태 숙소(낮)

병태가 안방으로 들어가면 도둑이라도 맞은 듯 아수라장이다.

병태 (놀라며) 혜연아! (아이 방 문을 열고) 다래야.

아이의 방도 텅 빈 채 어수선하긴 마찬가지다.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발견하고 보면, 이혼서류.

병태, 아내와 아이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바라보며 통화 중이다. 신호음이  
가다 소리שמ으로 넘어간다.

병태 애는 내가 책임져. 애는 절대 안 돼! 알았어!  
소리שמ(E) 저장하시겠습니까?

병태, 고민하다 종료 버튼 누르면, (E) 소리שמ “취소되었습니다.”  
병태, 털퍼덕 주저앉는다.

병태 (자조 섞인) 병신... 쪼다... 등신...

### #5 산길(밤)

병태가 언덕을 오른다. 언뜻 등산을 하는 듯 보이지만 표정만은 심각하다.

### #6 언덕(밤)

병태가 우뚝 솟은 나무를 올려다보다 배낭에서 밧줄, 줄자, 비닐 등을  
꺼낸다. 비닐을 바닥에 펼쳐 깔고, 줄자로 나뭇가지와 바닥의 거리를 재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 나뭇가지가 튼튼한지 확인하고, 밧줄을 가지에  
걸고, 매듭을 꼼꼼하게 짓는다. 가볍게 전신 스트레칭을 하는데 특히  
목운동에 신경을 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에 밧줄을 맨다. 웬지 눈물이  
난다. 어금니를 꽉 깨문다. ‘하나... 둘... 셋...!’ 점프하는 순간,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핸드폰 벨소리가 자지러진다.  
병태, 깜짝 놀라며 핸드폰을 찾아 주머니를 뒤지다 발을 삐끗하면서  
아래로 떨어진다. 병태, 본능적으로 밧줄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악착같이  
매달린다. 병태, 밧줄을 당겨 나뭇가지로 기어 올라간다.

병태 (짧은 순간 눈물 콧물 다 쏟았다) 킁킁... 아씨 죽을 뻔했네.

그사이 꺼졌던 벨소리가 다시 울린다. 병태가 “빌어먹을 핸드폰!” 하며 핸드폰 종료 버튼을 누르려다 실수로 통화 버튼을 누른다.

경수(E) 여보세요? 거기 방 있어요?  
병태 (순간 다리 힘이 썩 빠져 주저앉는다) 바... 방이요...? 있긴 한데 제가 지금 좀 바쁜데...  
경수(E) 지금 펜션 앞인데요, 어디세요?  
병태 (움찔하고) 아 잠깐 장 보러...  
경수(E) 언제 오시는데요?  
병태 다 왔어요, 요 바로 앞에. (전화 끊고)

병태, 잠시 고민하다 목에 맨 밧줄 풀고 나무에서 내려온다. 조심조심... 그런 병태의 모습이 누군가의 시선으로 보인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한다.

## #7 펜션 마당(밤)

비가 역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병태가 마당에 들어선다. 둘러보면 아무도 없다.

병태 어디 있는 거야...? (핸드폰 재발신을 누르는데)

번개가 번쩍이고, 병태 바로 앞에 흠뻑 젖은 한 사내, 경수가 우뚝 서 있다. 병태, 놀라고.

병태 아아악! 당신 뭐야!  
경수 ... 오래 기다렸어요.  
병태 손님?!  
경수 (슬쩍 훑으며) 장 보고 오셨는데 짐이 없으시네요?  
병태 (당황) 아 그게... 차에...  
경수 아, 차에.

## #8 펜션 복도(밤)

병태가 경수에게 빈방들을 보여주고 있다. 국화, 백일홍 등 꽃 이름이 붙은 방들.

경수는 바퀴 달린 엄청 큰 이민가방을 질질 끌며 방들을 구경한다. 경수는 방들을 보고 나오며 뭔가 아쉬워하는 표정이다.

경수 방이 많네요.  
병태 장마에 비수기라 뭐... (유독 큰 이민가방 이상하게 보며) 근데 혼자 오셨어요?  
경수 혼자 오면 안 돼요?  
병태 아뇨,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얼마나 지내실 건지...?  
경수 상황 봐서요.  
병태 어떤 상황...?  
경수 그냥 혼자 처리할 게 있어서요. (병태가 미심쩍게 보자) 꼭 말해야 하나요?  
병태 아 뭐 그냥 뭐 도움 일이 있을까 해서...

병태의 시선으로 진흙이 잔뜩 묻은 경수의 신발이 보인다. 경수, 신발을 슬쩍 뒤로 뺀다. 병태, 경수의 가방으로 시선을 돌린다.

병태 크네요. 뭐가 들었어요?  
경수 (적대적으로) 그게 왜 궁금한데요?  
병태 아니 뭐... (앞장서며) 마지막 방 봅시다.

## #9 아네모네 방(밤)

병태 이 방이 제일 좋은 방이죠.

경수가 욕실에서 나온다.

경수 욕조가 맘에 드네요... 이 방으로 할게요.

경수가 이민가방에서 5만 원권 한 다발을 꺼내, 그중 열 장을 착착 세어 병태에게 건넨다. 병태, 놀란 눈으로 5만 원권 다발과 경수를 번갈아 보다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는다.

병태 너무 많은데…  
경수 남으면 되실할 때 돌려주세요.  
병태 그럼 편히 쉬세요. (문을 닫고 나간다)

경수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면, 병태가 문 앞에서 머뭇거리다 돌아간다.  
경수, 휴… 가방을 본다.

### #10 병태 숙소(밤)

인서트.  
경수가 가방을 여는 순간, 돈 뭉치들이 눈부시게 빛난다.

병태,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눈을 감고 “자자, 자.” 하며 뒤척인다.

### #11 아네모네 방(밤)

경수, 가방 지퍼를 주욱 연다. 잠시 안을 바라보다 천천히 짐을 하나둘 꺼내놓는다. 보면 밧줄, 가스통, 타이머, 호스, 약통, 밀봉비닐 등 자살도구들이다. 경수가 신중하게 그중 하나를 집어 든다.

### #12 병태 숙소(밤)

느닷없이 우당탕 소리가 터진다. 겨우 잠든 병태가 화들짝 놀라며 깬다.

병태 이젠 오밤중까지 공사를… 뒤졌어…! (벌떡 일어난다)

### #13 펜션 마당(밤)

병태가 플래시를 비추며 주변을 훑는다. 어느새 비는 그치고 고요하다. 다시 우당탕 소리가 들린다. 소리 나는 방향을 보면 불 켜진 경수 방이다.

병태 뭐야…?

### #14 아네모네 방 앞(밤)

병태는 창문으로 다가가 창틈으로 안을 슬쩍 들여다본다.  
방 안에 자살도구들이 즐비하고 경수는 보이지 않는다. 놀란 병태가 문을 두드리자 아무 반응이 없다. 병태, 마스터키로 문을 따고 들어간다.

### #15 아네모네 방(밤)

병태는 마루에 널브러져 있는 물건들에 아연한다. 방문들을 열며…

병태 이봐, 어딴어?

병태가 욕실 문을 열자, 경수가 욕조에 누워 칼을 손목에 대고 벌벌벌 떨고 있다. 병태, 냉큼 뛰어가 칼을 낚아채 던지고 경수의 멱살을 잡는다.

병태 너 왜지고 싶어!

경수 (홀쩍이며) … 네…

병태 미친… 누구 망하게 하려고 걱정했어…!

경수 … 아니에요…

병태 그럼 그건 뭔데? 손목 긋고 죽으려 했잖아!

경수 (병태의 손목을 힘차게 뿌리치고) 오늘은 아니라고요! 오늘은 그냥 테스트였어요.

병태 (어이없다)

## #16 아네모네 방(밤)

서너 개의 술병이 나뒹굴고, 두 사람 얼추 취기가 올랐다.

병태 내일 짐 싸서 나가. 방값은 돌려줄게.  
 경수 이 엄동설한에 허허벌판으로 내쫓으시게요?  
 병태 한여름에 웬 엄동설한 타령이야. 허허벌판은 또 뭐야? 좁만 나가면 버스에, 택신데.  
 경수 그동안 제가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센스라곤 일도 없으시네요.  
 병태 말장난 때려치우고, 내 집에선 절대 멋대로 못 죽어.  
 경수 그럼 허락받으면 돼요?  
 병태 너 정말 죽을래!  
 경수 네! 근데 아무 데서나 막 죽고 싶진 않아요.  
 고통 없이 인간답게 죽고 싶어요. 존엄사!  
 병태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존엄... (곱씹고) 다 좋은데... 그 나이에 왜 벌써 가려고 해?  
 경수 그건... 나중에 제가 죽거들랑 유서를 보세요. (쑥스럽다는 듯 피식 웃는데 좀 기괴하다. 돌연 바짝 다가와 노려보며) 대신요, 저 가방에 있는 제 돈 모두 가지세요.

병태, 어이없어 코웃음 치지만 가방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경수, 욕실로 가서 변기에 앉는다.

경수 저... 막 내쫓으시면... 죽어서도 여길 떠나지 않고... 귀곡산장 만들 거예요... (얕은 채로 까무룩 잠이 든다)

병태는 경수를 끌고 와 침대에 눕힌다. 병태는 경수의 주머니를 뒤져 핸드폰을 꺼낸다. 전원을 켜지만 비번이 계속 틀려 열 수가 없다. 포기하고 전원을 끈다. 지갑을 뒤져도 신분증 하나 없다. 그러다 구석에 있는 돈 가방이 눈에 들어온다. 조심스레 다가가보면, 단단한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 병태, 돈 가방을 들어본다. 꽤나 묵직하다. 병태의 심장이 두근거린다. 병태, 가방을 탁 내려놓고 코 골며 뺨은 경수에게 다가가 뺨을

때린다. 경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쿨쿨 잔다.

## #17 아네모네 방(아침)

인서트.  
펜션이 화창한 날씨와 어울려 산뜻하게 보이지만 멀리서 공사 소음이 들려온다.

병태, 드드드- 바닥으로 전해지는 공사 진동에 부스스 잠을 깬다.

병태 아 저 새끼들이... 댕바람부터...

그러다 여기가 어딘가 싶다가, 바닥에 나뒹구는 자살도구들을 보고 정신을 차린다.  
침대를 보면, 경수는 없고 어제 입고 잤던 옷만 놓여 있다.  
돈 가방을 확인하면... 있다!

병태 (불길한) 어딜 간 거야...?

병태, 욕실 문을 벌컥 열고 보면... 경수가 없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린다. 병태가 깜짝 놀라 돌아보면 산뜻한 추리닝 세트를 아래위로 차려입은 경수가 밝은 표정으로 스트레칭을 하며 들어온다.

경수 아침에 달리고 나니깐, 상쾌하니... 죽을 맘이 짝 가시네요. 덕분에 것 같아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벌컥벌컥 마신다)

병태, 경수를 어이없이 바라보다 자신도 모르게 돈 가방에 눈길이 간다. 째.

## #18 창고(낮)

병태와 경수가 자살도구들을 창고에 쑤셔 박고 자물쇠로 문을 잠근다.

경수 열쇠는 사장님이 보관해주세요.  
병태 왜 버리지 않고?  
경수 막상 금연하면 남은 담배 버리긴 좀 아깝잖아요.  
(어깨 짹 펴고) 아 오늘부터 새 인생! 유후!

경수, 혼자 들뜨고 신이 나서 펄쩍펄쩍 뛰기까지 한다.  
병태는 경수가 좀 무섭다.

## #19 식당(낮)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 경수가 밥과 함께 알약 서너 개를 삼킨다.

병태 (뜨악하게 보며) 그건 뭐냐?  
경수 비타민요. 종합비타민이랑 오메가3은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이건 비타민D, 이건 루테인. 하나 드릴까요?  
병태 너나 많이 드시고 장수하세요.  
경수 죽기 전까진 건강해야죠.  
병태 언제 나갈 건데?  
경수 (정색하고) 만약 제가 죽는다면 이런 친환경에서 죽고 싶어요.  
병태 (발끈) 안 죽는다며!  
경수 그래서 만약이라고 했잖아요.  
병태 죽는다... 죽는다... 아 거슬려 죽겠네. 야 너 당장 꺼져.

경수, 벌떡 일어난다. 병태, 긴장하고 보면, 경수, 무릎 팍 꿇는다.

경수 안 죽을 수도 있다고요! 친환경에서 찬찬히 생각 좀 하다 보면 안 죽을 수도 있겠단 말이에요! 거뒀주세요 쫘!  
병태 아 됐고, 그럼 너 약속해. 앞으로 살 궁리 할 거지?  
경수 대신... (일어서며) 자꾸 보채지 마세요.  
병태 내가?  
경수 죽지 말라고, 내쫓겠다고, 자꾸 스트레스 주시잖아요.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거 모르세요! (씩씩거리며 식당을 나간다)  
병태 (어이없는) 저 새끼 죽겠다는 거야, 살겠다는 거야?

베란다 창으로 세단 한 대가 들어와 주차하는 모습이 보인다.  
정장 입은 사내가 차에서 내려 병태에게 깡뚫이 인사한다.  
병태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 #20 마당(낮)

경수가 옷통을 끼고 역기를 들며 운동하다 세단으로 슬쩍 다가가 차 안을 들여다보면, 명함 “○○은행. 채권추심팀. 과장 ○○○”이 보인다.  
경수가 사무실 안을 들여다보면, 병태가 정장 사내에게 짹짹하며 서류에 사인을 한다.

시간 경과.  
검정 세단이 먼지를 일으키며 펜션을 떠난다.

## #21 사무실(낮)

병태가 소파에 앉아 침울하다. 경수가 병태의 눈치를 살피며 들어온다.

경수 저 사람 뭐예요?  
병태 채무 뺏에 나도 쫓겨난다.  
경수 언제요?  
병태 곧.  
경수 이자가 얼마데요?  
병태 얼마면?  
경수 (갑자기 심각해져서 왔다 갔다 하다) 그럼 전요?  
병태 (귀찮다. 나가라고 손짓한다)  
경수 아 진짜 무책임하시다. (문을 뿡 닫고 나간다)  
병태 (발끈) 니가 퍽이나 할 소리다! (그러다 문득 똥가를 떠올린다)

## #22 아네모네 방(밤)

인서트.

펜션 전경. 천등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진다.

경수가 식탁에 앉아 식탁 위를 보면, 수면제 한 통이 놓여 있다. 경수가 심호흡을 하고 약을 삼키려는 순간, 번개가 번쩍이고, 경수, 기함하며 놀란다. 경수 시선으로 베란다 창문을 보면, 비에 젖은 병태가 우뚝 서서 뻘뻘히 노려보고 있다.

병태 (창을 드르륵 열며) 그거 갖고 배부르겠나?  
경수 …  
병태 (손가락 까딱이며) 나와.

## #23 바비큐장(밤)

여전히 비가 내리는 가운데, 병태는 고기를 구워 쟁반에 놓는다.  
경수가 병태 눈치만 보고 있다.

병태 너 살 생각 없지?  
경수 죄송합니다.  
병태 식기 전에 먹어.  
경수 (한두 점 집어먹더니 맛있는 듯 허겁지겁 먹다가 탄 부위 발견하자, 인상 팍 찌푸리며) 고기 좀 태우지 마세요. 저 탄 거 안 먹는단 말예요.  
병태 (슬쩍 눈치 보며) 지난번에 술 먹고 했던 얘기 기억 안 나지?  
경수 무슨…?  
병태 (끄….) 많이 먹어. 죽어서 때깔이나 곱게.  
경수 … 저… 죽기들랑 돈요?  
병태 (뜨끔) 그 말… 진심이나?  
경수 그러려고 보증금 빼 왔는데.  
병태 (술잔 벌컥 들이켜고) 해.

경수 (뻘뻘히 보며)  
병태 여기서 죽으라고.  
경수 정말요? (벌떡 일어나 꾸벅 절하고) 진짜 사람 하나 살리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병태 할 말은 아니지만… 돈은 얼마나…?  
경수 그동안 모은 돈 전부예요… 대략 3천 정도…  
병태 3천?  
경수 너무 적으세요…?  
병태 한 푼이 아쉬운 마당에 그거 적은 돈 아니다. 문제는… 가뜩이나 리조트 공사 땀에 장사가 안 되는데… 자살한 거 소문나면… 정말 폭망하는데…  
경수 소문이 안 나면 되죠.  
병태 어떻게?  
경수 저 고아라 죽어도 찾을 가족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남들한테 들키지 않고 묻어주시면 돼요. 제가 조강하면서 발견했는데요, 저 위 언덕 있잖아요, 거기 뷰가 좋던데요. (잔을 비우고) 대신 돈은 죽은 다음에 가지세요. 혹시 안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방값 부족하면 말씀하시고요.  
병태 죽기 전에 미리 꼭 말해야 한다.  
경수 그럼 계약한 겁니다.  
병태 그래.  
경수 아 후련하다. 이젠 정말 맘 편히 죽을 것 같다.

경수, 술을 들이켠다. 병태, 애써 밝게 웃는 경수를 보니 왠지 짠하다.

## #24 언덕(낮)

펜션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처음에 병태가 자살하려던 그 나무 아래다. 병태, 주변을 살피며 열심히 삽질을 한다. 보면, 사람 하나 들어갈 공간이다. 병태, 허리를 펴고 땀을 닦으며 펜션을 내려다보면, 경수가 낚시 의자에 앉아 옷통을 깬 채,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선댄을 즐기고 있다.

병태 지 무덤은 지가 파지 새끼...

그때 승용차 한 대가 들어선다. 경수가 잠에서 깨고, 차 문이 열리면 한 여자와 아이가 내린다. 병태, 샅을 바닥에 꿋고 달려 내려간다.

### #25 병태 숙소 / 아이 방(낮)

아이가 가방에 장난감들을 싸고 있다. 병태는 곁에 붙어 앉아 짐 싸는 걸 돕는다.

병태 아빠가 곧 갈게. 그동안 잘 지내고 있어.

다래 아빠, 울 거야?

병태 그럼!

다래 아닌데... 엄마가 아빤 평생 여기서 살 거였는데...

병태 !

병태, '이 여자가...' 발끈하는데 아내, 문 앞에서 병태를 뚱히 보고 있다.

### #26 안방(낮)

병태와 아내 대치 중이다.

아내 (이혼서류 내밀며) 찍어.

병태 돈이 좀 생길 것 같아. 일단 급한 대로 밀린 은행이자 갚고 시간 갖고 펜션 팔면...

아내 또 빚낼 거야? (한숨 쉬고, 서류 바닥에 내려놓고) 도장 찍어서 엄마 집에 보내. (나가는데 병태가 잡자 버럭) 그렇게 사업은 아무나 해! (눈물 그렁그렁 맺힌)

병태 해연아...

아내 (눈물 닦고) 더 이상 터치 안 할게. 멋대로 살아.

병태 (발끈) 다래는 내가 키워!

아내 애 인생까지 망치고 싶어? 주제 파악해 줘!

병태 너 이런 여자였어?

아내 내가 원래 그랬어? (병태 할 말 잃고) 이런 여자로 만든 건 당신이야. (문을 쿵 닫고 나간다)

병태 ...

### #27 마당(낮)

아내의 승용차가 마당을 빠져나간다. 다래가 차창에서 손을 흔든다. 병태, 애써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준다. 병태, 착잡하다.

### #28 거실 + 주방(낮)

경수, 소파에 널브러져 TV로 예능을 보며 길길거리고 있다.

병태, 들어서서 경수를 잠시 째리다 주방에 들어간다. 쟁그랑 소리.

병태, "악!" 경수, 소파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가면 바닥에 맥주병이 깨져 있고 병태의 손에서 피가 난다.

경수 (슬쩍 보고) 괜찮으세요? (병태가 대답 없자 다가가며) 봐요. 많이 다치셨어요? (손잡으면)

병태 (뿌리치고) 됐다고 했잖아!

경수 언제 됐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왜 저한테 짜증이세요?

병태 (잠시 보다) 넌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 소식이 없냐?

경수 지금 저 안 죽는다고 이러는 거예요?

병태 됐다. 말을 말자.

경수 돈 뺏에 그러시잖아요. 저요, 방값 냈거든요. 사는 동안만이라도 좀 맘 편히 삽시다. 나 죽거든 후회 마시고!

병태 후회? 니가 감사해야지!

경수 (노려보다) 예 오늘 밤에 감사할게요.

병태 오늘 밤?

경수 예. 오늘 밤요!

경수, 밖으로 나가면, 병태 '정말인가...?' 싶다.



## #29 아네모네 방 앞(밤)

병태가 초조하게 서성이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면, 경수, 마치 명상이라도 하듯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다. 다시 서성이다 창문 틈을 보면, 경수가 창틈으로 뻗어 보고 있다. 병태, 기합한다. 경수, 손가락 까딱이며 들어오라고 한다.

## #30 아네모네 방(밤)

경수 정말 오늘 밤 넘기지 않을게요.  
 병태 정말? (심호흡하고) 일단 침착하자. 흥분하지 마 절대! 알았어?  
 경수 사장님만 침착하시면 돼요.  
 병태 그런가? 하여튼, 어... 일단... 결심한 그 용기를 대단히 높이 사고 싶고... (빠직 보고) 너 혹시 오늘 낮에 나 땀에 이르는 건 아니지? 아니겠지. 생사가 달린 문젠데... 자, 가만 보자... 그럼... 우리 뭐부터 해야 하지?  
 경수 우리요?  
 병태 아, 아니, 너.  
 경수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이에요. 방법을 어떻게 할까... 번개탄 어때요?  
 병태 그건 절대 안 돼. 일단 그 탄내가 방 안에 배어서 도배며 장판 싹 다 새로 해야 하고... 그 냄새... 정말 안 가서...  
 경수 잘 아시네요?  
 병태 너도 민폐 끼치지 않고 최대한 깔끔하게 죽고 싶잖아.  
 경수 그럼... 목매달기?  
 병태 사후처리가 지저분하고, 생각보다 니가 고통스러울 거야.  
 경수 저도 고통 없이 죽고 싶어요. 그럼 한 번 시도했던... 손목 긋기?  
 병태 피 좋아해?  
 경수 (도리 치며) 절대요.  
 병태 피 철철 넘치는 육조... 끄찍해. 나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릴 거야.  
 경수 저도 피 보면서까지 죽고 싶진 않아요.  
 병태 고통도 없고, 깔끔하게 죽는 방법은 없나...?

## #31 창고 앞(밤)

창고에서 꺼낸 자살도구들이 널브러져 있다. 두 사람 모두 지치고 쾅하다.

병태 (질소통을 바닥에 툭 던지며) 웬 쓰레기들만 잔뜩... 질소통엔 질소가 없고, 호수는 다 구멍 뚫렸고... 죄다 불량품이잖아.  
 경수 자살세트라고 비싸게 샀는데 제대로 눈탱이 맞았네요. 개시키들.  
 병태 (짜증) 넌 어째 마지막까지 어리바리하게 당하나?  
 경수 (예민한) 사장님도 만만치 않잖아요.  
 병태 내가 뭐?  
 경수 됐어요. 큼. (두 눈을 꺾꺾 누르며 몹시 피곤하다)  
 병태 (슬쩍 보며) 근데 너... 꼭 방에서 죽어야겠냐?  
 경수 (발끈) 객사, 익사, 동사, 황사, 아사, 분사... 이런 건 절대 싫어요. 존엄하게 죽고 싶다고 했잖아요! 아니, 아무 데서나 막 죽을 거면 제가 왜 사장님한테 돈을 드려요?  
 병태 거 몇 푼이나 된다고 생색은. (짜증) 넌 죽겠다는 애가... 준비성도 없고 계획도 없고... 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안 봐도 비디오다.  
 경수 (히끔하고 돌아서 가며) 오늘은 망했어요. 널 다시 하죠.  
 병태 (잡고 돌려세워) 야 이런 건 딱 맘 썼을 때 해야 해! 내일은 없어!  
 경수 (뻘뻘 보며) 그럼 사장님이 도와주실래요?  
 병태 (뜨악한) 뭐?  
 경수 (병태의 손을 들어 자신의 목에 대며) 어때요?  
 병태 (화들짝 놀라며 손을 떼고) 이런 미친!  
 경수 (짜려보며) 뭐가 달라요? 왜 겁나요?

병태, 자신도 모르게 경수에게 주먹을 날린다. 경수도 지지 않고 병태에게 덤빈다. 두 사람 뒤엉켜 바닥을 구르며 싸운다. “죽어라 죽어!” 하며 악다구니도 친다. 그러다 두 사람 순간 멈칫한다. 뭔가 싸한 기운에 고개 들어보면 한 여자, 유림이 옷이 찢기고 피를 뚝뚝 흘린 채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다. 두 사람 비명을 지르며 서로를 끌어안는다.

유림 살려...주세요... (풀썩 쓰러진다)

병태가 유림을 가볍게 흔들며 “이봐요, 괜찮아요?” 하지만 유림은 꿈쩍 않는다.

경수 주, 죽었어요?  
병태 숨을... (유림의 코에 귀를 대보고) 안 쉬어.  
경수 (!) 비켜봐요.

경수가 유림에게 다가가 숨을 확인한 뒤 기도를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한다.

병태 야, 할 줄 알아? 바로 병원 가는 게 낫지 않아?

경수는 대답 없이 온 신경을 집중해서 힘차게 심폐소생술을 한다.  
조금 지나... 유림이 기침을 하듯 숨을 토한다. 병태가 경수를 경이롭게 바라본다. 휴... 경수가 유림의 목덜미를 만지곤 한숨 쉰다.

경수 차요.  
병태 많이 차? 번개탄이라도 피울까?  
경수 그거 말고...  
병태 아, 따듯한 차? 뭐 녹차?  
경수 병원 가야죠!  
병태 아, 그 차!

병태가 서둘러 뛰어간다. 경수, 자살배낭에서 비닐과 담요를 꺼내 유림의 몸을 감싸준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 #32 차 안(밤)

인서트.  
비포장도로. 병태의 차량이 폭우가 쏟아지는 악천후를 뚫고 울퉁불퉁한 도로를 위태롭게 달린다.

병태가 운전하고 뒷좌석엔 경수가 정신을 잃은 유림을 부축하고 있다. 조금 지나 도로가에 라이트가 켜진 고급 세단이 전복되어 있는 게 보인다.

병태 (차 속도를 늦추며) 저 차 주인인가 보다... 다른 사람 없지?  
경수 (유심히 살펴며) 없는 거 같아요. 빨리 가요. 체온이 떨어져요.  
병태 아니 왜 저 길이 꺼졌지? 이상하네...

병태, 바짝 긴장한 채 전방을 주시하며 속도를 올린다.

인서트.  
병태의 차가 사고현장을 스쳐 지나가면, 전복되어 있는 유림의 세단 주변에서 마치 싱크홀처럼 바닥이 서서히 함몰되어 간다. 그로 인해 생긴 작은 고랑으로 빗물이 흘러들고 그 물길을 따라 쪽 내려가면 리조트 공사현장이 나온다.

### #33 병원 응급실(밤)

인서트.  
병원 전경. 비가 그쳤다.

유림이 침상에 누워 의료진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 있다.  
경수, 한쪽 구석에 서서 긴박한 내부 풍경을 바라본다... 고통에 신음하는 환자들... 살리기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 그러다 한 환자가 죽는다... 의료진이 고개를 젓자 보호자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실신한다.  
경수, 착잡한 표정으로 자리를 뜬다.

### #34 응급실 복도(밤)

병태가 경찰에게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두 분이서 구하셨다는데... 한 분은 어디 계시죠?  
병태 (둘러보곤) 어? 애가 어디 갔지? 화장실 갔나?

경찰 두 분은 어떤 사이시죠?  
 병태 (웬지 찢리는) 어떤 사이라뇨? (경찰이 뻔히 보자) 아, 손님이죠 손님. 내일 바로 퇴실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사이도 아니죠.  
 경찰 (병태가 당황하자 웬지 의심스러운) 하여튼 큰일 하셨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병태 (손사래 치며) 아뇨 아뇨. 뭐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닌데요. 어차피 손님도 떠날 거고…  
 경찰 보상 문제가 아니라 보충조사가 필요할지 몰라서요.  
 병태 아 보충조사…  
 경찰 저 그럼… (응급실로 들어간다)  
 병태 (경찰이 사라지자) 괜히 찢리네… 그나저나 앤 어딜 간 거야?

하면 어느새 경수, 바로 뒤에 서 있다. 병태, 깜짝 놀란다.

병태 불쑥 나타나지 좀 마!  
 경수 (응급실을 살피며) 끝났으면 빨리 가죠.

### #35 병원 장례식장 앞(아침)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자판기 커피를 훌쩍이며 담배를 피운다.

병태 여자가 원래 심장이 안 좋았나 봐. 너 아녘음 꼼짝없이 죽었다. 생명의 은인이네?  
 경수 은인은… 개뿔…  
 병태 다시 봤어. 지 목숨은 못 구해도 남 목숨은 구하네.

“아이고!” 통곡 소리와 함께 식당에서 장례행렬이 나온다.  
 영정사진이 보이는데, 20대 젊은이다.

병태 쫓쫓… (경수를 보며) 장례식 안 해도 괜찮겠어?  
 경수 울 사람도 울 사람도 없어요.  
 병태 나도 울 것 같진 않다.

경수 아무도 울리지 않고 가는 게 전 좋아요.  
 병태 (일어서며) 내친김에 들렀다 가죠.  
 병태 어딜?

### #36 사우나(낮)

경수가 병태의 등을 밀어주고 있다. 병태는 “아 난 됐어…” 하면서도 가만히 있는다.  
 병태가 경수의 등을 밀어준다. 두 사람, 서로 묘하게 어색하다.

경수 마지막으로 때 좀 짝 빼봅시다. 힘 좀 쥐서 딱딱 밀어봐요.  
 병태 (힘주어 밀며) 힘들게 살아서 그런가… 목은 때가… 에휴…

두 사람 뒤로 배가 툭 튀어나온 한 사내, 박사장이 지나간다. 박사장이 목욕침대에 누우면 목욕관리사가 다가와 때를 밀기 시작한다. 병태는 박사장을 발견하지 못하고 경수의 등을 밀며 티격태격 장난친다.

### #37 사우나 한증막(낮)

병태와 경수가 나란히 앉아 땀을 흘리고 있다.

병태 (심폐소생술 흉내 내며) 이렇게 하는 건가?  
 경수 그렇게 하면 산 사람도 죽겠네요.  
 병태 이런 건 어디서 배웠어?  
 경수 인명구조 알바요. 제가 그래도 한 일곱 명은 살렸을걸요?  
 병태 천당 가겠네.  
 경수 죽어서 천당 가면 뭐 해요. 사는 게 지옥인데… (쑥스러워 웃는다)  
 병태 (경수를 본다)

### #38 몽타주. 경수의 회상

경수(E) 제가 경찰공무원 되려고, 정말 개처럼 달리면서 알바했거든요.

아마 제가 안 해본 알바가 없을걸요.

1. 유흥가 거리. 한여름에 인형 탈을 쓰고 재롱떠는 알바생. 탈을 벗으니 땀으로 흠뻑 젖은 경수.
2. 학원가 거리. 행인들을 피해 구석에서 컵밥을 먹으며 스마트폰으로 인강을 듣는 경수.
3. 편의점. 야간 알바하며 공부하다 꾸벅 조는 경수.

경수(E) 문제는 알바 뛰면서 점수까지 띄우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도 5년 만에 필기시험에 합격했어요.

1. 모니터 화면. ‘오경수’와 ‘필기 합격’ 문구가 뜬다. 경수, 소리 없이 눈물 주룩 흘린다.
2. 백화점. 경수, 양복 매장에서 가격표를 보고 고민하며 심호흡을 한다.
3. 고시원. 양복을 입고 누워 있는 경수. 세상 다 가진 행복한 미소…

경수(E) 필기부터 체력까지 모두 합격하고 면접만 통과하면 최합인데…  
 병태(E) 최합?  
 경수(E) 최종합격요.  
 병태(E) 설마 면접에서 떨어졌어?  
 경수(E) 안 떨어졌어요.  
 병태(E) 그럼 합격한 거야?  
 경수(E) 아예 응시도 못 했어요.  
 병태(E) 그건 또 무슨 소리야?

### #39 경수의 회상. 편의점(낮)

경수(E) 면접 보기 일주일 전인데요… 손님들이 두고 간 원플러스원 증정품을 먹었거든요… 근데 사장이 그게 절도라면서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게다가…

경수와 편의점 사장이 대치하고 있다. 사장이 뜯어진 빵 봉지를 경수에게

던진다.

사장    니가 경찰 지망생이세요? 도둑 지망생이세요?  
 경수    그게 아니라…  
 사장    없던 일로 할 테니깐, 오백 가져와.  
 경수    오백…요?  
 사장    싫어?

사장이 핸드폰으로 112를 누른다. 경수가 사장의 핸드폰을 막고 사장은 경수를 뿌리치는 와중에 사장이 제 발에 걸려 나자빠진다. 사장이 온갖 업살을 떨며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소리친다. 당황한 경수가 어쩔 줄 모른다. 그때 순찰 중이던 경찰이 들어온다. 경수는 얼음처럼 굳는다.

### #40 사우나 한증막(낮)

병태    악질이네 그놈.  
 경수    초범에 죄질이 경미해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는데… 공무원 응시자격은 박탈당했어요. 평생 긴장하고 살았는데 한순간 방심했다 인생 제대로 털린 거죠.  
 병태    그럼 다시 시험 못 봐?  
 경수    5년 후에 자격이 되긴 하는데… 그때까지 버틸 자신도 없고 다시 시험 본다고 꼭 합격하리란 보장도 없고… 이번 생은 뭐 제대로 망한 거죠.  
 병태    그 사장놈을 가만뒀어?

인서트.  
 편의점 앞. 경수가 편의점을 노려보고 있다. 계산대에 있는 편의점 사장이 경수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뭐라 욕을 퍼붓고 있다. 경수 짱들을 힘껏 던져 유리창을 와장창 박살 낸다. 편의점 사장이 뛰어나오면 경수, 주먹을 먹고 내뺀다.

병태    억울했겠네.

경수 (한숨. 병태 보며) 펜션은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으시죠?  
병태 어차피 리조트 들어서면 끝장인데. 소용 있겠어?  
경수 그럼... 제가 마지막 손님이에요?

두 사람의 눈길이 어색하게 얽힌다. 그때 한증막 안으로 들어서는 사내, 박사장이다. 박사장을 발견한 병태의 눈빛이 번뜩인다.

병태 원수는 한증막에서 만나는 법이지...  
박사장 (병태 발견하고 떨떠름) 진 빼지 말고 땀이나 빼고 가라. 조용히.  
경수 (그제야 박사장을 발견하고 흠칫 놀란다) ...  
병태 (경수에게) 넌 꼭 천당 가라, 저 새긴 꼭 지옥불에 떨어질 거니까.  
박사장 쪼다 새끼 맨날 남 탓이나 하고... 장사 좀 되면 지 능력이라고 빼겼겠지.  
병태 맨날 지진 난 것처럼 드드드... 손님이 오겠냐! 산 무너져 새끼!

박사장이 귀찮은 듯 일어나는데 살짝 휘청인다. 병태가 막아선다.

박사장 야 나 피곤해. 꺼져.  
병태 너 정말 안 미안하냐?  
박사장 비켜!  
병태 왜 하필 나야!  
박사장 니가 원했으니까!

밀치고 나가려는데 병태가 다시 막아선다. 박사장, 병태의 목을 움켜쥔다.

박사장 (발악하듯) 내가 왜 미안해! 내가 사기당했을 때, 어떤 새끼도 미안하단 소리 단 한 마디도 안 하더라!

병태가 주먹을 쥐고 날리려는 순간, 박사장 눈동자가 뒤집어지더니 병태에게 기대어 맥을 못 춘다.

병태 쇼하고 있네. (박사장 밀치는데 그대로 바닥에 쓰러진다) 뭐야?

경수 (심상찮아 박사장 숨을 확인한다) 야. 숨 쉬어!  
(놀라며 다가와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곤 잼싸게 심폐소생술을 한다)

## #41 사우나 로비(낮)

119대원들이 박사장을 이동침대에 싣고 서둘러 나간다.

병태 천벌 받은 거야 새끼. 저거 내 탓이라고 깡값 달라면 어찌지?  
경수 원래 상태가 안 좋은 거 같은데요 뭘.  
병태 우리도 조심해야 하는 거 아냐?  
경수 우리가 조심할 게 남긴 했나요?

사우나 사장과 손님들이 병태와 경수에게 다가와 칭찬하며 박수를 쳐준다. 두 사람 어깨를 으쓱하며 빠져나간다.

## #42 차 안(오후)

인서트.  
멀리 산 너머로 붉은 노을이 서서히 지고 있고, 병태의 차가 산길 오르막을 힘겹게 오른다.

병태, 운전하고 있고, 경수, 차창 밖 풍경으로 시선을 던지고 있다.

병태 너 며칠 생각 좀 해봐. 정말 죽어야 할지... 어차피 며칠 더 산다고 달라질 거 없고... 아니 몇 달 더 산다고 달라질 거 없잖아...  
경수 말씀 그대로... 며칠, 몇 달, 몇 년 더 일찍 죽는다고... 또 달라지는 건 없죠... 말은 쉬운데요, 순간순간이 고통인 사람한테... 그건 고문이에요.

병태의 핸드폰이 울린다. 병태가 발신자를 확인하고 받지 않는다.

경수 누구데요?

병태 누구긴. 빗쟁이지…  
 경수 사장님이 원하는 깔끔한 방법… 제가 원하는 고통도 없고 실패도 없는 방법만 빨리 찾죠.  
 병태 그래 빨리 끝내자… 그게 너나 나나 편한 길이겠다…

두 사람의 표정이 의미심장하다.

### #43 펜션 전경(밤)

아네모네 방에만 불이 켜져 있다.

경수(E) 얼어 죽는 건 싫다고요!

### #44 아네모네 방(밤)

방 안엔 갖가지 자살도구들로 난장판이다. 병태와 경수 몹시 지쳐 보인다. 두 사람은 인터넷으로 자살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모니터 화면엔 냉장고 광고가 떠 있다.

병태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너 정말 죽고 싶긴 한 거냐?  
 며칠째 된 개고생이냐고!  
 경수 그렇다고 한여름에 동사라뇨?  
 병태 년 시원해서 좋고 난 처리하기 편해서 좋고. 일타쌍피잖아.  
 경수 저한텐 개피박인데요. 딱 거요.

두 사람 다시 모니터 앞에 모여 있다. 병태, 끔찍한 사진들을 보는 듯 인상을 잔뜩 구기고 한쪽 눈은 감은 채 흘깃흘깃 본다. 반면 경수는 초집중이다.

경수 이 자살방법은… 고통점수 7, 수고점수 5, 성공확률 8, 민폐지수 3… 게다가 실패 시 후유증도 만만치 않아요… 고통이 너무 커요. 성공확률은 높지만.

병태 (떨떠름) 내가 보기엔 고통점수 4고 민폐지수가 8 정도 되는데? 민폐가 너무 커.  
 경수 아쉽네. 성공확률은 8 이상인데.  
 병태 그게 젤 맘에 드는데… 민폐 없이 죽는 게… 너무 큰 바람인가?  
 경수 고통 없이 죽는 게… 정말 사치인가요?  
 병태 너 수면제 얼마나 남았지?  
 경수 사실 치사랑엔 턱없이 부족해요.  
 병태 그럼 수면제하고 술을 섞어 먹고… 머리에 지퍼락을 뒤집어쓰면 어떨까? 완전 밀봉으로.  
 경수 그 방법이면… 고통은 2? 수고는 3?  
 병태 민폐는 2. 성공확률은…  
 병태, 경수 (동시에) 8에서 9! (두 사람 성취감에 서로의 어깨를 토닥인다)  
 경수 이젠 전문가 다 되셨네요. 자살 아이템 선정부터 장소 렌탈에 사후 서비스까지… 사업하셔도 되겠어요.  
 병태 (으쓱)

경수, 베란다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심호흡을 한 뒤 병태를 돌아본다.

경수 오늘 밤에 비가 올까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묻으려면 비 오는 게 낫잖아요.  
 병태 지금 내 걱정 하나? (스마트폰으로 날씨 검색하며) 오늘은 비가 안 오고… (경수 보며) 내일이다.  
 경수 그럼 내일 비 오면 하죠.  
 병태 그럼 몇 시간만 견뎌.  
 경수 몇 시간 더 사는 거 어렵겠어요?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는데.  
 병태 (보며) 잘…?

순간 두 사람의 눈길이 얽힌다. 피식 웃다… 푸하하! 자지러지게 웃기 시작한다.

병태 (배꼽 잡고) 잘 사는 놈이 죽겠다고 이 난리냐? 그래도 너 참 부럽다. 죽기를 기다려주는 사람도 있고…

경수 (바닥 구르며) 그것도 간절히요!  
 병태 죽으면 사체도 짹짹 처리해주고…

두 사람 한참을 자지러지게 웃다… 어느 순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웃음 뚝 멈춘다. 고요한 가운데… 두 사람 벌렁 드러누워 천장을 멍뚱뚱 바라본다… 잠시 후 병태,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한다.

병태 마지막 밤… 잘 자라. 좋은 꿈 꾸고. 천당 가게…

병태와 경수 어색하게 웃다 서로 더 어색하게 안으려다 포기하고 더 더 어색한 악수를 나눈다. 병태가 문을 닫고 나가자 경수 휴… 한숨 흘린다.

## #45 아네모네 방 + 병태 숙소 교차(밤)

아네모네. 경수가 정성스레 면도를 하고 있다.  
 숙소. 병태가 불안하게 서성인다.  
 아네모네. 경수가 발톱을 깎고 있다.  
 숙소. 병태가 술을 한 잔 들이킨다.  
 아네모네. 경수가 팔굽혀펴기를 맹렬히 한다.  
 숙소. 침대에 드러눕는다. 잠이 안 오는 듯 벌떡 일어난다.  
 아네모네. 옷장에 넣어두었던 양복을 꺼내 거울에 비춰본다. 만감이 교차한다…  
 숙소. 병태가 방을 나선다. 그와 동시에 침대 밑에 있던 핸드폰이 진동한다.

## #46 아네모네 방 복도(밤)

병태, 경수 방문에 노크한다. 조금 지나 양복을 입은 경수가 나온다.

병태 양복은 왜?  
 경수 여행연습 중이요. 무슨 일이신데요?  
 병태 수면제 남은 거 있지?

경수 먹고 죽을 약도 부족한데… (주머니에서 한 알 꺼내주며)  
 병태 고맙다. (경수가 문을 닫으려고 하자 잡으며) 내일 아침에 뭐 먹을래? 그래도 마지막 만찬인데 말해봐.  
 경수 만찬씩이나… 역시 한국인의 마지막은 된장이겠조?  
 병태 이런 된장…  
 경수 하.하.하. (억지웃음)  
 병태 그럼 비 오면 하는 거다.  
 경수 네, 비 오면 바로 시작할게요.

경수, 문을 닫고, 병태, 웬지 미련이 남아 잠시 머물다 돌아서 간다.

## #47 병태 숙소(밤)

병태, 약 먹고 침대에 눕는다. 얼마 후, 창문에 한두 방울 비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 #48 아네모네 방(밤)

경수, 베란다 창을 내다보면 비가 역수같이 쏟아지고 있다.

경수 하여튼. 맞으면 대한민국 일기예보가 아니지…

경수, 유서 봉투를 양복 속주머니에 넣는다.  
 침대에 앉아 술과 함께 약통을 입 안으로 털어넣어 삼키고 밀봉비닐을 뒤집어쓰고 테이프로 목둘레를 칭칭 감는다. 휴, 다 끝난 건가…?  
 공기가 새지 않는지 꼼꼼하게 체크하는데 졸음이 몰려온다.

경수 (하품을 하면서 눕는다) 안녕… (눈을 감는다)

## #49 병태 숙소(아침)

인서트.

펜션 전경. 비가 쏟아진다.

병태, 한껏 웅크린 채 잠들어 있다. 가위에 눌린 듯 인상 쓰고 몸부림을 친다.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세~!” 핸드폰이 울린다. 병태가 잠결에 핸드폰을 받는다.

병태 여보세요... 네... 맞는데요... (눈을 번쩍 뜨고) 언제요...? 오늘요? (벌떡 일어나며) 아 전화 온 줄 몰랐습니다... 근데 몇 분이냐...?

병태, 무심코 창밖으로 시선 던지다 비가 내리는 모습을 발견하고 경악한다.

경수(E) 비 오면 바로 시작할게요.

### #50 펜션(아침)

병태가 숙소에서 뛰쳐나와 비를 맞으며 아네모네 방으로 달려간다.

### #51 아네모네 방(아침)

병태가 문을 열고 들어선다. 경수는 이미 봉지를 뒤집어쓴 채 늘어져 있다.

병태 이런 미친...!

병태가 기겁하며 달려가 밀봉비닐을 뜯어낸다. 숨이... 숨이... 안 쉬어진다... 문득 심폐소생술이 떠오른다. 병태는 안간힘을 쓰고 심폐소생술을 한다... 경수, 이내 숨을 토한다... 병태는 경수를 욕실로 끌고 가서 입에 손가락을 넣고 억지로 토를 하게 한다. 우웨엑... 경수가 토를 한다... 몇 번을 반복한다...

병태가 경수를 침대에 눕힌다. 경수가 코를 골고 있다... ‘휴... 살았나 보네...’ 그때 경수의 양복 속주머니에 있는 유서 봉투를 발견한다. 병태,

봉투에서 유서를 꺼내는데 만 원짜리와 천 원짜리 몇 장이 함께 나온다. 병태의 눈동자가 떨린다.

경수(E)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 사실 돈이 없어요. 방값으로 드린 돈이 전부예요. 이제 남은 게 얼마 안 되네요. 더 이상 방값도 없어서 떠납니다. 사장님은 부디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병태, 유서와 돈을 봉투에 담아 양복 속주머니에 다시 넣고, 경수를 내려다본다.

### #52 아네모네 방(밤)

어두운 가운데... 경수, 잠에서 부스스 깬다.

경수 (머리를 움켜쥐고) 아 머리아...

그때 밖에서 신나는 음악이 들려온다. 경수,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본다. 어리둥절하다. 속주머니에 있는 유서 봉투를 확인한다. 착잡하다.

### #53 마당(밤)

현수막 [○○워크숍]이 걸려 있고, 바비큐파티를 하거나, 각종 오락용 소품을 이용해 게임을 하는 사람들 등으로 복잡하다. 마당으로 나온 경수는 당황한다. 경수, 사람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시중을 드는 병태를 발견하고 다가간다.

경수 어떻게 된 거예요?

병태 너 이틀이나 잤어. 뭐 어디 아픈 덴 없지?

경수 이틀...? 어떻게... 된 거...

병태 저분들이 널 살렸다.



경수      뭔 소리예요?  
 병태      니가 죽었어 봐. 내가 저 단체 손님을 받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저분들이 널 살린 거지.  
 경수      (여전히 어리둥절하다)  
 병태      일루 와.  
 경수      (어딜?) ...

병태가 경수를 끌고 한 테이블로 데려간다.  
 중년 사내, 유림 부가 자리에서 일어나 맞는다.

병태      (경수에게) 인사드려.  
 경수      (쭈뼛거리면) ...  
 유림 부   (다가와 덤석 손을 잡으며) 덕분에 살았습니다!  
 경수      네?

유림 부 옆에 있던 여자, 유림이 다가온다.

유림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  
 경수      누구...?  
 유림      기억 안 나세요?  
 경수      (유림을 뻔히 본다)

인서트.  
 경수의 회상.  
 마당에서 비에 흠뻑 젖은 채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유림.  
 경수, 유림에게 인공호흡을 하기 위해 입술을 포갠다.

경수      (머리가 아픈 듯 인상을 쓰며 머리를 꺾꺾 누른다) ...

## #54 펜션 일각(밤)

파티가 한창인 마당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 하늘엔 별들이 유난히

많고 밝게 빛난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쓸고 간다.  
 낭만적인 분위기다.

경수      부럽네요. 아빠 회사에서 일하시고.  
 유림      작은 회산데요 뭐. (보며) 사장님 동생이시라고...  
 경수      제가요? 동생? ... 또 뭐라고 하던가요?  
 유림      몸이 좀 편찮으셔서 요양차 머물고 계신다고...  
 경수      요양이라... (괜스레 답답해진다)  
 유림      그날... 근처에 회사 연수원 자리를 보러 왔다가 사고가 나서 심장에  
           쇼크를 받았어요... (보며) 덕분에 살았어요.  
 경수      ...  
 유림      저나 아빠나 가능한 한 보상을 해드리고 싶어요.  
 경수      펜션 사장님한테나 보상해주세요.  
 유림      (그윽하게 바라보며) 펜션 사장님은 아빠와 얘기 중이시고요... 저는  
           지금 그쪽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던 경수, 순간 속이 울렁거린다. 벌떡 일어나 구석으로  
 가서 헛구역질을 하며 괴로워한다. 유림이 다가가 등을 두드려주며  
 안절부절못한다.

유림      (부축하며) 괜찮아요?  
 경수      (유림의 손을 물리며) 아뇨, 안 괜찮아요. (추운 듯 몸을 떼다)  
 유림      (다시 부축하려고 하자)  
 경수      (차갑게) 됐어요. (유림을 뒤로하고 비틀대며 내려간다)  
 유림      ...

## #55 펜션 전경(낮)

화창한 날씨에 사람들이 집을 꾸려 차에 싣고 있다.

## #56 펜션 사무실(낮)

인서트.

프린터에서 나오는 '장기임대계약서'

병태, 프린터기가 출력하는 계약서를 보며 신이 나 있고, 경수, 긴팔을 입고 몸을 웅크린 채 뚱한 표정을 지으며 소파에 기대어 있다.

병태 이런 걸 보고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하나?

경수 ...

병태 우리 펜션을 확장해서 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싶단다. 우린 관리만 잘해주면 돼. 어때 대박이지?

경수 ... 우리요?

병태 어, 우리.

경수 그래서 절 안 죽인 거예요?

병태 말이 좀 그렇다. 아니 생각해봐. 넌 언제든 죽을 수 있지만 이런 계약은 1년에 한 번, 아니 평생 한 번 올까 말까야.

경수 저도 평생 딱 한 번 죽는 거라고요! 그것도 내 맘대로 못 죽어요?

어떻게 한 결심이고 어떻게 한 실행인데! 그게 쉬운 줄 아세요!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지... 그걸... 당신이 알아! (눈물이 그렇그렇한 채 기침을 토한다)

병태 (꼭 참고) 조용히 해. 밖에서 듣겠다. 그래 그건 내가 미안한데...

나도 좀 살아야 하지 않겠냐?

경수 우리 계약은요?

병태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 죽지 마라. 이제 나... 아니, 우리 저쪽하고 계약만 성사되면... 이 펜션 안 버리고 어떻게든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

경수 (시니컬) 그러니까 나보고 알아서 짜져라... 이거예요?

병태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나랑 같이 여기서 일하면 어떻겠냐? 시험 준비 다시 하면서,

경수 (말 가로채며) 그거 아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이전에 없었던 차가운 눈빛으로) 사장님이 지금 저를... 두 번 죽이고 있다는 거...

병태 넌 그렇게 떳떳해?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해?

경수 제가 뭐요?

병태 (잠시 노려보다 화를 누르고 간절히) 부탁할게.

노크 소리와 함께 유림과 유림 부가 들어온다. 유림이 경수를 보고 환하게 웃는다.

병태 어서 오세요. 계약서 서류는 준비했습니다. 여기로 앉으시죠. (경수에게) 너도 앉아.

유림과 유림 부가 앉고, 병태와 경수가 마주 앉는다.

병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장기임대계약서... 보증금 5,000에 임대료 450... 향후 건물 확장 시 재계약하기로...

유림 부 (계약서를 훑고) 괜찮네요.

경수 (뻘뻘하게) 이 펜션이요... (일동이 경수를 주목하면) 요 며칠은 조용했는지 모르지만... 밑에 공사 다시 시작하면 시끄럽고 땅 흔들려서 쉴 수가 없어요.

병태 (경수의 발을 꾸욱 밟는다)

유림 부 (히히 사람 좋게 웃고) 요즘 참 보기 드문 청년이네요. 정직도 하시고...

병태 (불안불안) 여기 사인하시면...

경수 (유림 부가 막 사인하려는데) 제가 원하는 거 말하면 되나요?

유림 (반색) 말씀하세요.

유림 부 가능한 한 다 해드리겠습니다.

병태 (조짐이 안 좋다) 그건 나중에 나랑 따로 얘기...

경수 저를 죽여주세요.

일동, 얼음처럼 굳는다.

병태 (손사래를 치며)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애가 아직 약기운이 안 빠져서...

유림 부 약이요?  
경수 그래요 약. 먹으면 죽는 약. 그 약 먹고 저요 잘 죽어가고 있었는데  
당신들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해롱거리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날 죽여줘요.

병태는 이전 완전 포기하고 있고 유림과 유림 부는 할 말을 잃고 굳어  
있다.

경수 안 되겠다. 안 도와주면, 내가 직접 해야지... 칼이 어디 있더라? 아  
석유로 확 불 쬐지 않을까? 아 냉장고에 들어가서 얼어 죽을까?  
병태 (떡살 잡고) 적당히 해!  
경수 너도 똑같은 쓰레기야.  
병태 이 새끼가 진짜.

병태가 주먹을 날린다. 경수가 나동그라진다.

병태 죽으려면 판 데 가서 곱게 죽어!  
경수 흐흐흐... 본색을 드러내시네... 결국 나를 이용할 생각만 했던  
거야... (경수가 벌떡 일어나 병태를 치려는데 유림이 막아선다)  
유림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살고 싶어서 숨 쉬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경수 ...  
유림 사장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싶어서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제가 주제넘었네요... (숨을 알게 혈떡인다)  
유림 부 (뒤에서 부축하며) 그만해... 위험해...  
유림 가요, 아빠.

유림 부가 유림을 부축해서 나간다.

병태 (경수에게) 만족하나? (뒤쫓아 나간다)  
경수 (벽에 기대어 주저앉는다)

## #57 펜션(낮)

비가 내리는 가운데... 불이 꺼진 캠프파이어는 연기만 가늘게  
피어오르고... 다시 텅 빈 펜션이 을씨년스럽다.

## #58 리조트 건설현장(낮)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세워둔 지지대. 갑자기 금이 빠짐 간다. 그 사이로  
진흙이 새어 나오기 시작한다. 곧 그 구멍이 점점 커져간다. 빗물에 휩쓸려  
내려가는 진흙 더미들... 쿠궁- 천둥이 친다.

## #59 아네모네 방(낮)

경수, 벽에 기대어 멍하니 있다. 병태가 경수의 짐을 싣 가방을 끌고 온다.

병태 너 당장 나가. 다 필요 없어.  
경수 저 갈 데 없어요.  
병태 배 짜라냐?  
경수 이렇게 만든 건 사장님이잖아요.

인서트.  
병태, 아내와 대치 중이다.

아내 ... 이런 여자로 만든 건 당신이야.

병태 (떡살 잡고) 내가 뭘!  
경수 욕심냈잖아요!  
병태 살려고 발버둥 친 게 욕심이나!  
경수 약속도 어기고!  
병태 허, 약속? 그게 니가 할 소리냐!  
경수 제가 뭘요?  
병태 유서!

경수 (뜨끔한) 그래도 전... 제 목숨값은 했다고 생각해요.  
 병태 이게 또 어디서 사기 칠라고!  
 경수 제가 사장님 목숨 구했잖아요!  
 병태 !

인서트.  
 병태가 나무에 목을 걸고 자살을 하려고 한다. 인근 숲에 숨어서 지켜보던 경수가 전화를 건다.

경수 여보세요? 거기 방 있어요?

경수 거기서 죽으러 갔는데... 사장님이 먼저 오셔서...  
 병태 (경수에게 주먹을 날린다)  
 경수 (휘청하곤) !  
 병태 날 가지고 노니까 재밌디? (다시 주먹 날리면)  
 경수 (피하고) 누가 할 소린데요!  
 병태 억울하면 너도 때려 새까!

두 사람 한데 뒤엉켜 싸운다. 그때 두 사람이 엄청난 충격으로 벽에 쿵 부딪힌다. 그 순간, 우지직-! 하며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린다. 두 사람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벽에 쿵쿵 부딪히며 싸운다. 그때마다 건물이 휘청하고 기우뚱한다. 어느 순간, 두 사람 머리 위로 서까래가 후드득 쏟아져 내린다. 헉헉... 두 사람, 순간 멈추고 천장을 쳐다본다... 천장이 찌어억... 갈라지는 듯하면서 벽엔 금이 짜악- 간다. 헉... 두 사람 그제야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데... 너무 늦었다. “우당탕탕” 하는 굉음이 터지면서 건물이 십시간에 무너져 내리고 흙더미가 건물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암전.

## #60 붕괴 내부(낮)

어두운 가운데 빛물 떨어지는 소리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 위로...

병태(E) 사람 살려!

조금 밝아지면 진흙 아래 깔려 있던 병태가 “푸하” 가파스로 헤쳐 나온다. 병태는 빗물이 떨어지고 무너진 건물에 갇혀 있다. 병태가 조금만 움직여도 건물이 빼거덕거리며 금방이라도 붕괴될 듯 위태롭다. 병태가 사방을 더듬으며 탈출구를 찾지만... 없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가는 목소리...

경수(E) ... 사장님...

병태가 소리 나는 방향을 매섭게 쏘아본다. 붕괴로 인해 건너편이 막혀 있다.

병태(E) 이 모든 게 다... (한숨) 내 잘못이다.  
 병태 괜찮냐?  
 경수(E) 모르겠어요. 저 완전 갇혔어요. 꼼짝도 못 해요. 사장님... 설마 저희가 싸워서 건물이 무너진 건가요?  
 병태 나도 몰라. 하여튼 정신 바짝 차려. (대답 없자) 야 대답해!  
 경수(E) 몸에 감각이 없어요.  
 병태 (!) 몸이 안 움직여? (대답 없고) 야!  
 경수(E) 졸려요...  
 병태 기다려봐.

병태, 빗물이 떨어지는 머리 위를 발로 찬다. 서까래가 부서지고 흙더미가 쏟아져 내린다. 얼핏 병태는 더욱 함몰되어 갇히는 느낌이다. 병태 ‘이 방향이 맞나...?’ 불안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힘껏 발길질을 하고 또 한다.

병태 살자... 살자... 제발 좀 살아가즈아...!

병태, 사력을 다해 계속해서 발길질...

## #61 붕괴 외부 + 경수 내부 교차(낮)

쿵쿵- 하는 병태의 발길질에 구멍이 조금씩 넓어진다. 조금 지나 병태가 밖으로 기어 나온다. 헉헉... 기진맥진이다. 병태, 주위를 둘러본다. 펜션은 산사태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붕괴되어 흙더미에 묻혔다.

인서트.

카메라, 병태에서 서서히 멀어져 부감으로 주변 전체를 비추면, 리조트 공사현장 바로 앞으로 거대한 싱크홀이 생겼다. 거의 완공 중이던 리조트 건물이 싱크홀 안으로 쑥 빨려 들어가 사라진다.

병태 (남은 기력 다해 바닥을 더듬으며) 야! 내 소리 들려! (고요하다) 야! 들리면 대답해! (대답 없자, 당황한다)

경수, 붕괴 내부에 갇혀 있다. 흙더미에 묻혀 움짱달짝할 수 없다.

경수 (헐떡이며) ... 사장님...

병태 (바닥에 귀를 바짝 대고) 어! 여기 있냐?

경수 ... 전 글렀어요... 곧 무너질 것 같아요... 어서 피하세요...

병태 가만있어. 내가 구해줄게.

경수 (위악적으로) 됐다고요! 어차피 저 죽을 놈이었잖아요! 잘됐죠 뭐!

병태 너...

경수 뭐요?

병태 이름이 뭐야?

경수 이름은 왜요?

병태 뭐냐고!

경수 경수요... 오...경수요.

병태 경수야 대답해. 정말 죽고 싶은 거야?

경수 ...

병태 대답해! 경수 너 정말 죽고 싶은 거냐고! 진짜 원하면... 내가 포기할게.

경수 저요...

병태 시간 없어 빨리 말해.

경수 (벌벌 떨면서) ... 살고... 싶어요...

병태 (순간 울컥하며 눈물이 솟구친다)

경수 (주룩 눈물을 쏟으며) 살고 싶어요... 저도 정말 살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 살고 싶어요...

병태 (눈물 훔치며) 그래... 살자... 사는 동안... 살아보자...

병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구석에 처박힌 곡괭이와 자살용으로 준비했던 로프를 가져온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떼며 경수가 있는 곳으로 다가간다. 발을 디딜 때마다 건물이 조금씩 기우뚱하고 무너진다.

병태 경수야... 두려우면 노래 불러.

경수 무슨 노래요?

병태 니가 부르고 싶은 노래 불러.

경수 (잠시 고민하다... <말하는 대로>를 부른다) 나 스무 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병태 (곡괭이를 치켜들고) 자... 간다!

병태가 곡괭이로 바닥을 힘껏 내려친다.

병태 (이를 악물고 외친다) 이젠... 포기 따위... 안 해...!

병태, 내려치고 또 내려친다. 쿵! 쿵! 쿵...! 어느 순간, 구멍이 난다.

병태 다 됐다... 조금만 견뎌.

경수도 손으로 나무 벽을 뜯어내기 시작한다. 점점 구멍이 넓어지고...

경수가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겨우 난다. 병태, 헉헉대며 구멍을 들여다보면 갇혀 있는 경수가 보인다.

병태 (환하게 웃으며) 반갑다 경수야!  
경수 ... 오래 기다렸어요. (울먹)

두 사람, 서로를 보고 피식 웃는다. 병태, 로프를 자기 몸에 묶고 나머지 끝을 경수에게 내린다. 경수, 로프를 자기 몸에 감는다. 경수, 떨리는 손을 위로 올리면 병태 경수의 손을 꼭 잡는다.

병태 빠져나올 수 있겠어?  
경수 해볼게요!  
병태 그래. 같이 해보자.

두 사람 동시에 “하나, 두울, 셋!” 외친다. 그 소리와 동시에 화면이 밝아진다.

끝.

작가 후기 당선 후, 작품이 공개되고 나서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들었다. 특히 함께 당선된 동기들의 리뷰를 통해서 이번 작품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었다. 하나의 작품이지만 여러 갈래의 해석과 이해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새삼 깨달았다. 대중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다시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선된 작품은 초고에 지나지 않는다. 작품을 공모전에 제출하기까지 아무리 탈고를 여러 번 했을지라도 말이다. 또한 대본을 다시 영상화하는 작업이 또 다른 세계로의 진입과 다름이 아님을 느꼈다.

무엇보다 거짓이 없어야 함을, 진실해야 함을. 인물 하나에도, 대사 한 줄에도 진정성이 담겨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아주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다. 작품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신 분들, 작품에 기대 이상으로 애정을 담아주신 분들, 그 모든 분들에게 후기를 대신하여 감사를 전한다.

# 파고

(波高)

김민경

---

## 작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 지금도 존재하는 악마 같은 이면.  
누군가에겐 그저 가볍거나 당연한 거라 생각되었던 일.  
하지만 그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희생당한 사람들...  
이제는 누군가의 작은 관심이 이들의 실체를 밝혀내고  
세상에 정의가 돌아오길 바라며...

---

## 등장인물

**남연수(30대 중반, 여) 주인공. 오산도 파출소 경사**

FM 본능을 가졌지만 따듯한 가슴을 가진 10년 차 경찰. 본서에서 자기 일을 강직하게 추진하다 강등된 뒤 육아휴직 신청하고 아이를 낳았다. 오산도 파출소는 한동안 일을 쉬 뒤 오랜만에 돌아온 직장이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 경찰로서의 노련함은 살아 있다.

**박철기(20대 중반, 남) 오산도 파출소 순경**

자기가 할 수 있는 안정된 일이라 경찰을 선택했다. 1년 경력의 오산파출소 막내 순경이다. 그동안 그저 평범한 시골 파출소 경찰로 대민 업무에만 집중하고 소장이 시키는 대로만 일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입 온 선배가 이것저것 다 건드리며 다닌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자기 가슴도 같이 뛰기 시작한다.

**김예은(30대 초반, 여) 함일초등학교 교사**

빛보증을 잘못 서 파산한 오빠가 연락 두절된 지 10년째이다. 2년 전 어머니는 아들을 찾지 못한 한을 품은 채 돌아가셨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찾아야 한다. 갖은 방법으로 오빠의 행적을 알아낸 끝에 그 마지막이 오산도인 것을 알게 됐다. 오빠를 찾기 위해 오산도의 함일초등학교 교사로 와 일하고 있다.

김민경  
hwaaho@gmail.com

2018 • 오픈 드라마 부문 당선  
• tvN 드라마 스테이지 <파고> 극본



백남훈(30대 중반, 남) 연수의 남편. 오산중학교 미술교사

연수를 언제나 지지하는 남편, 강등되고 실의에 빠져 있는 아내에게 오산도행을 제안했다. 시골에서 아이 키우며 느긋하게 살자는 의미였다. 그런데 오산도에 온 뒤로 아내가 바쁘다. 눈빛도 살아났다. 다시 옛 모습이 돌아온 것 같아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다.

홍소장(50대 초반, 남) 오산도 파출소 소장

고향에서 느긋하게 한자리 차지해서 사는 사람이다. 지역 주민이며 지역 유지며 모르는 사람이 없다. 자기 동네에는 강력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아니 강력사건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최원재(50대 초반, 남) 소금과 빛 재단 대표

홍소장과 초·중학교 동창, 복지재단 산하의 연수원과 재단이 소유한 염전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하는 시설 규모에 비해 이상하게도 벌어들이는 돈이 상당하다. 지역 정치인이며 사업가며 다 자기 손안에 있다.

오상훈(40대, 남) 학부형. 함일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함일초등학교와 마을에서 힘깨나 쓰는 마을 유지. 그리고 뒤로는 최원재의 어두운 사업을 돕는 심복. 매우 비열한 인간이다.

소금꾼1, 2(60대, 남)

오랫동안 노예처럼 살아와서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명호(30대 후반, 남)

관포서 형사. 연수를 잘 알고 믿는 선배.

그 외

보건의원, 김학수 경정, 김군수, 최원재의 비서(남), 초등학교 선생1, 2, 식당 주인1, 2, 해경소장, 학부형, 마을 사람들, 학생들, 낚시꾼들.

줄거리

유아휴직을 마치고 오산도 파출소에서 새롭게 근무하게 된 남연수 경사. 곁으로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오산도이지만 연수의 눈에는 뭔가 어긋나 빼겨덕대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 연수의 전입 첫날 방파제에 떠밀려온 변사체, 지역 제일 사업가라는 최원재 대표의 수상한 행동들, 최원재와 군수의 비밀스러운 관계, 이를 두둔하며 별일 아니라는 상관 홍소장과 지역 해경, 모른 척하는 후배 경찰들.

연수의 축이 뭔가 이상하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상관 홍소장은 별일 아니라며 연수를 혼내기만 하고... 모든 것이 수상한 연수는 그녀를 따르는 막내 순경 철기와 함께 몰래 변사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그리고 그 결과 그동안 발견된 변사체가 한두 구가 아니었으며 그 시체들이 최대대표의 염전이 있는 함일도에서 떠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오산도와 연결된 함일도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김예은. 그녀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 학교보다는 가족사와 얽혀 있다. 빗쟁이들에게 시달리다 10년 전 사라진 오빠. 오빠를 기다리다 2년 전 죽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경찰이 포기한 오빠를 찾기 위해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다. 매일 학교가 끝난 뒤 직접 온 섬마을을 돌아다니며 일꾼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며 오빠를 찾고 있다. 그러나 섬에 들어온 것까지 알겠는데 그 뒤로 오빠는 어디로 간 것일까?

수십 년을 염전 귀신처럼 살아가고 있는 소금꾼들. 그들에게 운명이란 그저 오산도에서 하루하루 죽지 않고 버티며 일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자신 몸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잊은 지 오래. 별일 아닌 일로 염전 주임한테 맞는 일도, 움쩍달짝할 수 없는 굴레 같은 삶도 어느 하나 의문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예은이 나타나 작은 도움의 손길을 뻗인다. 게다가 자기편이 아니라 믿었던 경찰이 맞고 있는 자기들을 도와준다. 그 순간,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느 평범한 날 예은은 식사를 하러 들어간 식당에서 언제나 자기를 보면 음흉하게 들이대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오상훈과 학부형 그리고 그들과

형님 아우 하는 홍소장까지 마주치게 된다. 억지로 술을 권하는 그들, 뿌리치지 못하고 마시게 되는데... 늦은 저녁 술에 취해 무방비로 오상훈 패거리에게 붙잡혀 어디론가 가게 되는 예은. 그러나 다행히도 때마침 나타난 연수에 의해 구해지고 예은은 이 새 경찰이라면 믿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

소금꾼들은 예은의 그동안의 정성에 마음을 열어 '여악산'이란 단서를 주게 된다. 이 단서를 따라 산들을 뒤흔던 예은은 어느 날 뜻하지 않은 대량의 양귀비밭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대표와 오상훈이 뭔가 더 큰일을 꾸미고 있는 것까지 알게 되는데...

같은 시각, 전입 첫날 발견했던 변사체의 조사 결과 서류를 받은 연수는 범죄 소견이 없다는 결과에 실망하고 그동안 자신의 의욕적이었던 마음에 회의를 갖는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예은의 엄청난 신고를 받은 연수는 그동안 만난 모든 작은 의심들이 크게 하나로 얽혀 있음을 직감하게 된다. 그들과 한패일지 모르는 홍소장 몰래 증인인 예은과 그녀에게 단서를 줬던 소금꾼들을 보호해야 하고 사건까지 해결해야 하는 상황. 연수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즉시 육지의 관포 본서에 형사로 있는 선배에게 도움을 청하고 물증을 수집하기 위해 유일하게 믿는 철기와 같이 움직이는데...

그러는 사이 자신들의 범죄가 노출된 것을 알게 된 최대표와 오상훈은 자신들의 왕국인 이 섬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것을 덮고 원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연수와 증인들을 쫓는데...

파고(波高)

김민경

## #1 프롤로그1. 빈민촌 골목(낮)

비가 내리는 어느 빈민촌 골목길, 연수가 어두운색 우비를 입고 골목 뒤에 숨어 용의자를 기다리고 있다. 한 남자가 지나가고. 얼굴을 확인한 연수가 급히 전화를 건다.

연수            맞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최팀장        좋았어!! 역시 우리 서 왕축이야~

전화를 끊고 최팀장의 눈짓에 따라 급히 흩어지는 형사들, 경찰들.

## #2 프롤로그2. 빈민촌 골목(낮)

비 계속.  
명호가 헉헉거리며 다급하게 골목길을 따라 달리다 모퉁이를 돌아,  
(사운드 없음, 슬로우모션 시작) 우왕좌왕하는 경찰들이 잔뜩.  
다급해진 명호가 경찰들을 헤치고 현장으로 들어가고, 카메라가 뒤따른다.  
현장에 들어선 명호. 그의 발끝에 달아 흐르는 핏물,  
놀란 명호가 고개를 천천히 들어 앞을 본다.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두 남자. 한 명은 최팀장, 한 명은 범인이다.  
카메라가 점점 위로 올라가면 앞에 서 있는 연수, 손에 칼이 들려 있다.  
웃은 흐트러져 있고 손은 피투성이다. (앞서 셋이 몸싸움을 했음을 암시)  
그리고 얼굴을 비추면, 놀라고 얼빠진 얼굴의 연수.  
형사들이 피를 뿜어대는 최팀장의 배를 누르고 있고 모두 정신이 없는 가운데, 명호가 달려가 얼빠진 연수를 흔들어 깨운다.

명호            (입모양) 정신 차려!!

정신없는 와중에 연수의 눈에 쓰러져 있는 최팀장의 입모양이 보인다.

최팀장 (입모양) 괜…참…아…

(원래 속도) 바로 경찰들에 의해 최팀장이 들려 나가며, 암전.

### #3 해안가 절벽(밤)

페이드인.

달빛에 희미하게 드러나는 해안가 절벽.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의문의 두 남자가(실루엣) 사람만 한 거대한 덩어리를 가져와 바다에 던진다. 물체가 바다에 침범 빠지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파도가 친다.

### #4 오산도 파출소(낮)

화면에 오산도 면소재지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담긴다. 한적한, 한편으로는 쓸쓸해 보이는 어촌의 모습이다. 논과 어항, 단출한 여객터미널, 염전, 마을 등이 한눈에 보인다. 시점은 점점 내려와 오산도 파출소로 접근하는 앞길을 비춘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파출소로 접근 중이다. 알록달록한 우비에 헬멧까지 꼼꼼히 쓴 누군가가 파출소 앞에 차를 세우고 헬멧을 벗은 뒤 파출소 안으로 들어간다. 남연수 경사다. 파출소 문이 활짝 열리고 파출소 안에 있던 경관들이 화려한 우비에 살짝 놀란다.

철기 무… 무슨… 일로…?

연수 (긴장한 모습. 파출소 안을 쓰윽 훑은 뒤 가볍게 경례하며) 충성. 안녕하십니까. 오늘부로 오산파출소에서 근무하게 된 남연수 경사입니다.

홍소장 (뒷자리에서 꾸물거리며 일어나) 어… 어… 아이고 이제야 사람을 보내주네… (반기며) 어서 와, 어서 와… 그동안 계속 사람 보내달라

했는데 말이야. 드디어 왔네 왔어. (혼잣말)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연수 (짙러서) 아… 그게… 제가 육아휴직을 연장하는 바람에…

홍소장 그렇다고 1년이나…? (학수 말린다) 아… 그래? 뭐… 아하하하하 그럴 수도 있지. (비꼬듯) 애도 키워놔야 나쁜 놈도 잡고 그러지. 안 그래?

연수 (못마땅) 네… 그렇죠…

홍소장 뭐 어쨌든 지금이라도 왔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되지 뭐.

학수 (소장에게 눈치 주며) 저기 소장님…

홍소장 아! 그래… 여기는 김학수 경정.

학수가 가볍게 경례하고 연수가 목례로 받는다.

홍소장 저기는… 우리 막내.

철기 안녕하세요. 박철기 순경입니다.

연수 예, 안녕하세요.

홍소장 지금 두 명 더 있는데 근무 나갔어. 오면 소개시켜줄게.

연수 네.

홍소장 (그때 연수의 우비를 보고) 근데 밖에 비 오는 거야? (창밖 확인)

연수 곧 크게 올 것 같던데요. 바람도 많이 불어요.

홍소장 (급히 깨달은 듯이) 아이고, 철기야, 뭐 하는 거냐? 어서 가서 방파제랑 갯바위 위에 붙어 있는 낚시꾼들 좀 철수시켜라.

철기 아! 예. (급히 나갈 준비)

홍소장 생각보다 태풍이 금방 올라오네…

연수 저도 가겠습니다. (철기를 따라 나가려 한다)

홍소장 자네가…? 전에 이런 거 해봤어? 여기가 섬이라… (장황하게 설명하려 한다)

연수 (까짓것) 전에도 많이 해봤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홍소장 (떨떠름) 그렇다면야…

철기 따라나서려는 연수. 그런 연수를 쳐다보는 철기.

철기 그 옷차림으로 가시게요?

연수가 자신의 옷차림을 본다. 알록달록 비옷 차림이다. 연수는 철기와 흥소장을 보고 멧쩍은지 씨익 웃는다.

## #5 방파제(낮)

방파제의 전경을 보여준다. 구름이 밀려와 하늘이 어둡어둡하다.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는 게 곧 태풍이 불어닥칠 기세이다. 경찰차 한 대가 방파제 근처에 선다. 근무복을 제대로 갖추고 경찰 우비를 입은 철기가 급하게 경찰차에서 내린다. 연수는 어물쩍거리며 천천히 내린다. 다급한 철기는 먼저 방파제 입구로 달려가 확성기로 낚시꾼들에게 경고 방송을 한다.

철기 (조심히) 어... 저기... 오늘 태풍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 낚시를 하시는 분들과 관광객분들은 어서 방파제에서 철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응 없는 낚시꾼들. 연수가 천천히 걸어가며 관망하고 있다가, 철기의 멘트가 답답한지 확성기를 달려며 손을 내민다. 철기가 당황하며 확성기를 건넨다. 연수는 방파제 입구 쪽 낚시꾼들부터 확성기를 들이대고 강력하게 경고를 한다.

연수 (어르며) 자 선생님들~~!!! 어서 철수하세요!! 벌써 파도가 상당합니다. 이렇게 미적거리시다간 피하려 해도 못 피합니다. (가까이에 있던 낚시꾼들에게 눈을 마주치며) 아시잖아요. 선생님. 위험한 거 아시죠? 파도에 쓸려 가시면 시체도 못 찾아요. 어서 빨리 철수하세요!!

방파제 제일 끝에 있던 낚시꾼들이 경고 소리를 들으며 귀찮은 듯 구시렁거린다.

낚시꾼1 아이... 뭇 좀 하려면 와가지고 저 지랄이네...  
 낚시꾼2 오늘 날이 이럴 줄 알았나? 예잇 공쳤어. 야... 말 들어야지... 어여 챙기자구...  
 낚시꾼1 (그 순간 고기가 잡힌 듯 팽팽해지는 줄) 아앗! 뭇가 잡혔어!!

멀리서 들리는 연수의 경고. 철기는 어색하게 따라다닌다.

연수(E) 어이 거기 방파제 끝에 계신 선생님들~!!!! 어서 철수하세요!  
 낚시꾼1 (낚싯줄 당기느라 용쓰며) 아니 지금 그게 문제야?! 한 놈 걸렸다고!

그때 낚시꾼1의 집과 자기 집을 정리하던 낚시꾼2가 파도치는 방파제 아래에서 뭔가를 발견한 듯 응시한다.

낚시꾼2 (한참 쳐다보다 놀라서) 아... 아악!!! (엉덩방아를 찧는다)

반대편 방파제 입구 쪽에서 정리 중이던 연수와 철기. 갑자기 방파제 끝 쪽에서 무슨 일이 난 것처럼 사람들이 우왕좌왕 웅성웅성한다. 낚시꾼1이 달려오며 두 사람보고 어서 오라고 손짓한다. 둘은 어서 방파제 끝으로 달려가 낚시꾼들이 가리키는 곳을 쳐다본다. 변사체 한 구가 방파제 돌 더미에 걸려 파도와 함께 철썩거린다. 놀라는 두 사람. 당황하는 철기와 달리 바로 정신을 가다듬은 연수가 철기에게 명령한다.

연수 (철기에게) 구급차 부르고, 파출소에도 연락해.  
 철기 네... 네. (무전을 치며 달려나간다)

연수는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방파제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한다. 타이틀 인서트. 자막. “파고(波高)”

## #6 보건소(낮)

보건소 시체보관실 검시테이블 위에 누워 있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체. 부패는 심하지 않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없는 상태다.

카메라가 시신을 훑고 팔에 검은 피부염, 스쳐 지나가듯 보여준다. (단서)  
밖에서는 거친 빗소리가 들린다. 무심한 표정의 50대 보건위, 불안한  
철기. 연수는 멀찍이 벽에 기대서서 돌아가는 것을 쳐다보고 있다.

## #7 삼겹살집(저녁)

연수 복귀 축하 회식이 열리고 있다. 홍소장이 상석에 앉아서 왈자지껄  
다른 경찰들과 술을 마시고 있고, 연수는 꼬트머리에 앉아서 조용히 자기  
먹을 것 먹고 있다. 철기가 새로 불판 위에 올려놓은 삼겹살의 붉은 살이  
치익 하고 익는다. 그 옆엔 올려놓은 지 오래된 고기가 까맣게 탔다.

홍소장 (연수 부르며) 어~이 남경사. 오랜만에 복귀인데 축하주 한잔해야지.  
연수 (깜짝) 아... 네.

연수 홍소장에게 다가가려고 일어서는데, 보건위가 식당으로 들어온다.

보건위 (능글, 반가움) 홍소장~~  
홍소장 (능글, 반가움) 아이구 우리 의사 선생님~~  
연수 (다시 자리에 앉으려) ...  
홍소장 남경사 어서 안 오고 뭐 해?  
연수 아... 네.  
보건위 이거 줄라고 들렸지. (연수에게 검시서류 준다) 1차 검시보고서.  
홍소장 (뭘 이런 걸) 아니 이런 건 내일 쥐도 되는데...  
연수 (받으며) 감사합니다.

연수 찬찬히 서류 내용을 살핀다.

인서트.

검시보고서 그림에 팔에 검은 피부염.

연수 뭔가 걸리는지 유심히 본다.

인서트.

#6. 보건소 검시테이블 위에 있던 시신. 검게 변해 있던 팔뚝.

보건위 (기분 나쁜 듯) 지금 확인하는 거야?  
연수 (약간 당황) 아... 그게...  
홍소장 (그러려니, 입모양) 형사 출신. 형사 출신...  
보건위 (입모양) 아...  
연수 저기... 선생님이 보시기엔 어떤 것 같나요?  
보건위 뭐... (홍소장 눈치 한 번) 부패는 심하지 않은 상태지만 지금 확인  
가능한 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의 남성이고, 죽은 지는  
열흘 정도 된 것 같아. 입고 있던 옷이 평상복인 걸 봐서는 사고당한  
납시꾼은 아닌 것 같고... 뭐 납시꾼이 그랬다면 벌써 실종신고  
갔겠지만...  
연수 (특 던지듯) 범죄 징후는 없나요?  
홍소장 (비웃듯) 훗...  
보건위 (당황) 어? 뭐라고...? (홍소장 눈치)  
홍소장 (달관한 듯 말하라고 손 흔들며) ...  
보건위 자네가 이 동네를 잘 모르나 본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시신에 특별한 외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보면, 무연고 사체나 중국에서 떠밀려온 시신이 발견되는 일이  
종종 있기도 하거든... 아마 다른 곳에서 떠내려온 시신이겠지...  
(다그치듯) 그리고 이 동네선 그런 심각한 일은 생기지 않는다고.  
연수 (뭔가 이상하지만) 그...래요...?  
홍소장 (전환) 자자자. 내일 시신을 본서로 보내면 알아서 하겠지. 온 김에  
술이나 한잔하고 가라고. (보건위에게 술 따르며)

## #8 염전(밤)

염전을 가로질러 어디론가 가는 소금꾼 둘. 두 남자는 뼈쩍 말랐지만  
일을 많이 해서인지 근력은 좋아 보인다. 다만 소금꾼1은 몸 한쪽 편이  
불편한지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다. 바닷물 저수지 옆을 지나가는 두 사람.  
소금꾼2가 저수지를 우연히 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란다.

소금꾼1 (귀찮다는 듯) 왜... 그래? 뭘 일이야? ... 귀신이라도 본 거야?  
 소금꾼2 (벌벌 떨며 혼잣말) 벌... 받을 거야... 언젠간 나도 소금밭 귀신이 될  
 게 분명해...  
 소금꾼1 (다그치듯) 이봐... 자네가 아무리 죄 안 짓고 깨끗이 살았어 봐.  
 이미 태어날 때 제 어미 속 다 찢고 태어났는데... 어차피 우린 모두  
 지옥행이야.

## #9 해안도로 임시정박장(밤)

회식을 마친 연수가 오토바이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려 퇴근 중이다.  
 옷에 밴 삼겹살 냄새가 걸리적거리는지 옷에 코를 대고 쿵쿵댄다.  
 섬의 밤바다가 고요하다. 그때 멀리 정박장이 아닌 곳에 배(행정선, 20톤  
 정도 규모)가 대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연수, 선박 이름을 보고 바이크를 세운다. 라이트가 꺼진다.

연수 (본능, 의문, 혼잣말) 이 밤에 행정선이 왜 여기...?  
 (잠시 고민) ...  
 (자책, 본능 누름) 예잇 뭘 또...

연수 다시 시동을 걸려다가,

연수 (본능 못 누름, 자신에게 성질) 에이씨...

연수는 조심히 행정선 쪽으로 다가가본다. 행정선에 일꾼 여러 명이  
 무언가를 싣고 있고 최원재와 그의 비서가 열심히 명령 중이다.

연수(E) 실례합니다.

최원재와 사람들이 놀라서 멈춘다.

최원재 (놀라서) 아이고 놀래라?  
 연수 (경찰 신분증 보여주며) 안녕하세요. 오산파출소 남연수 경사라고

합니다.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시나요?  
 최원재 (사람 좋게) 아! 하하하... 안녕하시오. (명함 꺼내주며) 나는 저기  
 '소금과 빛'의 대표 최원재라고 하는데. 급히 육지로 보낼 상품이  
 있어서... 저기... 홍소장은 안녕하죠?  
 연수 (명함 확인하며) 네... 근데... 이 배... 행정선 아닌가요?  
 최원재 아... 그렇죠... 우리가... 배가 부족해서. 군청에 도움을 좀 얻은  
 겁니다. 지역 특산품 아니겠습니까? (손으로 가리키는 박스에  
 천일염이라 적혀 있다)  
 연수 근데... 이... 밤중예요...?  
 최원재 아... 낮에 풍량이 심해서 말이죠... 워낙 급한 배송이라.

최원재가 비서에게 눈짓을 한다. 비서가 어디엔가 전화를 건다.

연수 (곰곰이) 급한 배송이라... 잠시 상자 안 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최원재 (연수 다가가자 위압적, 몸으로 막으며) 아! 아니...

연수 원재에게 콩 부딪친다.

연수 (한발 물러서며) 왜요?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최원재 (연수가 닿은 걸 기분 나빠하며) 이미 신고 다 하고 허가받은 거라  
 그럴 필요까진 없을 텐데요.  
 연수 그럼 허가받은 것 좀 보여주십시오.  
 최원재 (공격적) 아니 당신 관할도 아닐 텐데... 왜 보여줘야 합니까?  
 연수 (황당) 네?  
 최원재 (위협적) 해경에 이미 신고 끝낸 상태니 신경 끄고 갈 길 가지요.  
 연수 (짜증) 그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보여주시면 될 텐데요.

둘의 실랑이를 바라보던 부하 중 한 명이 허리춤에서 뭔가 꺼내려 한다.  
 그때 멀리서 라이트를 켜 순찰차가 다가온다.  
 비서가 그 부하의 팔을 지그시 누르며 말린다.  
 도착한 차는 해경 순찰차이다. 차에서 해경 파출소장과 경관이 내린다.



해경소장 무슨 일입니까?  
 최원재 (반가워서) 아이쿠 소장님.  
 연수 (해경소장 보고 살짝 놀람, 경례) ...  
 해경소장 경찰이 여기 왜?  
 연수 한밤중에 행정선이 정박되어 있는 게 이상해서...  
 최원재 (해경에 하소연) 아니 이미 해경에 허가받은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안 듣질 않습니까?  
 해경소장 자네 이름이 뭐랬지?  
 연수 아... 네... 남연수 경사입니다.  
 해경소장 (냉소적) 자네 자네 쪽 일이나 잘하지 그래...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연수 (떨떠름) 네...

## #10 연수 집(아침)

연수네 집 부엌에서 아침밥 되는 소리가 들린다. 남편 남훈은 부엌에서 반찬을 그릇에 담고 있다. 카메라가 연수의 집 안 모습을 훑는다.  
 거실 선반에 놓여 있는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정복 입고 있음).  
 #2. 프롤로그2에서 죽은 최팀장 얼굴 상단, 액자 프레임에 검은 리본을 붙여놓았다. 연수가 흰 꽃을 사진 앞에 내려놓고 밥상 앞으로 가 앉는다. 아기랑 놀며.

연수 (아기를 들고, 안고) 아르르르 까꿍. 아르르르 까꿍. 아이고 우리 이쁜 상이야~ 밤새 울지도 않고 잘 자고~~ 너무 이뻐. 이뻐서 어찌지? 아르르르...  
 남훈 (밥상 차리며) 애가 너무 순해... 난 어렸을 때 밤마다 울어대서 어머니가 고생했다고 하셨는데... 누굴 닮았지?  
 연수 누굴 닮긴 날 닮았지. 그렇지 상이야? 우리 상이~ 엄마 닮아 너무 착해. 그치? (아기가 엄마 보며 웃는다) 자 우리 상이. 상이도 아침밥 먹어야지. (옆에 있던 젓병을 물린다)  
 남훈 어젠 오랜만에 복귀인데 별일 없었어?  
 연수 어 그게... (심각해져서) 별일이 있긴 한데... 별일이 아니라 하네?

남훈 (웃으며) 그게 무슨 말이야...?  
 연수 그게... (아기 귀를 막으며) 어제 서쪽 방파제에서 변사체 하나가 발견되고...  
 남훈 (놀라며) 변사체가?  
 연수 밤중엔 웬 행정선이 물건을 실어 나가고...  
 남훈 (잘 모르겠음) 그것도 이상한 거야?  
 연수 안 이상해? 난 이상한데... (아기 보며) 다들 아니라 하네... 상이야~ 밥 잘 먹네~

## #11 여객터미널(낮)

밝은 햇살이 비추고, 섬의 수려한 풍경이 멋지게 펼쳐진다. 여객선이 들어오고 관광객과 사람들이 내린다. 연수는 여객선 편으로 들어온 화물들을 확인한다.

연수 (전화통화) 어. 엄마 받았어... 어... 알았어. 바로 냉동실에 넣을게...

관광객들 사이에 노란색 바람막이를 입은 예은이 여객선에서 내리고 연수 옆을 지나친다. 약간은 긴장한 모습. 들고 있는 짐을 다시 고쳐 잡고 터미널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학부형으로 보이는 두 남자가 말을 건다.

오상훈 어이, 김선생님 아니세요?  
 예은 (당황하며) 아, 위원장님이랑... 정호 아버님이시군요. 안녕하세요.  
 학부형1 오늘 김선생님이 일찍 들어오는 순번인가 보네?  
 예은 예... 오늘 제가 당직이라.  
 오상훈 잘됐네. 지금 우리도 마을로 가는 길인데 태워다드릴게.  
 예은 아... 아닙니다.  
 오상훈 아 왜 그러시나~ (예은 짐을 잡으며) 거절하지 마세요~~  
 예은 (놀람, 짐 안 뺏기려고 실랑이) 아니... 아닙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 (다급) 그리고 자전거 있어서요. 타고 가려고요. 걱정 마세요.

먼발치에서 예은이 상훈과 실랑이하는 것이 신경 쓰이는 연수.

학부형1 (실망) 아... 그러시려고요? 뭐 그렇담...  
 오상훈 그럼... 답에 언제라도 필요하면 태워드릴 테니까, 너무 사양 마시고, 그리고... 오늘 저녁 혼자일 텐데 우리 식당 한번 들르지 그래요? 맛난 거 해드릴게. 다른 집은 다 한 번씩 간 거 같은데 우리 집은 안 오네?  
 예은 (불편해하며) 아... 말씀만이라도 감사드려요. 근데 오늘 제가 할 일이 있어서요. 다음에 들르게요.

예은은 떨떠름해진 두 학부형과 헤어진다. 예은의 표정이 잔뜩 긴장한 듯 굳어 있다.  
 앞을 지나가는 예은이 계속 신경 쓰이는 연수.

예은은 여객터미널 매표소 뒤에서 맡겨놔던 자전거를 꺼내온다. 매표소 위로 광고 표지판 문구가 보인다. [환상의 섬, 아름다운 자연과 온정이 넘치는 다도 오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표지판을 뒤로하고 예은이 자전거를 타고 마을로 향한다.

이어서 상훈 패거리의 차도 떠난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걸 연수가 바라본다.

## #12 파출소(늦은 저녁)

파출소 문 밖에 쪼그려 앉아 전에 있던 관포서 선배 명호(형사)와 통화 중인 연수. 컷백.

명호 최팀장님 1주기는 잘 치렀어. (힘차게) 너 잘 있는 거지?  
 연수 (영혼 없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명호 그런 것 같긴... 목소리가 저기 지하 30미터쯤까지 꺼져 있구만... (잠시 생각 후 진지하게) 네 잘못 아니라니까 그러네...?  
 연수 (울컥) ...  
 명호 야, 니 왕축 (엄지척) 덕분에 더 큰 사건 막았잖아. 그걸로 된 거야... 팀장님도 그걸 아니까 너보고 괜찮다고 하신 거고...

인서트.  
 #2. 프롤로그2. 쓰러진 최팀장 입모양 “괜찮아.”

연수 (떠오르는 생각에 참아보려 하지만 눈물 한 방울 주르륵, 참으려 애쓰며) ... 선배 만일 제가 그때 그놈 찾아내지 않았으면... 아니... 조금만 늦게 찾아냈어도...  
 명호 (다정히) 연수야... 그 정도 힘들었으면 됐어. 이젠 네 삶을 살아야지... 아기도 있잖아...  
 연수 (눈물 닦아내고 애써 웃지만 자조) 맞아 선배...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명호 (미소) 잘 살 수 있겠어?  
 연수 ... (앞서 있던 일 때문에 고민, 한숨) 잘 살 수... 있을까 모르겠네...?  
 명호 (버럭) 야. 왜 못 살아?! 그런 데 별일 있겠냐? 뭐... 물론 나름 거기도 힘든 일이 있긴 하겠지만... 큰 사건은 없을 거 아니야...?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해.

그때 담배 피러 나온 학수 보고 놀란 연수.

연수 어... 나 이만 들어가야 돼... 응, 선배 알았어... 또 연락할게.

연수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에 집중을 한다.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지난 서류를 불러온다. 지난번에 쓴 변사체에 대한 서류가 뜬다. “변사체” 글자. (클로즈업) 그 글을 한참 쳐다보던 연수. 맘이 편치 않다. 망설이던 연수, 뭔가 퍼뜩 생각났는지 캐비닛의 서류를 뒤진다.

홍소장 뭐 하는 거야?  
 연수 (계속 뒤지며) 저번에 그 변사체요... 그런 일 가끔 있다면서요. 예전 서류 좀 보려구요.  
 홍소장 (당황) 아... 아니... 그게...  
 연수 (서류 찾음. 들춰보더니 놀라서) 올해 벌써 다섯 건째예요?  
 홍소장 (귀찮다는 듯) 그런 일이 종종 있다니까.  
 연수 (정말 궁금해서) 저기... 소장님... 지금 고작 반년도 안 지났는데



별써 다섯 건이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홍소장 (황당) 아니...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그동안 본서에서 조사해서 다  
 별일 없다고 결론 난 것들인데...  
 연수 (철기 보며) 너 알고 있었어?  
 철기 (홍소장 눈치를 보며) ... 그게...  
 연수 (눈치채고 실망해서) 일부러 얘기 안 한 거야?  
 철기 (당황) 그런 건 아닙니다...  
 홍소장 (짜증 내며) 야야야... 내가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  
 연수 (놀라서) 예...?  
 홍소장 (달래며) 저번에 의사 선생 얘기도 들었잖아. 그런 사고 칠 사람  
 없다니까.  
 연수 그래도 이 정도면 조사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홍소장 (나무라며) 야! 다섯 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 동네에서 누가 그래?  
 말이 안 되잖아. 본서에서도 다 조사해보고 아무 이상 없다고 결과  
 나온 것들이야. (의문) 너 혹시... 여기서 끔찍한 범죄라도 일어나길  
 바라는 거야? 한 건 올려서 관포서 돌아가게?

연수는 대답하고 싶지만 참는다. 그리고 열을 식힐 생각으로 순찰차 키를  
 켜기며,

연수 저 순찰 나갔다 올게요. (나간다)  
 홍소장 (짜증) 뭐야...?  
 철기 (급히 따라 나가며) 저도 같이 다녀오겠습니다. 선배님~!! 같이 가요.  
 홍소장 재는 또 왜 저래?

### #13 순찰차 안(밤)

한참 운전엔 집중하고 있는 연수. 정적 속에 순찰을 도는 두 사람. 오산도,  
 함일도 두 섬을 잇는 다리를 지나 함일도로 들어선다.

철기 (정적 깨뜨리며) 죄송해요. 사실대로 말씀 안 드려서.  
 연수 (운전에 집중하다 놀라서) 응? 어... 뭐... 죄송할 건 없지.

내가 물어본 것도 아니잖아.  
 철기 (한탄하듯) 저도 사실 이런 동네에서 그렇게 시체를 자주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본서에서도 범죤소건 없다 그리고...  
 (목소리가 점점 수그러든다) 소장님도 별일 아니다 그리고... 원래  
 여기가 그런 줄...  
 연수 (한숨 쉬며) 그치...? 본서에서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잠시 침묵)

둘 앞에 5층 정도의 병원 같은 건물이 나타난다.

연수 (궁금해서) 근데... 저긴 뭐냐?  
 철기 네? 아 저기... 소금과 빛 연수원 별동인데...  
 연수 소금과 빛...? 연수원?  
 철기 원래 예전엔 작은 복지원이었다가, 재단 규모가 커지면서 연수원으로  
 바뀌고 확장했대요.  
 연수 (의미심장하게) 그래...?

### #14 파출소(밤)

짜증이 난 홍소장은 관포관할서의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연수에 대해  
 물어본다.

홍소장 어 그래... 남연수 경사... 뭐? 강등된 애라고? ... (성질) 그런 애를  
 내 밑으로 보낸 거야...? 별거 아닌 게 어딴어? 그럼 왜 강등이 돼...?  
 아니... 여기서 문제 일으킨 건 아니고... 괜찮은데... 아니... 그런 게  
 좀 있어...

### #15 소금과 빛 연수원 사무실(밤)

최원재의 화려한 사무실에 이 지역 군수인 김군수가 와 앉아 있다.  
 비서가 차를 내온다. 차를 마시는 김군수.

최원재 군수님, 자주 좀 오시고 그러세요. 허허허 이거... 선거 이후에 너무

김군수 뜬하신 거 아닙니까? 누가 보면 의절이라도 한 줄 알겠습니다.  
최원재 허허허, (떨떠름) 그러게요, 이게 여간 바쁜 게 아니라서 말입니다.  
얼마 전 고마운 일도 있고... (선물을 건네며) 작은 정성입니다...  
저희 회사 아주 특등 상품입니다.

고급스러운 상자 뚜껑에는 최고급 소금이라 적혀 있다. 상자를 여니 아주 고급스럽게 포장된 소금이 있다. 그리고 소금이 놓인 종이판 틀 아래를 들추니 5만 원 신권이 가득하다. 돈을 본 김군수 얼굴에 살짝 미소가 번진다.

최원재 요즘 군청 살림 괜찮으시죠? 관광객들도 증가했다던데...  
김군수 예, 좀 나아졌죠. 허허허.  
최원재 (의미심장하게) 근데... 요즘 운영하시는 행정선을 보니... 영 품이 안 나더라구. 요즘 누가 그런 걸 탄답니까?  
김군수 그런가요? 좀 낡았긴 하지요?

최원재가 몇 장짜리 서류와 배 사진이 있는 브로슈어를 건네준다.  
새 행정선 발주를 위한 자료와 배 사진들이다. 신형 요트 스타일의 멋진 배 사진들이 들어 있다.

최원재 요런 스타일은 어떠십니까?  
김군수 허허, 요즘 이런 사업도 하십니까?  
최원재 아이... 요만한 염전 가지고 무슨 돈이 되겠습니까...? 그거야 지역문화 보전차 하는 거고... 앞으로의 트렌드는 (보트 사진 가리키며) 이거죠!

## #16 소금과 빛 연수원 앞(밤)

집으로 돌아가려는 김군수와 마중 나온 최원재가 건물 앞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그때 연수와 철기가 탄 순찰차가 건물 앞 주차장으로 들어온다. 경찰차 등장에 화들짝 놀란 두 사람. 연수와 철기가 내린다. 김군수와 최원재가 눈치를 본다.

연수 (이상한 낌새지만 아무 일 없다는 듯) 어...? 다시 뵙네요... 건물에 아직 불이 켜져 있길래... 화장실 좀 쓰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최원재 아... 아하하하 그렇다면. 어서 들어가서 써요.  
연수 (철기에게 따라오라고 눈치) ...  
철기 (나도? 라는 표정) ... (눈치채고) 아! 아 네... (따라 들어간다)  
연수 (속삭이며) 봤어? 김군수지...? 이 밤에 여기까진 무슨 일이지?

김군수를 차에 태우는 최원재.

최원재 (비서에게) 배까지 잘 바래다드려.

급히 인사하고 빠져나가는 차.

## #17 도로 + 방파제(이른 아침)

야간근무 내내 차 안에서 거점근무를 한 두 사람. 철기 잠들어 있다. 연수는 피곤 가득.

연수 (기지가 펴며 하품) 아함...  
철기 (놀라 깬다) 어...?  
연수 (놀리듯 다그치며) 잘 잤냐?

동이 트며 대지와 바다에 푸르스름한 빛이 입혀진다.  
연수가 다시 시동 건다. 도로를 달리는 차. 방파제 근처를 지나는데. 물의 수위가 높아져 있는 것을 발견한 연수. 급히 차를 세운다.  
연수가 차에서 내리고 놀란 철기가 따라 내린다. 둘은 시신이 발견된 방파제 끄트머리로 간다. 물의 수위가 높아져 방파제 하부 구조물이 물에 모두 잠겨 있다.

인서트.

#5. 방파제 아래 드러난 구조물에 걸려 있던 시신.

연수 (혼잣말) 수위가 많이 높아졌네... (뭔가 떠오른 듯) 조류라.....  
철기 (떨뚱) ...

## #18 염전(이른 아침)

염전이 이른 새벽부터 분주하다. 염전 주임이 소금꾼<sup>1</sup>을 크게 혼낸다.  
주변의 다른 소금꾼들은 이를 말리지 못하고 쳐다만 본다.

주임 씨발, 어제 해주 관리 잘하라고 했더니만, 이게 뭐야?  
일하기 싫어? 밥 벌어먹는 게 쉬운 줄 알아?

주임은 소금꾼<sup>1</sup>을 발로 찬다. 소금꾼<sup>1</sup>이 넘어진다. 넘어진 소금꾼에게  
계속 발길질을 한다. 순찰차를 타고 돌아가던 연수와 철기가 멀리서 그  
모습을 본다.

연수 (황당해서 실소) 허... 저건 또 뭐야?  
철기 아... 저게... (연수 짜증 나서 차에서 내림)  
(말리려는 듯) 저기... 선배님. (따라 내린다)

연수 (차에서 내린 연수가 곧장 현장으로 다가가며 소리침) 무슨  
일이세요!?

소금꾼<sup>1</sup>에게 계속 발길질을 하고 있던 주임. 연수를 보고 당황한다.  
하지만 주임의 화는 가라앉지 않는다.

주임 아-! 신경 쓰지 말고 가던 길 가세요.  
연수 (짜증, 철기에게 소곤) 여긴 너나 나나 다 하는 말이 가던 길 가라냐?  
(앞에 가서 좋게 달래며) 아니... 화나는 일 있으시면 말로 하시면  
되지.

연수와 철기가 넘어져 있던 소금꾼<sup>1</sup>을 일으키기 위해 팔을 붙잡는다.  
피부염으로 검게 변해 있는 소금꾼<sup>1</sup> 의 팔뚝. 연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인서트.  
#6. 보건소. 검시실의 변사체 팔뚝에 있던 똑같은 흑변.

주임 (화내며) 이봐요. 여기 일은 경찰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야...  
연수 (기분 좋게 풀려고) 아니 그래도 이걸 보고 어찌 그냥 지나가나요.  
다 저희 아버지, 삼촌 같은 분들이신데... (주임이 도발 못 하게 손을  
다정히 잡고) 자... 너무 화내지 마시고. 그렇게 화내시면 혈압에 안  
좋습니다. 건강 생각하셔야지요.  
주임 (손 못 빼내고, 화도 못 내고 우물쭈물) ...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예은, 멀리서 그 모습을 의미심장하게 지켜본다.

## #19 함일초등학교 교무실(낮)

예은이 교무실 자기 책상에 앉아 일을 하고 있다. 교사 노트를 펼치는데  
들어 있는 사진 한 장. (보여주진 않음) 사진을 보며 잠시 생각에 빠진  
듯한 예은...

선생<sup>2</sup>(E) 예은 선생 나 좀 봐요.  
예은 (화들짝 놀라며) 네?! (따라서 나간다)

교무실 한편에서 학교운영위원장 상훈이 선생<sup>1</sup>과 이야기를 나누다 마무리  
인사를 한다.

오상훈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sup>1</sup> 오히려 저희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걱정 마시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상훈이 교무실을 빠져나오다 예은 선생 책상에서 눈이 멈춘다. 예은이  
펼쳐두고 간 사진을 본 것이다. 상훈은 사진을 보고 살짝 놀라며 주변의  
눈치를 살핀다.

## #20 파출소 휴게실(저녁)

연수 야간근무 출근. 힘차게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연수.  
홍소장 몰래 철기와 눈짓을 나누고 바로 2층 휴게실로 간다.

홍소장 (이상한 낌새) 으응...? 뭐야?

2층 휴게실, 철기가 커다란 지도를 들고 와 휴게실 테이블에 펼친다.

철기 이걸, 말씀하신 대로 어제 해경에 들러서 받아온 해상지도구요.

그리고 서류가 든 상자 더미를 가져와 테이블에 내려놓는다.

철기 그리고 이걸 최근 10년간 우리 관할 구역에서 발견된 변사체들이요,  
연수 우선 발견된 변사체 위치를 모두 표시하자.

펼쳐진 지도를 부감으로 보여준다. 둘이 서류를 확인하며 지도에 노란  
스티커를 붙인다. 시신 발견 장소가 관할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

연수(E) 그다음 본서 조사에서 외국인으로 확인된 시신들을 제외하고...

서류를 보며 지도 위에 흰색 스티커를 덧붙인다.

연수(E) 발견 당시 시신의 부패가 심하지 않은 것들을 표시해봐... 수중에선  
부패 속도가 느린 편이고 게다가 부패가 심하지 않다면 멀지 않은  
곳에서 온 것들이야.

노란 스티커 위에 빨간 스티커를 붙인다. 테이블 위의 지도가 완성된다.  
빨간 스티커가 오산도와 함일도 사이에 몰려 있다. 철기가 지도를 보고  
놀란 듯 연수를 쳐다본다.

연수 (의미심장) 이상하지?

연수가 지도의 오산도와 함일도 사이를 가리키며,

연수 보다시피 여긴 다른 곳보다 바다 깊이가 낮고 해저면이 복잡해.  
(컴퓨터에서 뽑아온 서류를 보여주며) 조류 속도도 외해에 비해  
느리고, 게다가 오산도 북쪽 해안은 반류로 인해 흘러온 물이  
정체되기도 하지... 이 시신들은 멀리서 온 게 아닐 거야.

철기 그렇다면... 함일도에서 온 건가요?

연수 (오산도 북쪽 건너편인 함일도 남쪽 염전이 펼쳐진 지역을 가리키며)  
그것도 이쪽에서...

두 사람은 같은 결론에 도달한 듯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한다.

(E) 철컹. 문 열리는 소리. 둘은 화들짝 놀라 테이블 위에 놓았던 자료들을  
급하게 숨긴다.

홍소장 ... 뭐야?

철기 (멋쩍은 듯) 하하... 퇴근하세요?

연수 (급히 컵라면을 챙기며) 아하하하... 야식을 좀 먹을까 해서요...

홍소장 뭘 오자마자 야식 타령이야?

둘은 시치미를 떤다. 홍소장은 이상한 듯 둘은 째려보며 집을 챙긴다.

## #21 학교 관사(밤)

관사 휴게실에서 다른 선생님들과 TV를 보던 예은. 시계를 보니 9시가  
넘었다.

예은 (TV 보는 다른 선생에게) 저 잠시 산책 좀 하고 올게요.

꾸벅 인사를 하고 예은은 관사를 나와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달리기  
시작한다.

## #22 염전(밤)

염전 바로 옆에 위치한 숙소는 낮고 작은 컨테이너 박스. 불빛이 새어 나오는 창문.

(E) 예은이 창문을 똑똑 두드린다. (E) 안에서 기침 소리.

예은 (작은 목소리로) 아저씨...? 아저씨...  
 소금꾼1 (철창 안쪽의 창문이 열리며 조심하 말한다) 선생님...?  
 예은 (가방에서 봉지를 꺼내 철창을 통해 건넨다) 이거... 약이요...  
 소금꾼1 아이고 고마워라...  
 예은 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다음에 가져다드릴게요.  
 소금꾼2 정말 고마워요.  
 예은 근데... (가방에서 뭔가 주섬주섬 꺼내며) 저번에 여쭙보려다 못 한 건데요... 이것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은은 철창을 통해 사진 하나를 건넨다.

소금꾼들은 사진을 돌려가며 본다.

예은 혹시 거기 사진 속 남자 본 적 없으시나요?  
 소금꾼2 (대충 봄) 남자...? 잘 모르겠는데... 내가 눈이 안 좋아서...  
 예은 (애원) 그러지 마시고 자세히 좀 봐주세요. 김형우란 사람 혹시 모르세요?  
 소금꾼1 김형우... (모르는 척) 그런 사람은 모르겠는데...  
 소금꾼2 (조용히) 혹시... 그... 사람... 그 절름발이 아니야? 닮은 것 같...  
 소금꾼1 (말 못 하게 툭 치며 눈치를 준다) ...  
 소금꾼2 지만... 아닌 것 같네... (확실한 말투로) 음... 아니야 아니야... 다르게 생겼어...  
 예은 (실망한다) ... 그럼 혹시 또 외지인 일꾼들 있는 곳 아세요...?  
 소금꾼2 여기 한두 명 있는 것도 아니고... 워낙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이 많아...

소금꾼1이 고민스러운 표정이다.

예은에게 미안한 마음에 뭔가 말해주기로 결심한다.

소금꾼1 (조심스럽게) 저기... 혹시 여악산 쪽 까봤어?  
 소금꾼2 (놀라서 말을 막아보려) 저...  
 예은 (단서를 얻어 반가운 듯) 거기가 어디예요?  
 소금꾼1 거기... 어... 뭐냐... 함일도 북쪽에 있는 산인데... (소금꾼2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손짓)  
 소금꾼2 (말 막기 포기) ...  
 예은 (의문스럽다는 듯) 거기도 뭐가 있어요?  
 소금꾼1 음... 그러니까... 약초꾼들이 있는데... 외지인들이 좀 있다고 들었어...  
 예은 (밝은 얼굴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금꾼1 뭐 감사할 것까지야... (봉지 들어 보이며) 오히려 우리가 고맙지...  
 소금꾼2 (염치없이) 그래서 말인데... 혹시 다음번에 파스나 이런 것도...  
 소금꾼1 (툭 치며 말을 막는다) ...  
 예은 네 물론이죠. 다음에 다시 들릴게요. 감사합니다.

예은이 수풀에 숨겨놓은 자전거를 꺼내 염전에서 벗어나 사라진다.

## #23 학교(낮)

학교 1층 자료실 앞 복도의 격자창살 유리가 여러 군데 깨져 있다. 선생1이 근심 많아 보이고 연수와 철기가 깨진 유리 조각들의 형태를 유심히 살펴본다.

선생1 이게 벌써 세 번째라니까요.  
 연수 이 창문만 세 번째라고요?  
 선생1 그건 아니고요... (바로 앞 교실 가리키며) 지난번에 저 교실 앞 창문, 그리고 지지난번엔 (뒤쪽 교실 가리키며) 저쪽이요.  
 연수 (살피며) 없어진 것 없구요?

그때 갑자기 자료실 문이 드르륵 열리며 예은이 나온다. 서로 놀란 사람들.

예은 손엔 두루마리로 된 종이가 들려 있다. 예은이 급히 자리를 피하려다 연수와 부딪히며 두루마리 종이를 놓친다. 연수가 종이를 주워준다.

연수 (속삭임, 의문) 지도…? (지도 클로즈업)

멋쩍은 예은이 목례를 하고 급히 자리를 떠난다. 멀어져가는 예은이 신경 쓰이는 연수.

선생1(E) (이어서) 없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딱히 가져갈 게 없어서…

연수가 복도 창문 넘어 옆 중학교 운동장을 유심히 본다. 학생들이 야구가 한창이다. 철기도 연수가 보는 방향을 봐보지만 뭐가 문제인지 잡아내지 못한다.

연수 (창문 하나 잠금장치를 만져보며) 요 창문 잠금장치가 고장 났네요?  
선생1 어머 그러네? 바로 고쳐놔야겠네요.

## #24 교무실(낮)

예은이 교무실로 와 자기 책상 위에 자료실에서 가져온 종이를 펼친다. 오래된 지도이다. 예은은 지도를 손가락으로 훑으며 여악산을 찾는다.

예은 (혼자서 조용히) 여악산… 여악산… 여악산.

아무리 찾아도 여악산 표시가 없자 이상한지 고개를 가우뚱거린다.

선생2 뭘 그렇게 찾아?

예은 (놀라서) 아?! 혹시 여악산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선생2 글썸… 나도 이 동네 출신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예은 (실망한 듯) 그렇군요…

## #25 학교(낮)

#23에 이어서 조사를 마치고 건물을 나오는 연수와 철기.  
선생1과 인사를 나누며,

연수 너무 걱정 마세요. 우선 저희가 한동안 순찰을 자주 돌도록 할게요.

인사를 마치고 차에 탄 연수와 철기.

철기 벌써 세 번째라는데 이대로 끝내는 거예요?

연수 (피식 웃으며) 옆 중학교 애들 짓이야. 창문 잠금장치를 고치면 다음번엔 공을 못 찾아갈 테니 그땐 딱 걸리는 거지… 학교끼리 해결하겠지. (차 출발)

철기 (감탄의 끄덕끄덕) 오…

## #26 매운탕집(낮)

대낮부터 식당에 앉아 회에 술을 먹고 있는 마을 사람들(오상훈, 학부형들). 근무복 차림의 홍소장이 식당에 들어오다 사람들을 보고 반갑게 인사한다.

홍소장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빠꼼히 보면서) 오늘은 또 뭐야?

오상훈 (반가워서) 아이고… 형님. 어서 오세요. (자리 내어주며) 도다리. 도다리. 자연산. 어서 앉으세요.

홍소장 그럴…까…?

## #27 숲속(낮)

적막하고 음침한 숲속을 헤치며 걷고 있는 연수와 철기. 걸기가 힘들다. 철기가 앞서 걷고 있고, 연수는 무전을 받고 있다.

연수 (무전기 대고) 네, 네 접근 중입니다. (무전기 소리 삐빅빅)

철기 (뒤돌아보며) 뭐래요?  
연수 관광객이, 요 근처에서 무슨 비명 소릴 들었다나 봐…  
철기 비명이요…?

(E) 꾸에엑!! 요상한 비명 소리.  
둘은 눈을 맞추고 급하게 비명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달려간다.  
(E) 꾸에에에엑!!!! 수풀과 나무를 마구 헤치며 나아가 마침내 현장에 당도한 두 사람.  
네 명의 남성이 피가 배어 나오는 거대한 포대자루를 나무에 매단 채 몽둥이로 치고 있다.  
한 대 칠 때마다 비명과 피가 튀다.  
놀란 연수와 철기, 테이저건을 겨누며,

연수 (다급)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뒤돌아보는 네 사람. 얼굴과 옷에 피가 튀어 있고, 분위기가 험악하다.

연수 무기 버리고, 물러나십시오.  
남자2 (비웃으며) 킁킁… 무기래…

남자들이 우습다는 듯 킁킁대며 웃는다.

연수 (강력하게) 무기 버리십시오!!!  
남자들 까짓것 하는 표정으로 몽둥이를 내려놓고 물러선다.  
테이저건을 겨누는 연수가 철기에게 눈짓한다. 철기 얼른 나무로 가 포대를 내린다. 둘은 긴장한 채 포대를 여는데, 피투성이 돼지이다.  
긴장이 풀리는 연수, 철기. 뒤에선 남자들이 웃기다는 듯 킁킁댄다.

연수 (기분 나쁨) … (정신 차리고) 드시려고 이런 겁니까?  
남자1 (무성의) 네.  
연수 (기분 나쁨) … (진지) 이거… 축산물위생관리법 저촉되는 거

아시죠?  
남자1 (빈정) 어찌죠? 이게 동네 어르신들 부탁이라 어쩔 수가 없는데…  
연수 (기싸움) …  
남자1 (빈정) 다음번엔 어르신들보고 정육점에서 사드시라고 말씀드리지요.  
연수 … 다음번에도 계속 이렇게 하시면 그뎨 그런 변명도 소용없을 겁니다.  
남자 (무성의) 네에.  
연수 철기야 가자.  
철기 네.

연수 철기, 지나쳐 가려고 하는데 뒤에 피 묻은 밧줄이 묶여 있는 나무들, 여러 그루. (돼지가 아닌 사람이 묶여 있던 듯, 의미심장한 모습)

연수, 철기 (멈칫) …  
남자1 이게… 워낙 전통이라…  
한순간에 바뀐다는 게 쉽진 않을 겁니다.  
연수, 철기 (기분 나쁨) … (간다)

## #28 매운탕집(이른 저녁)

#26에 이어서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오상훈 패거리와 흥소장의 술자리 겸 화투놀이가 계속되고 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다.  
그때 예은이 식당으로 들어오며 주인아주머니와 인사를 한다.

식당 주인2 어서 와요, 선생님… 식사하려고?  
상훈, 예은을 발견하고 뭔가 생각난 듯,  
인서트.  
#19. 상훈이 예은 책상에서 사진 발견한 모습.  
의미심장한 상훈이 예은을 반긴다.



오상훈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김선생님 아니십니까!  
 예은 (흠칫) ... (눈치 살피며) 식사하고 계셨어요?  
 오상훈 (가까이 다가가서) 잘됐네... 오늘은 그냥 못 보냅니다.  
 (홍소장에게 소개하며) 형님, 형님. 여기 김예은 선생님이라고 우리  
 동일이 담임선생.  
 홍소장 오오 그래. 이분이 담임선생님이시구나.  
 예은 (얼떨결에 인사) 안... 안녕하세요.  
 오상훈 에이 너무 어려워한다. 제 큰형님이셔. 긴장 안 해도 돼요.  
 예은 (놀라는 기색) 형님이요?  
 오상훈 (재밌어하며) 아하하, 아니 친형님은 아니고... 친형처럼 모시는 분.  
 예은 네...  
 오상훈 (소주 한 잔 주며) 이것도 인연인데 같은 공무원끼리 짠 한번  
 하셔야지.  
 홍소장 아이고 그럴까?  
 예은 ... (불편, 어쩔 수 없이 소주잔 받아들고 홍소장과 짠 한 뒤  
 들이킨다)

## #29 마을 주민 집(이른 저녁)

흠투성이 피곤한 얼굴의 연수와 철기. 신고를 받고 찾아간 집 마당에서  
 중년의 부부가 한창 싸움 중이다. 남편은 아내의 빗자루 매질을 피해  
 다니느라 정신이 없다.

아내 이놈의 영감탱이가 남들은 돈을 퍼오는데, 어디서 돈을 다 잃고  
 와?!!!  
 연수 이러지들 마시고 진정하세요.  
 남편 (들리지 않음) 아니 그냥 상훈이가 자꾸 꼬드기는 바람에.  
 아내 그래서 번 돈을 고스란히 다시 주고 온 거야?!!  
 남편 아니... 좀 있으면 돈은 또 들어온다니까~!  
 연수 (무슨 소린가 함) ...?

마당의 집기를 남편에게 던지는 아주머니. 연수와 철기가 막아본다.

하지만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아주머니, 막고 있는 연수 머리고덩이를  
 붙잡고 울부짖으며 혼든다.

아내 뚱뚱한 입이라고. 저 망할 놈의... 시키가... 죽어! 나가 죽으라고!!  
 연수 (머리 붙잡혀서) 아아악!

철기가 달려와 아주머니를 말려보지만 여전히 난장판이다.

## #30 세워둔 경찰차(저녁)

피로한 얼굴. 연수는 머리가 엉망이다. 몸이 쑤시는지 여기저기 두드린다.  
 철기는 안심의 한숨을 몰아쉰다.

연수 (허리 두드리며) 아이고야...  
 철기 (그 모습이 웃긴지) 훗.  
 연수 웃겨...?  
 철기 아... 아뇨... 아닙니다!

연수 자신도 자기 꼴이 웃긴지 서로 멧쩍게 웃는다.

## #31 식당(늦은 저녁)

식당을 나오며 사람들과 인사 나누는 홍소장. 취해 있다.

홍소장 (고스톱 손동작) 아이고... 오늘 판은 나한테 운이 다 달라붙었나  
 보네? 있는 돈 다 내 주머니로 들어간 거 아니야?  
 오상훈 (웃으며)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지요 뭐... 허허허.  
 홍소장 (오상훈 바지에 몇만 원 찢러주며) 애들 간식 사줘...  
 오상훈 (극구 사양하며) 아니 괜찮다니까?  
 홍소장 (결국 넣어줌) 아니... 미안해서 그러지...  
 마을 사람 나는 안 찢러주셔?  
 홍소장 자네 애들은 다 커서 육지 가 있잖아~!



그때 잔뜩 취한 예은을 마을 사람이 부축해서 음식점을 나온다.  
예은은 잡고 있는 팔을 뿌리치려 하지만 몸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

홍소장 아이고... 너무 먹인 거 아니야?  
오상훈 (아니라는 듯) 에이... 김선생님이 생각보다 술이 약하네...  
홍소장 (예은을 보며) 아이고... 집엔 어떻게 가시나...?  
오상훈 저희가 책임질 테니 걱정 마시고. 형님이나 어여 가십시오.

웃고 떠드는 사람들. 홍소장과 사람들은 취한 채로 각자 자기 차에 타고 간다. (음주운전)

### #32 소금꾼 숙소(밤)

일을 마치고 숙소에 와 퍼질러진 일꾼들.

소금꾼2 어... 저기, 김선생이 준 파스 좀 쥐봐.  
소금꾼1 (건네준다) 자...  
소금꾼2 (파스 붙이며) 아이고... 좋다...  
소금꾼1 (심각)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김선생한테 사실대로 말하는 게 어떨까?  
소금꾼2 (정색하며) 미친 소리!! 뭘 또 얘기 하려고? 벌써 여악산까지 얘기해줬잖아. 잘못하다 김선생은 물론 우리까지 죽어!

### #33 마을길(밤)

파출소로 돌아가는 연수와 철기. 연수가 운전 중이다. 둘 다 피로한 얼굴.  
그때 앞에 가고 있던 오상훈의 SUV가 휘청거리는 걸 본다. 연수는 바로 경광등을 켜고 앞차를 세운다. 연수가 순찰차에서 내려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린다.

연수 잠깐 내려주시겠습니까?

(E) 차 안에서 마을 사람과 떠들썩하게 웃는 소리.

오상훈 (차 안 사람들에게) 하하하... 내가 해결할게... (차에서 내린다)  
연수 약주 하셨습니까? 면허증 보여주십시오.  
오상훈 아! 누군가 했더니 새로 왔다는 경찰분이시구나.  
아니 방금 전까지 형님, 아니... 소장님과 같이 있었는데...  
연수 (차 안의 철기에게 손짓하며) 음주측정기 가져와봐.  
철기 (쭈뼛쭈뼛 측정기를 챙겨 내린다) ...  
오상훈 (인상 쓰며) 아니 왜 이러시나...?  
연수 면허증 어서 주십시오.  
오상훈 면허증은 주겠는데...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연수 (확인한 면허증 철기에게 건네고 측정기 받음) 붙여주시겠습니까?  
오상훈 (거부하며) 아니 이봐...!! 내가 소장님하고 잘 아는데...  
연수 지금 누구인 게 왜 중요합니까? 어서 부세요.  
오상훈 (기가 차서) 허... 자... 잠깐만... 소장님하고 얘기를 좀...  
(운전석에 얼굴을 들이밀고 핸드폰을 찾는다)

그때 취해서 몸 가누기가 힘든 예은이 뒷좌석에서 힘겹게 말을 한다.

예은(E) 나 내릴래요...!!!  
연수 (여자 목소리 듣고 놀라서) 누굽니까?  
오상훈 어? (괜찮다는 듯) 아...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 아들내미 담임이신데...  
예은 (힘겹게 애원) 내릴래요...

연수는 상훈을 밀치고 차 안으로 얼굴을 들이민다. 예은이 마을 사람 사이에 끼어 앉아 있는데 술에 취해 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연수 선생님. 선생님. 괜찮으세요?  
예은 (애원하듯) 내려주세요...  
연수 (차에서 몸 빼고 상훈에게) 선생님이 내리시길 원하니 내려야겠습니다.

(E) 사람들의 원성 소리 아이씨. 연수가 철기에게 눈짓을 해 같이 예은을 부축해 내린다. 오상훈은 어이없어한다. 차에서 내린 예은이 연수의 팔을 꼭 잡고 있다.

오상훈 아니... 선생님이 술을 좀 하셨어야지! 제가 뭐 저 좋아고 이런 줄 압니까?  
연수 (쏘아붙이며) 지금 본인도 음주운전이신 것 같은데요?  
오상훈 (성질) 아니... 이것 보세요!  
연수 (기 싸움) ... (잠시 생각 후 한숨 폭) 후... 지금 음주 측정하시고 파출소 가실래요? 그냥 가실래요?  
오상훈 (당황) 예...? 그야 그냥 가는 게...  
연수 철기야... 네가 운전해라.  
오상훈 (놀라서) 어?  
철기 (놀라서) 네?  
연수 (눈짓으로, 어서!)  
철기 아... 네... (오상훈 키 받아서 운전석에 탄다)  
연수 (철기에게) 도착하면 연락해. 데리러 갈게.

오상훈이 차에 타고 차가 출발한다.  
멀어져가는 차 안에서 상훈이 연수와 예은을 주시한다.

연수 (다정) 이제 다들 갔으니까 안심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은 (울먹울먹) ... 김...예...은...이요.  
연수 학교 관사까지 데려다드릴게요... 차에 타시죠.  
예은 저기... 그냥 계속 따라다니면 안 될까요? 오늘 관사에 저 혼자라...  
연수 어... (잠시 생각 후) 그럼... 저희 집에 가실래요?

### #34 연수 집(밤)

연수 집 마당. 연수와 예은을 보고 놀란 얼굴의 남훈. 아기는 남훈 품에서 자고 있다.

연수 여기 함일초등학교 김예은 선생님인데 오늘 하루 신세 지려고.  
남훈 (당황) 어... 어...  
예은 (아직 취기 남은 채 꾸벅) 안녕하세요...  
남훈 (꾸벅)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중학교 백남훈이라고...  
연수 (아기에게 다가가며 속삭인다) 상이 잘 자는구나...

(E) 갑자기 핸드폰 진동 소리.

연수 잠깐만... (전화 받고) 어 철기야... 어. 알았어. 갈게...  
나 철기 데리러 가야 해. 그럼 두 사람 잘 있고... 아침에 보자.  
(훅 나감)

예은은 나가는 연수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다 고개를 돌리니 남훈이 있다.  
어색한 두 사람.

### #35 오산중학교(낮)

[오산중학교 문화의 날] 전시회 플래카드가 학교에 걸려 있고. 비번인 연수는 아기를 데리고 와서 관람한다. 교실 하나로 들어가는 연수, 학생들이 그린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다. 지도교사인 남편 남훈이 교실에서 학생들과 이야기 중이다.

연수 (조심히) 자기야...?  
남훈 (반가워서) 어 어서와... (학생들에게) 자 여기 내 아내랑 우리 딸...  
학생들 (웬지 부끄러워 감탄사) 까~~

연수 부부와 학생들이 얘기하고 있는 사이 함일도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학생들과 구경하러 들어온다. 예은을 발견한 연수가 반갑게 인사한다.  
예은도 목례로 답한다.  
예은이 뭔가 할 말이 있는지 다가오려는데 그때 교실로 들어오는 홍소장.

홍소장 (반갑게) 아이고 우리 백선생, 남경사~

연수 (놀람) 어쩐 일이세요? 소장님.

연수와 반갑게 인사하는 홍소장을 본 예은이 놀라 얼른 같이 온 선생과 아이들 틈으로 몸을 숨긴다. 연수는 홍소장과 인사를 나누며 그런 예은을 보고 의아해한다.

예은은 아이들 틈에 섞여 따라가다 전시된 그림을 본다. 그림들을 보다가 풍경화 중 제목에 “여악산”이라 적힌 것을 본다. 산으로 둘러싸인 넓은 지대에 붉은 꽃들이 가득한 풍경화다.

예은 (놀라서) 여기가 여악산이에요?

선생1 어? (그림 보고) 어... 그렇네... 근데 김선생이 여악산을 알아?

예은 혹시 여기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선생1 (가우뚱) 2번 도로 따라가다가 있었나? 근데... 거기 개인 땅이라서 못 들어가.

예은 개인 땅이라고요?

선생1 응, 소금과 빛 재단 땅이야. 옛날엔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젠 못 가...

### #36 합일초등학교 교무실(낮)

학교 하교 시간, 교무실이 한산하다.

예은은 등산 준비를 하고 교무실 문을 나선다.

선생1 예은 선생 어디 가나?

선생2 등산 가나 본데요?

선생1 여악산 물어보더니만...?

### #37 몽타주. 여악산 찾기(낮)

1. 편한 복장. 2번 도로를 자전거로 달리는 예은.

(클로즈업. 2번 도로 표지판)

2. 캐주얼한 차림으로 산을 오르는 장면, 산 위에 올라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찾던 풍경과 맞지 않자 고개를 도리도리.

3. 다른 옷 입고 산 중턱에서 물 마시며 한숨 쉬는 예은.

### #38 여악산 입구(낮)

노란 바람막이 입고 또 다른 산 입구에 도착한 예은이 핸드폰의 GPS에 표시를 하고 종이 지도도 꺼내 표시를 한다. 그동안 지도에 표시한 X가 여러 개. 예은은 타고 온 자전거를 수풀에 숨긴 뒤 길로 들어선다.

### #39 여악산 / 최원재의 농장(낮)

최원재가 오상훈, 부하들과 함께 SUV를 타고 험한 산길을 달려 자신의 농장에 도착한다. 피골이 상접한 일꾼들이 그들을 맞이한다. 도착한 차에서 하나하나 내리고 마지막으로 최원재가 내린다. 그가 발 가까이로 걸어간다. 최원재의 발을 따라가던 화면이 밭의 농작물을 잡는다. 열매 맺은 양귀비가 가득이다.

오상훈(E) 지금 한창 작업 중입니다.

최원재 (열매를 만지며) 그래... 딴 문제는 없겠지?

오상훈 물론입니다.

최원재 일꾼들 단속 좀 잘하라고... 내 손 안 가게...

오상훈 (고개 숙이며) 죄송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원재 상품 늦지 않게 준비해놓고.

오상훈 네. 준비 단단히 해두겠습니다.

그 모습을 건너편 숲속 안에서 몰래 보고 있는 예은. 놀라고 겁먹은 얼굴이다. 예은은 급히 자리를 피하려 한다. 힘겹게 숲속 경사지를 오르다 밟은 나무가 부러지며 우두둑(E) 소리가 난다.

최원재 (놀라) 뭐야?

숲속 나무가 약간 흔들린다.

오상훈 예? 뭐요?  
 최원재 무슨 소리 못 들었어? 가서 확인해봐.

예은은 겁에 질려 엉금엉금 기어 경사를 오른다. 순간 바람막이 옷이 나뭇가지에 걸리고, 용을 쓰자 찢어진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도망간다. 뒤따라온 오상훈.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려는 찰나 나뭇가지에 걸린 노란색의 옷 찢가리를 발견하고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는다.

## #40 파출소(초저녁)

휴게실에서 내려온 홍소장 손에 종이 뭉치가 들려 있다. 연수와 철기가 변사체 위치를 체크한 지도와 자료들이다.

홍소장 (비꼬듯) 야 너네들. 형사놀이 하고 다니니 재밌냐?  
 연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홍소장 내가 그만하랬지!  
 철기 (모른 척) ...  
 홍소장 (종이 뭉치를 책상 위에 팡 하고 던지며) 이 자식들이! 이래도 모른 척을 해?  
 연수 (무마하려고) 아 그건... 이 지역 지리를 파악하느라...  
 홍소장 지리 좋아하시네...?  
 연수 너! 얼마 전에 오상훈 위원장 차 잡았다며?!  
 연수 예...? 그건...  
 홍소장 네가 멀쩡한 사람 강압적으로 검문했다고 민원이 들어왔어!  
 연수 (어처구니없음) 네에??  
 홍소장 그리고 내가 말을 안 하려 했는데... 해경에서도 뭐라 그러더라. 네가 해경 일에 감 놈라 배 놈라 했다며? 내가 쪽이 팔려서 참... 니 눈엔 다 범죄자로 보이냐...?  
 연수 저기... 그게 아니라... 오상훈 일은 음주운전이 의심돼서...  
 그때 복합기에 팩스 오는 소리(E)가 들린다. 철기가 일부러 우당탕탕 가서

서류를 받는다.

홍소장 (성질) 다 저녁에 뭐야!?  
 철기 어... (서류 읽더니) 저번에... 그 변사체 조사 결과가 왔는데요.  
 연수 (놀람) 뭐?

연수가 놀라 철기한테로 가 서류를 확 뺏어서 본다.

홍소장 뭐래? 아마 내 말이 맞을 거다.  
 연수 (낙담, 읽고 조용히 서류를 내려놓는다) ...  
 홍소장 철기야 뭐래?  
 철기 (연수가 내려놓은 종이를 다시 들고) 김형우 39세, 본적은 대전이고요,

인서트.

서류 클로즈업. 형우의 신원 사진이 잘 보이게.

홍소장 사인은?  
 철기 사인에 대해서는... 범죄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고 하네요...  
 홍소장 (기고만장) 거봐라. 내가 그랬잖아.  
 (다그침) 세상 흘러 다니다 보면 이유 없이 그리되기도 하고 그런 거야.  
 연수 (순찰차 키 챙기며) 저 순찰 돌고 오겠습니다.  
 철기 어?! 선배님 저도 갈게요!! (급히 따라감)  
 홍소장 (성질) 아니, 저 자식들이 또...

## #41 순찰차(초저녁)

순찰차에 탄 두 사람. 얼굴이 어둡다.

철기 (뭐라도 위로해볼까 싶어) 저기...  
 연수 (자신에 실망) 철기야... 이 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철기 ...

연수 차를 출발시킨다.

### #42 합일초등학교 관사 + 순찰차(초저녁)

예은이 겁에 질려서 우왕좌왕 급히 집을 싸고 있다. 가방에 물건들을 넣던 중 특 하며 떨어지는 사진 한 장. (#19에서 보던 사진) 예은이 사진을 주워서 본다.

엄마, 오빠랑 찍은 고등학교 졸업사진.

(클로즈업. #40의 서류 속의 김형우와 같은 얼굴)

잠시 고뇌에 찬 예은. 맘을 고쳐먹고 폰을 찾는다.

폰을 열어 찍은 사진을 확인해보는데 흔들려서 알아볼 수가 없다.

잠시 고민 뒤 연수에게 문자를 보낸다.

운전 중인 연수에게 GPS 찍힌 지도가 문자로 온다.

(E) 땡 문자 도착 소리.

연수 (확인하고) ... 지도? ((E) 전화기 진동 소리, 전화 받는다)

예은(C.B) 남연수 경사님? 저기...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 #43 오상훈 차 안(저녁)

마을로 돌아가는 차 안, 뒷좌석의 오상훈이 찢어진 옷 조각을 보고 고민을 한다.

인서트.

#11. 여객터미널에서 예은이 입은 노란 바람막이.

오상훈 (뭔가 깨달은 듯) 차 돌려, 확인해볼 게 있어. 얼른!

### #44 관사 방 안 + 밖(늦은 저녁)

예은이 방 안에서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밖에 차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린다. 반가워서 창문을 내다보는데 오상훈의 차다. 놀란 예은은 급히 화장실 창문을 이용해 건물 뒤쪽으로 나가 몰래 자전거를 타고 도망간다. 오상훈이 힘으로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온다. 예은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짐을 뒤진다. 찢어진 노란 바람막이가 나온다.

오상훈 역시... (성질) 근데 이년은 어디 간 거야?!

(E) 그때 다시 밖에서 차 소리. 오상훈이 방 밖으로 나간다. 연수, 철기와 마주친다.

오상훈 (당황) 아... 무슨 일이신가요?

연수 (긴장) 그건 오히려 제가 물을 상황인데요?

오상훈 아...! 나는 전에 김선생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해서 만나러 온 건데... 없네. (서둘러)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 순간 떠나는 상훈의 팔을 툭 잡는 연수. 상훈 "뭐야?" 하는 얼굴. 둘의 기 싸움.

오상훈 (화를 누르며) 더 용건이라도...

연수 상훈의 차 안을 쳐다본다. 운전수 외에는 없다. 손을 놔준다. 오상훈 차에 타자마자 최원재에게 전화를 건다. 차는 출발하고.

오상훈 대표님? 저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 #45 관사 방 안(늦은 저녁)

문손잡이 망가진 것 본 연수. 둘은 급히 예은 방으로 들어간다. 아무도 없다.

연수 (찾으며) 김선생님? 김선생님? (아무도 없다) 어디 간 거지?

연수 전화 걸고, 철기는 집을 뒤져본다. 철기가 예은의 가족사진을 발견한다. (클로즈업)

철기 선배... 이거...

연수 (전화 걸다 놀라서) 이건... 김...형우...? (둘이 마주 본다.)

인서트.

#40의 서류에 있던 김형우 사진.

예은(E) (전화 받음, 헐떡이는 목소리) 예, 경사님.

## #46 도로(밤)

예은이 함일도 다리 입구 풀숲에 숨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실루엣이 내린다. 남훈이다. 차에서 내려 두리번거리는 남훈. 그걸 보고 안심한 예은이 풀숲에서 나온다. 남훈은 놀라서 가슴을 쓸어내린다.

남훈 연수한테 연락받았어요. 어서 타요. (차에 타고 빠져나간다)

## #47 순찰차 안 + 여약산 입구(밤)

운전 중인 철기, 관포경찰서 명호와 통화 중인 연수. 컷백.

명호 너네 소장하고 얘기 안 하고 왜?

연수 (부질없다는 표정) 다 한통속이라서 그래.

명호 야 너 이 상황에서 헛짚었다가는 너나 나나 이젠 강등이 아니라 끝장이야.

연수 나도 알아...

명호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 에휴... 그럼 너만 믿고 출동할 테니까...

(걱정) 아... 근데... 나 진짜 괜히 말리는 거 아닌가 싶다...?!

연수 지금 증인 배 태워서 보낼 테니까. 관포 도착하면 신변보호 해주고, 증거는 내가 지금 확보할게... 알았어... 조심할게... 이따 봐. (전화 끊는다)

(핸드폰 지도 보다가 앞을 가리키며 철기에게) 어 저기, 저기, 저기!

철기 (급히 차 세움) ...

연수 철기 너는 가서 증거 확보하고, 나는 김선생이 말한 소금꾼들한테 가볼게.

철기 근데 정말 소장님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될까요?

연수 지금까지 봤잖아...!

철기 (끄덕) ...

연수 (단단히) 조심해야 돼!

철기는 손전등과 몇 가지 필요한 장비를 들고 산속으로 들어간다. 운전석에 앉은 연수. 순찰차가 출발한다. 걱정 많은 표정의 철기.

## #48 항구(밤)

어선 하나에 도착한 남훈과 예은. 남훈은 예은을 먼저 태운다.

남훈 저기...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우리 상이 데려와야 돼서요.

## #49 식당 주인1 집(밤)

친한 식당 주인1 집에 맡겨놓은 아이 찾으러 간 남훈. 주인집으로 들어가는데 최원재가 아이를 안고 있고, 주인과 최원재가 즐겁게 떠들고 있다.

식당 주인1 (반갑게) 어 왔어?

남훈 (최원재 보고 놀라서) 누... 누구세요?

최원재 (반갑게) 아...! 이분이 남연수 경사님 남편이시구나?

남훈 (긴장) 그런데요...?

최원재 예쁜 아기네요... 이름이...?  
 남훈 (통명) 백상이요.  
 최원재 이름도 이쁘네. (남훈이 아기에게 손을 뻗자 아이를 건넨다)  
 제가 댁 부인하고 급히 할 얘기가 있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남훈 지금 순찰 중이라 바빠서 그럴 거예요. 저도 전화 걸어볼게요.  
 그런데 성함이?  
 최원재 (명함 주며) 소금과 빛의 최원재 대표입니다.

## #50 양귀비밭(밤)

GPS 표시된 장소에 도착한 철기. 라이트로 비추자 넓게 펼쳐진 양귀비밭.  
 놀란 철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진을 찍고 있는데 숲에서 나온 검은  
 그림자가 철기를 둔기로 내려친다.  
 기절하는 철기. 검은 그림자는 오상훈이다.

## #51 소금관 숙소(밤)

소금관들과 창문을 사이에 두고 한창 얘기 중인 연수.

연수 지금 증거 확보 중인데, 신분보호 헤드릴 테니 서에 가서서 한 번 더  
 진술해주실 수 있으시나요?  
 소금관2 (겁먹음) 서예요?  
 연수 관포 본서에서 사람들이 올 거예요.  
 소금관1 (우물쭈물) ... 정말 보호되는 겁니까?  
 연수 그리고 궁금한 게... 그 팔... (가리킴, 소금관1 흑변된 팔 클로즈업)  
 그거 여악산 양귀비밭하고 관련 있는 거죠?  
 소금관1, 2 (안절부절) ...  
 연수 (철창 때문에 불편, 짜증) 근데... 저기 얘기 좀 편하게 하게 문 좀  
 열어주세요. (문으로 가 문고리를 돌린다) 어? (잠겨 있다. 밖에  
 잠금장치가 있는 문고리 클로즈업)  
 소금관2 (절실) 저기... 그렇담 우리 여기서 나가게 해주면 진술할게요.  
 소금관1 (자기 팔 한 번 보고 심각하게) ... 그리고 그 여악산이 다가

아니예요.

## #52 마을 도로 + 구멍가게 앞(밤)

아기를 데리고 항구로 가는 남훈. 백미러를 본다. 뒤에서 최원재의 차가  
 쫓아오는 것을 눈치챈다. 잠시 구멍가게 앞에 내린 남훈.  
 원재도 멀찍이 눈에 안 띄이는 곳에 차를 대고 계속 남훈을 주시한다.  
 남훈이 뒷좌석 문을 열고 아기에게 얘기한다.

남훈 상이야 잠깐만, 금방 분유 사가지고 올게.

가게로 혼자 들어가는 남훈.  
 (E) 잠시 후 아기 우는 소리가 차 안에서 난다.

원재 무리가 한참을 기다리는데 남훈이 나오질 않는다. 이상해진 원재가  
 남훈의 차로 간다. 아기 카시트 위에 놓인 핸드폰에서 상이가 울고 있는  
 동영상이 돌아가고 있다.

## #53 해변 도로(밤)

남훈은 상이가 든 아기 띠를 앞에 차고 오토바이를 타고 항구로 달려가는  
 중이다.

## #54 구멍가게 앞(밤)

#52에 이어, 열 받아 폭발하는 최원재.

최원재 (성질) 으아아악!!!! (차를 발로 찬다. 문이 찌그러진다)

화가 조금 가라앉자 손에 들린 남훈의 폰을 의미심장하게 쳐다본다.

## #55 창고 앞(밤)

연수는 소금꾼들이 말한 외진 곳의 수상한 대형 창고에 도착.  
무전기를 끄고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휴대폰을 여니 홍소장에게서 온  
전화만 잔뜩이다. 무시하고 철기에게 전화하는데 받질 않는다.  
전화 걸기를 포기하고 안을 들여다본다. 마약공장이다. 연수 놀란다.  
안에는 허술하게 장비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화학약품을 옮기고 있다.  
한 사람이 약품을 옮기다 올라오는 강한 산성기체에 팔이 데어 아파한다.

관리자 (성질) 뭐야?  
일꾼 (아픔을 참고 다시 옮김) 아... 아닙니다...

그 사람도 팔에 검게 염증(클로즈업)이 생겨 있다. 연수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얼이 빠져 있는데 전화가 온다. (E) 진동. 철기다. 얼른 받는다.

연수 너 어디야? 증거 확보했지?  
철기 ...  
연수 여기 엄청난 게 있어... 양귀비밭이 다가 아니라고.  
철기 ...  
연수 철기야...? 철기야...? 야...?

그때 연수 목뒤에 둔탁한 것이 닿는다. 긴장한 연수 천천히 뒤를 돌아본다.  
오상훈이 한 손엔 철기의 전화기, 한 손엔 파이프를 들고 서 있다.  
긴장한 연수, 슬슬 눈치 보며 뒷걸음질 치는데. 상훈이 파이프를 번쩍  
들고, 순간 연수는 공장 벽에 쌓아놓은 짐을 쓰러뜨리며 도망가기  
시작한다.

상훈 (짐을 헤치며 일어나) 잡아!!!  
  
상훈 패거리들이 연수를 쫓기 시작한다.

## #56 숲속(밤)

연수가 숲속의 나무들을 헤치며 달려가고 오상훈과 패거리들이 연수를  
뒤쫓는다. 컷백.  
연수는 어두운 숲을 달리고, 상훈 패거리는 플래시를 비추며 쫓아오고  
있다. 잡힐 듯 안 잡힐 듯 추격전이 이어지고.  
연수는 눈앞을 구분하기 어렵다.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연수.

연수 (힘겹게 일어나며, 무릎에 피) 씨...발.

절뚝거리며 다시 달리는 연수. 점차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다리도 말을  
듣지 않는다. 상훈 패거리는 계속 쫓아오고.  
힘겹게 달리던 연수 결국 실수로 넘어져 비탈길을 구르는데...  
한참을 구르던 연수는 돌부리에 부딪히며 멈춘다. 욱!  
고통에 찬 연수, 몸을 일으키려는데... 왼손에서 밀려오는 고통.  
손을 들어보는데,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부러져 있다.  
연수, 손목을 붙잡고 몸을 뒤틀며 고통을 이겨보려 하는데,  
연수 눈앞에 발이 멈춘다. 오상훈이다.  
연수 고개를 들자... 날아오는 파이프.

## #57 마약공장 내 안 쓰는 사무실(밤)

힘겹게 정신 차린 연수, 고통이 밀려온다. 정신을 차리고 자기 몸을  
살핀다. 손이 뒤로 묶여 있고 발도 묶여 있다. 주변을 둘러본다.  
구석에 철기가 많이 맞았는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

연수 (조심스럽게 부른다) 철기야...?

대답이 없는 철기를 확인하기 위해 묶인 몸을 힘겹게 움직여 기어서  
철기에게 간다. 어깨를 이용해 철기를 흔들어본다. 움직임이 없다. 가슴에  
귀를 대본다. 맥박을 확인하고 안심한다. 그때 방 바깥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린다. 벽을 이용해 힘겹게 몸을 일으킨 연수, 사무실 창문을 통해



바깥을 본다. 마약공장 가운데 소금꾼1, 2가 손이 묶여 무릎을 꿇고 있고 오상훈이 무서운 얼굴을 하고 서 있다. 연수가 놀란다.

연수 빌어먹을.

## #58 마약공장(밤)

발설한 소금꾼들을 겁박 중인 오상훈. 소금꾼들은 이미 많이 맞았는지 피투성이.

오상훈 (성질) 수십 년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한 결과가 이거야…?  
소금꾼2 (머리를 조아리며)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소금꾼1 …  
오상훈 (소금꾼1 머리를 움켜쥐며) 넌 왜 아무 말이 없어? (말로 찬다)

연수가 사무실 안에서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다. 심각한 연수. 그때 창고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온다. 최원재와 비서, 심복들이다. 연수는 놀라 창문 아래로 고개를 숙인다. 뭐라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연수는 사무실의 물건들을 힘겹게 뒤진다. 오상훈은 최원재가 들어오자 예를 갖추고 인사를 한다. 최원재가 소금꾼을 쓱 보더니,

최원재 경찰들은?  
오상훈 (사무실 가리키며) 안에…

연수는 사무실 서랍들을 뒤진다. 드라이버 하나를 발견한다. 실망이지만 어떻게든 쓰이겠지 싶어 오른쪽 소매 안으로 숨긴다. 사무실로 오는 발소리(E)가 들리자 원래 쓰러져 있던 자리로 가 얼른 눕는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최원재, 오상훈, 비서, 심복들이 들어온다. 그리고 최원재가 누워 있는 연수에게 와 손가락으로 볼을 쿡쿡 누른다.

최원재 이보세요… 경찰 양반… 눈 좀 떠봐…

연수 (모른 척) …  
최원재 (비웃음) 헛… 이래도…? (연수의 왼손을 지그시 밟는다)  
연수 (고통에 몸을 뒤틀다) 으…  
최원재 (실질 쪼개며) 데려가.

상훈과 심복들이 테이프로 연수 입을 막고 기절한 철기와 함께 끌고 나간다.

## #59 염전 바닷물 저수지(밤)

염전 저수지 옆 빈터. 철기는 아직 정신을 잃은 채 누워 있다. 연수가 질질 끌려와 누워 있는 철기 옆에 꿰어앉혀진다. 그리고 둘을 바라보는 원재와 상훈, 비서, 심복들. 차의 라이트가 비춰 주변이 환하다.

최원재 (비꼬며) 아주 용감했어.  
연수 (두리번거리다) 소금꾼… 소금꾼들은 어떻게 한 거지?  
최원재 (비웃음)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어차피 매질 좀 해주고 나면 원래대로 멀쩡히 쓸 수 있거든.  
연수 (깨달은 듯) 혹시… 김형우… 김형우도 그런 식으로 쓰다 버린 거야?  
최원재 김형우…? 김형우가 누군데?  
오상훈 (원재에게 귓속말로 소곤소곤) …  
최원재 (깨달은 듯) 아! 그건… 원래 사업이란 걸 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고가 생기기도 하거든…  
연수 (비뚤) 그런 사고가 아주 자주 일어나는 것 같은데…?  
최원재 (맞장구 웃음) 뭐 이런저런 일들은 언제든 일어나니까… 오늘 경사님한테도 같은 사고가 안 일어나란 보장은 없지… 안 그래?  
연수 너네들 이래봤자 다 끝이야. 이미 본서에 신고해서 출동 중이라고!  
최원재 (맹랑함에 어치구니없어 웃음) 그래…? 그거라면 방법이 있지.

최원재가 눈짓을 하자 심복들이 연수를 엮어놓고 결박한 다음 왼팔을 땅바닥에 뻗어놓는다. 최원재가 다가와 수그러 앉은 뒤 연수에게 눈을 맞춘 다음(기 싸움), 연수의 남은 손가락을 꺾는다.

고통에 차 꿈틀거리는 연수. 하지만 굴복하지 않고…  
 원재 이것 보라 하는 얼굴로 감탄한 뒤 그까짓 문제없다는 듯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낸다. 그리고 버튼을 몇 개 누르니 아이 웃음소리(E)가  
 들린다. 그제야 남훈의 폰임을 깨달은 연수 놀란다.

최원재 (동영상 보며) 아주 예쁜 아이야… (연수에게 들이댐) 이름이  
 상이라지…?  
 연수 (놀람, 겁먹음) 너, 너네… 우리 가족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최원재 (기고만장) 자 여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그냥 이렇게 뺨대다가  
 모두 골로 가는 거 하나. 다른 하나는, 지금 바로 본서에 전화해서  
 ‘잘못 본 거다. 올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때? 괜찮은  
 선택지 아니야? 아무 일 없이 우리 모두 다시 평화로운 삶을 사는  
 거지…  
 연수 (분을 삭이며 고민) …  
 최원재 (답이 늦자 철기를 가리키며) 채부터 답가.

심복들이 기절해 있는 철기를 물속으로 끌고 가 담근다. 물에 얼굴이  
 잠기자 정신이 든 철기가 발버둥 친다. 연수가 잠시 쳐다보다 안 되겠는지,

연수 (분을 삭이며) 알았어! 알았어! (잠시 생각 뒤) 할게! 한다고!  
 원재는 희죽 웃고는 눈짓을 한다. 심복들이 철기를 물속에서 꺼내 둔덕에  
 던진다. 쓰러진 철기가 가쁜 숨을 내쉰다.

연수 대신, 먼저 이것 좀 풀어줘. 나랑 철기 모두.  
 그 정도쯤이야 하는 듯 원재 다시 눈짓한다. 심복들이 연수와 철기를  
 풀어준다. 자유로워진 연수가 철기에게 다가가자 심복들이 연수를  
 공격하려 한다. 원재가 손을 들어 막는다.

연수 (철기 상태를 확인하며) 괜찮아?  
 철기 (거칠게 숨쉬며) 예… 괜찮아요…

연수는 철기의 몸을 살피는 척하며 오른쪽 소매에 숨겨놨던 드라이버를  
 건넨다. 놀란 철기. 하지만 침착하게 받아서 숨긴다. 연수 다시 원재  
 쪽으로 걸어온다. 원재는 손짓해 뒤에 서 있던 상훈이 가지고 있던 연수의  
 휴대폰을 받는다. 연수가 단축번호를 누르자 신호가 간다. 원재가 스피커  
 모드 켜라고 손짓한다. 연수 스피커 모드 누른다.

## #60 배 + 엽전(밤)

오산도로 가는 배 선교에 있는 명호.  
 (E) 전화가 울린다. 연수와 전화통화. 컷백.

명호 어.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 어떻게 돼가고 있어?  
 연수 (주눅 든 목소리) 선배… 정말 미안한데… 잘못 본 거 같아…  
 명호 (놀람) 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연수 진짜 미안해. 내가 축 안 좋은 길로 유명하잖아. 이번에도 헛다리  
 짚었지 뭐야.  
 명호 (당황) 어…? (잠시 생각, 성질) 야 이 자식아! 너 뺨에 한두 번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이런 식이지… 알았어! 너 나중에 관포  
 오면 크게 싸라!!  
 연수 정말 미안… 내가 아침에 다시 전화해서 다 설명할게…  
 명호 (혼자 구시렁) 아… 정말 내가… (전화 끊음)

최원재 입에 미소가 번진다.

최원재 (상훈에게 소리침) 애들한테 전화해서 관포항에서 기다리다가 그  
 선생이랑 이 자식 남편 도착하면 잡아오라 그래. 애새끼도,  
 오상훈 네!  
 연수 (놀람) 뭐라고??!! 데리고 있던 거 아니었어?  
 최원재 (히죽 웃으며) 뭘 그리 놀래?  
 연수 (분노하여 원재에게 달려든다) 이 자식들이!!!!

연수, 원재에게 달려들어 때린다. 원재 얼굴에 생채기가 생긴다.

심복들이 연수를 제압해 엎어뜨리고 누른다. 철기는 이미 붙잡혀서 움직일 수가 없다.  
원재 기분 나쁘다는 듯이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는다. 피가 묻어 나오자 얼굴에 짜증이 올라온다. (E) 그때 울리는 전화. 뒤돌아서 전화 받는다.

최원재 (공손히) 아, 예, 그럼요. 물론이죠. 다 준비했습니다.  
아 걱정 마시라니까. 제가 선적 날짜는 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직접 오셨다고요...? (뒤가 신경 쓰여) 잠시만요.  
(수화기 막고, 상훈에게) 상훈아, 경사님 오늘 밤 특별대우 좀 해드려라. (연수 보며) 이 정도 깡이면 하룻밤 정도는 버티고도 남겠어. (비웃음)

상훈과 심복들이 연수를 결박하여 끌고 간다. 연수는 발버둥 쳐보지만 소용이 없다.

## #61 케이지(밤)

바닷물 저수지에 잠겨 있는 케이지 안에 갇힌 연수와 철기. 물이 깊어 고개만 물 밖으로 내놓을 수 있을 정도. 소금꾼1, 2는 이미 케이지 안에 갇혀 있다. 물이 차 모두 덜덜 떠다. 상훈이 케이지 위에 달린 문에 자물쇠를 잠그며 경고한다.

오상훈 이 주변에 있는 거라곤 소금발뿐이니 소리 질러봤자 힘만 빠질 거야.  
상훈은 떠나고, 분노에 차 있는 연수 얼굴.

## #62 케이지 + 도로(밤)

시간 경과.  
하늘에 별이 가득. 염전 주변이 고요하다. 야생동물 소리만 간간이 들린다. 후들후들 떨고 있는 네 사람. 연수가 케이지 자물쇠를 살펴보니,

연수 드라이버 쥐봐.  
철기 네? 아 네... (옷 안에서 꺼내 건네줌)

물속으로 쓱 들어가더니 커다란 돌멩이를 하나 꺼낸다.

연수 (혼잣말) 아무도 듣는 사람 없었지!?

연수는 자물쇠 구멍에 드라이버를 박으려 하는데 왼손이 불편해 고정하기가 힘들다. 철기가 부들부들 떨며 다가와 잡아준다.  
(둘의 신뢰의 눈빛 교환)

연수 돌멩이로 크게 몇 번 내리친다. 그리고 자물쇠에 박힌 드라이버를 돌린다. 주변은 고요하다. 자물쇠가 열린다. 철기가 놀란다.

네 사람은 서로 도와 케이지 밖으로 나온다. 소금꾼1의 부상이 심하다. 연수와 철기가 소금꾼1을 부축하고 소금꾼2의 안내로 염전을 빠져나가기 위해 달린다.

한참 달려 포장도로로 들어선 네 사람, 잠시 숨을 고르는데 갑자기 환하게 켜지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네 명은 놀란다. (E) 박수 소리, 차에서 검은 실루엣이 내리고 빛 앞으로 나오는데 오상훈이 박수를 치고 있다. 심복들도 차에서 내린다.

오상훈 (박수 치며) 역시!! 여간내기가 아니야! (감탄) 대단해!  
(짜증) 나 오늘 좀 쉬나 했는데... 잠은 다 잤네, 다 잤어...  
그냥 물속에서 별서고 있었으면 간단히 끝날걸... 일을 번거롭게 하네... 이쁜 딸내미는 나~~~중에 보자고~!

심복들이 달려들어 네 명을 붙잡는다. 연수가 웅을 쓰며 발악을 한다.

연수 (발악) 빌어먹을 놈! 놓으라고!!!

## #63 해안도로 임시정박장(밤)

#9와 동일한 장소.

원재, 임시정박장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행정선 앞으로 간다.

일꾼들이 소금 상자를 싣고 있다. 그때 배에서 내리는 김군수.

최원재 (반가워서) 아이 김군수님... 뭘 이렇게 직접 오시고 그러시나요.  
 김군수 (못마땅) 들리는 소식이 있어서... 걱정이 돼서 말이지요.  
 최원재 에이 별일 아니라니까... ((E) 전화기 울리는 소리, 폰 화면에 오상훈 이름) (상훈 이름 화면 보여주며) 이것 봐요. 문제없다니깐요.  
 어 상훈아 어떻게 됐어? ㅋㅋㅋㅋ 그래 그럴 줄 알았더니깐...  
 알았어. 잘 처리해. (전화 끊으며, 군수에게) 저 못 믿으세요?  
 우리가 거래한 지가 얼마만...

(E) 그때 들리는 사이렌 소리. 김군수 당황, 원재는 별일 아니라는 듯 행동. 도로 양쪽으로 경찰차와 경광등을 단 차량이 막아서고 현장이 포위된다. 차에서 실루엣이 내린다. 홍소장이다.

최원재 (반가운 듯) 아! 홍소장님, 이 밤에 이런 곳까지 오시고, 그럴 필요 없는데.

홍소장의 얼굴. (클로즈업) 겁에 질린 얼굴. 뒤에서 사람들이 내리는데 관포서 명호 형사와 사복 경찰, 무장 경찰들, 그리고 연수다.

연수 (당당, 씩씩) 오늘부로 평화롭기는 끝났어.

원재 (당황, 분함) ...

## #64 배 위(밤)

플래시백 시작.

#60의 전화통화 장면에서...

연수(E) 진짜 미안해. 내가 죽 안 좋은 길로 유명하잖아. 이번에도 헛다리 짚었지 뭐야.

명호 (당황) 어...? (잠시 생각, 성질) 야 이 자식아! 너 땀에 한두 번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이런 식이지... 알았어! 너 나중에 관포 오면 크게 썰라!!

연수 정말 미안... 내가 아침에 다시 전화해서 다 설명할게...

명호 (구시렁) 아... 정말 내가... (전화 끊음)  
(심상치 않음에 열 받음) 빌어먹을... (걱정돼서) 축이 없긴...이 왕축 자식아...

(후배 형사에게) 어서 본서에 연락해서 연수 폰 위치 추적해!

후배 네!

명호 (선장에게) 최대 속력으로 가주세요. 급한 일입니다.

시간 경과.

배가 속도를 더 내 달리는 모습.

갑판에 나와 서서 안절부절못하는 명호.

후배가 명호에게 다가오며 폰을 보여준다.

후배 여기 위치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염전에 허허벌판이 대부분이라...

명호 (걱정) ...

예은(E) (적극적) 지도 저 보여주세요. 제가 거기 지리 잘 알아요.

멀리 서 있던 예은이 명호에게 다가온다. 뒤에 걱정스러운 표정의 남훈이 아이를 안고 있다.

## #65 도로(밤)

#62에 이어서,

심복들이 달려들어 네 명을 붙잡는다. 연수가 옹을 쓰며 발악을 한다.

연수 (발악) 빌어먹을 놈! 놓으라고!!!

그때 들이닥치는 경찰차. 명호다.  
상훈과 부하들 도망치기 시작하고 명호와 동료 경찰들이 달려가 이들을  
잡는다.  
상훈도 도망치려 하는데... 순간, 철기가 몸을 던져 붙잡는다.

## #66 도로(밤)

#65에 이어서.  
상훈과 부하들 다 잡혀서 한 대 모아놓음. 명호는 상훈에게 원재가 어디  
있는지 다그쳐 묻는다.

명호 (화내며) 최원재 대표... 어디 있는지 말 안 해??!!

조용히 쳐다보던 연수.

인서트.  
#60에서 통화하는 최원재.

최원재 (공손히) 물론이죠. 다 준비했습니다.  
아 걱정 마시라니까. 제가 선적 날짜는 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서트.  
#9의 해안도로 임시정박장.

최원재 나는 저기 '소금과 빛'의 대표 최원재라고 하는데. 급히 육지로 보낼  
상품이 있어서... 저기... 홍소장은 안녕하죠?

연수 (조심히 다가와, 다 안다는 듯) 해안도로지?

오상훈 (움찔) ...

연수 (찌익 웃으며 명호에게) 어디 있는지 제가 압니다.

연수 차로 가고, 명호 상훈을 끌고 가며,

명호 (뒷덜미 잡고 끌고 가며) 넌 따라와. 할 일이 남았어.

## #67 해안도로 임시정박장(새벽)

현재.

#63에 이어서 수갑 차고 잡혀 있는 최원재와 군수, 일꾼들.  
CSI가 행정선에서 나온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명호.

CSI 헤로인과 아편계 마약 양성반응입니다.

명호 (좋았어!! 주먹을 불끈) !!!

## #68 몽타주. 체포현장(새벽)

1. 마약공장. 들이닥치는 경찰들.
2. 양귀비밭. 들이닥치는 경찰들.
3. 선착장. 체포되어 수갑 찬 채 배에 타는 원재, 상훈, 심복들.

## #69 항구(새벽)

선착장 주변이 경찰차, 구급차와 많은 경찰들, 체포되는 범인들로 어수선.  
동이 터옴. 연수, 철기. 소금꾼1, 2는 구급차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차 한 대가 다가와 선착장에 서고 남훈이 아이를 들고 내린다.  
연수는 가족을 보고 반가워 차로 급히 가는데 남훈에 이어서 예은이  
차에서 내린다.

연수, 예은을 보자 맘 놓고 기뻐할 수 없다.  
가족에게 간단히 인사한 연수가 천천히 예은에게 다가간다.

어리둥절한 예은.

연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예은의 가족사진을 꺼내 보여주며(클로즈업)  
뭔가 심각한 얘기를 한다. (김형우 시신 발견 관련)

예은과 연수 사이에 잠시 대화가 오가더니 예은이 점점 무너지며 눈물을  
쏟는다.

연수의 품에 안겨 우는 예은. 토닥거리며 예은을 꼭 안아주는 연수.

동이 터오는 아름다운 오산도의 모습 전경.

## #70 에필로그. 추모의 집(낮)

봉안당 안. 예은 어머니 유골함 옆에 오빠 김형우의 유골함이 가족사진과 함께 들어 있다. 예은의 표정은 슬프지만 한결 가볍다.  
뒤에 정복 입은 연수(왼쪽 팔에 깁스)와 철기(반창고투성이 얼굴).  
어깨에 경위, 경정(1계급 특진) 계급장을 달고 있다.

예은이 물러서서 묵념을 하자 연수와 철기가 경례를 한다.

봉안당을 나오는 세 사람, 밖에 남훈이 아이와 기다리고 있다가 반긴다.  
날씨가 화창하다. 연수가 남훈에게 가 나란히 걷는다. 예은도 철기와 나란히 걸어 나오며...

끝.

작가 후기 이 작품의 시작은 우리 사회에 만연하지만 관심 없이는 바뀌지 않을 많은 사건들을 하나의 이야기에 엮어보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으니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감시하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정통 범죄 스릴러로서 초고를 썼고 당선이 됐다.

오랜에서 김규태 감독님과 멘토링을 통해 초고를 가지고 나의 약점과 강점을 분석해나갔다. 오랜 이전의 나의 작업이 안개 속을 걷고 있었다면 이젠 구름의 형태까지 보일락 말락 하지 않나 싶다. 아직 멀었지만 캐릭터의 힘,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추진력이 될지 배우는 감사한 시간이었다. 이 작품집에 실는 것은 초고를 퇴고한 것이다.

드라마스태이지 방영 작품에 선정되면서 박정범 영화감독님과 작업하게 되었다. 영화작업으로의 접근은 굉장히 설레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접근을 시도하게 되었다. 내가 초고를 쓸 때 장르적 재미에 집중하는 동안 잊고 있었던,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접근을 드라마스태이지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도전하게 된 것이다. 현재도 쓰고 있다. 벌써 두 번째 새로운 대본이 나오고 있고 아마 촬영 전까지 계속 고치지 않을까 싶다. 많은 걸 신경 써야 하고 한계도 많아서 매우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모든 과정들이 흥미롭고 재밌고 설렌다.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하게 되면 아마 더 고통스럽고 설렐겠지... 이놈아 힘내 넌 할 수 있어!! 오 신이시여 왜 이 모든 기쁨과 고통을 동시에 주셨나이까~~ 원망을 해보지만, 뭐 지금은 내 자신을 응원하며 계속 걸어 나가는 수밖에...

방영분과 작품집에 실린 대본은 전혀 다를 것이다. 놀라지 마시길...

# 경계의 여자들

이정연

---

## 등장인물

**김동비(30대 초반, 여) 전직 육상 금메달리스트. 현직 경찰청 홍보과 특채**  
은파까진 아니지만, 특채로 경찰서에 들어와 자기 자리를 잡지 못한다.  
그러다 실종전담팀의 요청으로 부서 이동을 하지만, 현장에서 실수를 하는 바람에 홍보실로 복귀할 위기에 처한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동비는 스스로 염효경 감시를 자청하며 사건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그녀 특유의 집념으로 앞장서 사건을 해결한다.

**염효경(40대 초중반, 여) 사이버 종교 교주의 딸**  
평생을 아버지 따라 전학을 수십 번 다니다 진주고등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난다.  
그러나 아버지가 일으킨 잔인한 사건으로 결국 친구도 잃고, 고향을 떠난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려 평생을 도망 다니고 숨어 살지만 결국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는 아버지의 죄를 당당하게 책임지려 한다.

**박상문(40대 초중반, 남) 실종전담팀 팀장 그리고 문제의 스파이**  
실종팀 팀장. 그릇된 믿음으로 염동식을 신봉하며 그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  
염동식을 위해 실종팀에 불박이로 근무하며, 하나교 관련 수사를 담당하면서 동시에 은밀하게 방해한다. 그 오래된 비밀이 김동비에 의해 밝혀진다.

**정균상(30대 초반, 남) 실종전담팀 팀원**  
상문을 따르는 후배로 씬 잘하고, 정의감 짙고, 입도 거친 형사. 속정이 깊어 동비를 제법 잘 챙긴다. 수사 도중 상문의 의심스러운 행동 때문에 의심하며 괴로워한다.

**최시광(40대 초중반, 남) 경찰서장**  
상문과 경찰대 동기다. 동기라서가 아니라 상문의 능력을 믿고, 곧잘 밀어준다.

**이재이(17세, 남) 문제적 웹툰 작가**  
효덕의 아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를 추억하기 위해 아버지 얘기를 웹툰으로 그리는데, 그게 문제가 되어 위협받는다.

이정연  
jylee1945@hanmail.net

- 2015 • MBC 연속극 극본공모 당선
- 2017 • 역사 스릴러 장편소설 『밀주』 출간
  - 부산국제영화제 북투필름 뉴크리에티브상 수상(영상화 및 시나리오 계약)
- 2018 • KBS 경력작가 미니시리즈 극본공모 우수상 당선
  - 오픈 드라마 부문 당선



김정미(40대, 여) 효덕의 아내이자 재이 모친

요양원 간호사 출신으로 효덕과 결혼해 아들 재이를 낳았다. 효덕 사망 후 홀로 아들을 키운다.

이효덕(사망, 남) 효경의 첫사랑이자 상문의 절친

영똥하고 밝고 착한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있을 법한 좋은 친구다. 효경을 좋아하고 순정을 다 바치지만, 결국 효경을 살리려다 화마에 휩싸이고 만다.

이진기(30대 중반, 남)

염동식의 양아들이자 염동식의 격렬 추종자. 동식의 수족으로 움직이며, 그를 위한 일이라면 모든 일을 거침없이 해낸다. 살인까지도.

진기 부친(70대 초반, 남) 실종자 가족 혹은 염동식.

진주에서 휴거로 크게 한 건 해먹고 튀려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교회에 붙이 난다. 그 사건으로 몰래 도망가 얼굴 전체 성형수술을 하고 휴거로 또 한 번 크게 한 당 할 계획 중이다. 한데 재이가 그린 웹툰이 문제가 되자 실종자 가족인 것처럼 위장해 실종팀에 직접 침투한다.

---

## 줄거리

육상 특채 출신 경찰, 김동비는 경찰서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방황한다. 그러던 중 실종전담팀의 요청으로 부서 이동을 하지만, 잠복 현장에서 큰 실수를 해 방출 위기에 처한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밀려나고 싶지 않았던 김동비는 팀장 박상문에게 자신의 굳은 의지를 내비친다.

실종팀 내 스파이가 있을 거란 결론이 내려지면서 당분간 팀이 해체되지만, 김동비는 박상문, 정균상과 함께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한다. 바로 ‘휴거’를 주장하며 신도들에게 돈을 뜯어냈던 사기꾼, 염동식을 검거하는 수사였다. 염동식은 1990년 진주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친 전적이 있는 범죄자였는데 최근 활동을 다시 시작한 것.

상문은 동비에게 염동식의 딸, 염효경의 감시를 맡기고, 동비는 아예 효경의 가게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가 밀착감시를 한다. 그 과정에서 효경에게 접근한 심인동을 목격하는데, 어느 날 인동이 살해된다. 이에 동비는 효경을 심인동의 살해범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팀장 박상문이 염효경과 아는 사이고, 그녀를 위해 박상문이 동비의 수사를 막고 있다는 걸 의심하게 된다. 이에 김동비는 박상문과 염효경이 노리고 있는 웹툰 작가 재이를 찾아가 가까스로 그들로부터 재이를 구한다. 한데 그 현장에서 또 다른 사실이 밝혀졌으니… 효경은 상문과 한 패가 아니었던 것.

재이와 함께 동비에게 구출된 효경은 더는 자신의 아버지의 범행을 두고 볼 수 없다 판단, 죽은 인동에게 들은 교회 위치를 동비에게 알리고 염동식을 체포하기 위해 교회를 급습한다.

교회 사람들과 난투를 하는 김동비 일행. 그 와중에 동비는 교회에 잡혀 있던 진기 부친을 목숨 걸고 구해낸다. 그가 염동식이란 사실도 모른 채 말이다. 사실 자신을 진기 부친이라고 속이고 실종팀에 접근한 남자는 염동식이었고, 그는 1990년대 일으킨 휴거 사기 사건으로부터 도망치려 성형수술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진기 부친이 자신의 아버지임을 알아본 효경은 도망가자는 아버지를 잡고, 그 옛날 일으킨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려 무거운 선택을 하고 마는데…

경계의 여자들  
이정연

## #1 어느 골목(새벽)

자전거를 탄 채 멈춰서 어느 곳을 노려보는 김동비.(아광조끼 착의, 그린디톡스 상호 프린트)  
시선을 따라가면, 새벽 어스름한 어둠에 뿌연 안개까지 두껍게 더해진 그 뒤로... 뭔가 있다. 순간 스윽! 움직이는 검은 물체.  
동비, 이를 보고 긴장해 자전거 핸들을 왼 손에 힘을 꽂! 주면 이 팽팽한 긴장을 즐기듯 느릿느릿 앞으로 나오는 상대. 바로 대형견이다. 송곳니를 드러내고 낮게 으르렁거리는 대형견.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대형견을 노려보다 페달을 밟아 슬쩍 앞으로 움직이는 동비.  
그러자 대형견 금방이라도 물어뜯을 듯 이빨을 드러내고 사납게 짖으며 날뛰다. 둘 사이엔 있으나 마나 한 낮은 울타리가 있을 뿐이라 더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  
바짝 긴장한 동비. 페달에서 발을 내리지만, 이미 흥분한 대형견의 사나운 기세, 점점 거칠어지더니 킁킁! 사납게 짖으며 동비 쪽으로 화악! 달려든다.  
촛라라! 날카로운 쇠 마찰음 소리와 함께 이내 팽팽해지는 대형견의 목줄. 개집에 설렁설렁 매어놓은 목줄인지라 금방이라도 빠질 듯 위태롭다.  
잠시 후 그 집 현관이 열리며 몇몇 남녀 몰려 나와서는 대형견과 대치 중인 동비를 노려보며 사납게 경계한다. 그들 중 남자1, 개 목줄 풀어 잡고는 날뛰는 대형견을 앞세워 동비 쪽으로 다가오는데, 그의 눈빛 공연한 분노로 번들거린다.

여자1 (남자1 옆으로 와) 가요. 우리 상관하지 말고 가라곳!

여자1, 마치 못 볼 걸 봤다는 듯 몸을 덜덜 떨며, 팔을 동비 쪽으로 짹 뻗어

뭔가를 내미는데... 커다란 나무 십자가다. 아주 독특한 모양의!

여자1 (입모양) 이 악마!

사람들, 여자1 옆으로 서둘러 몰려와 서로 손을 잡고, 뭔가 중얼중얼. 얼핏얼핏 들리는 하늘님, 악마, 구해주소서... 등의 간절한 기도 소리. 그 괴기스러운 중얼거림에 대형견도 한껏 흥분해 킁킁 사납게 짖는데...

## #2 거리(새벽)

새벽 시간이라 인적이 없는 거리를 뒤쪽에 음료 박스 싣고,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아 달려오는 동비. 어느 곳 지나면서 동비의 뒷모습이 화면에 비추며 그녀, 점점 멀어지는데...

## #3 그린디톡스 전경

## #4 그린디톡스 주방

드르륵! 녹즙기 서너 대가 실 새 없이 돌아가는 주방.  
앞치마를 두른 효경, 부지런히 움직이며 녹즙기에 야채, 과일 등을 넣고, 다 갈린 녹즙은 쪼르르 세워둔 유리병에 따른다. 일렬로 줄 맞춰 세워진 유리병에 동량으로 녹즙을 따르는 능숙한 효경의 손길.  
잠시 후 주방으로 빈 음료수 박스를 들고 들어오는 동비.

동비 다녀왔습니다.

효경 (하던 일 계속하며) 별일 없었죠, 동비 씨?

동비 (보면)

효경 효림아파트 골목. 그 사나운 개.

동비 아...

효경 조심해요, 거기. 위험해.

동비 ... 사람들이 더 위험해 보이던데, 그 개보다.

효경 사람들?

동비 네. 사람들... 교인들요.  
효경 (동작 멈추고)  
동비 (기색 살피며) 수상하고 위험한... 사이버 교회. 사이버 교인들요.

효경, 천천히 동비를 돌아보는데, 그 눈빛 불안하게 흔들린다.  
동비 효경의 눈빛 피하지 않고, 빤히 쳐다보는데... 그 위로.

동비(N) 믿고 싶지 않은 진실과 마주 서면 사람들의 선택은 둘 중 하나다.  
모른 척 도망치거나, 그 진실을 바꾸려 뛰어들거나.

효경의 빠른 시선 모른 척하며,  
녹즙병을 들고 꿀꺽꿀꺽 마시는 동비의 모습에서.

## #5 고시원 어느 방

녹즙을 다 마시고 빈 병을 책상에 탁! 내려놓는 동비.  
화면 뒤로 확 빠지면 고시원 방이다.  
책상에 찌르르 빈 녹즙병이 줄을 맞춰 세워졌고.  
동비, 창가로 가 좌르르! 커튼을 치면, 금세 어둑해지는 실내.  
동비, 전등 켜지 않고 방바닥에 놓인 가방 지퍼를 지익! 여는데...  
망원경과 삼각대다.  
창가에 착착착 삼각대를 설치하고, 망원경을 올리는 동비의 손길  
능숙하다. 망원경을 이리저리 움직여 창문 너머 그린디투스에 맞추고는  
어딘가로 전화.

동비 노원서 실종팀 김동빈입니다.  
(손목시계 확인하며) 2018년 9월 10일, 오전 10시. 엄효경 감시  
시작합니다. 네... 네.

전화 끊고, 망원경에 눈을 바짝 들이대는 동비의 모습 위로.

동비(N) 그러나 그 상황과 맞닥뜨리기 전까지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자신이 그중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때 망원경 렌즈 안에 효경의 모습 잡힌다.  
자신을 지켜보는 눈길을 아는 듯 획 쳐다보는 그녀의 모습 위로.

동비(N) 그녀와 나도 마찬가지로였다.  
심지어 우린, 지금 그 선택을 위한 경계에 서 있다는 사실도 이때까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 화면 위로 떠오르는 타이틀. “경계의 여자들”

## #6 24시간 커피숍 안(새벽)

자막. “5일 전”  
길 건너편 편의점이 흰히 보이는 통유리창이 있는 커피숍. 늦은 시간이라  
사람이 거의 없다. 편의점이 보이는 쪽에 앉아 핸드폰 게임을 하는 커피와  
계산대에 앉아 조는 종업원.  
이때 딸랑~ 소리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동비.

종업원 (기계적으로) 어서 오세... 아! 오셨어요.  
동비 (말없이 고개 숙여 인사)  
종업원 (곤란) 근데... 맨날 앉으시는 자리는 이미...

커피를 앉은 자리 쳐다보는 종업원.  
동비도 이를 보지만 상관없다는 듯 커피 앞으로 간다.  
게임 하다 놀라 동비를 쳐다보는 커피.  
그러나 동비, 아랑곳하지 않고 쓰윽 옆자리에서 의자 끌여와 털썩 앉아  
정면 주시. 카페 통유리창 건너 편의점 보이는데...  
“혈” 어이없어 남자를 노려보는 여자.

여자 또... 여자 문제 생기면 끝이라고 했잖!

여자, 남자의 따귀를 힘껏 때리고 벌떡 일어나 나가려 하자, 황급히 뒤따라 일어나 나가려는 남자.  
그 순간 남자의 손을 획 잡아채는 동비.  
놀란 남자 눈이 커져 동비를 쳐다보는데…

남자      당신 대체 뭐데!  
동비      119. 구급차 좀 불러요, 빨리!

후다닥 가게 밖으로 튀어 나가는 동비.  
잠시 멍해 있던 커플, 뭐야 구시렁거리며 시선 편의점 쪽으로 돌리는데…  
“까악” 뭔가를 보고 놀라 비명 지르며 철썩 주저앉는 커플.

## #7 편의점 안(새벽)

킬러, 편의점 주인의 배에 시퍼런 회칼을 쑤서 넣는다.  
벌건 피가 편의점 주인 옷 밖으로 주르륵 배어 나오는데…

시간 경과.  
안으로 뛰어 들어와 편의점 주인 상태 확인하는 동비.  
바닥에 쓰러진 편의점 주인 주변으로 피가 낭자하다.  
남자의 상태 빠르게 확인하곤 잠바를 벗어 상처를 지압하는 동비.  
편의점 주인, 벌벌 떨며 뭔가 얘기하려는데…

동비      가만있어요. (남자 손을 이끌어 자기 대신 상처 압박하게 만들고)  
            이러고 가만히! (전화) 팀장님. 문제 생겼어요.  
상문(F)    김동비. 거기 꼼짝 말고 있어. 곧 갈 테니까…  
동비      뒤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상문(F)    움직이지 말고 현장에 그냥 있어. 김형산 얼굴 드러나면 안…!

동비, 단호하게 전화를 끊고는 운동화끈을 다시 고쳐 맨다. 힘을 쥐서  
과약!

## #8 거리(새벽)

킬러와 동비의 추격전.  
한산한 거리, 저 멀리 도망가는 킬러.  
동비, 그의 위치 확인하고 육상선수 스타트 준비 자세 하더니 어느 순간  
휘리릭 앞으로 튀어 나간다. 그런데 그 속도가… 빠르다, 엄청 빠르다.

시간 경과.  
어느새 킬러의 뒤를 바짝 따라붙은 동비.  
킬러, 뜬금없이 나타나 자신을 쫓는 동비를 “헉헉” 거친 숨소리를 내며  
돌아본다.  
그 찰나, 동비 팔을 쭉 뻗어 킬러를 잡으려는데, 잡힐 듯 말 듯…  
동비, 이대론 안 되겠다 판단. 뻗었던 팔 접으며 동시에 킬러에게 부웅  
떠오르며 점프!  
이를 눈치챈 킬러, 피하려 몸을 비틀다 그만 균형을 잃고 바닥에 쿵!  
쓰러진다.  
찰나, 동비의 손에 잡혔다가 스르륵 빠져나가는 킬러의 옷자락.  
동비도 그대로 바닥에 쿵! 떨어진다.  
킬러와 동비. 이만큼 떨어져 반쯤 일어난 자세로 서로를 노려보며 신경전.  
호흡이 거친 킬러와 호흡이 안정적인 동비, 대조적이다.

킬러      (헉헉…) 씨이파알. 헉헉. 뭐, 뭐야, 너?  
동비      (호흡 차분하게 고르며 목에 걸린 경찰 신분증 보인다)  
킬러      하. 경찰. 헉헉… 여러모로 헉헉… 심장 터지게 만드네.  
            (인상 팍 쓰고) 어차피 하나 죽이나 둘 죽이나.

폼에서 칼을 한 자루 꺼내 동비 획 노려보며 “죽어” 소리 지르며 달려드는  
킬러.  
동비, 벌떡 일어나 옆 골목으로 뛰어 들어가자, 바짝 뒤를 쫓아 따라가는  
킬러.

## #9 골목 일각

막 골목 모퉁이를 돌아 들어오는 동비. 한데 하필 막다른 골목이다.  
 획 돌아섰지만... 어느새 바짝 다가와 서 있는 킬러.  
 킬러, 배설배설 웃으며 동비 쪽으로 칼을 쭈욱 내밀고 장난스럽게  
 흔드는데...

킬러 (한 발 한 발 다가가며 희롱하듯 노래)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씨팔. 줄라 토끼 줄 알았...!

순간 쉿 하는 금속성 마찰음.  
 보면 킬러가 내두르는 칼날에 동비가 뭔가를 가져다댔다. 전기충격기다.  
 '어!' 하는 표정으로 동비와 전기충격기 번갈아 보며 당황하는 킬러.  
 재빨리 전기충격기 전원 버튼 누르는 동비.  
 파지직! 전기가 흐르자, 겁먹은 킬러 획 칼을 집어 던지는데.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동비, 떨어진 칼을 발로 획 차내는데...  
 '아뿔싸!' 칼이 그만 벽을 맞고 튕겨져 나간다. 그것도 바로 킬러 발  
 앞으로.  
 '젠장!' 동비 얼굴에 낭패감 확 번지더니 그대로 몸을 돌려 골목을  
 빠져나간다.  
 킬러, 킁킁 웃으며 칼을 집어 들고, 동비가 빠져나간 골목을 획  
 쳐다보는데, 순간 웃음 뚝 멈추고 살의로 번뜩이는 킬러의 눈빛.  
 그러나 곧 표정 굳는다.  
 골목 안으로 박상문과 정균상이 뛰어 들어온 것.

## #10 일각

균상, 수갑 찬 킬러 경찰차에 태우고,  
 상문과 동비, 거리를 두고 이를 지켜본다.

상문 분명 혼자 움직이지 말라고 했을 텐데?  
 동비 단순강도 아니었습니다. 편의점 들어서자마자 칼로 찔렀습니다.

의도적인 살인이었고, 그래서 그 범인 잡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문 틀린 건... 선택이야. 판단이 아니라.

동비 (보면)

상문 우리 얼굴 안 알려진 형사가 필요해서 김형사 요청한 거야.  
 근데 움직이지 말라는 명령 어기고, 기여 얼굴을 드러냈으니... 쫓.

동비 (생각 못 했다) 죄, 죄송합니다.

상문 여긴 현장이야. 적응하고 기다려주고... 우리 그런 거 못 해.  
 돌아가. 우리 쪽하곤 안 맞는 거 같다. 김동비.

크게 동요하는 동비의 표정에서.

## #11 과거. 경찰서 / 홍보과 사무실 안(흑백)

아무도 없는 사무실 안에서 빈 상자에 자기 물품을 챙기는 동비.  
 잠시 망설이다 상자에서 뭔가를 꺼내 책상 위에 놓고, 나간다.  
 이때 동비를 스쳐 지나 사무실로 들어오는 동료들.  
 동비를 힐끔 돌아보며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시간 경과.

동비의 책상 위, 놓여 있는 건 명함이다.

“홍보과 경찰, 김동비” 그 화면 위로.

경찰1(E) 실종팀으로 이동한다던데?

경찰2(E) 에이 설마. 우리 쪽 사람도 아닌데 무슨.

경찰1(E) 우리 쪽?

경찰2(E) 체육특채잖아. 육상 은메달리스트.

우리 쪽 아냐. 경찰 업무 안 보는 데로 가겠지.

## #12 현재(#10에 이어)

상문 김동비. 원래 있던 데로 돌아가. 알아서 정리할게. 우리 쪽은.

상문, 획 하니 돌아서려는데 그의 팔을 잡으려 손을 뺀 동비.  
이때 울리는 상문의 전화벨.

상문 (전화 받고, 놀라며) 뭐? 그쪽 대상자도 당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아?

어느 허공을 획 하니 노려보는 상문.

### #13 경찰서 전경

### #14 경찰서 / 실종전담팀 사무실 안

빈 사무실. 각 책상에 빼곡하게 자료들이 쌓였고, 벽엔 사진들이.  
동비 벽면에 붙은 사진들을 둘러보는데...  
10년 전 휴거 관련 기사, 사진, 광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폐허가 된 교회 건물 등등.  
그 끝에 목사(염동식)의 여러 모습 사진 붙었다.  
동비, 사진들을 뺀히 보며 움직이다 어느 책상 위 마우스를 툭! 건든다.  
이내 팻! 소리와 함께 컴퓨터 모니터가 켜지면서 화면 플레이.  
10년 전 뉴스 화면이다.

모니터 화면.  
염동식 사진, 화면 상단에 떠 있고. 기자 교회 앞에서 얘기 중.

기자 이곳은 휴거를 주장하는 염동식이 목사로 있는 교회 앞입니다. 교인 50여 명은 자신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천국으로 간다는 휴거를 믿고, 일상을 포기한 채 1년이 넘도록 합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휴거는 불발됐는데요. 그럼에도 교인들이 밖으로 나오길 거부하고 있어 자칫 집단자살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모셔서 이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박사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적 믿음이 깨졌을 땐, 그 분노와 절망이 상식적으로 통제가 안 되기 마련인...!

이때 굉! 하는 폭발음과 함께 화염에 휩싸이는 교회.  
화면 속 사람들 아비규환에 빠지는데...

이때 군상, 대여섯 명의 형사들, 상문, 그리고 시광 들어온다.  
빠르게 컴퓨터 모니터를 끄는 동비.

시광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설명해봐.  
군상 네, 서장님.

상문, 동비에게 눈짓을 하면 사람들 앞으로 바퀴 달린 화이트보드 끌고 오는 동비. 군상, 앞으로 나와 설명한다.  
화이트보드 보면 염동식 사진 맨 위에 붙어 있고 교회 조직도가 그려져 있다. 조직도에 사람 이름과 사진이 붙어 있다. 군상, 빨간색 유성펜으로 조직도에서 두 명의 얼굴에 엑스포 짹짹 그리며,

군상 이기광. 김진표. 그리고 (편의점 주인 사진 위에 엑스) 박강진까지. 하나교회 목사 염동식한테 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혔습니다. (굉! 화이트보드 발로 차고) 젠장. 아무래도 이상해요. 어떻게 동시에 이렇게 썩 다 당하냐고!

시광 내부에 나팔수가 생긴 거잖아. 누가 봐도.  
일동 (어이없는 시선, 시광에게로)  
시광 (일동 쪽 훑어보며) 스파이. 어떤 쉐건지 일 어마어마하게 잘해. 꼭 찾아내서 칭찬해줘야겠어. 안 그래, 박상문 팀장?

상문 단정 짓지 말아주십시오. 서장님.  
시광 그래? 난 단정, 아니 확신하고 싶은데. 내부 스파이로.  
상문 (보면)

시광 배신이잖아. 팀 내 스파이가 생긴 거면. 근데 외부에서 감시한 거라면... 니들이 너무 무능하잖아. 뒤가 텅 버서 꼬리 붙은 것도 모르는 놈들이 수사는 무슨 수사야!

상문 ...  
시광 형사과에서 가만 안 있겠다더라. 업무 가로챈 것도 그렇고, 감시 붙여 엄한 사람들 죽었다면서...

상문 (순간 눈빛 번뜩이며) 사건으로 안 받아들인 건 그들입니다.  
시광 (단호) 그럼에도 사건이라고 설득하길 포기한 건 바로 너지.  
(긴 한숨) 형사과 어르고 달래다... 이젠 젓도 물릴 판이다. 내가.  
한계야, 나도. 미안하다.  
(상문, 어깨 툭툭 두들기다 밖을 보고는) 들어와!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빈 박스 들고 들어오는 건장한 형사들 대여섯 명.

시광 여기 있는 염동식 관련 서류들 싹 다 챙겨.  
일동 서장님!  
시광 (차분하게) 내부 스파이... 그것부터 찾아내. 니들은.  
그때까지 이 팀, 해체야. 아무것도 하지 मत. 알았어!

형사들, 서류를 상자에 담으려 달려들자, 실종팀 형사들 어깨를  
부딪치거나 그들의 앞을 거칠게 막아서며 일촉즉발.  
이때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진기 부.

진기 부 편의점 양반까지 죽었다니 대체 이게 무...!  
(사무실 내 사나운 기세에 그만 입을 다물고, 눈치를 살피는데)  
일동 (숨 고르며 진기 부 쳐다보고)  
시광 뭐야, 또?  
상문 (나서) 하나고 관련 실종자 가족이십니다. 진기 아버님.  
시광 (꽤) 실종팀 해체라고, 해체!

시간 경과.

진기 부와 동비, 단들이 남은 사무실. 사무실 책상 위 텅 비었고, 벽에  
붙은 사진들도 다 떼어졌다. 동비 바닥에 이리저리 떨어진 물건, 서류들  
정리하며 어느 곳 힐끔 쳐다보면, 진기 부, 불안한 듯 어느 자리에 앉아  
다리 덜덜 떠는데...

진기 부 (벌떡 일어나 후다닥 동비에게 달려와) 진짜 실종팀 해체됩니까?  
염동식 그 개자식한테 잡혀 있는 우리 진기랑 짠 애들은 어찌라고요,

동비 대체... 박팀장 지금 어딴어요? 당장 좀 만나야겠어요. 당장!  
서장님하고 얘기 중...

동비 무시하고 밖으로 나가는 진기 부.  
동비, 난감한 표정으로 따라 나가는데...

## #15 경찰서 / 서장실 밖

서장 방에서 나오는 상문과 균상.  
담담한 표정의 상문, 벌겋게 달아오른 균상의 표정 대조적이다.

균상 (획 노려보며) 하나고 수사. 관둔다고 한 거... 진심 아니죠?

달래듯 균상의 어깨 툭툭 치고는 화장실로 가는 상문.  
균상, 이내 뒤를 따라간다.

## #16 경찰서 / 화장실 안

물을 틀어놓고 손을 닦는 상문.

균상(E) 혼자 수사할라고 그러죠?  
상문 (고개 들어 거울로 비치는 균상 쳐다본다)  
균상 (팔짱 끼고 문에 기대서서) 암만 생각해도 답은 그거지.  
너무 진지체라 씨... 나도 깜빡 넘어갈 뻔했네.  
상문 진지해야지... 사실이니까.  
균상 ... 정말. 이 수사 종낸다고? 6개월 동안 그렇게 공들여놓고?  
상문 너도 들었잖아. 내부 스파이 있다고.  
균상 내부 스파이 씨팔... 말도 안 되긴 하지만. 그래 있다 치자.  
나, 돈 말고 명예 좋아하는 놈이야. 승급하려고 이 수사도 하는 거고.  
근데 나겠어?  
상문 ...  
균상 그럼 (턱으로 상문 가리키며) 팀장님은 어때요?



상문 ...  
 균상 그니까 우리 둘이 합시다. 골치 아프게 딴 놈 끼우지 말고.  
 상문 둘이 뭘 해. 더 접근할 대상도 없는데.  
 균상 있잖아. 아직 손 안 탄 데.  
 상문 (보면)  
 균상 ... 나 알아요. 팀장님만 아는 그 패. 염효경.  
 상문 ! (천천히 돌아서 쳐다본다)  
 균상 염동식 딸 염효경. 그니까 까요. 그 여자 어딴는지.  
 상문 (흔들리는 눈빛으로 보다) ... 안 돼.  
 균상 (수상하게 보다) 안... 돼...? 염효경...이라서?  
 상문 아니. 우리라서. 우린 노출됐어. 이미 체크당하고 있을 거야, 그쪽에.

균상 하... 깊은 뺨침에 아랫입술을 질끈 깨무는데...

진기 부(E) 염동식 딸이라고 했어요, 지금?

놀라 획 돌아보는 두 사람. 진기 부와 동비 섰다.  
 진기 부,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은 듯 부들부들 떠는데...  
 난감해 서로 시선 나누는 상문과 균상.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 상문을 쳐다보는 동비의 눈빛... 묘하게 빛난다.  
 찰나 딱 마주치는 상문과 동비의 시선!

## #17 경찰서 / 비상구 안

계단 한쪽에 서서 얘기하는 동비와 상문.

동비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상문 (보면)  
 동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염효경 감시하겠습니다. 이런 업무 때문에 제가 필요하셨던 거잖아요.  
 상문 잠입수산... 김동비 레벨 아냐. 감당하기엔 아직 넌 미숙해.  
 동비 완벽하게 준비된 시작 따윈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상문 ...  
 동비 지난번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염효경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상문 이렇게까지 나서는 이유가 뭐야?  
 동비 우리 쪽 사람이라는 거... 실종팀의, 그리고 팀장님의 우리 쪽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전. 그러니까 이번 염효경 잠입수사. 믿고 맡겨주십시오.

간절한 시선으로 상문을 쳐다보는 동비의 표정에서.

## #18 어느 거리(새벽)

진회색의 어둠이 깔려 있는 텅 빈 거리. 헉헉! 거친 숨을 토해내며 필사적으로 달리는 민정, 화면으로 들어온다.  
 연신 뒤를 돌아보는 눈동자, 겁에 잔뜩 질렸는데...  
 이내 민정의 뒤를 쫓는 사내들이 나타나고.  
 민정, 황급히 골목 한쪽에 쌓여 있는 쓰레기 더미를 획 쳐다본다.

시간 경과.  
 사내들, 거리를 두리번거리다 쓰레기 더미를 지나 어느 골목으로 급히 사라진다.  
 잠시 후, 부스럭! 쓰레기 더미가 움직이더니 그 사이에서 민정 나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는데, 저 앞쪽으로 보이는 공중전화박스.  
 민정, 그곳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린다.  
 잠시 후, 공중전화박스로 들어가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민정.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리는데. 뚜... 뚜... 상대가 전화를 받길 기다리면서도 연신 눈을 돌리며 주변을 살피는 민정.

여자(F) 여보세요?  
 민정 엄마? 엄...!

순간, 획! 공중전화박스 앞에 나타난 사내.



씩!! 경기를 일으키듯 비명을 지르며 폴색 주저앉는 민정.  
결국 사내들, 전화박스를 향해 어슬렁어슬렁 몰려든다.  
민정의 비명 소리 점점 높아지는 그 화면 위로.

진기(E) 이 웹툰 때문이라고?

## #19 교회 전경

## #20 교회 일각

진기 앞에 무릎 꿇려 앉아 있는 민정. 그 주변으로 사내들 섰고.

진기 (핸드폰으로 웹툰 보고) 자매님. 이건 만화잖아요.  
다 거짓말이라고요.

민정 진기 씨. 거짓말은 이 교회예요. 목사라고요!  
옛날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기 쳤단 말이에요, 염동식!

진기 (민정의 턱을 강하게 틀어잡고) 사기 당신이지!  
온전히 믿는 척! 온전히 우리인 척! 그렇게 사기 친 건 당신이잖아!  
말해. 그 웹툰 누가 알려줬어? 어? 누가 또 알고 있냐?

민정 (입 꼭 다물고 고개 젓는다)

진기 (보다 귀엣말) 그 자식이지? 뺨에 화상 흉터 있는 그놈!

민정 아냐. 나만 봤어요. 나만 알고 있다고요!

진기 행여나. (코웃음) 가련타, 가련해. 하늘문으로 들어가지 못할 당신.

진기, 민정의 턱이 돌아가도록 핵! 손을 놓자,  
주변에 섰던 남자들, 손에 몽둥이를 저마다 하나씩 들고 민정을 향해  
뚜벅뚜벅.

일동 가련타, 가련해. 하늘문으로 들어가지 못할 당신.

중얼중얼 주문을 외며 민정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  
마치 세뇌당해 조정당하는 듯 동공이 탁 풀렸다.

아아악! 고향을 지르며 진기, 몽둥이를 힘껏 쳐들었다 내리면, 파바박!  
그의 얼굴에 튀는 핏방울.  
사람들, 기다렸다는 듯 민정에게 몰려들자, 뒤로 빠져나와 어딘가로  
전화하는 진기.

진기 네, 접니다, 형제님. 웹툰 하나 좀 알아보셔야겠습니다.  
그 작갈 찾아주세요, 우리 하늘님을 위해.  
난 입을 가버이 놀리는 자를 차단할게요. 우리 하늘님을 위해.

“거룩한 하늘님, 전능한 하늘님”을 연호하는 걱정적인 사람들의 목소리  
깔리다, 어느 순간 뒤로 획 돌아서는 진기.

## #21 교회 / 기도실

앞 씬과 연결되어 진기 획 돌아서면 그 앞에 소복 입고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이진기 손을 들어, 그들의 연호를 멈추게 하고.

진기 우리 하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곧 길ियो, 진리요, 생명인  
분입니다. 오... 거룩하신 우리 하늘님.

일동 거룩하신 하늘님을 믿습니다.

진기 그런 우리 하늘님이 휴거를 예언하셨어요. 하늘문이 열린다, 열린 그  
하늘문으로 우릴 끌어올려 주신다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린 뭘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가버이 만들고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동 (점점 광적으로) 믿습니다, 하늘님. 따르겠습니다, 하늘님.

진기 그러니 다 바칩시다. 우리 하늘님께 다 바쳐야 합니다. 휴거를 믿고,  
다 하늘에 바쳐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비우세요. 몸도 마음도, 재산도... 다 이제 필요 없어요. 비우세요.  
바치세요. 오직 하늘문을 여시는 그분만 믿으세요!

일동 믿습니다, 우린 믿습니다.

이때 뻘이격 소리와 함께 기도실 문이 열리며 등장하는 누군가.  
염동식이다.  
염동식 하얀 옷을 차려입고 나오는데, 뒤쪽에서 강렬한 빛을 쏘아대는  
통에 얼굴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진기 (털썩 무릎 꿇고) 목사님! 우리들의 하늘님!

교인들, 목사님, 하늘님을 연호하며 염동식 앞으로 달려가 그의 발등에  
입을 맞추고, 돈다발을 그 앞에 쌓는 모습에서.

## #22 경찰서 / 실종전담팀 사무실 안

상문, 균상, 대여섯 명의 사람들(진기 부 포함) 앉았다. 분위기 심각하다.

상문 전화가 왔었다고요?

민정 모 (울며) 네… 흑흑흑… 도망쳤다가 다시 잡혀갔나 봐요. 흑흑흑.

남자2 상황이 이런데, 대체 경찰에선 왜 수사를 안 하는 겁니까? 네?

상문 … 가출이니까요. 이걸.

일동 (보면)

상문 스스로 회사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재산도 다 정리해서 가출한  
거니까요. 종교로 인한 가출은 실종으로 접수가 안 됩니다.

민정 모 (상문 잡고 늘어져 오열) 우리 민정이 찾아주신다고 했잖아요,  
찾아내요, 찾아주세요 우리 딸…

상문 찾아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러니 절 믿고…

남자2 실종팀 해체됐다면서요. 지금껏 팀장만 믿고 기다렸는데…

팀도 해체됐는데, 뭘 더 믿고 기다리라는 겁니까, 대체!

진기 부 (일어나) 에헤 사람들 참. 우리 팀장님이 기다리라고 하시잖습니까.  
그리 말할 땐 다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상문 보고) 그렇죠?

상문 … 네. 이번엔 확실히 염동식 정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민정 모 확실한 정보? 지금껏도 못 잡은 정보가 대관절 어디서요? 네?

진기 부 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 팀장님 곤란스럽게 왜 자꾸들 이러시나.

알아서 하신다잖아요. 확실한 정보통이 있…! (흡!) 흠흠… 그냥 씯!  
하고 기다리면 다 됩니다, 우린.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나서 만류하는 진기 부.  
이때 상문의 핸드폰 울려 보면, 동비다.

## #23 그린디톡스 가게 앞

가게 앞에 배달 아르바이트생 구함 전단지 붙었다.  
이를 보면서 전화하는 동비.

동비 업무 시작하겠습니다, 팀장님.

전화 끊고, 전단지 탁! 떼고 안으로 들어가는 동비의 뒷모습에서.

## #24 그린디톡스 가게 안

동비, 안으로 들어가면,  
탁자에 앉아 뻘히 뭔가를 쳐다보고 있던 효경. 천천히 고개를 든다.  
빼어난 미모는 아니지만, 어딘지 묘하게 사람의 시선을 끄는 여자다.  
그 화면 위로.

상문(E) 염효경. 하나교회 목사 염동식의 딸이야.  
절연하고 산다지만, 분명 어딘가 연결됐을 거야. 핏줄이니까.

효경,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비로소 동비와 마주 선다.  
위태로운 음악 퍼지며 서로를 쳐다보는 그 모습, 인상적이다.  
천천히 효경 앞으로 다가가는 동비.  
탁자 위를 슬쩍 보면… 효경의 핸드폰 화면에 떠 있는 웹툰 화면. 그 위로.

동비(E) 웹툰 보고 있었습시다.

## #25 고시원 어느 방 안(며칠 뒤)

동비의 임시 거처다. 창 쪽에 망원경 걸고 효경의 디톡스 가게 살핀다.  
상문, 망원경으로 계속 디톡스 가게 쳐다보고, 그 옆에 동비가 섰다.

동비 요즘 웹툰을 자주 봅니다, 이상하리만치.  
상문 이상할 거 없어. 염효경 취미야, 만화가.  
동비 취미라고 하기엔... (고개 가웃)  
웹툰 보면서 그렇게 집중하고, 긴장한다는 게 좀...  
상문 지 아버지만 아녘음 그쪽 일 했을 거야. 내내 원했으니까.  
동비 ... 염효경에 대해 잘 아시네요.  
상문 이젠 나보다 더 잘 알아야지. 김형사가 감시자니까.  
동비 ... 명심, 하겠습니다.  
상문 핸드폰 쥐봐. (동비에게 핸드폰 받아, 위치추적 프로그램 간다)  
위치추적 프로그램. 나랑 김형사랑. 원래 잠입요원은 계속 지켜줘야 하는데... 미안하다, 상황이 이래서.  
동비 괜찮습니다.  
상문 그리고 이거. (유심칩을 주며) 염효경 핸드폰에도 설치해.

동비, 손을 내밀자 그 손바닥에 유심칩을 내려놓는 상문.

동비 아... 며칠 전에 어떤 남자가 염효경을 찾아왔습니다.  
상문 남자?  
동비 네.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며) 이 남자요.  
상문 ! (순간 표정 굳고)  
동비 왜요? 누군지 아세요?  
상문 ... 아냐. 계속해봐.  
동비 네. 처음 보는 남잔데 손님 같진 않았습니니다.

핸드폰 사진 속 남자, 클로즈업. 심인동이다.  
얼굴 한쪽 뺨에 화상 자국이 선명하다.

## #26 디톡스 가게 근처

앞 씬의 심인동 얼굴 이어지다 화면 뒤로 빠지면, 디톡스 가게 앞에서 주변을 살피고 서 있는 인동. 어딘가 불안해 보인다.

한편 자전거를 타고 가게로 가던 동비, 가게 앞에 누군가 있는 거 본다.  
얼른 자전거 내려서 어느 건물 모퉁이 뒤로 숨는 동비.  
숨을 고르고 고개를 조금 내밀어 가게 쪽 상황을 살핀다.  
어느 남자(심인동, 얼굴에 화상) 가게 안을 주뻔거리며 살피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남자의 모습 찰카찰카 사진을 찍는 동비.  
이때 황급하게 효경이 밖으로 나오자 다시 몸을 건물 모퉁이 뒤로 숨기는 동비.

동비 저 남자, 또 왔네.

동비, 잠시 후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살펴보면,  
효경, 인동의 팔을 잡아당기며 어딘가로 가는 모습 핸드폰으로 찍는 동비.

## #27 디톡스 가게 안

가게 출입문 쪽에 팔짱 끼고 서서 계산대를 뺏히 쳐다보는 동비.  
시선을 따라가보면 계산대에 효경의 핸드폰 있다. 밖을 살피다 후다닥  
계산대로 가는 동비. 핸드폰에 상문에게 받은 유심칩을 장착하고  
프로그램을 간다. 프로그램 진행상황 10% 20% 30%... 숫자로 화면에  
뜬다. 90% 진행됐다는 메시지가 핸드폰 액정에 뜨는데...

효경(E) 거기서 뭐 해요?

동비 (슬쩍 핸드폰 화면 엿보면서, 91% 진행) 이걸 어찌나 고민  
중이었어요.

효경 ...

동비 핸드폰 여기 있는 거 모르심 사장님 전화할 텐데, 그냥 가야 하나,  
기다렸다 전환 받아야 하나... (핸드폰 화면, 94% 진행)

막 나가려던 참이었거든요.

효경, 동비 쪽으로 걸어온다.

긴장한 동비, 슬쩍 핸드폰 화면 보면 이젠 96% 진행.

효경, 동비 코앞까지 와서 핸드폰 달라고 손을 내미는데, 프로그램은 98% 진행 중.

동비, 잠시 머뭇거리다 핸드폰을 건네려다 손에서 핸드폰을 놓친다, 일부러.

“어!” 놀라며, 얼른 몸을 숙여 두 손으로 핸드폰을 받아내는 동비.

동비 (안도의 한숨) 다행이다...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져서!

핸드폰을 획! 채가는 효경.

수상한 시선으로 핸드폰을 살피는데, 화면에 아무것도 없다.

효경 시, 시장 좀 다녀올게요. (나가고)

동비, 수상한 시선으로 효경의 모습을 쫓다 벽에 걸린 시계 본다. 12시다.

시간 경과.

매장을 청소하는 동비. 벽시계 확인하면 4시다.

동비 ... 늦네. 어디 갔나?  
(핸드폰을 꺼내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작동시킨다)  
... 공원? 여기서 뭘 하는 거지?

고개 가웃거리다 밖으로 나가는 동비.

## #28 거리

육교가 보이는 거리다. 어느 곳에 웅성거리며 사람들 모였다.

동비, 무슨 일인가 보는데.

동비 무슨 일이에요?

남자2 육교에서 누가 떨어져서 죽었대요.

동비, 사고현장으로 가까이 다가가는데, 어딘가로 급히 가는 어느 남자(모자 깊이 눌러 쓴)와 툭! 어깨를 부딪친다.

상대 남자, 그 바람에 획 몸을 돌리는데... 셔츠 한쪽 팔소매가 뜯어졌다.

동비 죄송합니다.

인사를 받는 등 마는 등 다급히 자리를 떠나는 남자.

동비, 다시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으로 다가가는데, 그 순간 스트레처 동비 앞을 지나치는데... 심인동이다!

플래시백.

효경, 인동의 팔을 잡아당기며 어딘가로 가는 모습.

현재.

얼굴에 피 칠갑을 하고 있는 인동.

놀란 동비, 멍해져 인동을 뺨히 쳐다보는데,

순간 스트레처에 실려 가던 인동의 팔이 아래로 툭 떨어지는데...

그의 꽉 쥐 손에 찢어진 천 조각 들렸다.

그 천 조각, 화면에 가득 찬다.

## #29 동 일각

천 조각에서, 화면 천천히 커진다.

찢어진 셔츠 팔소매에서 모자를 쓰고 바닥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선 남자의 모습까지.

모자 쓴 남자, 시선 천천히 들어 저 앞쪽 먼 곳에 시선을 던지는데...

진기다.

잠시 후, 획 몸을 돌려 급히 제 갈 길 가는 진기의 뒷모습에서...

### #30 디톡스 가게 밖

가게 안으로 들어와 주변을 살피는 동비. 아무도 없다.

동비 (전화) 네. 팀장님. 사진 보냈으니까 확인해보세요.  
계속 염효경 찾아왔던 남자 맞습니다... 염효경은 지금 가게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 끊고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동비.

### #31 디톡스 가게 / 효경의 방 안

방 안으로 들어오는 동비. 가게에 딸린 작은 방이다. 살림살이는 딱 있을  
것만 있고, 단정하게 치워졌다.

동비, 휴지통, 책상서랍, 옷장 안쪽까지 빠르게 방 안을 살피지만 별다른  
게 없자, 책상에 있는 노트북 전원을 켜는데... 사용했던 화면 그대로 뜬다.  
웹툰이다.

동비 맨날 보는 게 이건가?

웹툰을 보면, 고등학생들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큰 종이에 만화를  
그리는 장면.

차르르! 스크롤을 내려 다음 장면 보는데... 심인동이란 이름이 보인다.  
이때 밖에서 드르륵 문 여는 소리가 들린다. 동비, 놀라 열린 문틈으로  
슬쩍 밖을 내다보면... 효경이다. 젠장! 낭패감에 인상을 찌푸리는 동비.

### #32 디톡스 가게 밖 + 안

효경, 가게에 왔는데... 자물쇠가 풀렸다. 눈이 휘둥그레져 안을 살피고는  
조심조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효경.

가게 안에 들어서 주변을 살피지만 별다른 점 없다. 그러다 수상한 김새에  
획 자기 방을 쳐다보는데...

구석에 있는 빗자루를 보고, 이를 가져와 방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향하는  
효경.

이윽고 방문 앞에 선 효경. 결심을 하고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문이 확 열리면서 튀어나오는 동비. (옷걸이 같은 거 휘두르며)

동비, 효경 도둑이야!

서로임을 알아보고 놀라 동시에 철퍼덕 주저앉는 두 사람.

시간 경과.

가게 안 탁자에 앉은 동비. (맞은편 의자에 효경 가방)  
효경, 커피 잔 두 개 가지고 와 앉는다.

동비 가게 자물쇠는 풀렸고, 사람은 없고...

(커피 마시고) 영락없이 도둑 든 줄 알았어요.  
(기색 살피며) 근처에서 이상한 일도 있고 해서.

효경 이상한 일?

동비 사람 죽었어요. 육교에서.

효경 ... 그래요?

동비 얼굴에 화상 자국이 있는 남잔데...

효경 !

동비 (눈치 살피면서) 타살이래요. 계단에서 누가 밀었다던데...

효경 ! 누, 누가 봤대... (흡! 급히 손으로 입 막고)

먼, 먼, 먼저 들어갈게요. 좀 피곤해서.

효경, 벌떡 일어나 가려는데 확! 그녀의 팔을 잡는 동비.

순간 부딪치는 두 사람의 시선.

뭘 아냐? 뭘 숨기냐? 서로를 쳐다보는 시선에 그렇게 팽팽한 긴장감이  
서리는데.

동비 핸드폰요.

효경 ...

동비 핸드폰 안 받으시던데. 어디에 또 두고 오신 거 아닌가 해서요.  
효경 핸드폰? (가방을 뒤지는데... 없다!)  
아. 핸드폰. 여기 있어요... 근데 전원이 꺼져서.

동비, 자신이 잡고 있는 효경의 팔을 보는데... 바들바들 떠다.  
그 화면 위로.

동비(E) 거짓말이야.

### #33 디톡스 가게 앞

가게 밖으로 나오는 동비. 얼른 핸드폰 화면 확인한다.  
위치추적 프로그램이다.

동비 핸드폰... 공원에 있어. 지금. 죽은 남자도 분명 아는 사람이고.

가게 쪽을 매섭게 노려보는 동비의 모습에서.

### #34 디톡스 가게 / 효경의 방 안

불안하게 눈동자를 굴리며 뭔가 생각하던 효경. 책상 위에 있던 가방을  
들어 내용물을 완전 쏟아 확인하지만 어디에도 핸드폰 없다.

효경 대체 핸드폰이 어디에...

인서트.

인근 공원. 효경의 팔을 잡고 늘어지는 인동을 떼어내려 팔을 휘두르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진다. 그 바람에 내용물 와르르 쏟아지고.

허겁지겁 내용물 가방에 쏟아 담아 자리를 떠나는 효경.

현실.

효경 ! 그때 그럼...

부리나케 밖으로 달려 나가는 효경.

### #35 공원

자신의 핸드폰을 켜서 효경의 핸드폰 위치추적을 하는 동비.  
동비, 지도를 따라 움직일 때마다 빨간 표시등이 깜박깜박.

### #36 공원 일각

효경, 핸드폰을 잃어버린 장소 정확하게 알고 그곳으로 뛰어간다.

교차편집.

위치추적기의 안내대로 움직이는 동비.

효경, 목적지로 뛰어가는데...

현재 효경은 12시 방향, 동비는 3시 방향에서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대로 가면 곧 둘은 만나게 되지만, 그 사실을 모른 채 점점 더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두 사람.

그 찰나 동비에게 전화가 온다.

동비 (받으며) 네. 선배님. 네네... 곧 가겠습니다.

동비, 그대로 돌아서 어딘가로 달려가는데,

그 순간, 동비의 뒤편으로 스쳐 가는 효경.

### #37 공원 일각

효경, 핸드폰 잃어버린 자리로 왔다.

분주하게 시선 돌리면서 핸드폰을 찾는 효경.

효경 여기 어디쯤이었는데...

(시선을 돌리다 문득! 동비를 발견한다) 동…비 씨?

효경, 동비 있는 쪽으로 가려는데 특! 발에 걸리는 뭔가.  
자신의 핸드폰이다.  
서둘러 떨어진 핸드폰을 줍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저 멀리 동비가 보인다.

### #38 병원 일각

상문, 인동의 부모님과 함께 시체 보관실로 가는데…  
멀찍하게 떨어져 이를 보는 균상과 동비.

균상 (팀장이 간 쪽 턱으로 가리키며) 육교에서 실족사한 남자 가족이래.  
(슬쩍 떠보듯) 아는 사이처럼 보이지? 팀장님이랑?

동비 잘, 모르겠습니다.

균상 (뻘뻘 보다) 됐다. 그건 됐고. 대상자는 언제? 어디에 있던, 그 여자?

동비 … 팀장님이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균상 … (인상 구겨진다) 그래서 너도 말, 못 한다?

동비 (꾸벅) 죄송합니다.

균상 김동비. 이제 경찰 티 좀 나네.

동비 (보면)

균상 지가 젊어지고 갈 비밀이 생기면 그때부터 경찰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인상, 바짝 다가서서) 그 비밀이라는 거. 감당까지 해야 진짜  
경찰인 거야. 똥오줌 못 가리고 입만 콧 다문다고 능사가 아니라. 어?

동비 (뻘뻘 보다) 염효경에 대해 왜 이렇게 캐내려고 하는지, 왜 팀장님이  
아니라 절 통해 그 얘길 들으려고 하시는지… 이해 못 해 입 다무는  
겁니다.

균상 그래서… 날 의심한다는 거야, 지금?

동비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선배님 믿고 싶어서.

순간 날카롭게 부딪치는 두 사람의 시선.  
이때 균상, 동비 어깨 너머로 뭔가 보고는 천천히 일어나 목례.

상문이다. 상문과 균상의 굳은 표정 대조되는데.

상문 (다가와 균상에게) 알아볼게 있어.

균상, 뻘뻘 상문을 쳐다본다.  
순간, 동비, 이상한 느낌에 뒤를 획! 돌아보지만… 아무도 없다.  
잠시 후, 일각에서 스욱 나타나 그들을 쳐다보는 누군가… 효경이다.

### #39 거리 / 상문의 차 안

운전석의 상문, 보조석의 동비.

동비 (눈치 살피며) 그냥 근황 토크였습니다. 선배가 후배를 챙기는…

상문 (무표정) 염동식 찾을 수 있는 마지막 패야. 염효경.  
균상이라서가 아니라 암만 균상이라도 그래서 못 까는 패고.  
동비 (아는구나…) 명심… 하겠습니다.

상문 죽은 남자… 하나교 골수신자야. 교회 화재 이후 사라졌었는데…

동비 하나교회요? 염동식이 목사로 있었다던 옛날 교회죠?

상문 (고개 끄덕)

동비 그럼… 염효경이 드디어…

상문 그래. 드디어 염동식하고 연결된 거지. 그러니까…

이때 상문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온다. 스피커폰으로 받는 상문.

상문 말해.

균상(F) 아까 말씀하신 거요. 형사과 애들 좀 구슬려봤는데요…  
말씀대로 목격자 정보 숨기고 있더라고요. 남자가 죽기 전에 근처  
공원에서 어떤 여자랑 실랑이하는 걸 본 목격자가 있습니다.  
지금 그 여자 소재 파악에 나섰더라고요.

동비 ! 공원요. 아까 염효경 핸드폰도 그 공원!

상문 (손가락을 입에 대고 췌!) 췌!

그 화면 위로, 뚜뚜뚜… 통화 완료음 흐른다.

#### #40 경찰서 / 사무실 안

전 씬에 이어져 뚜뚜뚜…

책상 앞에 앉아 통화가 끝난 전화기를 뺀히 쳐다보는 균상.

균상 … 또 비밀이란 말이지… 비밀… 자꾸 이럼 곤란한데. 팀장님.

심각한 시선으로 핸드폰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균상. 그 화면 위로.

상문(E) 그게 무슨 말이야?

#### #41 상문의 차 안(#40에 이어)

동비 엄효경 핸드폰. 균상 선배가 말한 그 공원에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엄효경은 그걸 숨기려 저한테 거짓말을 했고요.

상문 그럼, 공원에서 실랑이했다는 여자가…

동비 (고개 끄덕) 엄효경요… 그럼… 엄효경이 범인일까요?

상문 그럴 수도 있지. 이미 심인동 살인 용의자로 엄효경을 주목하고 있을 테니까.

동비 ! 심…인동요? 죽은 남자가 심인동이에요?

상문 (보면) 그래. 심인동.

동비 (고개 가웃) 심…인동… 어디서… 그 이름 들어봤는…!

플래시백.

웹툰 어느 장면에서 “심인동” 이름이 나온다.

동비 !! 그 웹툰! 팀장님. 저 여기서 좀 내려주세요. 알아볼 게 있어요.

상문, 놀라 동비를 쳐다본다.

#### #42 거리 + 상문의 차 안

상문의 차에서 동비 내려선 어딘가로 뛰어간다.

상문, 백미러로 뒤에 가는 동비를 계속 쳐다본다. 수상하게, 불안하게.

상문, 동비의 모습을 보려 백미러를 움직이는데…

#### #43 스토리닷컴 전경

#### #44 스토리닷컴 / 사무실 안

몇 명의 직원들과 얘기하는 동비.

사원1 (고개 가웃) 그거… 순정만화 아냐?

동비 순정만화요?

사원1 고등학생들 나오고, 개들이 만화 그리는 거 나온다고 했죠?

고개 끄덕거리는 동비.

시간 경과.

책상 앞에 함께 앉아 있는 사원1과 동비.

동비, 모니터로 웹툰 보고 있다. 전에 봤던 그 장면이다.

고등학생 몇 명이 모여 앉아 종이에 만화를 그리는 장면.

동비 네. 이거 맞아요.

사원1 제목이 순정만화예요.

만화동아리 고등학생들이 주인공인데 휴거 사건 땀에 찢어지거든요.

동비 휴거요?

사원1 네. 1990년도에 있었던 휴거 사건. 그렇다고 실화는 아닌 거 같고요.

여자주인공이 사이비교주 딸이거든요. 그 친구 첫사랑 얘기가 준데…

동비 (설마…) 혹시 그 여자주인공 이름이…

사원1 무슨 효경이었는데… 잠깐만요.



사원1, 스크롤을 내리면서 확인한다.  
동비, 긴장하며 이를 지켜보는데...

사원1 (모니터를 동비 쪽으로 돌리며) 여기요.  
이 웹툰 주인공 4인방. 엄효경, 이효덕, 박상문, 심인동.  
동비 !! 엄효경. 심인동... 이 웹툰... 정말 실화 아니에요?  
사원1 아닌 걸로 아는데... 저기요, 형사님. 혹시 이 웹툰 뭐 문제 있어요?  
동비 (보면)  
사원1 사실 얼마 전에도 어떤 여자분이 왔었거든요. 이 웹툰 때문에.  
동비 ! 누군데요?  
사원1 (고개 갸웃) 글썩요. 본인 말로는 이게 자기 얘기라고는 하던데...  
동비 자기 얘기요?  
사원1 네. 자기 이름이 그렇다고는 했는데... 모르죠. 진짠지는.  
동비 엄효경... 아니 그 여자가 뭘 물어보던가요?  
사원1 작가요. 작가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 그걸 물어봤어요.  
동비 (다급하게) 작가가 누구죠?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원1 그계... 저흰 정말 몰라요. 필명이고, 이메일로만 얘길 해서. 다만.  
동비 (보면)  
사원1 인세 보내주는 계좌번호가... (컴퓨터 자료 찾으며) 여기 있네.  
진주은행.

동비, 메모지에 빠르게 계좌번호 적는다. 그 화면 위로.

효경(E) 도와줘.

## #45 스토리닷컴 회사 앞

회사 건물에서 다급하게 나오는 동비. 분주하게 어딘가로 간다.  
근처에 숨어서 동비의 움직임을 몰래 지켜보는 누군가... 효경이다.

효경 (전화) ... 아무래도 더는 내가 감당 못 할 거 같아. 나 좀 도와줘.

효경의 불안한 시선, 계속 동비를 쫓는다.

## #46 인근 거리

상문에게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는 동비. 이내 상문에게서 전화가 온다.

동비 (받으며) 팀장님. 엄효경이 보는 웹툰에 뭔가 있습니다.  
엄효경이 그 웹툰 작가 알아보고 다녔답니다.  
네... 네. 지금 보낸 계좌번호는 그 웹툰 작가 거예요.  
이름이랑 주소 좀 확인해주세요... 전 지금 진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작가를 만나봐야 할 것 같...! 네? 가지 말라고요?

뜻밖의 대답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동비.

## #47 카페 안

전화를 받는 상문.

상문 그래. 지금 가지 말고 기다려. 일단 기다려, 김동비.

상문 전화 끊고, 화면 뒤로 쪽 빠지면... 맞은편에 효경이 앉았다.

플래시백.

고등학교 교실 안.

앞쪽 칠판에 붙어 그림을 그리는 효경과 뒤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는

상문과 효덕.

쓱쓱 빠르게 그림 그리는 효경의 모습.

『아르미안의 네 딸들』 원 만화 컷과 똑같이 그렸는데...

효경 효덕아. 상문아. 우리! 만화동아리 만들자. 어? 제바알...

효경, 달려와 상문과 효덕의 손을 꼭 잡는다.

효경 우리 친구잖아. 젤 친한 친구. 그니까 나 좀 도와줘.

효경의 두 눈동자 유난히 반짝이는데...

현실.

과거 씩과 목소리 오버랩 되며...

효경 그니까 나 좀 도와줘. 우리 친구잖아, 상문아.

말없이 무거운 시선으로 효경을 쳐다보던 상문. 고개를 끄덕인다.

## #48 거리(#47에 이어)

납득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서 고개를 가웃거리는 동비.

동비 왜... 왜... 가지 말라는 거지...?

플래시백.

직원1 (모니터를 동비 쪽으로 돌리며) 여기요.  
이 웹툰 주인공 4인방. 염효경, 이효덕, 박상문, 심인동.

현실.

동비 그... 박상문이... (고개 흔들며) 설마... 아냐. 아냐.  
아는 사이면 진작 얘기하셨겠지. 팀장님일 리 없어... 아닐 거야...  
(그러나 표정은 자신 없다. 결국 핸드폰에서 상문의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켜다) ! 팀장님이 왜 이 근처에!

동비, 놀라 주변을 훑훑! 둘러본다.  
그러다 어느 방향에 시선이 딱 멈춘다. 그곳을 향해 발끝이 움직이는데.

## #49 커피숍 안 + 밖(#48에 이어)

상문 (자기 핸드폰으로 웹툰을 보며) 순정만화? 이게 그 웹툰이야?  
효경 (고개 끄덕) 이거 외부에 알려지면 안 돼. 그럼... 위험해져. 상문아.  
상문 웹툰 작가가 누군지는 알고?  
효경 (고개를 끄덕인다)  
상문 (일어서서) 가자, 그 작가 만나러.

한편 그 모습을 카페 유리창 밖에서 지켜보는 동비.  
염효경과 박상문, 둘이 얘기하는 모습 위로.

동비(E) 염효경에 대해 잘 아시네요.  
상문(E) 이젠 나보다 더 잘 알아야지. 김형사가 감시자니까.

동비 (머리가 멍해지며) 원래 알던 사이였던 거야.  
감시자라서 알았던 게 아니고.

그러다 문득! 또다시 주마등처럼 스쳐 가는 장면들.

플래시백.

시광 내부 스파이... 그것부터 찾아내. 니들은.

현실.

동비 ! 그럼 실종팀에 있는 스, 스파이가 설마...

플래시백.

상문 (손가락을 입에 대고 씹!)

이 화면 인상적이고.

## #50 현재. 거리

차에 상문과 효경이 타더니, 이내 출발한다.  
잠시 후 일각에서 나와 이를 지켜보는 동비.

동비 (전화) 선배님. 저 김동빔니다.  
계좌조회 좀 해주세요. 주소랑, 이름이랑... 아뇨. 팀장님도 아십니다.  
근데... 제가 따로 부탁한 건 그쪽에 비밀로 해주십시오. 절대로요.

## #51 사무실 안

통화하는 균상.

균상 ! ... 그쪽? (주변 살피고) 이젠 서로 가진 꽤, 까불 때가 된 거 같다.  
김동비. 팀장님, 뭔가 이상하지. 그렇지?

## #52 도로 위

진주IC로 빠져나가는 택시의 모습 부감. 그 위로.

균상(F) 일단 진주로 움직여, 김동비. 나도 바로 쫓아갈 테니까.

## #53 진주 / 이재이의 집 앞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있는 골목 안으로 빠르게 달려와 서는 택시.  
그 안에서 통화하면서 내리는 동비.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어느 집 앞에 서서는 문패를 확인한다.  
문패 “김정미” 그 위로.

균상(F) 웹툰 작가 이름은 이재이, 현재 열여덟 살이고, 모친 김정미랑 살고  
있어. 아버지 이효덕은 고인이고.

동비 이효덕요?

플래시백.

직원, 모니터 돌려주며, 웹툰 주인공 네 명이 나란히 서 있는 장면의 웹툰  
컷 보여준다.

직원 순정만화 웹툰 주인공 4인방이에요.  
(손가락으로 짚으며) 엄효경, 박상문, 심인동. 그리고 이효덕.

현재.

동비 (놀라며) 웹툰 주인공, 이효덕요?

## #54 경찰서 사무실

책상 위 컴퓨터 모니터에 웹툰 순정만화 컷 떠 있다.  
이를 보며 통화하는 균상.

균상 그래, 그 이효덕. 이재이는 그 이효덕 아들이야. 지 아버지 애길  
웹툰으로 그렸던 거야. 젠장. 근데 그게 엉뚱하게 엄동식 사기를  
까발린 꼴이 됐으니...

동비(F) 팀장님요!

균상 (벌떡 일어서며) 뭐? 왜? 여기서 왜 팀장님이 튀어나와, 어?

## #55 재이네 집 앞

동비, 대문 옆 골목을 뺨히 쳐다보는데, 그 시선 따라가보면... 상문의  
차다.

동비 팀장님이... 여기 있어요, 선배님!  
팀장님이 스파이가 맞다면... 그래서 웹툰 작가 노리고 온 거라면...

동비, 전화기 든 채 재이네 집 대문을 쳐다보는데...  
삐이걱 소리와 함께 저절로 열리는 그 집 대문. 어딘가 괴기스럽다.

#56 재이네 집

(현관)

현관문을 살짝 밀어보는데, 안에서 잠겼다.  
둘러보다 집 모퉁이를 돌아가는 동비.

(안방 창가)

몸을 최대한 숙여 어느 창가로 접근하는 동비.  
조심스럽게 창 안을 쳐다보면, 사람들이 있다. 재이와 그의 모친이다.  
그 순간 그들을 결박하는 누군가... 엄효경이다.  
그 앞쪽으로 상문이 얼핏 보이는데!  
놀라 다시 한껏 몸을 움츠리는 동비.

동비 엄효경도 한패였어. 결국.

어찌지... 어찌지... 중얼거리다 문득!

(현관 앞)

긴장된 표정으로 서서 전화를 거는 동비.

동비 팀장님. 접니다. 김동비.  
네... 저 그 웹툰 작가 집 앞에 왔어요.

(거실)

전화기를 든 채 현관을 쳐다보는 상문.  
현관 불투명 유리에 동비의 검은 그림자 굴곡져 비친다.

상문 ! 김동비... 알았다. 일단 들어와. 들어와서 얘기하자.

상문 전화 끊고, 허리벨트를 차르르 풀어 팽팽하게 잡아당긴다.  
허리벨트 꼭 틀어쥐고 뒤통수에 숨긴 상문, 현관문을 열어주면,  
천천히 문이 열리며 동비의 모습 마침내 드러나는데...

상문

들어와!

동비,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자,  
상문, 재빨리 벨트로 그녀의 목을 감아 꽉 조인다.  
한데... 동비의 표정이 이상하다.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기만 하다.  
상문, 뭔가 이상한 기색을 눈치채는데.  
순간 지지직! 소리와 함께 표정 고통으로 일그러지며 화악! 커지는 그의  
눈동자.  
상문 천천히 시선 자신의 배 쪽을 보면... 전기충격기다.  
동비가 선제공격 한 것.  
그대로 철썩! 바닥에 쓰러지는 상문.

(안방)

동비, 그대로 안방으로 달려간다.  
문을 열고 들어가보면, 재이(남자 고등학생)와 재이 모, 재갈 물리고, 묶여  
있는데...  
그 옆에 또 한 사람 있다. 바로 효경이다!  
한데 효경도 결박당한 상태데... (입에 재갈도 물림)

동비

효경 씨가 왜... (서둘러 효경의 재갈을 내린다)

효경

상문이. 그때 분명히 교회에서 내보냈어요. 얼씬도 못 하게 내가  
내쫓았다고요!

인서트.

과거, 엄동식의 교회 앞.  
교회 문이 확! 열리며 효경, 상문을 끌고 나온다.

효경

가! 가라고! 다신 이딴 교회 얼씬거리지 मत!

상문

효경아! 난 이 교회가 좋아. 목사님이 좋단 말...!

효경

(힘껏 따귀를 때리고) 여기 다시 오면... 죽어버릴 거야. 진짜로.

진짜로 죽일 듯 노려보다 쿵! 소리 나게 문 닫고 들어가는 효경.

상문, 힘없이 돌아서 몇 걸음 걸어 나오는데... 누군가 그 앞에 섰다.  
천천히 시선 들어보면, 염동식이다.  
한없이 자비로운 미소로 상문의 뺨을 어루만지며...

동식      해매고 있구나. 나의 어린 양.

            고개를 푹 떨구는 상문을 꺾! 끌어안은 염동식의 모습에서.

            현재.

효경      인동이 말이 다 맞았어요. 인동이가 그때! 조심해웃!

            동비의 등 뒤를 쳐다보며 놀라 짹! 고함을 지르는 효경.  
            놀란 동비 획! 돌아보려는데, 순간 그녀의 목에 허리벨트가 툅! 걸린다.  
            상문이다.  
            상문, 동비 목에 벨트를 걸고 벽으로 힘껏 밀어붙이곤,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는 획 돌아서 벨트를 짜아악! 조이는데.  
            킁킁... 숨이 가빠지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동비.  
            동비, 몸을 이리저리 뒤틀다 벽을 힘껏 차낸다.  
            그러자 앞으로 밀려나가는 상문.  
            동비,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벽을 타타닥! 타고 올라선, 휘릭! 상문의 머리  
            위를 공중제비로 뛰어넘는다.  
            그렇게 상문이 조이던 벨트에서 벗어난 동비, 철썩! 바닥에 쓰러져  
            킁킁거린다.  
            상문, 동비를 획 노려보곤 팽팽하게 벨트를 잡아당기며 그녀의 등 뒤로  
            다가가는데...  
            이때 효경, 묶인 채 어깨로 힘껏 상문의 다리를 밀친다.  
            균형을 잃고 잠시 가우뚱하는 상문.  
            그 소란에 획 돌아보는 동비, 그대로 달려들어 상문의 다리를 확  
            끌어당기면, 쿵! 그대로 넘어지는 상문.  
            동비, 그의 목에 전기충격기 가져다대며 위협.

동비      이제 알았어요. 내가 감시하고 있던 건 염효경이 아니었어.  
상문      그래. 군상이었지. 김동비가 진짜로 감시하고 있던 사람은.  
            그 녀석이 용케 효경이 존재 알아내는 바람에...  
            년 구실이었어. 군상이가 접근 못 하게 하기 위한.  
            흐흐흐... 근데 이렇게 되면 하늘님 벌 면목이 없는데 내가...  
            이럴 바엔 그때... 그때 다 죽었어야 했는데...  
            그때 그 불에 효덕이도 효경이도 다 죽었어야 했어.  
            우리 하늘님 발목 잡는 것들은 죄다 그때 그 불!

            순간 효경, 아아악! 비명 지르며 달려들어,  
            동비가 들고 있는 전기충격기 뺏어 상문의 목에 들이대고 지지직!  
            이내 축 처지는 상문.

효경      돌아갔어야지, 그때.  
            왜... 왜 그딴 교회로 다시 돌아간 거냐고, 왜...!  
            내가 니들 지켜야 했는데... 지키려고 했는데!

            전기충격기 바닥에 떨어뜨리며 오열하는 효경의 모습,  
            회색톤 웹툰 컷으로 바뀌면서.

## #57 과거. 효덕의 교실 안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효덕과 그를 잡고 말리는 인동. (화상 상처 없다)

인동      효덕아. 오늘 휴거가 불발돼서 그 교회 지금 난리라카이.  
            니 지금 거 가면 죽는데이. 죽는다꼬오...  
효덕      그라니까 내가 간다 안 하나. 뇌라, 쪼음 뇌야. 효경이 거 있음 죽는단  
            말이다. 효경이는 내캉 지킬까다. 지킬 꺼라꼬!

            기어코 인동을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효덕.

## #58 과거. 하나교 앞

문이 부서져라 두들기는 효덕. 잠시 후 문이 삐이걱 열린다.

광신도 (죽일 듯 노려보며) 이이이 망할 놈의 불신자!

광신도, 주먹에 힘을 주고는 효덕의 턱을 강타한다. 퍽! 쓰러지는 효덕.

## #59 과거. 하나교 안

효덕, 가까스로 눈을 뜨면 교회 안인데... 분위기 이상하다.  
주변 둘러보면, 염동식과 효경이 자신 옆에 있다.

효덕 ! 효경아. (효경 옆으로 가려는데...)

광신도 그러니까 휴거는 없었던 거네. 처음부터.  
(손에 휘발유통과 라이터 들었다) 그렇죠, 목사님?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다)

동식 오, 오, 오헬세.  
(어찌지... 하는데 효덕 보인다) 불신자 때문에 부정 탄 거야.  
자네도 봤잖아. 이 자식이 하늘이 열릴 시간에 문을 두들기는 거.  
기억나지? (효덕을 손가락질하며) 저 부정한 것.

광신도 (효덕 휙 보고) 그래, 너. 이 망할 놈의 불신자. 내 기도도 그때  
깨졌지. (효덕에게 휘발유를 뿌리려는데)

효덕 (겁먹고 뒷걸음질) 아, 아니라예. 휴거 같은 건 첩부터 거짓말입니다.  
아재가 속은 거라예.

동식 (버럭) 형제님. 거짓말 속으면 안 돼.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그 충만한 시간들을 생각해봐.  
그게 어떻게 거짓말이겠어, 얼마나 간절했는데, 어?

광신도 (뭔가 뭔지 모르겠다... 효경 보고) 니가 얘기해봐, 효경이.  
휴거가 거짓말인 거야? 아님 이 불신자 때문에 부정 탄 거야?

효경 (겁을 집어먹고 침을 꿀꺽 삼킨다)

광신도 말하라고! 누구야. 누가 거짓말하는 거야?

니네 아버지야? 그래? (휘발유통 위협적으로)

효경 ! (차마 말은 못 하고 눈물 흘리며 고개를 흔들다)

광신도 그럼... 이 불신자야? (효덕에게 휘발유통 향하고) 부정 탄 거야?

효경 (엉엉 울면서 전보다 더 크게 고개를 젓는다)

광신도 (버럭) 대체 누구 때문이냐고!

효경 (울면서) 몰, 몰, 몰라요. 난 모른다고요!

광신도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실실 웃으며) 그래, 호호호. 그만 게 뭐  
중요해. 지금은... 지금은 모든 걸 끝낼 때잖아?  
그러니 모.두. 끝내자고!

광신자, 작심한 듯 효경에게 휘발유 확 뿌리려는데,  
순간, 효덕 안 돼! 고함지르며 효경 앞을 가로막는다.  
그 바람에 휘발유 다 뒤집어쓴 효덕.

효경 !!! 효덕아!

효경, 효덕에게 달려들려고 하지만, 동식이 그녀의 몸을 잡고 안 놔준다.  
광신자 주저 없이 라이터를 켜고 방바닥에 집어 던진다.  
죽음을 예감한 효덕, 효경을 돌아보며 가라고 손짓하며 배시시 웃는다.  
순간 화르륵 일어나는 불. 그 화면 위로.

제이 모(E) 다행히 그 화재에서 효덕 씨는 살아남았어요.

## #60 현재. 재이네 집 거실

재이 모자, 효경, 동비 앉았는데.

제이 모 효덕 씨가 요양원으로 오면서 우린 만났어요. 그래서 재이도  
태어났고.

효경 결국 인동이가 한 말이 다 맞았어요.

인서트.

공원. 가려는 효경을 잡는 인동.

인동 진짜야. 효경아. 그 웹툰... 효덕이 아들이 그런 거야.  
그 웹툰 때문에 개가 위험하단 말야. 지금.

효경 허튼소리 맛! 효덕이 그 화재 때 죽...  
가. 가라고. 그만 소리 할 거면 두 번 다시 나 찾아오지 마.

효경, 자신을 잡고 있는 인동의 팔을 획 뿌리친다.  
그 바람에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내용물(핸드폰 포함)이 밖으로  
흘러나온다.

현재.

효경 사실 그날 인동이가 교회에 대해 얘기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모두의 시선 효경에게 쏠리는데...  
그 찰나 현관문이 확! 열리며, 누군가 뛰어 들어온다. 군상이다.

군상 김동비!

### #61 재이 집 밖(저녁)

경찰들에게 끌려가 수감 찬 채 경찰차에 강제로 태워지는 상문.  
이를 지켜보는 동비, 군상, 효경.  
잠시 후, 상문이 탄 경찰차 떠난다.  
이를 쳐다보는 군상의 얼어붙어 멍한 표정 위로.

동비(N) 누군가에겐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었고,

효경의 두렵고 고통스러운 표정 위로.

동비(N) 누군가에겐 잊기 어려운 진실이었다.

멀어지는 경찰차 꿈무늬를 쳐다보는 동비의 시선 위로.

동비(N) 그러나 각자에게 어떤 진실이었던, 그 진실의 경계 안으로 들어선  
이상. 모든 걸 바로잡지 않으면 이 충격이 영원히 사그라지지 않을  
거란 걸, 우린 잘 알고 있었다.

효경 나... 더는 도망 안 가요, 내 아버지한테서.

일동 (효경 쳐다보면)

효경 나 알아요, 그 교회 어디 있는지.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인동이가 알려줬어요, 그때.

세 명의 비장한 표정 그 위로 우르릉 광광! 천둥이 울린다.

### #62 교회 전경(밤)

### #63 교회 / 목사실 안(밤)

창문 밖으로 비가 퍼붓는 거 보이고. 등받이 의자 창문 쪽으로 돌아 있고,  
책상 앞에 진기가 섰다. (얼굴 안 보임)

진기 (어딘가로 계속 전화) 상문이가 계속 전환 안 받습니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거 같습니다.

염동식 ... 연락 안 될 아가 아닌데 상문이 가가. 알아봐라, 뭘 사달이 났는지.

진기 네. 저 그럼... 효경 씨는 어떻게...

염동식 효경이가 와?

진기 인동이가 아마 알려줬을 겁니다. 여기 위치.

동식, 등받이 의자에 앉은 채 팔을 쭉 올려 상의 소매를 걷으면, 팔에 큰  
화상 자국.

염동식 니 이기 보이냐? 이기... 효경이 가 구하다 생긴 상처다. 불났을 때,  
난 지 구하다 이런 상처까지 생겼는데, 그 공도 까먹고 여를 경찰한테

나불거렸다던... 진기야. 내 아들이야.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내 자식은 너 하나로 되꼬마. 뭘 말인지 알제?

그 순간, 창밖에서 우르릉 광광! 천둥번개 요란하게 치는데, 번개 번쩍하는 그 순간 염동식의 얼굴, 창문에 얼핏 비치는데... 뭔가 전과 다른 분위기다.

### #64 산속 길 / 차 안(밤)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는 좁은 길인지라 운전이 어렵다. 운전하는 균상도, 보조석의 동비, 뒷자리 효경도 다 긴장 상태.

균상 어어. 이거 왜 이래!

와이퍼 작동이 멈췄다. 균상, 이것저것 만지느라 잠시 시야를 놓치는데...

동비 조심해욤!

균상, 놀라 끼익! 브레이크를 밟는다. 그러나 빗길에 그대로 주르륵 앞으로 미끄러지는 자동차. 차창을 후드득! 나뭇가지들이 치고 지나가다 간신히 차가 멈춘다. 일행,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밖으로 나와보면, 바로 아래가 낭떠러지다.

균상 헐... 염동식 잡기 전에 골로 갈 뻔했네.

일동, 낭떠러지 아래를 내려다본다. 어둠이 덮인 낭떠러지, 그 깊이를 알 수 없어 더욱 두렵다.

### #65 교회 인근(밤)

추적추적 비가 내린다. 교회에서 거리가 있는 곳에 상문의 차가 스르륵 들어와 선다.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 (균상, 동비, 효경)

동비 (효경의 팔을 잡고) 기다려요. 여기서.  
효경 그치만...  
동비 지금부터 경찰의 일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요.  
균상 (효경 보고 고개를 끄덕인다)

효경을 남겨두고, 일행 교회를 향해 천천히 걸어간다. 두려움, 갈등 등등 복잡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효경의 시선에서.

### #66 몽타주. 교회 안(밤)

캄캄한 교회 내부. 울음소리가 섞인 기도 소리가 교회 안에 가득 울리고. 그 안으로 균상, 동비 들어온다. 균상, 동비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손짓하면 고개를 끄덕이는 동비.

1. 기도실 밖 + 안  
핸드폰 플래시에 의지해 기도 소리가 요란한 곳으로 가는 균상.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기도 소리 점점 커진다. 마침내 기도실 앞에 도착한 균상. 살짝 문을 열어 안을 살핀다. 하얀 옷을 아래위로 입은 서른 명 남짓한 사람들 열성적으로 기도 중이고, 그 주변을 빙 둘러싸고 있는 건장한 남자들. (진기도 포함)  
탐색을 마친 균상, 다시 문을 조심스럽게 닫는다. 이때 뭔가 수상한 기색에 문 쪽을 휩 돌아보는 진기의 매서운 얼굴에서.

2. 기도실2 밖 + 안  
벽에 몸을 바짝 붙이고 주변을 경계하며 발걸음 옮기는 동비. 플래시 불빛으로 주변을 살피는데, 부스럭! 인기척이 난다. 동비 얼른 플래시 끄고, 벽 모퉁이를 돌아 몸을 숨긴다. 잠시 후 고개를 슬쩍 내밀어 보면, 어떤 남자 기도실2로 식판을 들고 들어간다. 순간 "살려주세요." 소리가 들린다. 동비, 순간 눈이 커지고. 기도실 안쪽, 식판을 든 남자 묵묵히 묶여 있는 여자2를 쳐다본다. 여자1, 계속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남자는 식판을 내려놓고 기계적으로 손가락으로 음식을 떠먹이려 하고. 이때 여자1, 발버둥을 치며 이를



거부하는데 그 바람에 남자, 들고 있던 손가락 놓친다. 남자, 획! 손을 들어 여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다 혀를 찹 차고는 바닥에 떨어진 손가락을 주우려고 허리를 숙이는데... 그 순간 그의 시야에 누군가의 발이 보인다. 김동비다. 김동비, 자신을 보는 남자의 목에 그대로 전기충격기를 가져다대고 파지직! 쿵!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는 남자. 여자2, 놀라 보면 동비 싹! 주의를 주고 다가가 여자를 묶고 있는 테이프를 풀어준다.

동비 경찰이에요. 염동식 지금 교회에 있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여자2.

3. 목사실 밖 + 안

목사실 앞에 도착한 동비. 플래시를 끄고 차르륵! 삼단봉을 펴고, 문을 열려는 순간, 벌컥!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오는 누군가. 동비, 상대 확인할 것도 없이 냅다 발로 걷어차 안으로 밀어 넣고는 문을 닫는다. 바닥에 쓰러진 남자 뒷덜미를 잡고, 일으켜 책상 앞에 세우는데... 진기 부친이다.

동비 (놀라 손을 풀고) 진기 아버지!  
진기 부 미, 미안해요. 미리 말 안 해서. 근데... 돈, 돈을 가져오면 우리 진기 만나게 해준다고 해서...

동비 염동식은요?  
진기 부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서 기다리라고만 해서.

이때 문이 벌컥 열리며, 들어오는 진기. 등을 돌리고 섰던 동비, 유리창으로 상대를 보고, 책상 위에 있는 화분을 들어 뒤로 힘껏 던진다. 진기, 얼굴에 펑! 맞아 떨어지는 화분. 머리통에서 주르륵 피가 흐르며

진기, 동비에게 덤빈다. 동비, 삼단봉으로 진기의 허벅지를 힘껏 가격하지만, 몽둥이로 이를 막아내는 진기. 진기, 동비의 공격이 잠시 멈춘 사이 삼단봉을 손으로 덤석 잡고 뺏으려 한다. 한참을 힘겨루기를 하지만, 결국 삼단봉을 뺏기고 만 동비. 진기, 삼단봉을 힘껏 치켜올렸다 동비의 얼굴에 내려치려는데... 그 순간 펑! 누군가 그의 등을 힘껏 차 쓰러뜨린다. 군상이다.

소리(E) 불신자들이 목사님 방에 있다!  
군상 (이씨... 삼단봉 다시 고쳐 잡고) 김동비. 그분 모시고 나가. 얼른!

군상,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사내들. 사내 하나, 군상의 공격을 받아 으익! 비명 지르며 바닥에 넘어진다. 그때 그의 시야에 들어온 화분 파편. (동비가 던진) 사내, 바닥에 떨어진 흙을 한 움큼 집어서 군상에게 펑! 뿌린다. 으익! 눈에 흙이 들어간 군상. 잠시 시야를 잃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찰나, 화분 파편을 쥐고 군상의 배를 찌르는 사내. 군상, 인상 구겨지더니 이내 배에서 주르륵! 피가 흐른다.

동비 선배님!  
군상 팬찮아. 넌 얼른 나가. 가서 지원 요청해. 어서! (삼단봉으로 사내들 겨누며, 씩 웃고) 나 피 봤다, 분명히. 그건 지금부터 무슨 짓을 해도 정당방위라는 거다. 이 씨팔놈들아!

군상, 삼단봉을 휘두르는데 아까와는 달리 머리통 위주로 휘갈긴다. 펑펑! 소리 나게 머리통을 얻어맞는 사내들. 그들 중 하나 군상을 향해 달려드는데, 군상, 그대로 먹살을 잡고 얼어치기! 와장창! 깨지는 사무실 내 가구들. 그 틈을 타 동비, 창문을 열고 진기 부친과 함께 밖으로 나간다. 이를 본 사내들, 한꺼번에 군상에게 달려들고, 바닥에 쓰러졌다 뒤늦게 정신 차린 진기, 그 틈에 동비를 따라간다.

## #67 교회 밖(밤)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동비, 겹옷을 벗어 진기 부친 머리 위에 씌워준다.  
핸드폰 플래시 켜고는 어느 쪽을 가리키며.

동비 저쪽에 차가 있어요. 가지죠.

동비, 진기 부친을 부축해서 가려는데, 퍽! 동비를 발로 차는 누군가.  
진기다.  
그 바람에 질퍽한 땅바닥으로 넘어지는 동비.  
진기, 넘어진 동비를 힘껏 발로 차고, 얼굴을 신발 바닥으로 짓이기는데...  
이때 퍽! 진기의 뒤통수를 큰 돌덩이로 내려치는 진기 부.  
동비 놀라 보면...

진기 부 (발로 쓰러진 진기 얼굴 짓밟으며) 이이이 천하의 나쁜 놈들.

순간 우르르 번쩍 내려치는 번개. 그 빛에 인상 잔뜩 쓰고, 진기의 얼굴을  
짓밟고 있는 진기 부의 얼굴이 드러나는데... 뭔가 괴기스럽다.

## #68 교회 인근(밤)

저 앞 어둠 속에서 부스럭! 인기척이 들리자 잔뜩 긴장하는 효경.  
이윽고 까마득한 어둠 속에서 더 짙은 그림자 윤곽이 드러나자, 효경 목을  
빼고 앞을 내다본다.  
잠시 후, 효경 앞에 나타나는 동비와 진기 부친.

동비 이분... 실종자 가족이에요. 도와주세요.

효경 (달려가 진기 부친의 손을 잡아 부축하고) 아버진요?

동비 (고개 젓고)

효경 내가 갈게요. 얼굴 정확하게 알아볼 사람 나뿐이에요.  
내가 가서 찾아볼게요.

이때 슬그머니 효경의 팔을 잡는 진기 부.

효경, 놀라 보면... 진기 부 슬쩍 소매를 걷어 올리는데...

팔에 큰 화상 자국!

효경 !

놀란 효경, 진기 부 쳐다보면,  
진기 부친, 동비의 시선 피해 효경에게 눈을 찡긋하는 모습, 인상적이다.  
그가 바로 염동식이었던 것.  
잡고 있는 효경의 팔을 파악! 힘을 주는 염동식!

효경 (동비의 팔을 잡는다) 도, 도, 동비 씨.

동비 (보면)

염동식 (얼른 동비의 팔을 잡고 있는 효경의 손을 떼어내며) 공연히 우리가  
나서면 방해만 돼요. 그러니까 아가씨... 우린 빠져줍시다. 경찰들이  
알아서 하게. 그게 우리 일이에요.

동비 그래요. 나 믿고 기다려줘요, 효경 씨.

효경 ...

망설이던 효경, 뒤늦게 스프룩 손을 놓으면, 동비 그대로 몸을 돌려  
뛰어간다.

멀어지는 동비를 복잡한 심경으로 보던 효경, 순간 표정 바뀌는데...

효경 그간 안녕하셨어요. (진기 부 뺨히 보며) 아버지!

염동식 (토닥토닥) 안녕했지. 그러니 너랑도 이렇게 만난 거고,  
잘했다. 암 유일한 핏줄인데 서로 위해야지. 가자, 그만.

효경 ... 네, 가요. 같이.

염동식 (뺨뺨이라 놀라) 순순하게... 웬일이냐?

효경 도망 안 가요, 이제. 아니. 도망 못 가겠어요, 더 이상은.

염동식을 뺨히 쳐다보는 효경의 얼굴, 속을 알 수 없는 표정인데...

## #69 일각(밤)

뛰어가던 동비. 부웅! 차 소리에 획 돌아보면…  
어둠 속에서 차 라이트가 점점 멀어진다.

동비 … 효경 씨?

동비, 급히 전화를 해보지만…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멘트가 나온다.  
이게 뭐지 싶어 황망한 표정을 짓다 사력을 다해 차를 쫓아가지만,  
차와의 거리 점점 더 멀어진다.  
동비, 멈춰 서 황망해 차 공무니를 쳐다보는 모습에서.

## #70 상문의 차 안 + 밖(밤)

룸미러로 차를 향해 뛰어오는 동비 보인다.  
이를 보고 부웅! 엑셀을 더 세게 밟고 달려가는 효경.  
탁탁! 차 문이 저절로 잠긴다.

진기 부 (여유롭게) 조금 가다 갈림길에서 오른쪽이다.  
그쪽에 숨을 곳이 있어.

효경 …

묵묵히 운전하는 효경의 비장한 얼굴에서.

## #71 교회 안(밤)

쑥대밭이 된 교회 안으로 급히 뛰어오는 동비.  
마침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균상.  
한데 표정이 심상치 않다.  
균상, 말없이 동비에게 사진 한 장을 내미는데 교인 단체사진이다.  
균상 중앙에 있는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보면… 진기 부다.

동비 이 사람은!  
균상 그래. 이 사람. 진기 아버지. 그자가 바로 염동식이야.  
젠장. 우리가 다 속은 거라고. 어딴어? 이 새끼, 지금 어딴냐고?  
동비 ! 그럼 효경 씨가 자기 아버지인 거 다 알고…

이때 울리는 동비의 핸드폰. 효경이다.

효경(F) 동비 씨. 나 결정했어요. 내 아버지와 함께하기로.  
놀라 밖으로 뛰어나가는 동비의 모습에서.

## #72 산길 / 차 안(밤)(#71에 이어)

염동식 조오 앞에서 오른쪽. 알아들었지?

묵묵히 운전하는 효경의 모습에서.

## #73 교회 일각(밤)

빗줄기 거칠어졌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어딘가로 뛰어나가는 동비.

## #74 산길 / 차 안(밤)(#73에 이어)

운전하는 효경의 모습 위로.

효경(F) 평생 도망만 친 내 아버지.

시선을 스윙 돌려 염동식을 바라보는 효경의 측은한 시선 위로.

효경(F) 그리고 그 아버지를 피해 도망만 쳤던 나.  
그러다 우리 둘 다 이제 아예 길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 동비 씨. 걱정 마요.

순간, 핸들을 왼쪽으로 꺾! 꺾는 효경.

염동식 ! 뭐 하는 짓이야? 오른쪽으로 가랬잖아, 오른쪽으로!

얼굴 벌게져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염동식의 모습 위로.

효경(F) 나... 아니, 우리 이제 도망 안 가요.

스윽 시선을 돌려 연민의 눈빛으로 동식을 바라보던 효경,

순간 동식의 손을 꽉 잡는데...

동식, 당황해 효경을 쳐다보는 눈빛, 흔들린다.

기다렸다는 듯 부웅 엑셀을 밟아 속도를 높이는 효경.

자동차. 빠른 속도로 타타타닥! 나뭇가지들 부딪치며 앞으로 뚫고 가다,

부웅~ 허공으로 떨어지는데, 그 위로.

동비(N) 안 돼!!

## #75 산속 절벽

동비, 숨이 차게 달려와 낭떠러지 앞에 도착하려는 찰나,

굉! 폭발음 소리와 함께 낭떠러지 아래에서 불길이 치솟는다.

망연자실, 무릎이 탁 꺾이는 동비의 모습.

## #76 절벽 아래(다음 날 새벽)

소리 없는 화면으로 분주하게 오가며 사고현장 정리하는 의료진, 경찰, 소방대원들.

그 분주함 한가운데로 하얀 천 덮여 스트레처에 실려 옮겨지는 효경.

어느 순간 스르르 천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피투성이가 된 효경의 얼굴 드러난다.

이를 보고 섰던 동비, 그곳으로 다가가는 모습 위로.

동비(N) 믿기 어려운 진실을 맞닥뜨려 그 경계 안으로 들어설 때, 기억해야 하는 게 있다. 바꿀 수 있다고 믿든, 바꿀 수 없다고 믿든, 당신이 믿는 대로 된다는 걸. 따라서 난, 그녀의 선택에 동의하지 않는다.

동비, 바닥에 떨어진 천을 주워 휘익! 돌려 효경에게 덮어주며, 화면 화이트아웃.

끝.

작가 후기 <경계의 여자들>은 액션스릴러 장르와 드라마 장르의 명확한 경계를 짓지 못한 과유불급의 대본이었다. 그중 하나를 선택해 잘 살려야 했지만, 작가는 어리석게도 결정하지 못했다. 그래도 단막극인데, 그래도 드라마인데...

질척였고, 대본은 나날이 엉망이 됐다. 이 대본을 왜 처음 시작했는지 그 초심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돌이켜보면 그냥 호쾌한 액션스릴러 한 편 써보자 시작한 일이 아니던가! 한데 욕심이 과해져 감동을 넣자, 인간을 보여주자 욕심을 그리 부러웠으니... 오호, 통제라!

깨달음은 그렇게 벼락처럼 내려쳤고, 그제야 이 대본의 중심이 쏘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 대본만 중심이 쏘고, 작가는 여전히 장르의 경계에서 있다. 제목 따라간다는 말 하나 틀리지 않는다.

후카시와 액션 말고 이 대본에 뭐가 필요하다는 촌철살인으로 작가의 아둔함을 깨우쳐주신 멘토님과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신 오픈 관계자 여러분께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2018년 오픈 2기 / 드라마 작품집

스릴러

## 인출책

정수훈

---

## 작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용기를 가져보자.

---

## 등장인물

### 병두(20대 후반, 남)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

연이은 취업 실패 후 생활고에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을 하기 시작했다. 기록적인 강추위가 몰아치던 날 밤 ATM 기계가 조직의 체크카드를 먹게 되면서 병두는 어떻게든 조직의 체크카드를 되찾아 상황을 모면해보려 한다. 하지만 병두의 선택은 매번 좋지 못한 상황을 초래한다.

### 주환(20대 후반, 남) 보이스피싱 조직 신입 인출책

날라차기 한 방이 있는 전직 태권도 선수. 훗날하게 잘생겼지만 조금 멍하다. 운동 말고는 마땅히 할 줄 아는 게 없다. 부상으로 선수생활을 그만둔 후 돈에 쪼들리게 됐고 자신의 통장을 팔려다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김미영을 알게 됐다. 병두에게 신입 인출책 교육을 받는다.

### 김미영(20대 후반, 여) 보이스피싱 조직 중간 인출책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했다. 하지만 쥐꼬리만 한 월급과 노동착취에 그만두고 보이스피싱 조직 중간 인출책으로 일을 시작했다. 돈을 벌어 작은 옷가게를 열고 싶다. 병두와 동거를 할 정도로 사랑했지만 자신에게조차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병두의 거짓에 지쳐 얼마 전에 결별을 통보했다.

### 공사장(40대 중반, 남)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전직 형사. 뇌물 사건으로 파면당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을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자신만의 조직을 만들었다. 모든 문제는 돈에서 비롯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인출책들이 중간에서 돈을 슈킹 하면 철저히 보복했다.

정수훈  
iru2006@naver.com

- 2016 • 영화사 오피스픽처스 〈스위트홈〉 각본
- 2017 • 영화사 인스퍼레이션 〈집사변호사〉 각본
- 2018 • 오켄 드라마 부문 당선
  - tvN 드라마 스테이지 〈인출책〉 극본

경비직원(50대 후반, 남) 보안업체 소속 경비

경비업체의 관리직이었다. 하지만 불의를 못 참고 내부고발자로 나섰다. 찍혀 ATM 부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순찰차를 타고 응대하는 서비스팀에서 혼자 밤새 일한다. 외골수 고집 때문에 쌓인 오해로 고등학생인 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1년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해 아내의 보험금을 잃었다.

그 외

경비직원 아들, 대두, 소두 형사, 경찰1, 2, 불량 청소년들, 영업1팀 빨간, 노란 머리 등.

---

#### 줄거리

살기 위해 다섯 시간 안에 조직의 체크카드를 ATM 기계에서 빼내야 한다.

절대 네버! 에버! 자신의 정체를 들켜 빨간 줄을 그을 수 없다. 병두는 취업 실패 후 생활고 끝에 궁여지책으로 여장을 한 채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한 지 벌써 2년째다. 아직까지는 별 탈 없이 무사하다.

그런데 강추위가 몰아치던 어느 늦은 밤!

병두는 주환이라는 조금은 멍한 친구에게 신입 인출책 교육을 마치고 마지막 인출입금 작업을 하려는데… ATM 기계가 조직의 체크카드를 먹어버리는 엉뚱한 상황을 맞게 된다.

처음엔 병두는 고객센터에 전화해 ATM 기계에서 카드를 되찾으면 된다고… 별 큰 문제 아니라고… 사소한 일로 치부했다.

하지만 뒤늦게 병두는 자신의 명이가 아닌 조직 체크카드를 기계에서 찾을 수 없다는 사실과 정의감에 불타는 고집 센,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잃은 일 있는 경비직원을 마주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꼬여가고 있음을 깨닫는다. 특히나 병두가 ATM 기계에서 조직의 체크카드를 찾으려 애를 쓸수록 말이다.

그렇게 나비효과처럼 체크카드 한 장 때문에 늦은 밤 교외 ATM 부스 안으로 강추위를 뚫고 엉뚱한 이들,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공사장, 해결사 조과장, 비리 형사, 경비직원의 아들 등이 모여들고 난장판이 벌어진다. 그러면서 병두가 가장 원치 않는 상황! 여장까지 하면서 들키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정체를 들킬 위기의 상황을 맞이한다.

— 인출책  
정수훈

## #1 상암동 / DDMC 거리와 빌딩(아침)

겨울 아침. 고층 빌딩 숲으로 향하는 직장인들의 분주한 출근길.  
백팩을 맨 20대 후반 세련된 정장 차림의 남자, 병두가 보인다.  
위잉! 병두 핸드폰이 울린다. 액정을 보면 김미영 팀장이다.  
병두 전화를 받으면 저편에서,

김미영(F) 출근했어요?

병두 거의 도착요.

김미영(F) 오늘 바쁘다 했죠! 영업1팀 물량 우리가 처리해야 하고, 신입 교육도 있다고. 분명...

병두 (말 끊고) 어떻게 됐대요? 영업1팀?

김미영(F) ... 궁금하면 공사장한테 전화하든지... 아무튼 빨리 출근해서...

병두 그러게 일 좀 똑바로 하든지!

병두 특 전화를 끊어버린다. 빌딩 정문을 지나 로비로 들어온다.  
사람들이 ID 카드를 찍으며 개찰구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라탄다.  
병두도 개찰구로 가는 듯한데 발걸음을 옮겨 한쪽에 위치한 남자 화장실로  
썩! 들어간다.

## #2 망원동 / 주택 안(아침)

화장을 하는 등 출근 준비 중이던 20대 후반 큰 키의 김미영이 특! 끊긴  
전화를 본다. 화를 억누르는 듯 크게 심호흡한다. 손에 들린 아메리카노를  
원샷한 후 핸드폰으로 김주환 사원에게 전화 연결한다.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통화 연결. 우렁찬 목소리.

주환(F) 팀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김미영 (다정다감) 좋은 아침이요. 주환 씨 출근했죠?

## #3 DDMC 건물 앞 / 주택 안(아침)

주환 네! 말씀하신 지점 앞에 있습니다.

캐주얼한 차림의 20대 후반 흰칠하게 잘생긴 남자, 주환이 은행 간판을  
보며 서 있다.

김미영(F) 김병두 사원 곧 도착이라니깐. 오늘 바쁠 텐데. 부탁 좀 할게요.

주환 네 걱정 마십시오! 팀장님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영(F) 주환 씨밖에 없네요. 고마워요.

주환 아닙니다!! ... 저 근데... 팀장님... 김병두 선배님은 어떤 분...?

## #4 DDMC 로비 안 + 밖(아침)

김미영(F) ... 어... 그게... 보면 알 거예요.

또각또각 구두 굽 소리를 내며 남자 화장실을 나오는 검정 스타킹 여자  
다리. 보면 여장을 한 병두다. 병두는 로비를 지나서 건물 밖으로 나온다.  
건물 앞에 통화 중인 김주환이 보인다. 병두 다가가 툭툭 어깨를 치며,

병두 김주환 씨?

주환 ... 네?

주환은 잠시 여장을 한 병두를 바라보다가 순간 여자치고 이상하다는 걸  
깨닫고... 놀란 표정이 된다.

핸드폰 수화기에서 김미영의 목소리가 들린다.

김미영(F) 여보세요? 주환 씨? 무슨 일 있어요?



병두는 주환의 핸드폰을 빼앗아,  
 병두 김팀장! 우리 만났어. 일 시작합니다.  
 병두는 특 전화를 끊고 주환을 보며 피식 미소를 짓는다.

## #5 망원동 / 주택 안 + 콜 방(아침)

한편 김미영은 다시 한 번 특 끊긴 전화를 보며,  
 김미영 이 새끼가 진짜…!  
 김미영은 병두에게 다시 통화 연결을 하며 현관을 나서는 듯한데.  
 옆방 문 너머에서 전화가 울린다. 김미영 옆방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에 콜센터 사무실처럼 충전기와 연결된 핸드폰 여러 대와 함께 컴퓨터가 놓여 있는 방이 보인다. 콜 방이다. 김미영 전화를 받으며,  
 김미영 그래, 3팀장님 출근했어요? 오늘 바쁜 거 알죠?  
 김미영은 자리를 잡고 앉아 컴퓨터를 켜며 재택근무를 준비한다.

## #6 DDMC 빌딩 앞(아침)

여전히 어안이 병병한 표정으로 주환은 여장을 한 병두를 뚫어져라 바라본다. 아름답다.  
 병두 … 이 일 무탈하게 하려면 그쪽도 하는 게 좋아요.  
 주환 (병두에게 꾸벅 허리를 숙이며) 김주환이라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병두 (말 끊으며) 바쁘니깐 각설하고.  
 병두는 핸드백에서 여러 장의 체크카드 중 ○○은행 카드 한 장과 사자 이모티콘 카드를 꺼내 주환에게 내밀며,

병두 알죠?  
 주환 사자요?  
 병두 교육 안 받았어?  
 주환 약간… 주로 전 오토바이만…

주환이 도로 한편에 세워진 세련된 산악용 오토바이 한 대를 가리킨다.

병두 (주환을 보며 한숨을 푹 내쉬곤) 자! 딱 한 번만 말할게. 잘 들어요!  
 (사자 이모티콘 카드를 주환 눈앞에 내보이며) 이건 윗방 계좌 카드!  
 이게 가장 중요해! 대포통장에 고객들이 돈 입금하면 그 돈을 빼서 우리 몫으로 10프로 떼고 나머지는 이 카드 넣고 입금? 오케이?  
 주환 아… 오케이!  
 병두 비번은? 알지?  
 주환 488………5?  
 병두 그냥 입금됐다는 대포 카드 넣고 돈 빼고 10프로 떼고 나머지는 윗방 카드에 넣고! 넣고 빼고 넣고 빼고! 중간에서 뺨팡 치면 누구 보게 된다?  
 주환 … 조…과장?  
 병두 암바 걸려 다리 작살 안 나려면 돈에 초연하시고. 돈은 뭐다?  
 주환 … 돈은 그냥 돈일 뿐이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의문을 갖지 마라!  
 병두 그렇지! 김새 이상하다 싶으면… 다른 건 다 버려도 뭐?

주환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 병두는 주환 오른손의 사자 이모티콘 카드에 시선을 준다.  
 그제야 주환은 깨닫고 사자 이모티콘 카드를 들어 보이며!

주환 윗방 카드는 챙긴다!  
 병두 그럼 이제 가서 해보실까?

병두가 길 건너편 은행 ATM을 가리킨다. 주환 망설이는 듯 주춤거리며 ATM 쪽으로 간다.

병두는 주환의 뒷모습을 보는데 주환 아무런 변장도 하지 않았다.

병두 그리고 갈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멍한 표정의 주환을 보며 병두 폭 한숨을 내쉰다.  
병두는 들고 있던 백팩 가방을 주환에게 건넨다.

### #7 원룸 + ATM 부스 교차(낮)

병두의 시선에 ATM 부스 안 기계 앞에서 흰칠하게 잘생긴 주환이 병두가 착용했던 대로 가발과 빨데 안경, 세련된 양복을 입은 채 어리바리 끼고 있는 게 보인다. 그때 병두 핸드폰이 울린다. 김미영이다.

김미영 전화 그만 식으로 끊을 거야? 병두 씨는 팀원이고 난 팀장이예요.  
공과 사는 구별하기로 했잖아.

병두 공과 사는 그쪽이 더 구별 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매번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그러니깐 영업1팀 꼴 나는 거지.

김미영 무슨 소리인데?

병두 교육이 안 되잖습니까! 말을 하면 바로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재 뭐 하던 앤데...? 교육 다 해놨는데... 또 갑자기 군대 간다고 사라지는 거 아니지?

김미영 운동했다는데... 이번엔 군필이거든!

그때 병두의 시선에 주환이 다급하게 ATM 부스를 뛰쳐나오는 게 보인다.  
2차선 도로를 건너 병두가 서 있는 오토바이 쪽으로 달려온다.  
병두 그 모습에 놀라 황급히 전화를 끊고 한쪽에 세워진 오토바이에 올라타 시동을 건다.  
주변에 형사들이 뛰어오는 게 아닌가 병두 눈동자를 굴리며...

병두 왜! 왜왜왜요?

주환 저기... 돈이 없...던...데요...

병두 뭐?

주환 계좌에 돈이 없어요...

병두 제대로 확인했어요?

주환 네 두 번.

### #8 DDMC ATM 부스 안 + 콜 방 교차(낮)

여장을 한 병두가 사람들의 시선을 살피며 ATM 부스 안으로 다급히 들어간다.

길 건너편에선 주환이 오토바이에 시동을 켜놓고 목을 쪽 빼 병두를 본다.  
병두는 대포통장 카드를 기계에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다. 김미영으로부터 계속 전화가 걸려오지만 병두는 받지 않는다. 병두는 먼저 잔액 조회를 하는데... 모니터 화면엔 0원이라고 떠 있다.

병두 그제야 김미영의 전화를 받으며...

김미영 김병두! 또 막 끊지!! 진짜 죽을래!!

병두 아침부터 정말! 일 똑바로 안 해?! 계좌에 돈이 없잖아?  
그 계좌 맞아?

병두 언성이 높아지자 걸걸한 목소리가 나온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듯 병두를 흘깃 바라본다.

한편 콜 방 안, 컴퓨터 모니터 화면 은행 입출금 내역을 다급히 확인하는 김미영.

김미영 뭘 소리야! 10분 전에 들어온 거 확인했거든! 다시 확인해봐!

병두 다시 기계에 카드를 넣고 모니터 화면을 만진다. 계좌 입출금 정보가 나온다.

5분 전에 ○○지역 ATM에서 두 번 연달아 1200만 원 인출됐다.

병두 이 시밤! 슈킹 당했네! 이거 어떤 새끼 계좌야?

## #9 DDMC 건물 밖 / 길거리(낮)

여장을 한 병두가 팔자걸음으로 씩씩거리며 길을 건너 주환이 타 있는 오토바이로 온다.

주환 … 진짜 없죠?  
병두 슈킹.  
주환 슈킹요?  
병두 겁대가리 없는 통장 주인이 중간에서 돈 입금되자마자 채갔다고요.  
주환 누가?

위잉! 김미영으로부터 핸드폰 문자 메시지가 온다. 주소가 찍혀 있다. 주환에게 주소를 내보이며,

병두 여기 사는 김두환 씨!

병두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올라탄다. 주환은 엑셀을 당긴다. 오토바이 출발한다.  
오토바이 위 병두와 주환의 뒷모습이 꼭 한 쌍의 남녀가 탄 듯하다. 출근길 꽉 막힌 도로 위를 오토바이가 질주하는 화면 위로, 타이틀. “인출책”

## #10 중고차량 주차타워(낮)

명투성이 20대 중반 노란 머리가 연신 뒤돌아보며 힐레벌떡 주차장 출입구를 향해 뛴다.  
노란 머리 거의 주차장 출입구에 당도했을 무렵 검정 소나타 한 대가 노란 머리 시선에 들어온다.  
노란 머리, 차량 안 남자들을 보고 반색하며 검정 소나타로 뛰어가 다급히 뒷좌석에 올라탄다.  
40대 초반 소두 형사와 대두 형사가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아 있다.

노란 머리 박 형사님! (서러운 듯 울음을 터트리며 말을 더 잊지 못한다)  
대두 형사 늦었지? 어떻게 된 거냐?  
노란 머리 공사장 이 씹새끼가… 사람을 어… 정말… 제가…  
소두 형사 진정하고. 우리 왔잖나? 남자 새끼가 올긴.  
노란 머리 … 정말… 죽는 줄… 형사님!!!

검정 소나타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듯하다. 그런데 출입구 쪽에 40대 후반 날카로운 광대뼈가 돋보이는 남자, 공사장이 택시를 잡아 세우려는 듯 서 있다.

노란 머리 저 새끼가 공사장…

그런데 검정 소나타가 공사장 앞에 멈춰 선다. 노란 머리는 뭐지 싶은 표정이 된 채 보면… 공사장이 뒷좌석 문을 열고 올라타 노란 머리 옆에 앉는다. 대두, 소두 형사가 공사장을 반긴다.

대두 형사 (공사장에게) 선배! 볼 때마다 때깔이 좋아지슈.  
공사장 니도 얼굴 좋아졌데이.

어리둥절 사색이 되는 노란 머리.  
공사장은 노란 머리의 어깨를 감싸며 비릿하게,

공사장 아침부터 뛰지 말라니깐 힘들게.  
노란 머리 …  
공사장 돈이랑 1팁장 어디 있니?

## #11 중고차량 주차타워 / 검정 소나타 안(밤)

차창 너머로 노란 머리가 공사장 몰마니에게 잡혀 봉고차에 실리는 모습이 보인다.  
뒷좌석 공사장이 조수석의 대두 형사에게 두툼한 돈 봉투를 쓱 건네며,

공사장 바쁜데 항상 고맙다.  
 대두 형사 필요... 근데 선배... 나도 다 때려치우고 선배 밑에서 일이나 배울까 봐?  
 공사장 니 성격에 자영업? 녹봉에 찢려주는 뽀지 부지런히 모아. 곧 승진 아냐?  
 소두 형사 선배님 우리 김형사님이 실적이 모자라세요. 좀 도와주십쇼!  
 공사장 그래? 그럼 우리 애들 중에 추려볼까?  
 대두 형사 무리 마시고... 이미 몇 명 봐줬어요.  
 공사장 누구?  
 대두 형사 꽃병아리들인데 똥똥한 놈, 뺨뺨 마른 놈 둘이서 배달대행 애들 꾸려서 지들끼리 인출 돌리는데... 소꿉장난 같아요. 실적 쌓기 딱 가마 나오느!  
 공사장 그래? 부족하면 말하고! 다음에 한잔해야지?  
 대두 형사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인출책 중에 여장하는 놈이 있다던데... 선배 애들인가?

## #12 ○○동 닭한마리 가게(낮)

퍽!! 여장을 한 병두가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리다시피 하며 가게 문을 박차고 들어간다. 주환이 뒤따른다. 그런데 가게 안엔 뜻밖의 광경이 펼쳐져 있다. 흑인 힙합 복장의 20대 중반 바짝 마른 몸매의 흘쭍이와 살이 썩 터질 것 같은 똥똥이가 30대 초반 남자를 무릎 꿇린 채 위협 중이다. 똥똥이의 목에 금색 쇠사슬 목걸이가 눈에 띈다.

병두 뉘신가들?  
 흘쭍이 (병두를 훑고 비웃으며) 헤이~ 소문으로 듣던 그 레이디 아니신가.  
 병두 보아하니 동종업계 사람 같은데... 우리가 거기 계신, 김두환 씨 맞지? 저분한테 불일이 있어서.  
 똥똥이 어떡하지? 브라더 아니 씨스터, 우리도 김두환 씨한테 불일이 있는데.  
 주환 (꺼들며) 그쪽도 슈킹?

똥똥이와 흘쭍이 순간 당황! 입을 다문다. 눈치를 본다.  
 병두 그 모습에 무릎을 꿇고 있는 30대 남자에게,

병두 이야! 아저씨! 양쪽에서 해 쳐드시려고 했어?  
 남자 한 번만 봐주십쇼! 돈은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병두 아무렴!

병두는 한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5만 원권 뭉치가 든 보스턴 가방을 보고 손을 뺐는데...

흘쭍이 (앞을 가로막으며) 헤이! 레이디 왓 아우 두잉?  
 병두 10분 전에 돈 빼갔지? 그치? 그거 우리 돈! 우리가 좀 바빠!

병두가 주환에게 신호를 준다. 주환이 보스턴 가방으로 가 손을 뺐는데... 이제 똥똥이가 막아서며,

흘쭍이 우리가 퍼스트 슈킹 당했고, 퍼스트로 컴 히어! 돈 토크 라이크 댕! 비치!  
 병두 한국말 해 개빠다귀야! 니들 누구 밀이야? 바빠 죽겠는데 보자 보자 하니깐!

병두가 힘껏 흘쭍이를 밀치지만 되레 엎어치기 당해 바닥에 내동댕이쳐진다.

바닥에 널브러진 여장을 한 병두 모습 처량하다. 그런 병두를 똥똥이와 흘쭍이가 비웃는다.

그런데 순간 뭔가 휘리릭 병두 눈앞을 지나치더니 똥똥이가 바닥에 쿵! 고꾸라진다.

병두 무슨 일인가 눈을 부릅뜨면 주환이 멋진 뒤돌려차기로 흘쭍이의 면상을 퍽! 가격한다.

### #13 어느 ATM 부스 안(낮)

병두 ATM 기계에 사자 이모티콘 카드를 넣고 보스턴 가방에서 5만 원권  
몽치를 꺼내 투입구에 넣는다.  
두두두 현금 세는 소리가 들린다.

병두 (중얼거리며) 개빠다귀 같은 새끼들이 어디서.

그러면서 병두는 김미영에게 전화한다. 연결된다.

병두 아니 그냥 빠다귀들이었어. 그래. 입금했어. 확인하고... 저 있잖아...  
아까 신입 운동했다 그랬잖아? 태권도니?

병두는 길 건너편 오토바이에 타 있는 주환을 본다. 눈이 마주친다.  
병두 어색한 미소를 씨익 지어 보인다.

### #14 ATM 부스 밖(낮)

병두의 손에 편의점 캔커피 두 개가 들려 있다. 주환에게 하나 건네며,

병두 ... 한잔?

주환 괜찮아요? 바쁜 거 아닌...?

병두 잠깐 커피 타임인데 뭐! 오늘은 아침부터 재수 없는 일도 있었고,  
영업1팀 물량도 처리해야 하니깐 그냥 제가 할게요.

주환 기계 앞에만 서면 떨려서... 죄송해요... 저... 동갑이라고 들었는데...  
말 놓으셔도...

병두 ... 그럴까? 주환아?

주환 그래... 병두야.

병두 근데 주환아... 싸움 좀 했나 봐? 아까 발차기는?

주환 고3때 부상당하기 전까지 태권도 선수였어.

병두 어떻게 김미영 팀장 알고? 이 일을?

주환 운동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거든... 부상 때문에 막노동도 힘들고...

돈에 쪼들리다가... 통장을 김미영 팀장한테 팔았는데... 김미영  
팀장이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해서.

병두 (주환의 눈치를 살피며) 그런 거 보면 김미영 팀장이 은근 챙겨...  
사람이 괜찮지?

주환 사람 참 좋아.

얼굴이 붉어지는 주환을 노려보는 병두.

주환은 그런 병두의 시선을 느끼며,

주환 넌? 어떻게?

병두 (시선을 피하며) ... 비슷해. (말 돌리려는 듯) 여자 친구는 있고?

주환 왜?

병두 아니 그냥...

핸드폰이 울린다. 병두는 자신의 핸드폰인 줄 알고 보지만... 주환의  
핸드폰이다.

액정에 김미영이라고 떠 있다. 주환은 핸드폰을 보고 웃으며,

주환 ... 일해야겠다?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다) 네 팀장님!

주환은 김미영의 전화를 받으며 오토바이에 올라탄다. 병두는 썩 그런  
주환을 노려본다.

### #15 배달대행 사무실 밖(낮)

수십 대의 배달대행 오토바이가 늘어서 있다. 얼굴에 멍이 크게 든  
홀쭉이와 똥똥이가 배달대원들에게,

홀쭉이 한 놈은 여장을 한 선 오브 비치! 다른 한 놈은 기생오라비처럼  
생겼다. 멀리 못 다닐 거다. 근교 ATM 주변으로 투데이 안으로  
찾자! 현상금 500! 레츠고! 보이!

흘쭉이의 말이 끝나자 배달원들이 각자 오토바이를 타고 우르르 흩어진다.  
그런데 그 모습을 멀리서 승합차 안에서 대두 형사와 소두 형사가  
바라보며,

소두 형사    필 꾸미고 있나 본데요 저 새끼들?  
대두 형사    기다려보자고. 한두 명 잡아가서 뭐 하게? 고기 몰려드는데…  
              사이즈 키우자.

## #16 몽타주

1. 주환이 여장을 한 병두를 ATM 앞에 내려주면 병두 ATM 안으로 들어가  
돈을 뽑고 널고를 반복한다.
2. 술집 앞, 주택가 앞, 마트 앞, 심지어 경찰서 앞 등등 다양한 곳에  
위치한, ATM 부스 앞에 멈춰 서는 오토바이. 그런 ATM 부스들을 씬 없이  
빠르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여장한 병두의 모습.
3. 시내 도로, 주택가 골목길, 자동차 전용도로 등을 질주하는 오토바이에  
탄 병두와 주환의 모습.
4.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병두와 주환.  
주환의 핸드폰으로 김미영 팀장의 전화가 걸려오고 주환은 괜히 병두를  
피해 한편에서 김미영과 즐거운 듯한(?) 통화를 이어나간다.  
병두는 그런 주환의 모습을 보며 똥 씹은 표정이 된 채 도시락을 괜히  
쓰레기통에 내팽개친다.
5. 그렇게 숨 가쁘게 인출책 일을 하는 병두와 주환의 모습이 빠르게  
보여지면서 해가 지고 밤이 된다. 도시는 어둠에 잠긴다. 도시 풍경이  
야경으로 바뀐다.

## #17 신도시 상가 / ATM 부스 밖(밤)

입주 전인 신도시의 한 상가. 주변은 공사 중인 건물 몇 동을 빼면 황량한  
별판이다. 상가 대부분이 텅 빈 채 어둠에 잠겨 있다. 강추위 때문인지  
거리엔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바람에 쓰레기봉지만 나뒹군다.  
도로 위엔 차도 한 대 보이지 않는다. 꼭 유명도시 같다.  
그곳 어둠 속에서 오직 은행 ATM 부스만이 불을 밝히고 있다.  
병두와 주환이 탄 오토바이가 그 앞에 멈춰 선다. 병두는 핸드백에서  
통장과 함께 뒷방 체크카드인 사자 이모티콘 카드를 주환에게 내밀며,

병두        자 마지막은 괜찮지?

주환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칼바람에 몸을 웅크리며 황급히 ATM 부스  
안으로 들어간다.  
그 모습을 보면서 병두는 핸드폰을 꺼내 잠시 망설이다가 김미영 팀장에게  
전화를 건다.  
뚜뚜뚜 통화 연결음 이후 김미영의 목소리.

병두        잠깐 통화 가능?

## #18 신도시 상가 / ATM 부스 안(밤)

10평쯤 되는 공간에 여섯 대의 ATM 기계가 왼편에 나란히 늘어져 있고 그  
끝 귀퉁이에 뒤편 기계실 문과 함께 빈 공간이 있는데 크리스마스트리와  
소화기로 가려져 있다. 바닥은 각종 마사지와 술집 전단지로 지저분하다.  
벽면에 걸려 있던 전자시계가 깜박거리며 11:59에서 12:00으로 바뀌는  
순간…

니은 자로 꺾인 출입구를 통해서 주환이 들어온다. 주환 쪽 한 번 ATM  
부스 안을 훑은 후 가운데 ATM 기계 앞에 선다. 주환은 돈이 입금됐다는  
대포통장 카드를 넣고 돈을 인출한다. 두두두 현금 세는 소리가 들리고.  
5만 원권 뭉치가 나온다. 5만 원권 뭉치에서 수수료로 몇 장을 빼내

가방에 넣는다. 이제 나머지 뭉치돈을 뒷선 대포통장에 입금하기 위해서 이모티콘 노란색 카드를 투입구에 넣는다. 나머지 뭉치돈도 현금 투입구에 넣는다. 두두두두 돈 세는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갑자기 두두두두둑! 엇박자 소리가 나다가 똑! 멈춘 듯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주환, 스크린을 보면 ATM 화면이 꺼져 있다.

## #19 주택 안 / 김미영 방 + ATM 부스 밖 거리 교차(밤)

미영이 병두와 통화하면서 콜 방을 나온다. 거실을 지나 한쪽 방 안으로 들어간다. 불이 켜지면 아담한 원룸이 보인다.

병두 (ATM 안 주환을 보며) 좋냐? 흰칠하고 잘생겨서? 드디어 얼굴 뜯어먹게 생겼네?  
 김미영 뭐래는 거야? (방 안 벽시계가 11시 55분을 가리키는 걸 보며) 일 다 끝냈어?  
 병두 우리 헤어진 지 고작 이틀 됐어...  
 김미영 어찌라고! 송금했냐고!  
 병두 잤냐?  
 김미영 말을 말자.  
 병두 잘 살아라. 나 다신 연락 안 한다. 이제.  
 김미영 제발 하지 마. 근데 그 전에 니 짐 가져가라!  
 병두 ... 버려!  
 김미영 (버럭) 네가 버려!!

특 전화가 끊긴다. 병두는 씩씩한 표정을 짓는다. 핸드폰 주소록에서 김미영 팀장이라 저장된 번호를 삭제할까 말까 하는데... 그때 병두의 시선에 ATM 부스 안 주환이 ATM 기계를 부술 듯 흔들어대고 있는 게 들어온다.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 #20 ATM 부스 안(밤)

병두 다급히 ATM 부스 안으로 들어오며,

병두 왜?  
 주환 ... ATM이 안 돼.  
 병두 (다가가 꺼진 ATM 보며) 뭐?  
 주환 ... 갑자기...  
 병두 (주환의 양손을 보며) 사자는?

주환의 시선은 ATM 기계 카드 투입구로 향한다. 사색이 되는 병두.

## #21 주택 안 / 김미영 방 안(밤)

김미영이 전화를 끊고 방 안을 쪽 둘러본다. 방 안 곳곳엔 병두와 동거한 흔적이 남아 있다. 행복해 보이는 병두와 김미영 커플 사진이 아기자기한 액자에 담겨 화장대에 놓여 있다. 옷걸이엔 미영 옷이 반, 병두 옷이 반 걸려 있다. 김미영은 휴! 크게 한숨을 내쉬며 대형 트렁크 가방을 꺼내 펼쳐놓고... 병두의 옷가지 등을 쑤셔 담는다. 왼손 약지 반지도 빼내 트렁크 가방 안에 던져 넣으려는데... 그때 핸드폰이 울린다. 액정에 공사장이라 떠 있다. 김미영 받으면...

공사장 자?  
 김미영 아뇨...?  
 공사장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마지막 건이 입금이 안 됐네?  
 김미영 (방 안 한편 시계를 보면 자정이 훌쩍 넘었다) ... 죄송함...

김미영이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전화가 끊긴다. 사색이 된 김미영은 곧장 병두에게 전화를 한다.

## #22 ATM 부스 안(밤)

병두와 주환은 사자 이모티콘 체크카드를 먹은 ATM 앞에 선 채... ATM을 들었다 놔다... 밀었다 땡겼다, 두드렸다 흔들었다 문질렀다 하며 사자

이모티콘 카드를 빼내보려 애쓴다. 병두 핸드폰이 울린다. 김미영이다.  
순간 병두 그림 그렇지, 라는 승리의 표정.

병두 (나긋하게) 왜? 전화 안 한다면서요?  
김미영 (말 끊고 버럭) 야! 돈 입금 안 했어?  
병두 … 그게… ATM 열린 데가 없어서… 찾으려면 30분 안에 입금할  
거니깐…  
김미영 (말 끊으며) 미쳤나? 공사장한테 전화 왔다고! 10분 안에 다시  
입금해봐라!  
병두 야 이 추위에 밖에서…

병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끊기는 전화… 병두 짜증이 올라오는 듯  
얼굴이 붉어진다. 그런 병두에게,

주환 왜 거짓말을…?  
병두 그림 ATM이 카드를 먹었다 얘기해? 공사장한테 전화 왔다니깐…  
얼른 카드 찾자.

병두의 시선에 ATM 기계에 부착되어 있는 긴급 서비스센터 전화기가  
보인다.

## #23 빌딩식 주차장 + 김미영 방 안 교차(밤)

노란 머리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서 있고 가까운 곳에선 공사장  
똥마니가 몸을 숨긴 채 먹이가 걸려들길 기다린다. 그 광경을 공사장은  
한편 차량 안에서 주시한다. 핸드폰이 울린다. 김미영이다.

공사장 그래, 김팀장?  
김미영 연락해봤는데… ATM을 못 찾아서 늦었다고… 10분 안에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공사장 김팀장은 말귀 한 번에 알아듣잖아? 경고했을 텐데…  
김미영 죄송합니다.

공사장 아직 마음이 떠 있어? 그만두고 싶은 거야?  
김미영 아닙니다.  
공사장 김팀장이 중간에서 애들 관리 야무지게 해줘야 돼. 영업1팀도  
그렇고… 2팀까지 그러면 돼?  
김미영 신경 쓰겠습니다.

공사장 전화를 끊는다. 하지만 공사장 표정이 굳어 있다.

공사장 (운전석의 똥마니에게) 조과장 요즘 쉬냐?

공사장의 시선에 밖을 보면 노란 머리 곁으로 빨간 머리가 주변을 살피며  
다가간다. 마주 선다. 걸려들었다.  
차량 뒤편에 숨어 있던 공사장 똥마니들이 우르르 달려가 빨간 머리를  
뺨아챈다.

공사장 김미영한테 가보라고 해.

## #24 ATM 부스 안(밤)

고객센터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병두 긴급 서비스 전화기를 들고 서 있다.

병두 저… ATM 기계가 카드를 먹었는데요.  
고객센터 네, 거기 위치가 ○○지점 맞으시죠?  
병두 제가 급해서 그런데 좀 빨리 어떻게 찾을 수…?  
고객센터 네, 경비직원분 빠른 시간 안에 보내드릴 건데 그 전에 카드 본인 거  
맞으시죠?  
병두 … 본인요…?  
고객센터 네, 손님, 직원분이 가서 카드 본인 확인 후 찾아드릴 겁니다.  
신분증 지참하시고 좀만 기다려주세요.



병두 전화를 끊으며,

병두 좇됐다...

사색이 된 병두의 얼굴이 이제 어두워진다.  
그 모습을 불안한 듯 바라보는 주환.

## #25 ATM 부스 안(밤)

사자 이모티콘 카드를 먹은 ATM기 앞에 병두와 주환 마주한 채,

주환 사람들 오기 전에 가자! 다음에 찾자?

병두 몇 번을 말해! 네가 쑤셔 박은 카드는 윗방 카드라고! 잘못되면  
줄줄이 엮인다고!

주환 어떻게? 겨우... 사자 그림 그려진 체크카드일 뿐인데...

주환 고개를 가웃거린다.

병두 째새들이 수사할 때 돈 추적하는 건 알지? 저 사자 그림이 그려진  
통장 체크 계좌는 우리가 돈 입금하면 김미영이 그걸 바로 위쪽 다른  
통장으로 쏘잖아.

인서트.

은행 직원과 형사는 컴퓨터 모니터상에 뜬 사자 이모티콘 카드 계좌이체  
내역을 쭉 본다.

병두 ... 김미영한테 돈 이체받은 적 있지? 사자 못 찾으면 계좌 추적으로  
사다리 타기 하듯이 거슬러 오르다 다 걸린단 말이야!

인서트.

(사다리 타기를 하는 듯한 그래픽!) 병두 머리 위로 계좌번호가  
그래픽으로 뜨고 철컹!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다. 주환 머리 위로도

계좌번호가 그래픽으로 떠 있고 철컹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다.  
사색이 된 주환의 얼굴 위로,

병두 인생 그날로 종인 거야!

그런데 병두 무슨 생각이 난 건지 갑자기 핸드백 속 통장 묶음을 뒤진다.  
병두는 통장 하나를 손에 쥘다. 통장 첫 면을 펼치면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이숙현!

병두 카드 명의자 이숙현이... 이숙현이 데려오자!  
주환 ... 이 밤에 이숙현이 누군지 알고?

## #26 김미영 방 안 + ATM 부스 밖 교차(밤)

김미영은 초조한 듯 방 안을 서성이며 벽면 시계를 확인한 후 병두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때마침 먼저 병두에게서 전화가 걸려온다.  
김미영이 다급히 전화를 받으며,

김미영 입금했지?

병두 있잖아... 문제가 생겼어.

김미영 미쳤니? 지금이 몇 시야?

병두 그게... 사실은... ATM 기계가 카드를 먹었어...

김미영 (말 끊으며) 뭘 먹어?!

병두 주환이가 돈 입금하려고 윗방 체크카드랑 돈을 기계에 넣었는데...  
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기계가 멈췄네. 카드를 안 뱉어내.

김미영 나 너랑 농담할 기분 아니거든!

병두 진짜야...

김미영 사람 불러서 찾으면 되잖아?

병두 전화했지... 근데 카드 명의자 본인 확인 후 찾을 수 있대네...  
그래서 통장을 보니깐 계좌 명의자가 이숙현이라 돼 있더라고?

김미영 ...

병두 이숙현이 누군지 알아? 그 여자 어디 살아? 지금 빨리 데려오면...

김미영 그 카드 잘못되면 줄줄이! 다 죽는다고! 왜 하필 오늘이냐고!!  
 병두 ... 알아 안다고! 그래서 찾으려는 거잖아... ATM에 카드 넣은 건 니 애인이라고.  
 김미영 ... 개 내 애인 아니거든 화상아! 지금 어디야?!  
 병두 왜?  
 김미영 어디냐고!! 좌표 찍어! 갈 테니깐!  
 병두 니가 왜 오는데! 이숙현이 와야 된다니깐.  
 김미영 내가... 이숙현이다!  
 병두 뭐!!?

## #27 교외 산속 비닐하우스 안(밤)

노란 머리와 빨간 머리가 샅을 들고 비닐하우스 안에서 자신들의 무덤을 파고 있다.  
 한편에 앉아 차를 훑어보며 바라보는 공사장.

공사장 횡령 착복은 인류에 대한 배신이라 했지? 니들 같은 놈들 때문에 인류애가 안 생겨! 이 밤에 회사를 위해 좇 빠지게 열심히 일하는 다른 동료들에게 미안하지 않니?

그때 톨마니가 다가와 공사장에게,

톨마니 저... 영업2팀 마지막 건이 아직도 입금이 안 됐는데요...

공사장 순간 표정이 굳어진다. 김미영에게 통화 연결을 시도한다.  
 뚝뚝 통화 연결음만 들릴 뿐이다.

## #28 김미영 방 안 + 교외 비닐하우스 안 교차(밤)

위위이이잉! 화장대 위에 있던 김미영의 핸드폰이 계속 울린다.  
 그때 그림자가 쓱 핸드폰으로 다가오는데... 김미영이 아니라 검정 구둣발 남자다. 남자의 손이 핸드폰을 집어 든다. (조과장 얼굴 나오지 않는다)

조과장 접니다. 사장님.  
 공사장 ... 김미영은?

조과장의 시선에 현관 입구 앞에 놓여 있는 대형 트렁크 가방이 들어온다.  
 대형 트렁크 가방을 열어본다. 미영과 병두의 물건들이 나온다.  
 조과장은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병두와 김미영 커플 사진을 보며,

조과장 애네 사내연애 했는데요. 네, 도망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공사장 어디로 간 거 갔나?

통화 중인 조과장의 시선에 한쪽에 켜져 있는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 들어온다. 모니터 화면엔 지도 검색을 한 흔적이 남아 있다.  
 ○○에 위치한 ○○은행 지점 ATM 부스다.

조과장 멀리 못 간 거 같습니다.

## #29 도로 위 / 차 안(밤)

운전석의 김미영. 신호가 걸려 잠시 멈추자 김미영은 주머니를 뒤진다.  
 핸드폰이 없다! 김미영 비명을 지른다! 신호가 바뀐다. 김미영 유턴을 하려다 망설인다. 내비게이션이 깜박이며 ○○은행 지점 ATM 부스를 가리킨다. 새벽 1시가 막 지난다. 뒤에서 빵! 경적! 김미영 어쩔 수 없다는 듯 엑셀을 밟는다. 직진한다.

## #30 ATM 부스 안(밤)

병두는 초조한 듯 ATM 부스 안을 서성이며 핸드폰으로 연신 김미영에게 통화를 시도한다. 연결되지 않는다. 벽면 전자시계는 01:00이다.  
 병두는 다짜고짜 한편에 놓여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든다.

주환 뭐 해?  
 병두 부수자! 공사장 빠쳤고... 김미영 애는 오는 건지 전화도 안 받고...

주환 (막으며) 김팀장님 곧 도착하겠지.  
 병두 벌써 30분째야! 비켜!

병두는 소화기로 ATM 카드 투입구를 내려찍으려 하고 주환은 또 막으려 하는데... ATM 부스 입구가 쓱! 열리고 50대 중반의 서민적인 얼굴의 경비직원이 들어온다.  
 병두와 주환은 ATM 기계 앞에 소화기를 든 채 스냅샷 포즈를 취하는 듯 동작 그만 상태가 된다.  
 경비직원의 시선에 그 모습은 근육질 여자가 소화기를 들고 ATM을 내려치고 하고 흰칠하게 잘생긴 남자가 그걸 막고 있는 기괴한 모습이다.

경비직원 저?  
 주환 (잠시 멍하니 있다가) ... 죄송합니다. 여자 친구가 술에 취해... (병두에게서 소화기를 받아 한편에 내려놓고 눈치 준다)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왜 그리도...

주환이 병두에게 눈짓한다. 병두 잠시 당혹 난감한 표정이 된 채 멀뚱히 서 있다. 주환은 다시 한 번 병두에게 눈짓! 병두는 그제야 경비직원의 시선을 의식해 흐느적거리며 중얼 술 취한 척한다. 어색하게...

경비직원 (경계하며) 카드를 먹었다고 진화하신 분?  
 주환 아... 예. 접니다. 저 기계가... 갑자기 멈추더니... 카드 빨리 좀 찾을 수...?

경비직원 (ATM 기계를 살피며) 가끔 오류가 나는데 뒤에 가서 확인 후 찾아드리겠습니다. 근데 카드는 어느 분 거?

주환 아... 여자 친구 건데...

경비직원 (병두를 보며) 죄송한데 신분증 좀 확인해도 될까요?

주환 예... (병두가 메던 핸드백을 뒤지며) 찾고 있을 테니깐 카드 먼저 찾아...?

그때 경비직원의 시선에 핸드백 안 수십 개의 통장과 카드가 보인다.

경비직원 통장이랑 카드가 많네요.  
 주환 아... 네! 그게...  
 경비직원 ... 당신들... 인출책이지?

경비직원 순간적으로 허리춤의 전기충격기를 꺼내 겨냥하며 핸드폰으로 112 연결하려 한다.  
 막 통화 연결이 되는 순간... 뒤에서 병두가 경비직원을 퍽 가격한다.  
 경비직원 바닥에 고꾸라진다!

주환 (그 모습에 화들짝 놀라) 미쳤어?  
 병두 그럼 어떡하니!

병두는 목격자가 없나 ATM 밖으로 나가 거리를 살핀다. 하지만 거리엔 여전히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적막하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 도로 끝 어둠 속에서 차량 한 대가 달려오는 게 보인다.

주환 어쩔!!?

병두는 다급히 ATM 부스 안으로 들어와 쓰러진 경비직원과 경비직원 허리춤의 열쇠 문치를 본다.

병두 다리 잡아. 옮기자! 일단!!  
 주환 뭐?  
 병두 옮기자고. 뒤로!

병두 ATM 부스 뒤편 기계실을 가리킨다. 주환은 경비직원의 양다리를 병두는 양팔을 잡고 기계실 쪽으로 경비직원을 옮긴다. 그리고 병두는 열쇠 중 기계실 열쇠를 찾는데... 맞는 열쇠를 바로 찾지 못한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이며 차량이 ATM 부스 앞을 지나치듯 가까이 다가온다!

주환 빨리!

그때 열쇠가 맞으며 문이 열린다. 병두와 주환이 경비직원을 안으로 옮기려는 순간… 벌컥 ATM 부스 입구 문이 열린다! 병두와 주환은 굉장했다는 생각에 동작 그만 상태로 돌아보면…  
뜻밖에도 김미영이 서 있다.  
김미영의 시선에 널브러진 경비직원을 옮기는 주환 그리고 여장을 한 병두의 모습이 들어온다.

김미영 야야야야! 무슨 짓이야!

### #31 ATM 부스 밖 + 경비직원 순찰차 안(밤)

주환은 경비직원이 타고 온 시동이 걸려 있는 순찰차로 간다.  
주환 순찰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끄려는데… 켜져 있던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과 함께 차 안 훈기가 주환을 확! 덮친다. 주환은 가만 운전석에 앉아 숨을 후 내쉬어 본다.  
앞 차창 너머로 보이는 ATM 부스 안에선 병두와 김미영이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희극적으로 보인다. 주환의 시선은 김미영에게 고정된다. 음악이 바뀐다. 사랑의 애절함을 담은 노래가 흘러나온다. 주환의 시점에 김미영의 모습은 영화 속 아름다운 여배우와 같다. 그런데 순간 주환은 백미러로 무엇인가를 본다. 주환 고개를 돌려 보는데… 주환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 #32 ATM 부스 안(밤)

한편 기계실 안엔 병두가 입고 있던 옷들을 이용해 경비직원 입에 재갈을 물리고 결박했다. 경비직원은 바닥 한쪽에 기절해 뺨어 있다.  
김미영이 여장한 병두를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김미영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보안직원을 보며) 어떡할 거야?  
병두 여기 열쇠 있잖아. 이거 가지고 기계 따고 카드 찾으면 돼!  
김미영 (벽면에 달려 있는 CCTV를 가리키며) 저건 장식이니?  
병두 삭제해버리면 돼! 저기 컴퓨터 있네!

김미영 말은 쉽다!! 저 아저씨는 어쩔 건데! 니들 얼굴 다 봤어!  
병두 돈 좀 쥐여주지 뭐!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깐 흥분하지 말고…

그때 벌컥 입구 문이 열리면,

주환 짹새!!! 떴어!

병두와 김미영이 주환이 가리키는 곳을 본다.  
경찰차 한 대가 서행하며 ATM 부스 쪽으로 다가온다.

김미영 진짜 미쳐버리겠네!  
병두 지나갈 거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있자!

병두의 말에 세 사람 모두 잔뜩 긴장하며 ATM 기계에서 돈을 뽑는 척 경찰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 #33 ATM 부스 밖 / 도로(밤)

경찰차가 ATM 부스 앞을 쏙 지나친다.  
세 사람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병두 봤지? 그냥 지나간다니깐…

하지만 병두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경찰차 유턴한다. 주환과 김미영 빙뚱 얼굴로 병두를 바라본다. 병두 민망한 듯 시선을 피한다. 한편에 세워져 있던 경비직원의 순찰차 앞에 경찰차 멈춰 선다. 경찰차에서 경찰 두 명이 내려 경비직원 차량을 둘러보며 고개를 가웃거린다. ATM 부스 쪽으로 걸어온다.

### #34 ATM 부스 안(밤)

병두, 주환, 김미영 모두 사색! 그때 병두 갑자기 기계실 안으로 뛰쳐

들어간다. 병두는 기절한 채 결박되어 있는 경비직원의 유니폼을 벗겨낸다. 뒤따라 들어오던 주환과 김미영이 그 모습을 보며,

김미영 뭐 하니!!

병두는 대답 없이 경비직원의 유니폼을 벗겨낸 후 그 유니폼으로 갈아입기 시작한다. 입구에 있던 주환이 소리친다!

주환 들어온다!!!

김미영은 경비직원 옷을 갈아입는 병두를 내버려둔 채 기계실 문을 닫고 부스로 나온다.  
때마침 경찰들이 막 ATM 부스 안으로 들어온다.  
긴장해서인지 주환과 김미영은 괜히 더 경찰들을 의식하며 손님을 맞이하듯 문 앞에서 경찰들을 마주한다. 경찰1과 2가 더 당혹스러운 상황. 잠시 경찰들과 주환 김미영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경찰1 무슨 일 있으세요?

김미영 네?

경찰2 왜 그러고…?

김미영과 주환 그제야 입구에서 경찰들을 막듯 마주하고 있는 자신들이 이상하다는 걸 깨닫는다.  
괜히 서로를 쓱 바라본 후 경찰들에게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인다.  
경찰1과 2 그 모습이 수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는데…  
그때 경비직원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병두가 기계실 문을 열고 나오며,

병두 이 카드 맞죠?

병두가 체크카드 한 장을 얼어붙어 있는 김미영과 주환 앞에 내민다.  
김미영과 주환 순간 무슨 상황인지 눈치채지 못한 듯 병든 얼굴로 병두를 바라본다.

경찰1과 2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병두 가끔 기계가 카드를 먹더라고요. 이해해주세요.

병두가 김미영에게 눈짓한다.

김미영 (그제야 주환에게) 자기 그러니깐 카드 제대로 보고 넣으랬잖아.  
(병두에게) 죄송해요.

김미영은 옆에 선 주환의 팔짱을 끼며 애교를 부린다. 그걸 바라보는 병두의 시선이 마땅치 않다. 하지만 경찰들 앞에서 내색할 수 없다. 김미영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주환 흠칫하지만 김미영의 눈치에…

주환 … 미안해, 우리 아기…

김미영이 그런 주환에게 다가가 키스를 쪽! 한다. 그 모습에 병두의 얼굴에 경련이인다.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김미영은 그런 병두와 옆에 있던 경찰들에게,

김미영 죄송했습니다. (주환에게) 가자! 자기! 울 집 가서 라면 먹을 거지?

병두와 경찰1과 2는 김미영과 주환이 팔짱을 꼭 끼고 ATM 부스를 나서 어둠 속으로 걸어 사라지는 걸 본다. 이제 ATM 부스 안에 병두와 경찰1과 2가 남겨졌다.

경찰1 요즘 젊은 사람들은 화끈해요.

병두 기계가 카드를 먹었다고 해서.

경찰2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오늘 막 씨 근무 아닌가? 처음 뵈네요?

병두 아 감기에 걸리셔서… 제가 대체로, 무슨?

경찰1 웬일로 차가 시동이 꺼진 채 주차가 되어 있어서… 점검 중인가? 돈 뽑을 수 있죠?

경찰1 ATM 기계 쪽으로 간다. 그런데 때마침 사자 이모티콘 카드를 먹은 기계다.

병두 (쓰속 앞을 막으며) ... 이걸 추위 때문인지 고장이... 다른 걸...  
경찰1 기계도 추위에 못 버티나 보죠?

경찰1이 뭐가 기분 좋은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옆 ATM 기계에서 돈을 인출한다.  
두두둑 돈 세는 소리가 병두의 심장이 뛰는 소리 같다.  
경찰2는 ATM 안을 서성이며 병두를 흘끔 본다. 병두는 잔뜩 경찰1과 2를 경계한다.  
그런데 병두는 한편 반사거울에 바짓단 아래 검정 스타킹이 비친 걸 본다. 병두는 경찰2가 눈치채지 않았을까 긴장한다. 바짓단을 내리려는데...

### #35 ATM 부스 밖 / 길거리(밤)

김미영과 주환이 어둠 속 불법 주차된 차량 뒤에 숨어 ATM 부스 안을 보고 있다.  
서성거리는 경찰들과 마주해 있는 병두가 허리를 숙이며 허리춤을 내리려는 모습이 이상하다.

김미영 ... 재 뭐 하는 거야...?? 도대체?!

### #36 ATM 부스 안(밤)

병두가 경찰1과 2의 시선을 피해서 쓱 바짓단을 내리려는데... 서성이던 경찰2가 대뜸...

경찰2 저기? ... 화장하신 거예요?  
병두 ... 네?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당황) ...  
경찰1 (돈을 다 인출한 듯 껴들며) 요즘 예쁘장한 남자들이 인기라잖아? 우리 아들놈도 화장한다고 난리야.

경찰2 그래요? 참... 시대가... 우리 때와 달라...  
경찰1 가자고. 박 씨한테 안부 전해주시고 여기 아리랑치기 하는 정신 나간 어린놈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보면 112!

병두는 경찰1과 2가 나가는 걸 본다. 병두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데, 다시 ATM 부스 입구 문이 열린다.

병두 (잔뜩 긴장한 채) ...?  
경찰2 (멋쩍게 웃으며) 눈썹 비뚤어졌어요. 응원할게요!

경찰2는 제 할 말만 하고 ATM 부스를 나간다! 병두 ATM 기계 위 거울을 본다. 진짜 눈썹이 비뚤다. 그때 ATM 부스 입구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려 병두 긴장한 채 돌아보면... 김미영과 주환이다.

병두 (김미영에게) 다했을 거 있지?

### #37 ATM 부스 뒤편 기계실 안(밤)

벽면 전자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킨다.  
김미영은 ATM 부스 입구에서 거리를 주시하며 망을 본다.  
ATM 부스 뒤편 기계실에선 병두가 반사체를 보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화장을 깔끔하게 지워낸다. 그리고 병두는 주환이 경비직원의 열쇠 문치를 가지고 기계 커버를 뜯어내는 걸 돕는다. ATM 내부가 보인다. 내부 한 틈 사이로 사자 이모티콘 카드가 보이는 듯싶다. 하지만 전선과 칩 등이 뒤엉켜 있어 선뜻 손을 뻗지 못할 정도다.

김미영 (멀리서 외침) 야! 하고 있어?  
병두 망이나 봐! (쓰속 옆에 앉은 주환의 눈치를 보며) 익숙해 보이던데 스킨십!  
주환 (얼굴 붉어지며) ... 어?  
병두 (잠시 뜬 들인 후) 잤어? 김팀장이랑?

주환 뭐라 대답하려고 하는데... 불쑥 김미영이 기계실로 들어오며,

김미영 안 하고 뭐 하나!!

주환 대답하지 못한다. 주환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ATM 기계 내부로 집어넣는다. 그런 주환을 병두는 노려본다. 그러다 툭! 주환이 뭘 잘못 건드렸는지 ATM이 요동친다! 기겁하는 병두와 주환, 김미영.

CUT TO.

주환이 망을 보고 병두가 김미영과 힘을 합쳐 사자 이모티콘 카드를 빼내려 한다.

병두가 사자 이모티콘 카드를 잡아 꺼내려는 와중에 옆에 있던 김미영에게 썩...

병두 잤나?

김미영 미친 새끼! 집중해! 지금 그런 얘기 할 때야?

병두 잤구나?

김미영 (짜증 버럭) 그래 잤다 잤어! 저질한 새끼야!

병두는 화가 난 듯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

병두 알아서 하세요! 새 남친분이랑!

김미영 장난하지?

병두 내가 진즉에 그만두라고 했지! 글고 넌 생각 있니? 니 이름으로 윗방 카드를...

김미영 (말 끊으며) 당장 그만두면 월세는? 학자금은? 우리 엄마 병원비는? 어?

병두 내가 준다 했잖아!

김미영 그러세요! 여장 인출책님!

김미영의 비아냥에 병두는 획 하니 돌아서 기계실 문을 열고 나가려 한다.

김미영 야 김병두!! 너 정말 이럴 거야?

병두 ... (무시하고 기계실을 나서려는데)

김미영 본명 김상윤! 1990년 3월 8일생. 지방 ○○대학 경영학과 졸업. ○○동 ○○아파트 202호. 아버지 성함 김용식, 어머니는 2년 전 암으로 사망! 더 읊을까?

병두 뭐야 너!

김미영 너무 안이한 거 아냐?? 이런 것도 모르고 윗방 카드 맡기고 인출책 시켰을 거 같아? 공사장이?

병두 ...!

김미영 어떻게든! 카드 찾아! CCTV도 지우고! 상황 수습해! 나 혼자서 못 죽어!

그때 기계실 문을 열고 주환이 들어온다. 주환은 병두와 김미영의 눈치를 살피며,

주환 저기... 그냥 경비 아저씨한테 부탁하면 안 될까? 빼달라고?

결박되어 있던 경비직원은 언제부터 깨어 있었는지, 눈을 멀뚱히 뜬 채 세 사람을 바라본다.

### #38 ATM 부스 / 기계실(밤)

병두와 주환, 김미영이 결박된 경비직원을 둘러싸 마주한다. 병두가 보스톤 가방에 있던 돈을 꺼내며,

병두 여기 400 다 준다니깐요! 네?

김미영 아저씨 제가 이숙현! 카드 주인이거든요! 저... 카드 찾아주시고...

CCTV도 삭제해주시면... 일주일 안으로 더 드릴게요. 진짜 저 카드 못 찾으면 큰일 나요!

경비직원 (무시) ...

병두 (무릎을 꿇으며) 진짜 이렇게까지 무릎 꿇는다!

주환 아저씨! 진심으로 제발 줘!!

경비직원 (무시) ...  
병두 (버럭)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데? 아저씨 비정규직 아냐?  
직업의식 투철할 필요 있어? 아저씨 카드 찾아주고 보상으로 돈 받고  
하면 서로 윈윈 아냐?

경비직원은 말하고 싶은지 재갈을 문 채 응얼거린다. 주환이 경비직원의  
재갈을 빼내준다.

경비직원 니들이나 그만하고 자수해. 니들이 훔쳐내는 돈! 누군가한테는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모르지? 버리지 같은 놈들아. (버럭)  
사람 살려!!! 여기 사람 살려!!

주환 다시 경비직원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경비직원 몸부림치며  
저항한다. 그때 카톡! 알림이 들린다.  
병두, 주환, 김미영 서로 자신의 핸드폰인 줄 알고 꺼내보는데 자신들의  
핸드폰이 아니다.

병두, 입고 있던 경비직원 조끼 주머니에서 경비직원의 핸드폰을  
꺼내본다. 경비직원 아들로부터 카톡 메시지가 와 있다.

[저 가요. 찾을 생각 마세요.]

병두는 경비직원 아들 프로필을 본다. 고등학생인 듯 앳된 얼굴이다.  
경비직원은 병두의 비릿한 미소에 얼굴이 어두워진다.

## #39 ATM 부스 밖 / 길거리(밤)

병두는 주환, 김미영과 마주해 있다.

김미영 정말 미쳤니?  
병두 그럼 어쩔 건데? 김주환 넌 해야지?  
주환 ...  
병두 (비아냥거리며) 이숙현 씨 카는데?  
주환 ... 그렇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병두 그럼 넌 여기 지키고! (김미영에게) 어쩔 거야? 할 거야 말 거야?

김미영 ...  
병두 지금 이숙현 씨 때문에 이러는 거 알죠?  
김미영 말이 이상하다? 누가 카드를...  
병두 (말 끊으며) 숙현 씨 카드 넣은 사람은 나 아닌데?  
주환 (나서며) ... 죄송해요... 팀장님...  
김미영 ... 아냐... 주환 씨... 괜찮아...  
병두 (둘 사이 마땅치 않아 껴들며) 그냥 데리고 와서 겁만 줄 거야!  
진짜 카드 안 찾을 거야?  
김미영 ... 진짜 겁만 줄 거지?  
병두 그래! 겁만 줄 거야. 내가 깡패냐?  
김미영 근데 만약에 아들까지 데려왔는데 저 아저씨 꼼짝 안 하면?  
병두 너 같으면 계속 고집 부리겠니? 눈앞에 자식 있는데?  
김미영 ...  
병두 ... 시간 없다! 벌써 4시야! 해 뜬다! 얼른 카드 찾고 CCTV 지우고  
여기 뜨자! 어?

## #40 ATM 부스 뒤편 기계실 안(밤)

경비직원은 몸을 뒤틀어서 손목의 결박을 풀고자 한다. 한두 번만 힘껏  
당기면 결박이 풀릴 듯하다. 그때 문이 열리면서 병두와 함께 주환,  
김미영이 들어온다. 경비직원 멈칫하며 세 사람을 본다. 다행히도 세  
사람은 눈치채지 못했다.

병두 아저씨 마지막으로 물을게. 도와주실 거예요? 말 거예요?  
김미영 아저씨... 제발! 줘...  
경비직원 (고개를 가로짓는다) ...  
병두 (김미영에게) ... 봤지? 어쩔 수 없어. (경비직원에게) 지금부터 일은  
아저씨가 자초한 겁니다! 아저씨 책임도 있어요!  
경비직원 ?  
주환 아저씨 아들 데려오겠대요!

경비직원 응얼응얼거린다. 주환이 재갈을 빼내준다.



경비직원    니들이 내 아들놈 데려온다고 해도 소용없어. 곧 사람들 출근할 거야.  
병두        그래요. 아들 앞에서 그렇게 고집 부려요!

병두가 화가 난 듯 거칠게 경비직원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병두는 경비직원 아들에게 전화 연결을 한다. 잠시 후,

병두        여보세요. 박충기 씨 아들 되시죠? 그래. 나 아버지랑 같이 일하는  
후텐데... 지금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셔서... 병원 가셨거든. 집이니?  
아냐? 그럼 어디니? 흥대? 새벽이라 택시 잡기 어려울 거야. 데리러  
갈게. 그래 좀만 기다려.

병두 전화를 끊고 경비직원을 바라본다. 경비직원은 어디 한 번 해보라는  
듯 병두를 노려본다.  
병두는 화가 치미는 듯 얼굴이 달아오른다!

병두        그래! 함 보자고! 어! 봐!

병두는 경비직원을 향해 으르렁거린다.  
김미영이 흥분한 병두를 걱정스럽다는 시선으로 본다.

## #41 ATM 부스와 기계실(밤)

전면 유리 너머로 멀어져가는 경비직원 순찰차가 사라지자 주환은 기계실  
문을 열고 들어간다.  
입에 재갈이 물리고 결박되어 있는 경비직원 옆에 앉는 주환.

주환        (한숨을 푹 내쉬며 중얼) 죄송해요... 변명 같지만 저희 진짜 나쁜  
놈들은 아니에요...

## #42 도로 위 / 경비직원의 순찰차 안(밤)

침묵이 흐르는 차 안. 내비게이션만 전방 100미터에서 우회전, 좌회전

안내하는 소리 들릴 뿐이다.

병두        김미영 아니 이숙현 씨는 나 진짜 사랑하긴 했니? 스물여덟 맞지?  
민중 줌 까볼래?

김미영       (병두를 노려보며) 니 입으로 그런 말이 나오니?

병두        난 너 진심으로 좋아했어. 그건 팩트야!

김미영       김병두가? 아님 김상윤이가?

병두        ...

김미영       그거 아니? 난 니 행동 말 중에 진짜 뭐가 진심이고 거짓인지  
모르겠어.

병두        ... 그래서 다짜고짜 갑자기 헤어지자고 한 거니? 설마... 그게  
이유였니?

김미영       ...

병두        차차 시간이 되면 말하려고 했어.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차 안.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내비게이션 목소리가 들린다.

## #43 ATM 부스 / 기계실 안(밤)

주환은 꾸벅꾸벅 존다. 주환을 주시하던 경비직원 결박을 푼다.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움직인다.

경비직원 기계실 문을 열고 나간다. 그런데 ATM 부스에서 경비직원은  
검정 양복을 입은 남자와 마주친다.

경비직원과 검정 양복 남자 서로 흠칫 놀란다! 뒤에서 주환의 비명!!

아아아아! 아저씨!

경비직원은 검정 양복 남자를 지나쳐 ATM 부스 문을 열고 거리로  
뛰쳐나간다. 주환은 경비직원과 검정 양복 남자를 번갈아 본 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검정 양복 남자에게 발차기! 푹 쓰러지는 검정 양복 남자.

주환        죄송합니다! 정말...!!

주환은 검정 양복 남자를 바닥에 고이 눕히고 경비직원을 뒤쫓아 다급히 ATM 부스를 나간다.

## #44 거리(밤)

주환과 경비직원 사이에 추격전! 경비직원은 달리고 달리지만 나오는 건 공사장과 황량한 벌판뿐 도움을 청할 사람 한 명 거리에 없다. 경비직원은 결국 숨이 찬다. 달리는 걸 포기한다. 주환이 경비직원을 붙잡는다! 헉헉! 주환과 경비직원 둘 다 거친 숨을 몰아 내쉬며 땅바닥에 널브러진다.

## #45 청소년 쉼터 앞 / 경비직원 순찰차 안(밤)

여전히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멀리 전방에 후드티를 입은 고등학생이 도로가에 나와 있는 게 보인다.

병두        재 아냐?  
김미영        맞는 거 같은데... 정말 겁만 주는 거다...  
병두        걱정 마!

병두는 차를 경비직원 아들 옆에 세운다. 병두는 차창을 내리며...

병두        네가 박지호니? 얼른 타...

하지만 경비직원 아들은 조수석의 미영을 보며 멈칫,

병두        동료 누나야. 괜찮아. 타... 아버지 기다리셔...

경비직원 아들 말없이 차 뒷좌석에 올라탄다. 병두 차를 출발시킨다. 병두와 미영은 뒷좌석의 경비직원 아들의 눈치를 본다. 경비직원 아들 말이 없다. 차 안에 침묵이 흐른다. 운전석과 조수석의 병두와 김미영은 서로 눈짓으로 눈치를 준다.

먼저 경비직원 아들에게 말을 걸어보라고. 시선으로 티격태격한다. 그 모습을 뒷좌석 경비직원 아들이 재미있다는 듯 바라본다. 결국 눈짓 싸움에서 김미영이 이긴 듯 병두가 어색하게나마...

병두        지금까지 집에 안 가고 친구들이랑 논 거야?  
경비직원 아들    아뇨. 저 가출했는데요.  
병두        (당황) 아... 그래...  
김미영        ... 가출은 왜...?  
경비직원 아들    ...  
병두        그래... 너무 걱정 마... 걱정돼서 말이 안 나오지? 근데 아버지 많이 안 다치셨어.  
경비직원 아들    ... 걱정 안 해요. 죽었으면 좋겠는걸요... (병두를 보며) 그리고 그만 거짓말하세요. 아저씨 이름도 박충신이에요?

병두 기익! 차를 멈춰 세운다. 유니폼 밑에 이름표를 본다.  
김미영은 당혹스러운 표정.

경비직원 아들    납치? 근데 어찌죠? 우리 집 몇 년 전에 사기당해 뺑전 한 푼도 없는데.  
김미영        ... 납치 같은 건 아니고... 솔직하게 말할 테니깐 좀 네가 도와줄래?  
경비직원 아들    ... 들어보고요?  
병두        ... 그제...

## #46 ATM 부스 밖 / 길 건너편(밤)

주환이 경비직원을 붙들고 길을 건너 ATM 부스로 가려는데... 주환의 시선에 ATM 부스 안에 쓰러진 검정 양복 남자 주위에 고등학생 세 명이 둘러싼 채 상태를 살피는 듯한 모습이 들어온다. 옆에 붙잡혀 있던 경비직원이 주환을 보며 미소 짓는다. 그런데 그때 주환과 경비직원의 시선에 뜻밖의 광경이 들어온다. 고등학생들이 양복남의 주머니에서 핸드폰과 지갑 등을 빼내 챙긴다. 그들은 아리랑치기를 하는 불량 청소년들이다. 불량 청소년들 검정

양복남의 몸에서 땀길 거 다 땀길 후 재빨리 ATM 부스를 나선다.  
어이없어하는 경비직원을 보며 미소 짓는 주환.

## #47 도로 위 / 경비직원 순찰차 안(밤)

새벽 텅 빈 도로 위를 질주하는 경비직원의 순찰차.

경비직원 아들 기계가 중요한 카드를 먹었고… 찾으려면 그 사람이 나서야 하는데… 고집을 부린다. 그래서 그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 아들인 나를 이용하겠단다?!

병두 이용한다는 어감은 좀 그렇고… 아무튼 도움을… 우리한테 그 카드가 무척 중요하거든…

경비직원 아들 (말 끊으며) 보이스포싱이죠?

병두 보이스포싱은 무슨? 우린 그런 거 아냐…

경비직원 아들 아저씨나 누나나 진짜 재수가 없다… 아까 사기당해 돈 없다고 했잖아요? 그거 보이스포싱한테 우리 엄마 보험금을 잃었던 거예요.

김미영 … 진짜…?

경비직원 아들 그것도 그거니와. 가족들 희생 당연하다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아들이 위협 좀 받는다고 순순히 도와줄까요?

병두 (잠시 침묵 후) … 그러면 테스트해볼래? 네가 연기 좀 해줘!  
네 아버지가 그런 인간인지 아닌지 넌 확인하고… 가출했으니 돈도 필요하잖아? 니 아버지가 안 받으려는 400 너 줄게.

경비직원 아들 선뜻 대답하지 않는다. 때마침 차가 ATM 부스에 거의 다다랐다.

그런데 병두의 시선에 ATM 부스 밖 길거리를 서성이는 주환이 들어온다.  
병두, 차를 멈춰 세운다.

병두 잠깐 여기서 기다려… 확인하고 올게.

병두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피며 ATM 부스 쪽으로 간다.

## #48 ATM 부스 밖 / 길가(밤)

주환이 안절부절못하며 ATM 부스 밖에서 서성인다.  
병두가 썩 뒤에서 다가서며,

병두 왜 나와 있어?

주환 (화들짝 놀라며) … 저 그게…

## #49 ATM 부스 뒤편 기계실(밤)

주환이 기계실 문을 연다. 병두는 경비직원 옆에 결박된 채 기절해 있는 검정 양복 남자를 본다.

아아아아악! 병두의 갑작스러운 비명에 주환 그리고 경비직원 놀란다.

## #50 ATM 부스 밖 / 경비직원 순찰차 안(밤)

차 안엔 김미영과 경비직원 아들만 남아 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그런데 경비직원 아들은 김미영을 뒤에서 뚫어져라 쳐다본다.  
김미영, 경비직원 아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운지…

김미영 왜? 뭐 묻었어?

경비직원 아들 아뇨… 그냥 (잠시 침묵 후 대뜸) 누난 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김미영 (생각 끝에) … 돈 왕창 벌고 싶어서.

경비직원 아들 왕창 버셨어요?

김미영 (침묵 후) 처음엔 좀 벌었는데… 요즘엔… 그냥 불안해.  
잠도 못 자고.

경비직원 아들 그러면 그만두면 되잖아요?

김미영 … 그만두는 것도 쉽지 않더라…

경비직원 아들 (가만 김미영을 바라보다가) … 제가 좀 도우면 그만둘 수 있어요?

김미영 …

경비직원 아들 누나 위해서 할게요. 그 사람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돈도 필요하고…

김미영 진짜?  
경비직원 아들 네... 근데 좀 상황이 안 좋은 거 같은데요?

경비직원 아들이 앞 차창 너머 ATM 부스를 가리킨다. 보면... 흥분한 병두가 주환에게 샅대질 중이다.

## #51 ATM 부스 안(밤)

병두와 주환 마주 선 채,

병두 미친놈아! 조과장이라고 조과장!!!  
주환 ... 누군데...?  
병두 말했잖아! 해결사! 암바 걸어 다리를 생짜로 부러뜨리는 톨아이 중에 톨아이!  
주환 (멈칫하며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며) 그 인간이 왜...?!

그때 김미영이 ATM 부스 문을 열고 들어온다.

김미영 왜 그래?

병두가 김미영에게 기계실로 가보라고 눈짓한다. 김미영은 기계실로 가 문을 연다.  
이제 깨어나 재갈을 물고 으르렁거리며 눈을 부라리는 조과장을 보곤... 김미영 비명! 아아아악!!

## #52 도로 위 / 공사장 차 안(밤)

공사장이 조과장에게 통화 연결을 시도하지만 뚝뚝...! 통화 연결음만 계속 들릴 뿐이다.  
조과장은 전화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트렁크에서 쿵쿵쿵 소리가 계속 들린다. 공사장 거슬린다.

공사장 (운전석의 톨마니에게) 스톱!

톨마니 급정거한다. 쿵! 트렁크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다가 곧 조용해진다. 차 다시 출발한다.

공사장 얼마나 남았어?  
톨마니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공사장 좀 밟아.

톨마니는 힘주어 엑셀을 밟는다. 공사장 차가 다른 차를 추월하며 질주한다.

## #53 ATM 부스 밖 / 길거리(밤)

병두, 주환, 김미영 서로 마주해 있다.

김미영 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조과장인지 어떻게 알겠어.  
병두 그렇다고! 누구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사람을 쳐 기절을 시킨다는 게 말이 돼!  
김미영 그럼 너는!! 뒤통수 안 까셨어?  
병두 (김미영과 주환을 번갈아 보며) 이야! 잤다! 이거지! 벌써 펀드는 거냐? 우리 헤어진 지 고작 이틀밖에 안 됐어! 알아? 나쁜 년아!

옆에서 들고 있던 주환, 표정이 창백해진 채... 병두와 김미영 사이에 끼들며,

주환 ... 둘이 사귀는 사이?  
병두 (흥분한 채) 잠깐 한때 귀신 씌어서. 김주환 씨! 내가 이숙현 씨 경험한 선배로서 조언하자면 앞으로 인생 꼬일 각오해야 돼!  
김미영 인생 꼬여? 사돈 남 말 하네! 김상윤 씨! 진짜 꼬인 게 누군데?  
병두 네가 이쪽 일 나 끌어들었잖아!  
김미영 내가 언제? 네가 나 좋다면서 따라다녔잖아.

그때 썩! ATM 부스 입구 문이 열린다. 순간 긴장! 침묵! 경비직원 아들이 얼굴을 내밀며,

경비직원 아들 (벽면 시계를 가리킨다) 저기... 해 뜰 거 같은데?

그제야 병두, 김미영, 주환 벽면 시계를 본다. 05:00이다.

## #54 ATM 부스 뒤편 기계실(밤)

병두가 경비직원 아들을 기계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다.  
경비직원은 아들의 등장에 당황한 표정.

병두 저 한다면 하는 놈입니다! 자! 시작하자.

병두는 경비직원 앞에 경비직원 아들을 무릎 꿇린다.  
병두는 소화기로 경비직원 아들의 오른손을 내려칠 준비를 한다.  
주환이 경비직원 아들 오른 손목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다.

병두 카운트 셉니다! 열 셀 때까지! 자! 하나... 둘... 셋... 넷...

경비직원 (꿈쩍 않고 이제 병두 노려본다) ...

병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경비직원 (병두 노려본다) ... !

병두 아홉... 열!

병두는 소화기로 경비직원 아들 오른손을 내려찍으려고 모션을 취한다.  
하지만 경비직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쾅! 병두는 그 모습에 화가 솟구치는지 소화기를 바닥에 내동댕이쳐버리며,

병두 친아들 맞아? 아니 아버지가 진짜! 풀아이네!

경비직원 아들 자기 와이프까지 죽이는데 아들썩이야.

경비직원은 아들의 말에 꿈쩍 않던 표정이 흔들린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재갈 물린 입을 웅얼웅얼거린다.  
옆에 있던 주환이 재갈을 빼준다.

경비직원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경비직원 아들 당신이 죽었잖아...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게 죽었잖아!

경비직원 (오랜 침묵 후) ... 난 니 엄마 살리고 싶었다. 연명치료 같은 건...  
말아달라고... 네 엄마가 원했던 거다.

경비직원 아들 (뜻밖의 사실에 당황) 아냐! 당신 고집 때문에 죽었어.  
거짓말 말라고!

경비직원 아들이 벌떡 일어나 경비직원을 향해 죽일 듯 달려든다.  
뜻밖의 상황에 병두와 주환, 김미영까지 경비직원 아들을 말리고자 하지만 쉽지 않다.  
겨우 세 사람이 합세해 경비직원 아들을 제압한다. 소동이 일단락된다.

병두 진짜 오늘 왜 이러냐! 아침부터.

경비직원은 낮이 나간 듯하고 경비직원 아들은 울먹인다.  
김미영은 경비직원 아들을 달래며 ATM 부스 안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표정이 좋지 않다.

## #55 ATM 부스 밖 / 도로(밤)

배달대행 오토바이 한 대가 ATM 부스 앞을 지나치는 듯하다가... 끼익 멈춰 선다. 헬멧남이 ATM 부스로 시선을 돌리면 병두, 주환, 김미영이 보인다. 헬멧남 곧장 핸드폰을 빼들고 통화 연결한다.

헬멧남 행님! 찾았습니다! 기생오라비같이 생긴 놈이랑... (김미영을 보며) 여장한 거치고... 진짜 여자 같은... 아무튼 개들 맞습니다!  
근데 상황이... 와서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 #56 배달대행 사무실(밤)

홀쭉이 30분 내로 갈 테니깐 좌표 찍고! 애들 풀! 무장시켜서 다 불러모아 그쪽으로!  
(홀쭉이 전화를 끊고 목에 깁스를 한 똥똥이에게) 레츠고!

홀쭉이와 똥똥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한쪽에 늘어놓은 도구 등을 들고 사무실 밖에 주차된 오토바이에 올라탄다. 출발한다. 건너편 승합차 안에서 지켜보던 대두 형사와 소두 형사가 뒤쫓기 시작한다.

## #57 ATM 부스 밖 / 길거리(밤)

ATM 부스 기계실 안에 경비직원과 경비직원 아들이 결박되어 있고… 밖에선 김미영, 병두, 주환이 서로 마주해 있다.

김미영 여기서 그만하자…  
주환 … 하지만…  
김미영 그만해. 더는 안 돼…  
병두 경찰에 자수하자는 거야?  
김미영 응. 니들은 가. 내가 알아서 할게…  
주환 … 김팀장님…! 저 때문에 괜히.  
김미영 괜찮아. 어쩔 수 없잖아… 여기서 정말 그만하는 게 좋을 거 같아.  
병두 자수하면 그날로 인생 종나는 거야? 김미영 너 웃가게 하고 싶다면?  
김미영 네가 상관할 바 없잖아?  
병두 …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  
김미영 갑자기 위하는 척하지 마!  
병두 … 진짜…! 너…  
미영 그럼 뭘 더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병두 …

병두 갑자기 ATM 부스 기계실 안으로 뛰어 들어간다.  
병두의 눈빛이 변한다. 병두 폭주한다.

## #58 ATM 부스 / 기계실 안(밤)

병두는 결박되어 있는 경비직원 아들을 거칠게 잡아끈다.  
경비직원 아들은 돌변한 병두의 모습에 놀라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경비직원 역시 마찬가지다. 주환이 그런 병두를 막아서며,

주환 뭐 해?  
병두 비켜!

병두는 주환을 밀친다. 한쪽에 놓여 있던 소화기를 다시 집어 든다.  
경비직원 아들 손을 내려치려 한다.

주환 (병두를 가로막으며) 겁만 주기로 했잖아? 돌았어?  
병두 그래 좀 돌아야겠다! 비켜! 비키라고!

병두가 주환을 밀치고 가려 한다. 주환은 그런 병두를 날라차기로 제압하려는 순간.  
병두는 먼저 보안직원 허리춤에 있던 전기충격기를 꺼내 주환을 겨냥한다.

병두 물러서라!! 말로 할 때.

주환은 멍청하며 물러선다.  
병두는 거칠게 경비직원 아들을 경비직원 앞에 세운다.  
뒤따라 들어온 김미영이 병두를 가로막으며,

김미영 야! 김병두 뭐 하는 거야! 그만해!

병두는 막아서려는 김미영을 무시하며 경비직원에게,

병두 아저씨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이번엔 진짜예요.

병두와 경비직원 서로 마주 노려본다. 연기가 아니기에 경비직원 아들의

손은 공포에 떨린다.

경비직원 아들 (병두에게) 아저씨...

병두는 시선을 외면한 채 순간 소화기를 내려친다... 하지만... 옆으로  
빗나간다...  
다시 제대로 경비직원 아들의 손을 고정시킨다. 경비직원 아들 눈물을  
흘린다. 병두에게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병두의 힘에 꼼짝도 못 한다.

병두는 다시 경비직원 아들 오른손을 향해 소화기를 내려치려는 순간...  
경비직원 아들은 눈을 질끈 감는다. 김미영도, 주환도 시선을 외면...  
짧지만 긴긴 적막감이 감돈다. 김미영 조심스럽게 눈을 다시 떠보면...

병두 (수화기를 내려놓고 털썩 주저앉으며) 씨발... 미안하다. 미안해.  
안 되겠다.

김미영이 주저앉아 있는 병두에게 다가가 살며시 안아주는 것 같은데...  
퍽! 뒤통수를 치며,

김미영 오버 줌 하지 마!! 네가 뭐데!!!

병두 ... 구질구질한 전 남친...

김미영 ... (한숨을 푹 내쉬 후 병두를 보며 나직이) 잘했어... 김병두.  
잘했어...

김미영은 병두에게 웃어주며 눈짓으로 주환에게 경비직원과 그 아들의  
결박을 풀어주라고 말한다.  
주환이 경비직원과 그 아들의 결박을 풀어주려는데...

한편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조과장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결박되어 있던 손목 끈을 벽 날카로운 면에다가 끊어낸다.  
조과장이 날카로운 파편을 주환의 목에 겨눈다.

조과장 동작 그만! 지금 범죄 멜로드라마 찍지? 감정이입 안 되는?

## #59 도로 위 / 공사장 차 안(밤)

공사장의 시선에 황량한 어둠 속 유일하게 환하게 불 밝힌 ATM 부스가  
보인다. 그 앞에 조과장이 나와 서 있다. 공사장 차량이 ATM 부스 앞에  
멈춰 선다. 공사장이 차에서 내린다. 조과장이 맞이한다.

공사장 수고했어.

조과장 아닙니다. 이쪽으로.

조과장을 따라 공사장 ATM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차 트렁크에서  
살려달라는 노란, 빨간 머리 영업1팀원의 외침! 공사장은 돌아서 트렁크를  
연다. 결박되어 있는 노란, 빨간 머리 영업1팀원들을 사정없이 구타한다.

공사장 시끄럽다고! 시끄러워! 줌!

조용해진 트렁크 안. 공사장 분이 다 풀린 듯 구타를 멈추고 숨을 한 번  
내쉬 후 트렁크를 닫는다.  
다시 조과장을 따라 ATM 안으로 몰마니들을 거느리고 들어간다.

## #60 ATM 부스 안(밤)

공사장은 들어오자마자 썩 ATM 부스 안을 한 번 둘러본 후 조과장을  
본다.  
조과장이 나서며 ATM 부스 뒤편 기계실 문을 열어 보인다.  
공사장 다가가보면... 결박되어 있는 병두와 주환, 김미영 그리고  
경비직원과 경비직원 아들이 보인다.

공사장 이게 뭐 난리니? (병두 앞에 앉으며) 병두야.

병두 ...

공사장 옛정도 있고 마지막 기회를 줄게. 하려던 거 마무리 지어야지?

공사장은 뿔마니에게 망치를 받아서 병두 앞에 내민다.  
하지만 병두는 망치를 집어 들지 않는다.  
공사장은 비릿하게 웃으며 결박되어 있는 김미영 곁으로 간다.  
공사장은 뿔마니에게 신호를 준다. 뿔마니가 김미영 손목을 붙잡고  
공사장에게 내민다.  
옆에 있던 주환이 그런 뿔마니를 막아서려고 한다.  
조과장이 주환을 붙잡으며... 아까 날라차기에 대한 복수를 주환에게  
하려는 듯 주환의 오른쪽 다리에 암바를 건다.

조과장 발차기 잘하던데? 그런 건 사람 봐가면서 해야 된다.

주환이 저항하고 병두와 미영이 막아보려고 하지만 조과장은 결국 주환의  
다리를 꺾어버린다.  
주환의 비명! 그런 주환의 모습을 보며 조과장은 비릿하게 웃는다.  
병두는 조과장을 노려본다.

공사장 병두야! 서로 더 힘들게 하지 말고 얼른 끝내자.

뿔마니가 김미영의 손목을 공사장 앞에 끌어다놓는다.  
공사장은 발목에 숨겨놓았던 칼을 꺼내 김미영의 손목을 겨눈다.  
병두 망설임 끝에 결국 망치를 집어 든다.

공사장 잘 생각했어!

공사장의 신호에 조과장이 경비직원 아들을 끌어내 병두 앞에 무릎  
꿇린다.  
조과장은 경비직원 아들 손을 붙잡고 병두 앞에 끌어다놓는다.  
경비직원 아들의 손이 덜덜 떨린다.

공사장 (경비직원에게) 자 아저씨도 더 늦기 전에 협조하라고.

병두, 망치를 치켜든다. 망치를 경비직원 아들 오른손을 향해 내리치려는

순간... 병두는 망치 방향을 바꿔... 경비직원 아들 손을 붙들고 있던  
조과장의 손을 내려친다. 아아아아! 조과장의 비명!  
병두는 이제 공사장을 향해 망치를 훑! 던진다. 공사장, 망치를 피한다.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면 요란한 경보음이 울린다!  
병두, 공사장을 향해서 미소를 짓는다.

## #61 ATM 부스 밖 / 길 건너편(밤)

헬멧남이 훌쩍이와 똥똥이를 이끌고 길 건너편에서 ATM 부스 쪽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유리창이 깨지고 경보음이 울리자 멈춰한다. 똥똥이의 발치에  
망치가 덩그러니 날아와 멈춘다. 똥똥이는 바닥 위 망치와 ATM 부스 안  
이상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번갈아 보며,

똥똥이 헤이... 시츄에이션이 이상한데...? (나직이) 들어가게?  
훌쩍이 (속삭이며) 여기서 돌아가랴? 애들 다 불러왔는데?

훌쩍이와 똥똥이 뒤로 수십 대의 오토바이들이 배경을 이루고 있다.

## #62 ATM 부스 안(밤)

요란하게 울리는 경보음!

공사장 (병두에게) 꼭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지?  
병두 다 끝났어! 그만해!  
공사장 그래 끝내줄게! 제대로!

공사장이 뿔마니들에게 신호를 준다. 뿔마니들 병두에게 달려들려고  
하고...  
공사장은 김미영의 손을 향해 망설임 없이 망치를 내리치려는데...  
그때 캉! ATM 부스 문이 열리고 훌쩍이와 똥똥이가 뿔마니들을 데리고  
나타난다.



공사장 뭐야 니들은 또!!  
흠쪽이 머니 받으러 왔다! (병두와 주환을 가리키며) 니 꼴마니가 슈킹  
해간...?!

공사장 니들 정신병자니? 이 상황 안 보여!  
흠쪽이 뭐 정신병자!! 초면에 토크가 거치시네.

그게 신호가 되어 양측이 ATM 부스 안에서 개싸움이 벌어진다.  
그 틈을 노려 병두가 한쪽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고 그들을 향해  
분사한다. ATM 부스 안은 한순간 하얀 가루로 자욱해진다. 난장판이다.

### #63 ATM 부스 밖 / 길거리 / 승합차 안(밤)

뒤늦게 승합차가 달려와 멈춰 서는데... 대두 형사와 소두 형사는 난장판이  
된 ATM 부스 안을 보며,

대두 형사 지원요청 했지? 풍년이로구나! 가자!

대두 형사와 소두 형사는 승합차에서 내려서 권총을 꺼내들고 ATM 부스  
안으로 문을 박차고 들어간다!

대두 형사 (소화기 분말가루로 피아 식별이 안 된다) 다들 꼼짝 마!

분말가루를 뒤집어쓴 ATM 부스 안 사람들이 모두 대두 형사와 소두  
형사를 바라본다.  
그런데 대두 형사와 소두 형사는... 흠쪽이와 똥똥이 너머 공사장을 보며  
화들짝 놀라... 자신들도 모르게!

대두 형사 선배?!  
흠쪽이 째째였어?  
공사장 니들은 왜 여기에.

그런 상황을 경비직원과 그 아들, 그리고 병두, 주환, 김미영이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본다.

### #64 ATM 부스 밖 / 도로 / 경찰차 안(밤)

경찰차 안 뒷좌석에 아까 조과장을 아리랑치기 하던 불량 청소년들이 앉아  
있다.

경찰1 ATM에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불량 청소년1 맞다니깐요. 이 상황에서 왜 거짓말해요.  
경찰2 CCTV 확인하면 다 나와! 금방 뽀록날 거짓말하지 마!  
불량 청소년2 아저씨, 경찰이 뽀록이 뭘예요! 뽀록!

서로 재미있다는 듯 웃는 불량 청소년들. 그런데 경찰차가 갑자기 끼익  
급정거를 한다. 뭐지 싶어 불량 청소년들 전방을 보면... ATM 부스 안이  
난장판이다.

경찰2 니들 여기 꼼짝 말고 있어!

경찰1과 2 권총을 빼들고 차에서 내려 ATM으로 달려간다.  
그런데 불량 청소년들의 시선에 경찰차 차키가 꽂혀 있는 게 들어온다.  
서로를 향해 음흉한 미소를 짓는 그들.

### #65 ATM 부스 안(밤)

네 세력 간에 서로 대치하고 있다. 공사장은 대두 소두 형사와 흠쪽이  
똥똥이를 설득하고자 애쓴다.

공사장 자자 진정해. 서로 이러면 다 좇되는 거라고! (대두 소두 형사에게)  
내 말 믿고 따라야 돼! 그래야지 최악을 피하는 거야! 알았어?! 먼저  
총 내려!

대두, 소두 형사 망설임. 눈치 끝에 총을 내린다.

공사장 (홀쭉이와 똥똥이에게) 봤지? 재들 내 말 듣는 애들이니깐, 니들도 그만 물러서…

홀쭉이와 똥똥이 눈치를 보다가 무기를 내린다. 물러선다.

공사장 자 그럼 된 거다! 어? 내가 상황 수습할 테니깐…!!

그런데 깨진 ATM 전면 유리 너머로 경찰과 2가 다가와 총을 들고 겨냥하며,

경찰1, 2 다들 꿈작 마!!

공사장은 경찰과 2의 등장에 당혹스러운 표정!

공사장 또! 뭐야!

그런데 그 순간 랙! 소리와 함께 주차되어 있던 경찰차가 타이어 굉음을 내며 후진해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공사장의 차량을 들이박고 ATM 부스 쪽으로 급발진, 맹렬하게 날아 들어온다.

병두 피해!

병두는 경찰차가 덮칠 위치에 있던 김미영과 주환을 향해 몸을 날린다. 경찰차가 경찰과 2를 스치고 지나쳐 대두 형사와 소두 형사, 홀쭉이와 똥똥이 그 똥마니들까지 밀고 지나가 ATM 부스 안 뒤편 기계실 벽면을 박고 멈춰 선다. 경찰차… 위위이잉… 사이렌 소리가 괴상한 소리를 내다 툭 끊긴다.

(잠시 화면 암전 후)

병두 눈을 뜬다. 미사일 폭격을 받은 듯한 ATM 부스 안 광경을 바라본다… 병두의 시선에 경비직원이 아들을 구해낸 듯 한편에서 아들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경비직원은 등에 상처를 입은 듯 피가 흐른다.

경비직원 아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죄송해요…

경비직원은 울음을 터트리며 아들을 품에 안는다. 다독인다. 병두는 시선을 돌려 주환과 김미영을 찾는데… 다행히도 한편에 무사하다. 그런데 병두는 난장판 속 공사장이 부상 입은 똥마니들을 밀치며 ATM 부스에서 도망치는 걸 본다. 절뚝거리며 공사장 길거리로 나간다. 병두는 경찰차에 치여 널브러져 고통스러워하는 대두 형사 옆에 떨어진 권총을 집어 든다.

## #66 ATM 부스 밖 / 길거리(밤)

공사장, 길거리로 나가 주차되어 있던 차로 가려는데… 뿡! 권총 소리에 공사장 멈칫한다.  
돌아보면 병두가 권총을 겨냥하고 서 있다.

공사장 그래 썩봐! 자신 있으면!

공사장은 병두를 향해 피식 비웃으며 돌아서 도망친다. 그런데 경찰차가 후진으로 박아 찌그러진 공사장의 차 트렁크가 벌컥! 열리며 안에 있던 피투성이 영업1팀 노란 머리와 빨간 머리가 나온다. 도망치려는 공사장과 조우한다. 공사장은 멈칫한다. 병두는 공사장을 향해서 주환이 했던 멋진 날라차기를 흉내 낸다. 어설피지만 멋지게 공사장을 가격한다. 고꾸라진 공사장.

병두는 공사장을 영업1팀 노란 머리와 빨간 머리에 내어주고 돌아선다. 서서히 어둠이 걷히는 배경으로 피투성이 노란 머리와 빨간 머리가 공사장을 마주한다. 공사장 사색!

## #67 ATM 부스 앞(밤)

병두는 이제 ATM 부스 앞에 소화기 분말을 뒤집어쓴 채 길바닥에 멍하니

쭈그려 앉아 있는 김미영과 주환 곁으로 간다.

병두      괜찮아?

주환은 고개를 끄덕인다.  
병두는 김미영을 본다.

김미영    ... 응... 넌?

병두      나도...

그런데 그때 경찰차가 가한 충격에 길거리로 튕겨 나온 ATM 기계가 두두 소리를 내더니 툭! 사자 이모티콘 카드를 뱉어낸다. 병두, 김미영, 주환 앞에 떨어진다. 사자 이모티콘이 미소를 짓고 있다.

병두는 사자 이모티콘 카드를 집어 들고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여러 대의 경찰차들이 달려오는 것과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ATM 풍경을 번갈아 바라본다. 병두는 미영에게... 아직 도망칠 기회가 있다는 듯.

병두      ... 어때?

김미영    (침묵 후) ... 됐어. 지쳤어.

병두는 주환을 본다.

주환      ... 나도. 오늘 더는...

이제 김미영과 주환은 오히려 병두를 본다.

병두      ... 그치 오늘 참...

병두는 점점 다가오는 경찰차들을 잠시 바라보다 사자 이모티콘을 보곤 피식 웃는다.

미련 없다는 듯 사자 이모티콘 카드를 획 던져버리며 김미영과 주환

곁으로 가 앉는다.

병두, 김미영, 주환의 시선에 멀리서 경찰차들이 달려오는 게 보인다. 긴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김미영 점점 가까워 오는 경찰차들을 바라보다 두려운 듯...

김미영    ... 우리 괜찮겠지?

주환      ...

병두는 주환 그리고 김미영의 손을 꼭 잡아준다.

병두를 위시로 김미영, 주환이 경찰차들을 마주한 세 사람의 뒷모습에서...

끝.

작가 후기    당선된 버전은 인출책인 주인공 병두가 아버지에게 들키지 않고자 애를 쓰는 상황이 이야기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감독님과 멘토링을 통해서 처음 인출책이란 이야기를 기획했던 대로 병두를 중심으로 김미영, 주환 세 사람에게 집중해보았습니다. 병두에게 아버지란 캐릭터가 사라져 아쉽기는 했지만 굳어터기가 많았던 이야기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간결해졌다는 생각입니다.

영화 시나리오를 쓰던 벼랑 끝 상황 속 운 좋게 오픈 2기가 된 후 너무 많은 것을 얻어 갈 수 있었습니다. 멘토 이태곤 감독님과 좋은 작품으로 자극을 주시고 부족한 <인출책> 리뷰해주신 2기 동기 여러분, 글 쓰는 데 여러 도움 주신 김지일 센터장님, 김동완 팀장님, 임고은 피디님, 김성미 대리님, 김선 님, 최예빈 님, 이태원 님에게 감사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좋은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작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2018년 오픈 2기 / 드라마 작품집

스릴러

## 나쁜 판사

안은빈

---

## 작의

최근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청소년법 폐지 논란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고 전 국민은 분노했다.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약 2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 투표에 참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후,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은 또 벌어지고 말았다.

이 사태를 지켜보며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과연, 법이 바뀐다 한들 청소년 범죄가 사라질까?

여기, 20년 동안 피해자의 가족으로 살아온 소년부 판사 주희가 있다. 그리고 그 앞에 20년 전, 가해자였던 미애의 딸 경이가 청소년 집단폭행의 가해자로 서게 된다. 주희가 판사로서 가해자의 딸을 처벌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소년법 폐지를 바라봐야 하는 우리의 시선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

## 등장인물

나주희(38세, 여) 서울 가정법원 소년부 부장판사

“언니가 약속했지? 절대 너처럼 억울한 애들은 만들지 않겠다고”

과거, 동생 ‘현정’을 집단폭행 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가해자 ‘미애’ 때문에 범죄 앞에선 나이 따위 신경 쓰지 않는 냉혹한 판사가 되었다.

청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자로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범복을 입은 주희에게 20년 만에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다.

윤경(16세, 여) 중학생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건데!! 왜!!”

신촌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의 주도자로 세상의 못매를 온몸으로 맞고 있다.

역지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해도 모자랄 판에 경이는 독기 어린 눈으로

안은빈

slldlf03@hanmail.net

- 2018
- 한국방송작가협회 교육원 전문반 수료
  - JTBC 드라마 《내 아이는 강남미인》 보조작가
  - 오펜 드라마 부문 당선

법정에서 씨발을 외친다. 주희에게, 어른들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세상에.

이진명(50세, 남) 국회의원

“내 아이 하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 정도는 만들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으로 주희가 원하는 소년법 폐지에 힘을 실어주고자 한다. 하지만 그의 모든 행동이 딸 ‘소진’의 범죄를 ‘경’이에게 덮어씌우기 위한 계획이다.

윤미애(37세, 여) 청소부

“경이가 제 딸이라... 그래서 언니 앞에 나타날 수 없었어요...”  
20년 전, 난희라는 이름이었던 시절 현정을 집단폭행 했다. 지금, 자신의 딸 ‘경’이가 ‘주희’에게 재판을 받고 있다.

조형구(60대, 남) 부장판사

“범으로 장난질만 하는 줄 알았더니 정치질을 해!?”  
법대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진 FM 판사. 옛 제자인 주희가 엮나가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고 화가 난다.

강현수(39세, 남) 검사

“이게 내 정의야.”  
주희의 연수원 동기로 수사를 위해선 물불 가리지 않는다.

그 외

실무관, 이소진, 송아영, 여학생1, 여학생2, 간호사 등.

---

### 줄거리

숨방망이 처벌은 사라져야 한다는 소신을 가진 소년부 판사 ‘주희’가 과거, 동생 ‘현정’을 폭행해 식물인간으로 만든 가해자의 딸 ‘경’이의 사건을 맡게 되면서

### 판사로서의 정의와 복수 사이에서 흔들리는 이야기

‘주희’의 동생 ‘현정’이 집단폭행으로 식물인간이 된 지도 20년. 당시, 숨방망이 처벌을 받은 가해자들을 보며 주희는 절대 현정과 같이 억울한 사람은 만들지 않겠다는 소신을 갖고 범복을 입었다. 소년법들이 법원에서 마주치기 싫어하는 1위의 판사가 된 주희에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신촌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 맡겨진다. 하지만 사건의 주도자 ‘윤경’은 돌연 진술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욕설을 내뿜는다. 이에, 분노한 주희는 심사원 결과를 바탕으로 2심에서 형사 송치를 결정하겠다는 판결을 내린다.

사건을 담당하던 중, 주희에게 정치인 ‘이진명’ 의원이 다가온다. 소년법 폐지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신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해달라는 제안을 받는 주희. 명백한 재판 거래임에도 흔들리던 주희는 ‘윤경’의 친모 ‘미애’가 과거, 현정을 폭행한 가해자 ‘난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후, 주희는 판단력을 잃고 복수심에 불타오른다. 한편, 형구를 통해 주희의 과거를 알게 된 경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희의 집을 찾아간다. 주희는 이를 빌미로 경이의 형사 송치를 확실시하려 한다.

그런 주희에게 미애는 선처를 구하며 찾아오지만 주희는 더 분노할 뿐이고 그 분노의 화살은 점점 더 경이를 향해 조준되어간다. 하지만 진명과의 만남에서 ‘소진’의 존재를 알게 되고 사건의 진범이 경이가 아닌 소진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게 되는데...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현정의 언니로서, 판사로서 복수와 정의 사이에서 흔들리는 주희.

과연, 주희는 좋은 판사가 될 수 있을까...?

나쁜 판사  
안은빈

## #1 법원 전경(낮)

큰 도로 앞 통유리로 지어진 거대한 건물이 보인다.  
건물 앞 간판에는 '서울가정법원'이라 적혀 있다.

주희(E)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보려 한 적은 있니?

## #2 재판장 안

법대 한가운데, 굳은 얼굴의 주희가 홀로 앉아 있다.  
주희의 차가운 시선은 빨간 머리의 남학생에게 꽂혀 있다.

주희 제발 그만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데 불쌍하지도 않았어?  
남학생 (겁먹은) 다신 안 그럴게요... 용서해주세요.

주희 (단호하게) 안 돼.

남학생 모 (무릎 꿇고 오열) 판사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제가 잘못 가르쳐서 애가 그게 나쁜 짓인 줄도 모르고...!

주희 (연성 높아지는) 몰랐다고요!? 어머니. 그게 말이 됩니까?  
1년 6개월 동안 약한 친구들만 골라서 돈 뜯고!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애들을 괴롭혔어요! 그게 몰라서 한 것이라고요?

남학생 (모 옆에서 무릎 꿇고 영영 운다) 다신 안 그럴게요...

주희 (눈 하나 깜박하지 않고) 친구들을 괴롭혔던 그 시간만큼.  
소년원에서 반성하도록 해. (단호히) 1년 6개월.

재판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희의 판결에 놀란다.  
아랑곳하지 않고 법봉을 내려치는 주희.

## #3 주희의 사무실 안(저녁)

주희, 무테안경 너머로 모니터를 응시하며 자판을 두들기고 있다.

모니터에 뜨는 판결문.

“모욕적이고 비인간적인 폭행과 언행에 대하여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피해자와 유족을 감안하여 관대하게 처벌할 수 없다.”

그때, 실무관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실무관 (자료 봉치를 내려놓으며) 벌써 판결문 쓰시는 거예요?

주희 (모니터에 시선 고정) 판결이 반복될 일은 없으니까요.

실무관 (조심스럽게) 오늘 회식 가실 거죠...?

주희 회식이요?

실무관 요 앞 장군삼겹살에서 회식한다고 일주일 전부터 공지 뒀었는데~  
조판사님이 이번엔 꼭 모시고 오라고...

주희 (O.L) 자료는 복사해서 책상에 두고 가세요.

(시계 보고 짐 챙기는) 전 선약이 있어서.

실무관 (나가는 주희 보며 급하게) 나... 나판사님!

실무관, 그럼 그렇지 하는 얼굴로 주희가 나간 문을 바라본다.

## #4 병원 전경(밤)

한강 앞. 큰 흰 건물에 '서울아산병원'이 하얗게 불빛을 뽐고 있다.

## #5 현정의 병실 앞

병실에서 나오던 간호사가 달려오는 주희를 보고 익숙한 듯 얇게 웃는다.

주희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아직 면회 가능하죠?

간호사 세이프! 얼른 들어가 보세요. 엄~청 기다리셨어요.

주희 (불안한 기색 가시고 활짝 웃는) 고마워요.

주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간호사의 얼굴엔 안쓰러운 기색이 스치고.  
병실 문 옆 환자 이름 ‘나현정’

## #6 현정의 병실 안

가슴기가 틀어져 있는 조용한 병실.  
창가 침상엔 혼수상태의 현정이 인공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다.  
주희, 침상 옆 꽃병에 물을 갈아주곤 간이의자에 앉는다.

주희 자주 와서 갈아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현정 (아무 말 없고)  
주희 (오버하며) 맞다! 언니 소년범들이 마주치고 싶지 않은 판사 1위로 뽑혔다? (현정 보며 우쭐한 표정) 든든하지? 그니까 이제 너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언니한테 다~ 말해. 언니가 혼내줄 거니까!  
현정 (아무 말 없다)  
주희 (장난스럽게) 아직도 빠졌나? (훗 웃는) 20년이면 너도 진짜 독한 거야. (썩썩한 얼굴로 현정 머리 넘겨주며) 언니가 약속했지? 절대 너처럼 억울한 애들은 만들지 않겠다고. 그럼 그땐... (슬프게 웃는) 대답해줘야 한다?

여전히 대답 없는 현정. 병실엔 인공호흡기 소리만이 가득 차며...

타이틀. “나쁜 판사”

## #7 주희의 아파트 주차장(밤)

검은색 자동차가 들어오고 곧 지친 모습의 주희가 내린다.  
자동차 잠금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려는데,

여학생2(E) 경아! 송아영한테 10시까지 나오라고 제대로 말했지?  
경(E) 응...

소리에 눈을 돌리면 SUV 뒤로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주희, 몇 걸음 더 떴자 한눈에 봐도 불량해 보이는 세 명의 여학생들이 쭈그러 앉아 있고 바닥에는 담배꽁초가 널브러져 있다.

여학생1 아 진심 난 개 얼굴만 봐도 토 쏠려! 그냥 몽개버리자.  
다 너네 (두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는 척) 안구보호를 위해서야!  
여학생2 (깔깔대며) 애는 진짜 할 거 같애. 도라이야. 도라이!  
여학생1 야. 경아. 너도 봤지? 웃을 때 막 슬금슬금 광대 튀어나오는 거. 리얼 역겹지 않냐? (대답 없자) 너 비위 좋나 보다?  
경 ... 역겨워.

경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깔깔대는 여학생1, 2.

주희,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여학생들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간다.

발소리에 여학생들의 시선 주희에게 쏠리면.

주희 너네 어디 학교야?  
여학생1 (경계) 누구세요?  
주희 (경이 끌여 뒤로 숨기며) 지금 치사하게 들어서 괴롭히는 거니?  
여학생2 (여학생1 쿡쿡 찌르며 소곤) 야. 그냥 가자...  
지네 동네에서 소란 피운 거 알면 이소진 난리 나.  
주희 (버럭) 가긴 어딜 가!?  
여학생1 (차 웃으며) 진짜 웃긴 아줌마네. 경아! 너가 말해! 우리 친구라고!  
주희 (홍분해) 이것들이 진짜...!!  
경 (주희 손 뺌 뿌리친다)  
주희 (놀라 쳐다보면)  
경 (노려보며) 뭘 꼬라봐.  
주희 (당황) 뭐?  
여학생1 (크 비웃는)  
여학생2 (메시지 오면 확인하고 다급하게) 소진이 엘리베이터 탔대. 가자!  
여학생들 (주희 무시하고 가는)  
주희 너네 어디 가! 일로 안 와!?



“알아서 뭐 하게.” “재수 없어.” 욕하며 도망가는 여학생들.  
경, 주희를 살짝 돌아보곤 다시 뛰어간다.  
그런 경이의 뒷모습을 얼이 빠진 채로 쳐다보는 주희.

## #8 주희의 아파트 거실(밤)

현관문이 열리면 몇 개의 고지서와 노란 서류봉투를 든 주희가 들어온다.  
의자에 쓰러지듯 앉아 서류봉투를 찢어 꺼내면 두꺼운 A4용지 뭉치들이 나온다.  
첫 페이지에 큰 글씨로 적혀 있는 “소년법 폐지와 개정 논의”  
한 장 한 장 서류를 유심히 보며 넘기던 주희의 손이 순간 멈춘다.  
주희, 책상에 서류를 놓고 창가로 향해 커튼을 젖히면 어두운 도시 야경이 보인다.  
걱정스러운 눈으로 주차장 입구부터 공원, 단지 입구까지 쪽 훑는데 아무도 없다.  
책상 위, 놓여 있는 “소년법 폐지와 개정 논의” 서류 우측 아래,  
‘대한일동당’ 정당 마크가 찍혀 있다.

## #9 주희의 아파트 방(새벽)

(E) 휴대폰 벨소리.  
휴대폰 화면에는 ‘실무관님’ 뜬다.  
이불 속에서 나온 주희의 손이 휴대폰을 찾아 베개 옆을 더듬거린다.

주희 (덜 깨 잠긴 목소리) 여보세요?  
실무관(E) 나판사님! 큰일 났어요!  
주희 (꿈 하고 일어나며)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실무관(E) (O.L) 급하게 판사님한테 배정된 사건인데요!  
(말이 꼬이는) 집단폭행 사건인데…! TV…! 아니! 휴대폰  
틀어보세요!!  
  
주희, 통화종료를 누르고 힘겹게 일어나 휴대폰으로 인터넷 접속을 한다.

실시간 검색어 “1위. 신촌 여중생 집단폭행” “2위. 집단폭행 라이브 방송”  
“3위. 청소년 집단폭행” 실검과 인터넷 뉴스 등 메인 화면이 전부 신촌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에 대한 기사와 포스팅으로 도배되어 있다.  
동영상을 재생하면 모자이크를 했음에도 얼굴이 퉁퉁 부은 아영이 가운데  
앉아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 중심으로 뽕 둘러 있는 세 명의 여학생들. 목소리는 음성 변조가 되어  
나온다.  
정신이 번쩍 든 주희가 휴대폰에 재생되는 동영상을 똑바로 보면,

## #10 신촌 원룸 안(동영상)

여학생1이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화면.  
좁은 방 안에는 술병들이 너부러져 있고 담배가 수북이 쌓인 종이컵도  
보인다.  
얼굴은 보이지 않고 상반신까지만 찍혀 있는 여학생2, 여학생3.  
(여학생3은 실제, 소진이지만 경이로 오해받고 누명을 쓴다)  
그중 여학생3은 갖가지 큐빅과 태슬이 달린 케이스를 끼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다.

여학생1(F) (술 취해 꼬부라진 혀) 어우~ 씨!! 얼굴 봐.  
좀 몽개면 나아질 주 알았는데 더 역겨워짐! 우웻!!  
여학생2(F) 뭐야? 너 방송 켜냐? (어이없는데 재밌는) 진짜 관중이다~  
여학생3 (동영상을 찍으며) 내가 동영상 찍고 있는데 왜 방송을 해!  
여학생1(F) 우리만 보기 아깝잖아! 별스타 라이브지롱~  
(방송 보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자, 여러분 이제 이 돼지 같은 년을  
어떻게 할까요? 신청 받아요! 선착순 세 명!  
여학생2(F) 진짜 도라이냐? 교도소 가면 어떡할라구 그래!  
여학생3(F) (웃긴) 쫄았냐? 우린 교도소 안 가.  
여학생1(F) 댓글 열라 웃기다. (깔깔대다 갑자기 성질내며) 근데 이 병신은  
뭐냐? 우리한테 욕하는데? 보기 싫으면 니가 꺼져!! 별 썬대 같은 게!

여학생1, 여학생2 깔깔대며 웃고,

## #11 서울역(아침)

각자 바쁜 출근길에도 스마트폰 속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컷컷.  
한 여자의 휴대폰 화면과 #10의 영상 이어지고 있다.

여학생3(F) (아영 머리 툭툭 치며) 재밌지? 응? 재미없어?  
아영(F) (모자이크 된, 겁먹어) 재... 재밌어...  
여학생3(F) (정색) 재밌냐!?

동영상 촬영을 하던 여학생3이 아영의 머리를 발로 차는 순간,  
동영상을 보던 여자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눈을 질끈 감는다.

## #12 주희의 차 안

법원으로 들어가는 주희의 자동차. 법원 입구엔 피켓을 들고 시위 중인  
무리가 보인다. 피켓에는 “숨방망이 처벌 즉시 폐지하라!” “그들은 더 이상  
아이들이 아니다”

## #13 재판장 안(낮)

주희가 들어오면 재판장 안에 있던 일동 일어난다.  
주희가 앉자 자리에 앉는 사람들. 주희, 법대에 앉아 재판장을 내려다보면  
여학생1, 2와 경이가 보인다. 주희의 시선이 경이에게서 멈추고 눈이  
마주치는 두 사람.  
주차장에서의 일이 떠올라 두 사람 모두 멍청한다.

주희 (모른 척 기록 보며) 집단폭행, 감금, 금품갈취, 협박... 젖은 수건을  
몸에다 채찍처럼 휘두르고 가방끈으로 목을 조르...  
(말을 잊지 못하고 분노) 이게 다 너네가 한 것이니?  
여학생1, 2 (흑흑대는)  
주희 왜 그런 짓을 했어? (아무 말 없자 언성 높아진다) 왜 그랬냐니까!?  
여학생2 (경이를 가리키며) 경이가 시켰어요...

주희 (어이없는) 뭐? 시킨다고 이런 짓을 해!?  
여학생2 모 (억울함에 호소하는) 우리 애도 피해자예요! 애가 맨날 돈 받아가고  
그러더니... 알고 보니 (경이 가리키며) 다 재가 시킨 거였단니까요!  
주희 조용히 하세요! (여학생2 보며) 너네가 말해.  
여학생2 경이가 무서웠어요. 저도 아영이처럼 될까 봐...  
주희 (코웃음) 무서웠다는 애가 옆에서 깔깔대고 있어?  
여학생1 안 그랬으면... 아영이 다음은 저희니까요...!

주희, 재판장 안을 둘러보면 경이만 보호자 출석을 하지 않았다.  
사건 자료를 넘겨보면 경이의 자료 나온다. 보호자 칸에 부는 비어 있고  
“모 윤미애”라고 적혀 있다.

주희 (기가 찬) 보호자 출석 명령도 유일하게 거부했네?  
(자료 덮으며 경이에게) 정말 너가 시킨 거야?  
경 ... 아니요.  
여학생1 부 (벌떡 일어나 경이에게 샷대질)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  
어디 판사님 앞에서 거짓말이야!  
주희 (여학생1 부 췌려본다)  
여학생1 부 (빨쫂해 눈치 보며 조용히 앉는)  
주희 (경을 똑바로 보며) 피해자도 네가 불러냈고 동영상도! 정황도!  
증언도! 증거도! (자료 거칠게 흔들며) 모든 게 다 널 지목하고  
있는데... 이래도 발뺌할 거야?  
경 (아랫입술 짝 깨문다)  
주희 그래... (경멸하는) 불리한 진술은 대답하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지.  
(자료로 시선 돌리며)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가치가 없는...  
경(E) (O.L) (작게) 씨발...  
주희 (놀라 경을 쳐다보다 기가 차는) ... 뭐?  
경 (고개 획 들고 주희 노려보며) 나 아니야!  
(핏대를 세우며 악을 쓰는) 나 아니라고!!!

눈물을 뚝뚝 흘리던 여학생1, 2와 부모님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경이를 쳐다본다. 법대 위 앉아 있는 주희와 홀로 꿇꿇이 서 있는 경.

서로를 무섭게 쏘아보며 팽팽히 대치하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 #14 청소부 휴게실

좁은 휴게실 안, 4, 50대의 청소부 아주머니 셋이 어깨와 다리 등을 두들기며 벽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뉴스(F) 오늘 서초구 가정법원에서 열린 신촌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의 재판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가담자인 김씨와 박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죄질이 좋지 않다 하여 3년에서 3년 6개월의 소년원 송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소부1 (혀 차며) 어디 애들 무서워서 학교 보내겠어?

청소부2 그니까요 성님. 학교가 무슨 조직폭력배 양성소도 아니고... (깊은 한숨) 이렇게 뻘 빠지게 일하면 뭐 한답니까.

동시에 문이 열리면 청소도구들을 끌고 미애가 들어온다. 유니폼 왼쪽 가슴에 '윤미애'라는 이름이 자수로 박혀 있다. 미애, TV로 시선을 돌리면,

뉴스(F) 주도자인 윤씨는 범죄 사실에 대해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였다고 전해졌으며 소년법 최고 징역형인 2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소년에게 너무 가혹한 판결이다, 솜방망이 판결이다. 의견이 분분히 엇갈리는 가운데 10호 처분을 가장 많이 내리는 법관으로 알려진 서울가정법원 나주희 판사가 재판을 맡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위쪽에 주희의 사진이 뜨자 청소도구들을 떨어뜨리는 미애. 손끝이 바들바들 떨린다. 그런 미애를 의아하게 쳐다보는 동료들.

## #15 주희의 사무실 안

주희, 법복을 벗고 있다. 그때, 사무실 문이 광 하고 열린다. 씩씩거리며 들어오는 50대 판사 '조형구'

형구 (호통치며) 나판!! 너 미쳤어?

주희 (대꾸 없이 법복 벗는)

형구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집행유예도 없이 3년에서 3년 6개월? 윤경은 살인이라도 했어? 형사 송치가 말이 돼?

주희 꼭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야 살인입니까?

개가 한 짓도 명백한 살인입니다.

형구 난 너 때문에 피 말려 죽게 생겼어. 너도 살인미수야!

주희 (강력하게) 이건 소년부에서 다룰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형구 아이고... (한 탕포 참고) 해도 해도 적당히 해야지~ 정의의 판사다, 사이다 판사다 띄워주니까 뭐 스타병이라도 걸린 거야?

주희 씨발...

형구 (충격 받아) 뭐... 뭐!?

주희 이랍니다. (손가락으로 자기 가리키며) 법대에 앉아 있는 저를 두 눈 똑바로 뜨고 노려보면서! 명확한 가해잔데 반성의 기미도 없고 법정모독까지 하는 아이를 소년부에서 처리하라고요?

형구 년 소년부 판사잖아! 법대로 안 할 거면 판사를 왜 해?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때려치워!!

주희 (법복 걸며 태연) 지금 당장 형사로 송치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분류심사원 결과 받고 추가 증거 확인하고 절차 밟아서 법대로...

형구 (O.L.) (어이없는) 법대로 형사 송치 하시겠다? 어이구. 리포트 내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좀 컸다고 법 갖고 장난질을 하네?

주희 (억울해 노려보면)

형구 착각하지 마. 나판. 년 정의도 스타도 아니야. 판사야.

이 세상 어디에도 너처럼 개 패듯 범봉 휘두르는 판산 없어.

주희 말도 안 되죠.

형구 (순순히 수긍하는 주희에 의아한)

주희 (옷장 광 단으며) 여태껏 합당한 판결을 내린 판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가방 챙기며) 가해자들이랑 필요 이상으로 가깝게 지내셨어요, 조판사님. 이제 봉사활동도 그만 다니시죠.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는)

형구 (뒷목 땡기는) 뭐... 뭐!?! 지금 공사 구분 못 하는 게 누군데!?

너 지금 니 동생 때문에...! (급하게 입 막는)

주희 (문 앞에 서서) 때려치우죠.  
 형구 (놀란) !?  
 주희 (돌아보며) 제 선택이 판사로서 잘못된 선택이라면, 법복! 벗겠습니다.

주희, 말이 끝나자마자 문을 열고 나간다.

## #16 주희의 사무실 앞 복도

주희, 사무실을 나오면 실무관, 들어오지 못하고 문 앞에 서서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주희, 그런 실무관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쳐 간다.

실무관 (졸래졸래 따라가며) 괜찮으세요, 판사님?  
 주희 성원중학교는요?  
 실무관 윤경 탄원서를 작성한 아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주희 단 한 명도 없었다고요? (수상한) 선생님도요?  
 실무관 네.  
 주희 한 장이라도 보내라 하세요.  
 협조 안 하면 직권조사 신청한다 하시고요.  
 실무관 (눈치 보며) 그게... 아무래도 어려울 거 같습니다. 역사가 깊은  
 학교라 그런지 쉬쉬하고 끝내고 싶어 하는 거 같아요. 다음번엔 직권  
 남용으로 법원에 정식으로 항의 넣겠습니다.  
 주희 (화나는) 거부할 거면 역사 말고, 정당한 사유서 제출하라 하세요.  
 실무관 네.  
 주희 윤미애 씨 출석은요?  
 실무관 저번이랑 같은 이유로...  
 주희 (어이없다) 자기 딸이 어떻게 되든 먹고살기 바쁘단 거죠?  
 실무관 (대답 못 하는) 출석요구 다시 신청할까요?  
 주희 됐어요. (생각하다) 조사관 파견하세요.

## #17 몽타주

1. 서울소년분류심사원(아침). 빨간 벽돌로 지어진 건물 앞에 멈춰 서는  
 자동차. 곧, 경이가 백팩을 하나 메고 내린다.

2. 심사원 안 교실(낮). 똑같은 파란색 티셔츠를 입은 아이들이 앉아 있고  
 선생님이 흰 종이를 돌린다. 종이 맨 위에는 “나의 꿈의 목록”이라 적혀  
 있고 아래는 “번호, 이루고 싶은 꿈, 목표 기한”으로 칸이 나뉘어 있다.  
 A4용지 한 장을 가득 채운 칸. 바쁘게 써 내려가는 아이들과 달리 경은 한  
 글자도 적지 못한다.

3. 심사원 안 식당(저녁). 급식을 받아 삼삼오오 모여 밥을 먹는 아이들.  
 경은 아이들을 지나쳐 제일 구석의 테이블에 혼자 앉는다.

4. 심사원 안 면회실(아침).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변호사와 경이 앉아  
 있다. 인자한 얼굴로 뭐라 말하고 있는 변호사.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경이는 묵묵히 진술서를 적어 내려가고 있다.

5. 심사원 안 강당(낮).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선생님이 보이고  
 빔프로젝터에서는 하늘을 나는 비둘기 사진과 “내 인생의 주인은 내!”라는  
 글귀 쓰여져 나온다. 비둘기 사진을 바라보는 경이의 텅 빈 눈동자.

## #18 심사원 숙소 안(아침)

경이 또래의 여학생들 셋이 둥글게 앉아 과자를 먹고 있다.  
 구석에 쪼그려 앉은 경이는 두 팔에 얼굴을 파묻고 있다.

여학생4 아! 진짜 난 감별소 안 탈 줄 알았는데 진짜 까비였다니까!  
 여학생5 넌 뭘로 왔는데?  
 여학생4 음... (오스대며) 어른들 말로 하면 외상.  
 여학생6 외상?  
 여학생4 (뻔뻔하게) 친구한테 돈 좀 빌렸는데 무슨 금품갈취라고 그러더라?

여학생5 (깔깔대는) 외상이나 그게.  
 여학생4 (깔깔 웃다 경이 보고) 야. 너도 와서 먹어.  
 여학생5 내비둬. 재 개야. (속닥이지만 들리게) 신촌 여중생.  
 여학생4 (보다) 아~ 지금 우린 잡범이라고 개무시 까는 거?  
 (히! 하고 웃으며 다가가) 야. (발로 툭툭 치는) 쓰레기. 안 들리냐?  
 경 (속 고개 들고 여학생4 췌려본다)  
 여학생5 (말리는) 그냥 와. 어차피 내일 나간대.  
 여학생4 (겹먹었지만 아닌 척) 기분 나빠서 그렇지. (쪼그려 앉아 경 눈 맞추며) 쓰레기도 다 같은 쓰레기가 아닌데... 이런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랑 같이 묶어놓은 게. 이런 건 그냥 콧 죽어...

그 순간, 경이 눈 깜짝할 새에 여학생4 얼굴을 주먹으로 퍽! 쳐버리면.

## #19 법원 안

1층 입구로 들어오던 주희와 급하게 달려 나가던 형구가 퍽! 부딪히며, 법원 안이다.

주희 아... (어깨 감싸며 쩡그린 채) 어딜 그렇게 가세요?  
 형구 경...! (말 삼키고) 아... 아니야. 이따 봐.

형구, 정신없이 뛰어가는 모습을 이상하게 보는 주희.  
 그때, 전화가 온다.

주희 (받고) 네. 거기서 뵙죠.

## #20 주희의 사무실 안

주희, 사무실로 들어오면 실무관 쫓르르 다가온다.

실무관 사고 쳤습니다.  
 주희 (?) 누가요?

실무관 윤경이요. 고소당할 수도 있겠던데요. 내일이면 심사원도 끝인데 (히 치는) 하루 남기고 개도 참...  
 주희 (그럴 줄 알았다)

## #21 심사원 사무실 안

머리가 산발이 된 여학생4가 경이를 썩썩대며 노려보고 있다.  
 선생님과 형구, 그 모습을 심각하게 바라본다.

여학생4 저 미친년이 먼저 달려들었다니까요!  
 선생님 경이야. 너도 말해봐.  
 경 (짜증 나 시선 거두고 침묵)  
 형구 서로 잘못했으니까 둘 다 사과하고~  
 여학생4 (바라) 전 왜요!? 맞은 건 전데 왜 제가 사과해요?  
 형구 (곤란한) 경아. 먼저 사과하자. (대답 없자 속 타는) 너 이대로 가중처벌 당하면 진짜 형사재판 받아야 할 수도 있어!  
 여학생4 아~ (웃는) 그래? 너 내가 고소할 거야!  
 안 그래도 주희가 너 칼 갈면서 기다린대더라?  
 형구 (여학생4에게 꿀밤 때리는) 주희가 뭐야 임마! 판사님한테!  
 여학생4 (맞은 곳 움켜쥐며 짜증) 아! 내 알빠?  
 경 맘대로 해.

경, 여학생4와 선생님, 형구를 지나쳐 생하니 밖으로 나가버린다.

## #22 고급 일식집 안(낮)

홀 테이블에 앉아 진명의 림을 주시하고 있는 검사 '강현수'가 보인다.

현수 (전화에 소곤) 오늘 꼬리를 잡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네.  
 (끊고 림 예의 주시하며 중얼) 누구냐... 누구...

그때, 종업원이 진명의 림 문 앞으로 누군가를 안내한다.

획 숨어 눈만 빼꼼 쳐다보는 현수. 종업원이 문을 열면 웃으며 반기는 진명이 보이고 림으로 들어가는 사람, 주희다. 주희가 들어가면 림 문 닫히고. 현수, 놀랍고 의아한 표정으로 멍하니 문을 바라보고 있다.

## #23 고급 일식집 림 안

테이블 위로 고급스럽게 플레이팅 된 사시미가 올려져 있다.

진명 미리 찾아봤어야 했는데... (명함을 건네며) 이진명입니다.  
(사시미 그릇 슬쩍 밀며) 자. 일단 드시죠.  
주희 (받아보면 대한일동당 이진명 적혀 있다) 소년범 폐지 관련 자료 잘 받았습시다. 제가 재판이 많아서 인사치레는 못 하겠네요.  
단도직입적으로 묻죠. 왜 하필 저인지...  
진명 (허허 웃는) 듣던 대로 시원시원하십니다! 그럼 저도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판사님이 소년범 폐지에 관심이 많으시다 들었습니다.  
주희 (대답 않고 보는)  
진명 저희도 관심이 많아서요. 저희 당이 움직이지 않으면 평생 소년범은 이대로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거 판사님도 잘 아실 테죠. 판사님은 대중의 스타시고 영웅이시니 저희는 판사님의 명성이 필요합니다.  
(주희 보며) 서로의 힘이 필요하단 겁니다.  
주희 그래서... 제가 뭘 하면 되죠?  
진명 신촌 여중생 사건... 나판사님 선에서 조용히 마무리해주시죠.  
주희 조용히라뇨...?  
진명 (읽는 톤) 형사 송치 판결을 내리려 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아이들의 미래를 감안. 가담자 아이 들은 사회봉사 100시간. 주도자 윤경은 1년 이내의 단기 보호관찰을 선고한다.  
(씩 웃는) 어떠십니까?  
주희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애들을 겨우 그 정도로 끝내라는...  
진명 (O.L) 당장 폐지는 무리겠지만 일단 상향선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봅시다. 저희는 소년범 (강조) 폐지까지 추진하려 하는 겁니다.  
주희 그게 가능하다고요?

진명 판사님이 저희 뜻에만 따라주신다면요. (안타까운 척) 마땅히 됐었어야 하는 일인데 범이라는 게 참... 아예 절차를 무시할 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희 (고민되는)  
진명 (캐치하고) 소년범 폐지가 추진되면 저희 당 직속 변호사로 거액 연봉과 연금까지 보장해드리죠.  
주희 (생각하다 결심하고 가방 챙긴다) 유감스럽게도 변호사가 될 생각은 없어서요. (일어나) 재판거래는 더더욱요. (가려는 데)  
진명 이건 대의를 위한 일입니다. (주희가 돌아보면 호소) 이후에도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날 텐데... 평생 억울해질 피해자들을 생각하셔야죠.  
주희 (눈동자가 흔들린다)

## #24 심사원 사무실 안

형구, 선생님과 마주 앉아 있다.

선생님 죄송해요 판사님. 바쁘실 텐데...  
(안심하는) 그래도 판사님이 설득해주신 덕분에 고소는 넘겼어요.  
형구 (웃는)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죠.  
선생님 이번 주에도 보육원 봉사 오실 거죠?  
형구 그럼요! 선생님도...

(E) 휴대폰 문자 소리.

형구 (양해 구하는) 잠시만요.

확인하면 현수에게서 온 문자다. [교수님 이거 무슨 그림입니까?] 사진 보면 일식집 안, 주희와 진명이 마주 보고 앉아 있다.



## #25 일식집 앞 거리

주희, 형구에게서 오는 전화 받으면.

형구(F) (버럭) 나주희 너 미쳤어!?

주희 (귀찮은) 또 왜요.

형구(F) 법으로 장난질만 하는 줄 알았더니 정치질을 해!?

주희 (건물 일식집 올려다보고)

형구(F) 발뺌할 생각하지 마! 강검사한테 다 들었어!

주희 (현수 얘기에 짜증스러운 한숨)

## #26 심사원 화장실 안

형구, 화장실 칸에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하고 속닥거리듯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형구 왜 이러는 줄도 알고 충분히 이해도 하는데... 해도 해도 적당히 해야지. 20년 전 일이잖아. 네가 이런다고 20년 동안 누워 있던 동생이 일어나? 아님 그때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아? 이제 와서? (한숨 쉬고) 법대로 하자. 제발... 이걸 경고하는 거야. 한 번만 더 정치질 하면, 그땐 내 손으로 문제 제기할 거야!

형구, 전화 끊고 주위 한 번 둘러본다.  
헛기침하고 나가면 복도 기둥 뒤에서 나오는 경, 분노에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 #27 주희의 사무실 안(저녁)

주희, 퇴근을 하려 하는데 실무관 들어온다.

실무관 퇴근하세요?

주희 네.

실무관 (서류봉투 건넨다) 학교에서 보낸 윤경 탄원서예요.  
주희 (받고 가려는데)  
실무관 (다른 서류봉투 건네며) 그리고 이걸 조사관님이 보낸 윤경 보호자 윤미애 씨 자료예요.  
주희 (받고) 고마워요.

주희, 자료 받으면 꾸벅 인사하고 나가는 실무관.  
주희, 자료를 보는데 대략적인 프로필 적혀 있고 사진 첨부되어 있다.  
청소부 일을 하고 있는 미애의 사진 나오면 그대로 굳는 주희.

## #28 미애의 집 앞(밤)

어두운 주택가 동네. 주희, 멀찍이 떨어져 불안한 눈으로 202호를 주시하고 있다.  
곧, 지친 기색의 미애가 202호로 향하고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다.  
주희, 한참 동안 닫힌 202호 문을 무섭게 노려보고 있다.

## #29 주희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 복도

주희,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버튼을 누르면 곧 문이 열린다. 멍청하는 주희, 엘리베이터 구석에 후드를 머리까지 뒤집어쓴 경이가 쭈그린 채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있다. 경이라곤 생각도 못 한 주희, 경계하며 엘리베이터를 탄다.  
주희, 18층으로 올라가며 홀긱 경을 돌아보지만 경은 미동도 없다.  
18층에서 멈추자 내리는 주희. 문이 닫히고 뒤를 돌아보는데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18층에 멈춰 있다.

## #30 주희의 아파트 거실

샤워를 하고 나오는 주희가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주방 테이블로 향한다.  
테이블 위, 뜯기지 않은 경이의 탄원서 봉투 보이자 머리를 털던 손을 멈추는 주희. 탄원서를 집어 든다. 무서운 얼굴로 한참을 내려다보다

그대로 탄원서를 쓰레기통에 내팽개치는데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린다.  
문 열면 후드를 뒤집어쓴 경이가 막무가내로 들어온다.

주희 당신 뭐야!?  
경 (돌아보며 후드 벗고 무섭게 노려보는)  
주희 (놀라) 너... 네가 왜 여길...  
경 당신이 그러고도 판사야!?  
주희 (정신 들면 화나고)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경 당신 동생.  
주희 (멈칫)  
경 20년 동안 누워 있다는 당신 동생! 그 동생 때문에 나한테 이러는 거잖아!  
주희 (짜늘한) 그게 네가 한 쓰레기 짓이랑 무슨 상관인데.  
(어이없는) 너 아직도 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경 나 아니라고 했잖아! (발악) 나 아니라고!!  
주희 그런 건 변호사한테 얘기해. 그리고 니가 지금 하는 행동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 당장 나가!  
경 변호사...? (코웃음) 그 진술서... 그 새끼가 쓴 거야.  
주희 (쳐다보면)

### #31 심사원 안 면회실(#17 몽타주)

경이가 테이블에 앉아 있고 그 앞에 남자 변호사가 서 있다.

변호사 (왔다 갔다 하며 건성으로) 평소 싫어했던 송아영을 친구의 신촌 원룸으로 불러냈다. 친구들을 선동해 송아영을 감금했고... (하다 보며) 안 씨?  
경 (억울한) 제가 부른 건 맞는데요. 애들이 시켜서 부른 거예요.  
변호사 (코웃음 치며) 니가 보기엔 그게 중요한 거 같니?  
경 아저씨가 말하는 대로 적으라면서요! (펜 탁자에 탁! 하고 내려놓으며) 근데 아저씨가 말하는 건 다 구라잖아요!!  
변호사 (타이르듯) 친구들은 집안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미래가 아주 창창한

애들인데 이런 일로 발목 잡히면 되겠어? 너 어차피 처벌 못 피해~ 피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변호사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못 해줘...? 너 되게 나쁜 애구나?  
(펜 다시 경의 손에 쥐어준다) 친구들도 친구들이지만 엄마 생각도 해야지. 아버지도 없이 너 하나 키우려고 뼈 빠지게 청소하시는데, 하나뿐인 딸이 이렇게 이기적이면 되겠어? 어머니 이 정도 보석금 감당 못 하셔. (의자 끌어 경이 맞은편에 앉으며 인자한 얼굴로) 나도 다~ 너를 위해서 여기 온 거야.  
주희(E) 무슨 소리야?

### #32 주희의 아파트 거실

주희 (황당한) 보석금 신청은 기각했어!  
경 전 몰랐어요! 저는... (억울한) 아니 저만 몰랐다고요!  
주희 내주기로 한 보석금이 안 먹힌다니까 이제 와서 양심 고백이라도 하는 거니? (헛웃음) 방금 니가 말한 게 사실이라 해도 좀 뻔뻔하다 생각하지 않아?  
경 그땐... 무서워서 그랬어요... 우리 엄마는 돈도 없고 뺨도 없고... 저도 그러기 싫었다고요! 근데 우리 엄마는... (울컥)  
주희 (미에 생각이 나 발끈)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경 아줌마가 믿든 안 믿든 사실이에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주희 그러기엔 너무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 동영상 찍던 너, 라이브 방송을 하던 친구, 그 옆에 또 한 명. 그리고 피해자 송아영. 방송엔 네 명이 나왔지. 사건 당일 너랑 내가 주차장에서 마주쳤을 때처럼.  
경 ... 아니요. 한 명 더 있었어요. 전 그 방송에 나오지도 않았고요.  
(휴대폰 건네며) 확인해보세요 동영상 있는지 없는지.  
주희 (황당한) 너 내가 바보로 보이니? 범죄자가 도망칠 곳은 없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넌 합당한 벌을 받을 거야.  
경 (노려보다) 갠 그 동영상 안 지웠을 거예요... 개 이름을 말했으면 제가 범인이 아닌 건 밝혀졌었겠죠... 그리고 그 동영상도 공개됐을 테고... 그래서 말 못 했어요. (말하기 힘든) 거기엔... (울컥하다 애써 침착) 애들이 제 옷을 벗기고 동영상을 찍었어요.



주희 (멈칫한다)  
 경 (눈물 터지고) 아영이는 저 지켜주려다 그렇게 됐는데... 전 그 영상이 공개될까 봐 무서워서... 그냥 눈 딱 한 번 감고 모른 척하자... 나만 입 다물면 끝나겠지... 그래서 입 다물었어요. (눈물 훔치고) 근데 이젠 아니에요! 말할 거예요. 개가 누군지...  
 주희 (O.L) 참고해줄게.  
 경 (쳐다보면)  
 주희 (단호하게) 그 동영상. 가져와. 그럼 참고해줄게.  
 경 (절망하는)  
 주희 난 판사야. 증거를 제출해.  
 그 전엔 네가 어떤 이름을 말해도 난 듣지 않아.  
 경 (고개 떨구는데 쓰레기통에 처박힌 '윤경 탄원서' 발견한다)  
 ... 판사? (코웃음) 당신이? (무서운 눈으로 돌변) 까고 있네.  
 주희 뭐?  
 경 (주희 노려보며) 죽어버릴 거야...

### #33 형구의 사무실 안(아침)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다.

뉴스(F) 한 달 전, 서초구 가정법원에서 열린 신촌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의 주도자 윤씨가 어젯밤, 소년분류심사원을 탈출해 나주희 판사의 자택에 침입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피습 사건으로 윤씨는 형사재판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신경질적으로 리모컨 전원 버튼을 누르는 형구, 왼편에 앉아 있는 주희를 쏘아본다.

형구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주희 살인을 한다는데 막아야죠. 판사로서.  
 형구 (한숨 푹)  
 주희 심사원에서 터진 폭행 사건 무마하시려고 애 좀 쓰셨다던데...

(확신하는 투로) 보셨죠? 저런 애들 안 바뀝니다. 쓸 데 없는 데 힘 빼고 다니지 마세요.  
 형구 진짜 죽인다는 게 아니잖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주희 저도 형사로 이관한다 한 거 말이 그렇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 정도면 정말 소년부에서 처리할 일 아니란 거 아셨잖아요. 판사님 말대로. 법대로.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주희, 일어나 꾸벅 인사하고 나간다.

### #34 주희의 사무실 안(낮)

주희, 들어오면 실무관 다가와 서류 건넨다.

실무관 심사원에서 온 윤경 결과지요.  
 주희 (받고) 고마워요.

주희, 자리에 앉아 뜯어보면 도덕성과 사회성에 부족 체크되어 있다. 한 장 더 넘기면 담당 선생님의 평가가 길게 쓰여 있다. 마지막 한 줄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주희.  
 “가족의 해체로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한 탓에 타인의 아픔과 슬픔에 대한 공감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임.”

(E) 노크 소리.

실무관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면 차려입으려 노력한 모습의 미애가 90도로 공손히 인사를 한다. 미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주희, 누구? 하는 눈빛 보내는데,

실무관 윤경 보호자 출석이요. (또박또박) 윤미애 씨.

주희, 놀라 쳐다보면,

(슬로우모션) 굽힌 허리 펴며 보이는 미애의 얼굴.  
주희, 그런 미애를 뚫어지게 쳐다보면...

### #35 과거 회상. 학교 안

#34 미애의 얼굴과 주희를 깔보며 내려다보는 중학생 미애의 얼굴  
겹치고.  
미애의 교복 왼쪽 가슴에 달린 이름표엔 '윤난희'라 적혀 있다.  
책상과 의자들이 너부러져 있고 난장판이 된 교실의 모습.  
미애와 주희 중심으로 둘러서 있는 아이들. 그들을 보며 수군거리고 있다.

미애 언니. 그만해요. 법이 그렇다는데 어찌겠어요.  
주희 이딴 게 법이야? 상관없어. 넌 내가 죽일 거야.  
미애 언니 되게 똑똑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되게 후지다.  
주희 (악에 받쳐 고향지르며 달려든다) 죽어버릴 거야!!  
(뒷문으로 뛰어 들어온 선생님들에게 붙잡혀 끌려가며) 내가 다  
죽어버릴 거라고!!!!

끌려가는 주희의 눈에 코웃음 치며 자신을 바라보는 미애가 보인다.  
점점 멀어지며 화면도 어두워지고. 주희의 발악 소리도 작아진다.

### #36 주희의 사무실 안

사무실엔 주희와 미애 단둘이 있다.

미애 (떨며 무릎 꿇는) 언니... 죄송해요. 제발 저희 경이 한 번만  
살려주세요.  
주희 (눈 하나 꿈쩍 않고) 그런 애가 당당하게 출석명령도 거부하고  
보석금이나 받아먹으려고 했니? 넌 니 딸 팔아먹은 거야.  
미애 (눈물 흘리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보석금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힘들게 입 여는) 경이가... 경이가 제 딸이라 언니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용서해주세요...

주희 용서? 20년 만에 나타나서 용서!?(버럭 하는) 사과를 할 거면 이  
전에 왔어야지!! 20년 동안 기회가 있었잖아!  
미애 (꼭꼭대며 우는)  
주희 아영이는...? 니 딸 때문에 죽어가는 아영이 생각은 안 났어?  
그 아이랑 그 아이의 가족들은 생각 안 났냐고! 20년 전처럼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본데. 나한테 안 통해.  
미애 죄송해요... 언니... 제가... 제가 못 배워서... 제가 멍청해서... 제가  
못나서...  
주희 이제 와서 용서? (코웃음) 넌 이번이라도 숨으면 안 됐어...  
널 다시 보니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겠다.  
쓰레기는 영원히 쓰레기라는 거...

주희, 혐오스러운 눈으로 꼭꼭대며 고개 숙인 미애를 내려다보고 있다.

간호사(E) 안 들어가세요?

### #37 현정의 병실 앞(밤)

생각에 잠겨 있던 주희, 간호사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며 정신이 돌아온다.

주희 아... 제가 너무 늦었네요. 그럼. (도망치듯 가버린다)  
간호사 (손목시계 확인하곤 가우똥) 세이프인데...?

### #38 병원 앞

주희, 병원을 나오면 양복을 입은 한 남성 90도로 인사한다.

### #39 진명의 차 안

한적한 곳에 주차된 차. 뒷좌석에 주희와 진명이 앉아 있다.

주희 (불쾌한) 제 뒷조사하셨어요?

진명 뒷조사라노. 연락이 안 되시니 찾아온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주희 (말 없는)

진명 피습 사건은 참... 뭐라 드릴 말이 없네요. (한숨) 아무리 그래도  
 저번이랑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판사님 선에서 정리하기로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주희 (까칠하게) 확답을 드린 기억은 없는데요. 제가 사는 곳까지  
 찾아와서 협박한 아이예요. 이제 더 이상 조용히는 못 넘어가죠.

진명 그러시겠죠. 그럼... (순순히) 그러세요.

주희 (순순히? 보면)

진명 대신 다른 아이들은 얘기했던 대로 처리하시죠.

주희 (이상한) 의원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진명 저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희 대의를 위해서라고요?

진명, 대답하려는데 휴대폰 벨 울린다. 전화를 끊는 진명.

진명 (진지한) 저도 대의뿐만은 아닙니다. 방금 전화... 제 딸아이입니다.  
 아이들 사는 세상까지 이렇게 흥흥하니... 유학을 보내기로 했죠.  
 (주희를 보며)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 몰으셨죠?  
 나랏일 하는 사람으로서 내 아이 하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  
 정도는 만들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 #40 진명의 차 안 + 병원 주차장

주희, 차에서 내리면 진명의 차 출발한다.

진명 (멀어져가는 주희를 주시하며) 계속 팔로우해.

주차장에 홀로 남은 주희. 멀어져가는 진명의 차를 주시한다.

플래시 컷1. #39. 차 안.

울리는 진명의 휴대폰 화면, 얼핏 '이소진'이라는 이름 보인다.

주희 (혼잣말) 이소진...

여학생2(E) 지네 동네에서 소란 피운 거 알면 이소진 난리 나.

여학생2(E) (메시지 오면 확인하고 다급하게) 소진이 엘리베이터 탔대. 가자!

경(E) 한 명 더 있었어요.

주희 (눈 커지고 급하게 전화 건다) 네. 실무관님. 부탁드립니다. 게 있어서요.  
 죄송한데 급한 거라... 네. 내일 아침까지.

## #41 주희의 아파트 거실(아침)

주희,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본다.

그때, 실무관에게서 문자가 온다.

[방금 조사관님께 받은 파일 메일로 보냈습니다.]

주희, 문자를 확인하고 노트북 앞에 앉는다. 메일 확인하고 첨부파일 열면  
 성원중학교 사진과 교장의 사진. '장학재단 이사 이진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학생의 사진과 프로필. 이름 칸에 '이소진' 적혀  
 있다.

성원중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주희. 3학년 1반 시간표 뜨고.

한참을 훑어보더니 휴대폰을 집어 든다.

주희 (상대방 전화 받으면) 오늘 낮 2시.

전화를 끊고 모니터 바라보면 성원중학교 3학년 1반 시간표 보인다.

목요일 6교시 과목에 '체육' 적혀 있다.

## #42 성원중학교 전경(낮)

오래되어 보이는 중학교 외관.

### #43 성원중학교 교장실 안

우르르 들이닥치는 검찰. 선생님들 놀라고 학교는 아수라장이 된다.

교장 (벌떡 일어나) 지금 뭣들 하는 것이야!  
현수 (유유히 교장의 앞으로 걸어나와 영장 들어 보이며)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 시작하겠습니다.  
교장 (!!)

### #44 성원중학교 운동장

검사들이 박스를 들고 왔다 갔다 한다.  
체육복을 입고 있는 아이들. 뭐지? 싶어 수군거리며 쳐다본다.  
그사이, 묵묵히 그 모습을 주시하고 있는 한 여학생.  
#41 사진의 소진이다.

### #45 3학년 1반 교실 안

현수, 소란을 틈타 텅 빈 교실로 들어간다. 학생들 물건을 뒤지다 창가 끝쪽 자리에서 '이소진'이라 적혀 있는 교과서를 발견한다.  
서랍을 뒤지는데 찾는 게 없는지 인상을 찡그리는 현수.  
밖에서 우당탕 소리 들리자 마음이 급해지고 가방을 뒤집어 쏘는데 떨어진 물건들 중 갖가지 큐빅과 태슬이 달린 케이스가 꺼진 휴대폰이 나온다.  
씩 웃는 현수.

### #46 학교 근처 / 주희의 차 안

운전석에 주희가 앉아 있고 곧, 보조석 문이 열린다.  
보조석으로 들어오는 현수.

주희 찾았어?  
현수 이거 진짜 확실한 거 맞지?

주희 어차피 너도 이진명 뇌물조사 하고 있던 거 아니야?  
현수 그치. 거의 백편데... 증거가 없단 말이야. (곰곰이 생각하는) 제일 이상한 건 동기를 전혀 모르겠단 거고... (확 보며) 하여간 이거 알려지면 너도 나도 모가지로 안 끝나는 거 알지?  
주희 (잘 안다) 너 정의 찾는 사람은 아니잖아.  
현수 증거만 있으면 되는 거 아냐?  
주희 (훗 웃는) 이게 내 정의야.  
현수 (달라는 손짓) 물증 줬으니까 넌 잡아 처넣기나 해.  
주희 (쥐야 하나... 고민하는데)  
현수 걱정하지 마. 책임은 내가 져.

현수, 주희의 변한 모습에 흠칫 놀라더니 훗 웃으며 소진의 휴대폰 건네준다.  
주희, 손안에 있는 휴대폰을 뚫어져라 보면,  
갖가지 큐빅과 태슬이 달려 있는 소진의 휴대폰 케이스.

플래시 컷2. #10. 신촌 원룸 안(동영상)  
동영상을 찍고 있는 여학생3의 휴대폰 케이스.

현수 연수원 땀 내가 그렇게 나주희 책임진다 했었는데 결국엔 니가 날 책임진다 하네. (장난) 근데 버스 떠난 거 알지? 나 애가 둘이야.  
주희 (인상 찡그리고 쳐다보며) 안 가?  
현수 (그럼 그렇지) 성질은. (문 열고 나가) 간다! 가!  
(진심으로) 조심해라.

현수가 문을 닫고 나가면 주희, 불안한 눈으로 휴대폰 화면을 연다.  
천천히 사진첩을 누르고 파일을 찾던 중 멈추는 손. 동영상 하나를 발견한다. 떨리는 손으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경(E) (겁먹은 목소리) 저기...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소진(E) 맞다... 애 송아영 껌딱지지? 애들아. (명령조) 혹시 모르니까 벗겨.  
경(E) (울부짖는다) 말 안 할게. 정말로!! 제발 이러지 마!

소진(E) 구질구질하긴... 니가 그러니까 평생 왕판 거야.

욕설과 경이의 비명 소리가 들려오고 충격에 빠진 주희가 손으로 입을 틀어막는다.

### #47 미애의 집 앞(저녁)

202호 앞에 서 있는 주희, 고민하다 초인종을 누른다.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 없고 문을 주먹으로 쿵쿵 두들겨도 대답이 없다.  
결국, 돌아서는 주희.

### #48 미애의 집 근처 골목

주희, 차가 주차된 으스스한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학생들의 소리 들린다.  
보면, 여학생 세 명의 무리가 한 학생을 툭툭 치며 위협하고 있는 게 보인다.

학생1 너 진짜 말이 안 통한다. 그냥 닥치고 들어가랬지. 거지 새끼 주제에.  
학생2 한 번만 더 입 병긋하면 그땐 진짜 인터넷에 풀어줄게.  
주희 (화나) 뭐야 너네!

주희의 목소리에 놀라 도망가는 학생들.  
주희, 달려가 피해 학생을 보는데, 경이다.  
흠칫하지만 동영상이 생각나고. 경, 눈물 고인 채 입술을 짹 깨물고 있다.

주희 (덤덤하게) 일어나.  
경 (눈물 터지는) 나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 내 말은 들어주지 않는 건데!! 왜!!

경이의 외침에 굳어버리는 주희의 모습에서...

현정(E) 왜 내 말을 안 듣냐고!!

### #49 과거 회상. 주희의 집 안

허름한 집 안. 교복을 입은 현정이 주희의 방문 앞에서 씩씩대고 있다.  
그런 현정을 무시하고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주희.

현정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언니는 나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주희 (눈길도 주지 않고 계속 공부하며) 시끄러워.  
현정 (비명 섞인) 나 안 흠뻑다고!  
주희 경고했다.  
현정 (분해 비명 지르는) 아아악!!!!  
주희 (책 신경질적으로 덮고 현정에게 다가가 뺨을 때린다) 닥쳐.  
이 양아치야. 니 말이 들을 가치나 있어?  
인생 망할 거면 너 혼자 망해. 내 발목 잡지 말고.

눈물 흘리며 주희를 노려보던 현정, 씩씩대며 집을 나간다.  
현관문을 열자 작고 바싹 마른 엄마가 서 있다. 초라한 행색.

엄마 (현정의 부은 뺨을 보고 놀라) 어...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현정 (엄마 행색 훑고 눈물 차는) 진짜... 지긋지긋해. (가버린다)  
엄마 허... 현정아...

엄마,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 잡지 못한다.  
들리지만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책을 펴는 주희.

### #50 과거 회상. 길거리

주희가 친구와 하교하고 있다.  
그때, 으스스한 골목에 현정과 미애를 포함한 여학생 무리가 보인다.

친구 야. 재 현정이 아니야?  
주희 (슬쩍 보는데 현정 보이고 표정 굳는)  
친구 (불안한) 재네 질 안 좋기로 유명한 애들인데... 어떡해?

주희 (한심한) 내비뒤. 차라리 없는 게 나.  
생하니 지나치는 주희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현정.

## #51 과거 회상. 주희의 집 안

공부를 하던 주희의 코에서 피가 떨어진다. 코를 틀어막으며 휴지를 찾기 위해 거실로 나가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린다.  
내심 현정인가 하는 생각에 휴지로 대충 피를 막고 달려 나가는데 형사가 서 있다.

형사 (흠칫하며) 마포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여기가 나현정 씨 댁 맞습니까?  
주희 네... (경계하며) 그런데 무슨 일로...?  
형사 나현정 씨가 집단폭행으로...  
주희 (인상 팍 쓰며 문 닫는) 그런 사람 몰라요.  
형사 (급하게 현관문으로 팔 끼며) 그게 아니라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주희 (얼빠진 얼굴로 다시 문 여는) 네...?

뒤에서 우당탕 소리가 들리고 돌아보면 엄마, 충격에 쓰러져 있다.

## #52 한강 공원

주희와 경이 한강 벤치에 앉아 빨대가 꽂힌 똥땡이 초코우유를 짹짹 빨고 있다.

주희 (한강만 보며) 왜 말 안 했니?  
경 (어이없는) 말하려 했다는 거 제일 잘 아실 텐데요.  
주희 (대답 못 하고)  
경 진작 말했으면 아영이가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라 생각하죠?  
근데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선생님도, 아줌마도...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주희 (착잡한 표정으로 여전히 한강만 보며) ... 내가 말했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넌 합당한 벌을 받을 거라고.  
경 (인상 찡그리며) 네?  
주희 (한결 가벼워진 표정으로 경을 보며) 합.당.한. 벌!

경, 어리둥절한 눈으로 쳐다보면 주희, 품에서 휴대폰을 꺼낸다.  
휴대폰을 내려다보는 경, 두렵지만 결심이 선 눈빛이다.

## #53 병원 앞(밤)

병원으로 들어가던 주희의 발걸음이 멈추면 정문 앞에 꽃을 파는 트럭이 보인다.

## #54 병원 복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현정의 병실로 향하는 주희.  
손에 들린 꽃을 보곤 슬쩍 미소를 짓는다.  
그때, 급하게 뛰어오던 간호사들이 주희의 어깨를 치고 지나간다.  
몸이 휘청이며 꽃을 떨어뜨리는 주희.  
뒤에서 오던 간호사들의 발에 꽃이 짓이겨진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의사와 간호사들이 현정의 병실로 들락날락하고 있다.  
주희, 공명상태가 되고 멍한 표정으로 병실을 바라보다 힘겹게 걸음을 떼다. 병실에 다다르면 현정에게 붙어 있는 의료진들이 보인다.  
동시에, 삐- 하는 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우고, 현정의 몸과 이어진 환자 감시 장치의 심박수가 직선을 그리며 수치 0이 된다.  
마지막까지 심장제세동기를 놓지 않던 의사마저 손을 놓고 고개를 푹 숙인다. 그대로 주저앉는 주희의 눈동자가 텅 비어 있다.

## #55 장례식장 안

국화 뒤로 밝게 웃고 있는 중학생 현정의 영정사진이 보인다.  
상복을 입은 주희가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멍하니 사진을 보고 앉아 있다.

그때, 조문객의 인기척이 들리고 주희가 힘겹게 몸을 일으킨다.  
고개를 돌리면 미애다. 주희, 믿을 수 없어 눈이 커지고 곧, 분노에  
눈동자가 흔들린다. 미애, 눈물을 떨구며 고개를 푹 숙인다.

주희 (달려가 힘없는 주먹으로 마구 두들겨 패는) 니가 어떻게…  
어떻게 여길 와! 어떻게 니가!!  
미애 (묵묵히 맞으며 눈물 흘리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주희 니가 죽인 건 현정이뿐만이 아니야. (분노에 떨리는) 넌 우리 엄마도  
죽였고… 나도 죽였어.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미애 죄송… (눈물이 멈추지 않고) 죄송합니다…  
주희 (악에 받쳐) 당장 꺼져!!

소란에 달려온 사람들. 주희를 말리고 미애를 부축하며 간다.  
힘없이 부축받으며 발걸음을 떼는 미애의 시야에 하얀 운동화가 들어온다.  
고개를 들면 멈춰있는 미애.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경이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미애를 노려보고 있다.

미애 겨… 경아…

경, 고개를 돌리면 독기에 찬 주희와 눈이 마주친다.  
재빠르게 뒤돌아 뛰어나는 경.

## #56 꿈. 주희의 집 안

현정(E) 왜 내 말을 안 듣냐고!!

현정의 외침에 주희가 눈을 뜨면, #49와 같은 상황.  
보면 열여덟의 주희,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하는 중이다.  
획 고개를 돌리면 방문 앞에서 씩씩대고 있는 현정이 보인다.  
주희, 믿을 수 없어 떨리는 마음으로 천천히 일어나 현정의 앞으로  
걸어간다.

주희 (두 손으로 현정의 손 덱석 잡는) 허… 현정아. 말해! 말해봐.  
언니가 들어줄게. 다… 다 들어줄게!

그 순간, 화나 있던 현정의 얼굴이 슬픔에 가득 찬다.  
열여덟의 주희가 서른여덟의 주희로 바뀌고 현정은 주희의 손을 획  
뿌리친다. 그러곤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뒤돌아 현관으로 향한다.

주희 (얼빠져) 현정아…  
현정 (대답 없이 가는)  
주희 어디 가… (다급하게) 가지 마!  
현정 (현관 앞에 우뚝 선다)  
주희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달려가는데 더 멀어진다) 언니가…  
언니가… 이제 다 들어줄게… (울컥) 용서해줘… (결국 눈물 터지고)  
응?  
현정 (돌아보는데 주희를 가엾게 바라본다)  
주희 용서해줄 거지?

현정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 떨어지고… 이내,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린다.

주희 (절망해 주저앉아 끼이끼이 우는) 약속했잖아… 대답해준다고…

## #57 병원 앞 한강(새벽)

가슴에 하얀 리본을 단 주희, 한강을 바라보고 있다.  
한참 후, 싸늘한 얼굴로 소진의 휴대폰을 물속으로 던진다.  
강 깊숙이 잠기는 휴대폰.

## #58 장례식장 안

힘없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오는 주희.  
현정의 영정사진에 재배하고 있는 형구가 보인다.  
형구, 뒤돌면 주희가 보이고 착잡한 얼굴로 다가온다.

형구 (안아주고) 미안하다. 일이 바빠서 이제야 왔네…  
 주희 괜찮아요…  
 형구 (안쓰러운) 힘들지? 당장 오늘 낮이 재판인데… 재배당하자.  
 끝나면 꼭 쉬다 와.  
 주희 아니요… 재판… (힘없지만 결연한) 제가 마무리하고 싶어요.  
 형구 (못 말릴 것 같아 한숨 푹 쉬고 어깨 다독이며) 간다.  
 주희 교수님.  
 형구 (돌아보면)  
 주희 … 저는 나쁜 판사예요.

아무 말 없이 주희를 바라보는 형구.  
 주희와 형구의 뒤로 국화 속 밝게 웃고 있는 현정의 영정사진 보이고…

### #59 법원 전경(아침)

### #60 주희의 사무실 안

결연한 표정으로 법복을 입는 주희.  
 법복 왼쪽 가슴에 하얀 리본을 꽂는다.  
 그때, 노크 소리 들리고 킁 기사가 들어온다.  
 실무관, 킁을 받아 주희에게 건넨다.  
 주희, 뜯어보는데 현정과 미애의 사진.  
 그리고 프린트된 작은 기사 한 장이 들어 있다.  
 20년 전, 현정의 사건이 실린 꼭지 기사.  
 그리고 프린트된 편지에는, “판사로서의 자격이 의심되는군요.  
 현명한 선택 부탁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실무관 (다가와) 뭘니까? (주희 손에 들린 편지 보고 버럭) 아니!  
 감히 어떤 놈이 대한민국 판사님을 헐박해!?

주희, 대꾸 없이 편지 보다 급하게 사무실 문을 연다.  
 복도를 빠져나가는 킁 기사의 모습이 보이면,

주희 저기요!  
 킁 기사 (돌아보는)

### #61 법원 복도

재판장을 향해 뚝뚝뚝 걸어가는 주희.

### #62 방송국 안

킁 기사에게 작은 박스를 전달받는 여기자.

### #63 재판장 안

법대에 앉아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주희.  
 주희를 노려보는 경이의 눈에는 배신감이 가득 차 눈물이 서려 있다.

주희 (경이에게 눈길 한 번 안 주며) 더 제출할 증거는 없나요?  
 변호사 (형식적으로) 네. 이상입니다. 그저 어린아이의 실수를 보듬어주시고  
 새롭게 발돋움할 기회를,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64 방송국 안

책상에 앉아 박스를 뜯어보는 여기자.  
 아리송한 표정으로 보면 박스 안엔 작은 휴대폰 유심칩이 하나 들어 있다.

주희(E) (냉정한) 그럼 판결하겠습니다. 가해자 윤경은 피해자 송아영을  
 불러내 감금하고 친구들과 함께 잔인하게 폭행했습니다.

### #65 재판장 안

주희 라이브 방송을 지시해 폭행 장면을 송출하는 등 죄의식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피해자는 의식불명인 채



누워 있지만 가해자 윤정은 법정을 모욕하는 등 단 한 치의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담당 판사를 피습하기까지 한 바, 본 법정은 재발의 우려가 있다 판단하여…

그때, 문 밖에서 기자들의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온다.  
경이를 포함한 재판장 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으로 향하고,  
동시에, 문이 광 열리며 기자들이 쏟아지듯 떠밀려 들어온다.  
쫓아내려는 법원 관계자들이 얽히며 재판장 안은 아수라장이 된다.

## #66 공항

소진, 여권에 미국행 티켓을 끼워 넣는다.  
입국을 위해 게이트로 향하는데 누군가 어깨를 퍽 잡는다.  
소진, 돌아보면 두 명의 남자 형사.

형사1 (경찰배지 보이며) 마포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소진 (당황) 네?  
형사2 (무시하고 손에 수갑 채우며) 이소진 학생. 귀하는 폭행과 강요죄를 범한 현행범으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합니다. 변호인 선임 및 체포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진, 냇이 나가 있는데 수군거리며 경악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린다.  
고개 돌리면 공항 TV 화면에 자신이 찍은 동영상이 나오고 있다.

## #67 병원 라운지

미애, 큰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원으로 들어온다. 손에 들린 꾸깃꾸깃한 종이 펼치면 “송아영 306호” 적혀 있다. TV 앞에 웅기종기 모여 있는 사람들로 발걸음을 옮기는 미애. TV 화면엔 #66의 공항 TV 화면에 나오던 뉴스 이어져 나오고 있다.

경(E) (겁먹은 목소리) 저기… 이리다 정말 큰일 나겠어…  
소진(E) 맞다… 애 송아영 껌딱지지? 애들아. (명령조) 혹시 모르니까 벗겨.  
경(E) (울부짖는다) 말 안 할게. 정말로!! 제발 이리지 마!  
소진(E) 구질구질하긴… 니가 그러니까 평생 왕판 거야.

미애의 눈에 모자이크 된 동영상 이 보인다.  
경이의 비명 소리가 병원을 울리면,

소진 (카메라 넘기며) 야 들고 있어봐. (화면에 모자이크 처리된 소진 나오고 경이에게 다가가며) 너넨 왜 말로 하면 못 알아듣나? (억지로 경이 옷을 벗기면 화면 까만색으로 변하고 목소리만 나온다) 너도 입 조심해. 안 그러면 이 동영상 인터넷에 짹 깔아버릴 거니까!

미애, 과일 바구니 떨어뜨리고 주저앉아 끼이끼이 운다.  
사람들, 미애를 이상하게 훑긱훑긱 보고…

뉴스(E) 방금 전, 저희 JTN이 신촌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가해자로 알려진 윤모씨의 피해 사실과 실질적 주도자인 이씨의 범행 현장이 찍힌 장면으로…

## #68 재판장 안

뉴스(E) 이 동영상은 30분 전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방송국에 전달됐습니다. 아직까지 제보자의 신상은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홀로 태연히 앉아 있는 주희의 얼굴에서 혼란스러운 #65의 재판장으로 이어진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던 경이가 번뜩, 주희를 향해 고개를 돌리는데,

주희 (또박또박 입모양으로) 뭘 꼬라봐.

아수라장 속. 경과 주희만이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주희의 얼굴에 얇은 미소가 일고 곧, 경이도 웃 하고 웃음이 터진다.

### #69 형구의 사무실 안(저녁)

노크 소리가 들리고 주희가 사무실로 들어온다. 머리를 부여잡고 책상에 앉아 있는 형구에게 다가가는 주희. 품속에서 사직서를 꺼내 내민다.

형구 (놀라 쳐다보며) 뭐 하는 짓이야?  
 주희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형구 나판이 책임질 일 아니야. 그냥 우리 법원에서 실수...  
 주희 (O.L.) (법복을 벗어 책상에 올리며) 판사로서 해선 안 될 선택을 했어요.  
 형구 (제보자가 주희임을 직감하고) 설마 너...!?  
 주희 (꾸벅 인사하고 뒤돌아가는)  
 형구 (멍하니 보다 다급하게) 나판!! 어... 어디 가려고.  
 주희 (뒤돌아보는데 한결 가벼운 표정) 들어주려요.

주희,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가면 처음 보는 주희의 표정에 얼빠진 형구. 한참 동안 닫힌 문을 바라보며, 블랙아웃.

### #70 주희의 차 안(낮)

주희, 운전을 하며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있다.

라디오(F) 대한일동당의 이진명 의원이 지난 25일 산학재단 최고장에게 1억 원의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졌습니다. 서부지검 강현수 검사는 이번 비리 사건이 신촌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였다 밝혔습니다. 이에, 가중처벌을 적용, 엄중한...

현수의 이름이 나오자 훗 웃음이 나는 주희. 라디오를 끈다.

### #71 동백복지원 앞

작은 학교 같은 건물이 보이고 알록달록 귀여운 그림으로 채워진 담벼락이 보인다. 정문으로 주희의 차가 들어가면 문 옆에 '동백복지원'이라 붙어 있다.

### #72 동백복지원 운동장

주희, 차에서 내리면 좁은 운동장이 보인다. 운동장을 향해 걸어가면 몸이 불편한 아이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다. 그 사이에 봉사자 조끼를 입은 경이 아이들을 돌보며 함께 어울리고 있다. 전과 확연히 다르게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는 경. 주희를 발견하자 흠칫 놀라는 경이의 얼굴에 곧 미소가 인다.

### #73 동백복지원 운동장 스탠드

주희와 경, 똥땡이 초코우유를 들고 나란히 앉아 있다.

주희 사회봉사 한 일주일 남았니?  
 경 (빨대 쪽쪽 빨며) 열흘이요. 재판 후로 처음 보네요. 판사님.  
 주희 이제 판사님이라 부르지 마. 그만둔 지가 언젠데...  
 경 진짜 그만둔 거예요? (살짝 눈치) 혹시... 저 때문이에요?  
 주희 아니야. 난... (생각하다) 나쁜 판사였거든.  
 경 (바라보다) 난 판사님이 좋은 판사였는지 어쨌는진 잘 모르지만... (확신하는) 절대 나쁜 판사는 아니었어요.  
 주희 (경을 보다 마음이 편해져 훗 웃고) 알려줄 소식이 있어서 왔어.  
 경 (가웃하고 쳐다보면)  
 주희 아영이가 깨어났대.  
 경 (놀라 커진 눈에 눈물이 고인다. 곧 주희를 껴안고 엉엉 울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신 반복하며 눈물 콧물 흘리는 경이를 내려다보는

주희. 곧 조심스럽게 경이의 뒷머리를 쓰다듬는다.

주희 (안 들리는 작은 목소리) 미안... 미안해.

## #74 에펠로그. 납골당(저녁)

야외 납골당 중간 칸에 '나현정'이라는 금색 패가 붙어 있다.  
양옆으로 드라이플라워가 붙어 있고 이름 위엔 교복을 입은 주희와 현정의  
사진이 걸려 있다. 그 앞에 서서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주희.

주희 언니 잘한 거 맞지? (조용하고) 이젠... 용서해줄래?

주희의 말이 끝나도 조용하다. 주희 그럼 그렇지 하며 훗 웃는다.  
그때, 세차게 불어닥치는 바람에 주희의 옷과 머리가 나부낀다.  
놀라며 손으로 바람을 막는 주희. 바람이 그치고 정신없이 머리를  
정리하던 주희의 눈에 현정과 주희의 사진 위로 들꽃이 붙어 있는 게  
보인다.

주희 (울음을 참으며) 나쁜 년... (얇게 웃는) 이제야 대답해주네.

살라며 부는 바람에 주희의 머리카락도 살라며 움직인다.  
납골당에 홀로 서 있는 주희의 모습이 화면에서 점점 멀어지고,  
노을이 떨어지는 하늘로 무수히 많은 꽃씨가 날아오르면...

끝.

작가 후기 처음 오픈 당선 소식을 들었을 때 놀랍고 기쁜 마음보다 두려운 마음이 더 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쁜 판사는 단 한 번도 수정을 거치지 않았던 날것 그대로인 작품이었고 사실 접수를 하지 않으려 했던 작품이었기에 수정 방향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를 어떻게 고쳐야 할지' '이 무거운 주제를 내가 얼마나 잘 다루고 전달할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졌었지만 막연하고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그 후, 이나정 감독님과 멘토링을 하며 나쁜 판사의 초고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큰 흐름, 소년법과 주희의 딜레마 중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춰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둘 중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써보자!'라는 마음으로 먼저, 소년법에 초점을 맞추고 수정을 했습니다. 끝을 내고 보니 대본 속에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첫 수정은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덕분에 내가 진짜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메시지가 명확해지니 전보단 수월하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함께 고민해준 이나정 감독님과 오픈 작가님들에게 감사하고, 늘 아픈 손가락이었던 작품 나쁜 판사에게 기회를 주신 오픈에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이라는 뜨거운 이슈를 다루면서 가르치거나 한쪽에 편드는 대본은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작품이 모두를 공감시키는 작품이 되진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누군가에게는 상처로 남지 않는 작품이 되길 바랍니다.

# 소년

(少年)

류솔아

---

## 작의

최근 들어 청소년 범죄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다. 그들의 악랄하고도 잔인한 폭력 수준은 물론이고, 그런 그들이 도피(?)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까지도.

일부 그들의 만행은 청소년의 짓이라기엔 끔찍하지만, 법은 그들의 머리가 아직 다 자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인과 동등한 강도의 처벌을 하지 않는다. 문제는 그다음에 시작된다. 일부, 아니 어쩌면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그 법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받는 대우를 너무도 잘 알고, 그것을 악용한다.

소년법. 어떻게 그것에 다가가야 할까. 이 글에는 ‘소년법의 뒤에 숨어 폭력을 휘두르던 학교폭력 가해자’와, ‘그런 가해자를 죽인 후 그 법을 이용하고 싶지 않아 하는 피해자 진혁’이 등장한다. 그들을 보며, 사람들이 ‘현재 제도가 가져야 할 방향성’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

## 등장인물

### 김진혁(17세, 남)

학교폭력 피해자이자, 가해자를 죽인 살인자. 그냥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싶어서 죽였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핏김에 나온 용기일 뿐. 그를 죽인 후, 아직도 학교에 남아 있는 가해자들이 두렵다.

### 여은정(38세, 여)

여성청소년과 팀장 형사. 사람을 죽이고도 반성하지 않는 진혁의 모습에 분노하지만, 진혁이 그간 당해온 폭력에 대해 알게 되며 안타까움을 느낀다. 진혁에게 정말 잘못이 있는 걸까, 혼란스럽다.

류솔아

gina8901@naver.com

- 2016 • 충무로 단편시나리오 공모전 입상
- 2017 • 이탈리아 극단 DYNAMIS 인턴
  - 서울예술대학교 공모전 연연제 영상대본 부문 당선
- 2018 • 청춘나눔창작연극제 희곡 공모전 당선(미아리고개예술극장 낭독극 공연)
  - 오픈 드라마 부문 당선

이철희(17세, 남)

학교폭력 가해자. 영리하고, 악랄하다. 어른들의 눈에는 그저 말 좀 안 듣는 문제아이지만, 진혁의 앞에서는 180도 돌변하여 악마가 된다. 반 학생들 중 그 누구도 철희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자이다.

정소연(17세, 여)

학교폭력 가해자이자 철희의 친구. 우리의 폭력이 어른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는 방법에 대해 항상 생각한다. 영악한 인물.

한민규(17세, 남)

학교폭력 가해자이자 철희의 친구. 철희의 아래에서, 행동대장 역할을 종종 한다.

최유미(17세, 여)

진혁네 반 반장. 진혁에게 안쓰러운 마음을 느끼지만, 설불리 돕지 못한다.

담임(40세, 여)

진혁네 반 담임선생님. 학생들에게 큰 관심은 없다. 그저 조용히 1년이 흘러가기만을 바랄 뿐이다.

---

### 줄거리

어느 날 밤, 한 소년이 육교 위를 위태롭게 걷는다. 상처가 가득한 얼굴에, 더러워진 교복, 손에는 피가 흥건히 묻은 쇠파이프 하나. 그렇게 걸은 진혁은 경찰서로 찾아간다. 그리고 감정 없는 표정으로,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말한다.

피해자는 같은 반 친구였던 남학생.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형사 은정은 진혁에게 왜 사람을 죽였으며 추궁한다. 진혁은 그냥 죽이고 싶어 죽였다고, 자신이 죽인 게 맞지만 자신은 잘못된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은정은 그런

진혁의 입에서 반드시 잘못했다 말 나오게 하리라, 다짐한다.

그렇게 은정은 진혁의 행적을 따라나선다. 이야기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진행된다. 24시간 전, 진혁이 가해자를 죽이기까지의 끔찍하고도 치열한 하루가 그려지고, 은정은 진혁이 사람을 죽이게 되기까지 그가 겪었던 폭력에 대해 알게 된다.

그럼에도 은정은 진혁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기를 요구한다. 진정으로 잘못을 다그치기 위해서가 아닌, 진혁을 처벌의 무게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 그러나 진혁은 말한다. 그동안 나를 괴롭게 했던 그딴 법, 이용하고 싶지 않다고.

— 소년(少年)  
류솔아

### #1 육교 위(밤)

육교 아래로, 차들이 빛을 내며 뽕뽕 달리고 있다.  
육교 위를 천천히 걷는 진혁(17세, 남). 진혁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이고, 표정은 무덤덤하다. 발걸음을 떼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진혁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쇠가 땅에 끌리는 소리 들리고, 전체 모습이 보이면, 더러워진 교복을 입은 채 기다란 쇠파이프 하나를 바닥에 끌며 걷고 있는 진혁.  
쇠파이프에는 피가 흥건히 묻어 있다.  
웬지 위태로워 보이는, 계속 걷는 진혁의 모습 위로,

올라오는 타이틀. “少年”

### #2 지구대(밤)

평화로운 지구대 안. 문이 열리고 진혁이 들어선다.  
상처투성이 얼굴을 하고 피 묻은 쇠파이프를 들고 있는 진혁의 모습에, 경찰들, 흠칫 놀란다.  
진혁, 얼굴에는 여전히 감정이 없다.

진혁 … 죽은 것 같아요.  
경찰들 …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보는)  
진혁 제가… 죽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골치 아픈 듯 서로를 보는 경찰들.  
(E) 들려오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

### #3 공터(밤)

교복을 입은 남자의 시신. 머리에 피를 잔뜩 흘린 채 엎드려 쓰러져 있다.  
멀지 않은 곳에 경찰차가 사이렌 울리며 도착해 있고. 형사들과 감식반,  
사진을 찍으며 수사하는, 여러 사람들이 오가는 복잡한 현장.  
은정(38세, 여), 그 속에서 남학생의 시신을 보며 인상을 쓰는.

### #4 경찰서 / 취조실(밤)

진혁과 은정, 마주 보고 앉아 있다. 적막만이 감돈다.  
진혁의 얼굴에는 여전히 별다른 감정이 보이지 않는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  
은정, 그런 진혁을 뚫어져라 보다가,

은정 정말 니가 죽었어?  
진혁 … 네.  
은정 왜?  
진혁 그냥… 죽이고 싶어서요.  
은정 자수는 왜 했어?  
진혁 그냥… 제가 죽었으니까. 죽었다고 말한 건데요.  
은정 … 뭐?  
진혁 사람이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마땅하잖아요.  
은정 (어이없는) 하. 그건 나랑 생각이 같네.  
진혁 그런데 전…  
은정 ?  
진혁 전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진혁, 눈빛이 멍하고, 은정, 그런 진혁을 가만히 보다가,

은정 … 야.  
진혁 …  
은정 내가 이 바닥 10년째야. 너 같은 애들 잘 알거든.

진혁 ... (보면)  
은정 기다려. 내가 니 입에서, 잘못했단 말 나오게 해줄게.  
진혁 ...

멍하니 은정을 보는 진혁과,  
그런 진혁을 불만스레 보는, 정의감 넘치는 은정의 눈빛.

## #5 과거. 진혁의 집(밤)

자막. “24시간 전”  
반지하의 좁은 원룸. 변변찮은 가구도 하나 없이 행하다.  
옆으로 쪼그려 누워, 이불로 몸을 감싼 채 자고 있는 진혁. 얼굴은 상처 없이 깨끗한.  
그때, 쿵쿵거리며 문 두드리는 소리 들리고, 진혁, 더 깊숙이 이불 속으로 파고든다. 불투명한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검은 실루엣들.

철희(E) 야. 김진혁.  
소연(E) 진~혁아~  
철희(E) 안에 있는 거 알아. 문 열어.

진혁, 들리지 않는 척 미동 없으면, 밖에서 몇 번 더 쿵쿵대는 소리 들리다가,

철희(E) 아이, 이 새끼 또 귀찮게 하네. 야. 열쇠 너가 갖고 있냐?  
민규(E) 나한테.

짹짹거리는 열쇠 돌리는 소리.  
진혁, 제발 열리지 않기를 비는 듯 눈을 꼭 감는다. 그러나 문 힘없이 열려버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철희, 소연, 민규.  
모두 교복 차림이다.

철희 이 봐. 집에 있으면서 꼭 없는 척.

소연 야. 김진혁. 친구가 왔는데 문도 안 열어주냐? 서운하게.

민규, 이불로 둘둘 싸고 있는 진혁에게 달려가서, 이불을 걷어버린다.  
진혁, 여전히 눈 감고 있다. 절대 뜨지 않겠다는 듯, 꼭 감은 두 눈.  
민규, 그런 진혁의 뺨을 툭 때린다.

민규 일어나. 임마.  
진혁 ...  
철희 (그런 민규와 진혁을 내려다보며, 웃으며 다가오는) 놀러 가야지, 친구야.

진혁, 가만히 눈을 뜬다. 체념한 듯한 눈빛.

## #6 과거. 동네 슈퍼 앞(밤)

진혁. 혼자다. 쭈뼛거리며, 주변 눈치를 보며 슈퍼 안으로 들어가는.

## #7 과거. 슈퍼 근처(밤)

슈퍼가 한눈에 보이는, 지대가 조금 더 높은 곳.  
철희, 민규, 소연, 남들이 보지 못하게 숨어, 슈퍼 안으로 들어가는 진혁을 지켜보고 있다. 기대에 가득 찬, 재미있다는 듯한 그들의 표정.

## #8 과거. 슈퍼 안(밤)

진혁, 쭈뼛거리며 들어간다. 아주머니, 계산대에 앉아 있다.

아주머니 (슬쩍 보고) 어서 와.  
진혁 ...

진혁, 아주머니의 눈치를 보며 안쪽 음료와 주류가 있는 냉장고로 간다.  
과자 진열대에 가려, 아주머니가 있는 곳에서 진혁이 보이지는 않는 구조.



진혁, 천장에 달린 등근 거울로 아주머니의 눈치를 보면, 진혁에게 관심 없고 휴대폰만 보고 있는 아주머니의 모습.

진혁, 조용히 냉장고를 열고, 소주 두 병을 꺼낸다. 소주를 옷 속으로 숨기자, 옷이 불룩하게 나오고. 소리 없이, 과자 진열대를 지나가는 진혁. 슈퍼 문을 향해 걸어간다. 그때, 아주머니, 무심코 진혁을 본다.

아주머니   ??!

### #9 과거. 슈퍼 근처(밤)

슈퍼를 주시하는 철희, 민규, 소연.

소연       아씨 언제 나와. 안에서 술을 만드나.

민규       오늘은 성공할까?

철희       하겠나?

철희의 말에 킁킁대는 셋.  
그때, 슈퍼에서 진혁, 뛰쳐나온다.

소연       (작게 외치는) 나왔다!

불룩한 옷을 붙잡고 달리는 진혁, 그리고 곧바로 뒤를 따라 달려 나오는 아주머니.

철희, 민규, 소연, 아주머니가 달려 나오는 것을 보자마자 빵 터지며 웃는다.

진혁, 죽을힘을 다해 달리는 모습. 점차 멀어져가고.

쫓아가던 아주머니, 기력이 딸린 듯, 멈춰 서며,

아주머니   야 이 도둑놈의 새끼야!! 거기 안 서!

멀어져가는 진혁을 보며, 소리 죽여 낄낄대는 셋. 신나 죽겠는 듯.

### #10 과거. 거리(밤)

헉헉대며 뛰는 진혁. 뒤에 누가 오지는 않는지 확인하고, 아무도 오지 않자 안도한다. 옷 속에서 소주 두 병을 꺼내는 진혁. 온몸에 힘이 다 빠져 보인다.

### #11 과거. 공원(밤)

진혁, 소주 두 병 들고 가로등 아래 벤치로 향한다. 털썩 주저앉는. 지치고 짜증 나 죽겠는 듯 울상 짓다가. 소주를 까고, 소주를 벌컥벌컥 마시는데, 너무 쓴 듯 품 하고 뱉어버린다. 객객대고.

어느샌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유미(17세, 여). 이어폰을 낀고 가방을 메고, 단정한 교복 차림.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듯 멈춰 서 있다.

진혁 역시 유미를 발견하고.

유미       … (가만 보는)

진혁       … (고개 돌리는, 슬며시 소주를 등 뒤로 숨기는)

유미, 다시 갈 길 간다.

진혁, 멀어져가는 유미 뒷모습 보다가, 다시 소주 꺼내 조금 더 마셔보고. 긴장이 풀린 듯, 벤치에 누워버린다.

### #12 과거. 지구대(아침)

진혁, 곤히 자고 있다. 눈을 번쩍 뜨면, 진혁의 눈에 들어오는 지구대의 모습. 저마다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경찰들. 진혁, 교복 차림으로 소파에 쭈그려 누운 채다. 슬며시 일어나는 진혁.

경찰1      일어났나?

진혁       …

경찰1      기억은 나?

진혁 ... (고개 끄덕하고)  
경찰1 (어이없다는 듯 하! 하고 코웃음 치는, 다른 곳으로 가는)  
경찰2 어이. 이리 와서 앉아.

진혁, 눈치 보며 슬며시 일어나, 경찰2의 앞으로 가서 앉는다.

경찰2 학생이 뭘 배짱으로 술을 먹고 노숙을 해? 이름 뭐야.  
진혁 ... 김진혁이요.  
경찰2 주민번호.  
진혁 ... 020610... 30217...

경찰2, 컴퓨터에 작성을 하고.

경찰2 고1이네. 어린놈의 새끼가... 삼촌이 보호자야? 보호자 불러야 갈 수 있어.  
진혁 ...  
경찰2 (답답한 듯) 내가 대신해, 연락?  
진혁 (겨우 입 여는) 저...  
경찰2 ?  
진혁 담임선생님한테... 하면... 안 되나요.  
경찰2 ... (보는)

### #13 현재. 장례식장 / 빈소 안(낮)

누군가의 빈소 안.  
교복을 입은 학생들 여럿이 절을 하고 있고, 그 옆에서 40대 남녀(부모), 상복을 입고 주저앉아 있다. 오열하는 모.

모 아이고... 아이고 하느님... 왜 그 착한 애를...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우느라 말 잊지 못하고)  
부 (그런 아내의 어깨를 말없이 잡아주는. 역시 눈물 흐르는)

### #14 장례식장 / 빈소 앞 복도(낮)

소연, 빈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  
그때, 소연의 휴대폰 진동이 울리고, 소연, 전화를 받는다.

소연 어... 나 도착했어. 너 어딘데.

소연, 빈소 안을 힐끔거리며 두려운 표정으로 통화를 한다.

소연 ... 빨리 와.

### #15 경찰서 / 여성청소년과(낮)

은정.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보고 있다. 진혁에 대한 정보가 컴퓨터에 떠 있다. 그때, 동료 형사 민우(29세, 남), 자료 들고 은정에게 다가온다.

민우 팀장님. 국과수에서 연락 왔는데요, 파이프에 피, 피해자 피와 일치한답니다.

은정 (민우에게 자료 받아 보는, 무심한) 일치하지 그럼. 다를까 봐?  
민우 그리고... 파이프에서 다른 지문들도 많이 나와서, 지문 조회를 해봤는데,

은정 결과 안 뜨지?

민우 네. 미성년자요.

은정 친구들이겠지. (자료를 보다가) CCTV는?

민우 다 확인해봤는데, 사건 발생한 공터가 마침 사각지대더라고요. 종종 거기서 놀던 불량학생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 앞 도로에 CCTV가 있긴 한데, 공터로 들어가는지까지는 안 보이는 각도라서... 사건 추정시간 20분 전쯤에 자수한 학생이 지나가는 게 찍혔고요. 이후에 쇠파이프 들고 걸어가는 것도 찍혔습니다.

은정 자수한 애 혼자였어?

민우 네.

은정 혹시 모르니까. 그 전후로 지나가는 학생들은 없었나 다시 확인해봐.

아니다, 그냥 나한테 자료파일 보내줘. 그 주변 일대 전부.  
 민우 네. 아 그리고, 문제가 될 만한 게,  
 은정 ? (보면)  
 민우 파일에서, 피해자 말고 다른 사람 혈흔도 발견돼서요. 소량이긴  
 하지만.  
 은정 ... 다른 사람 혈흔? (느낌이 싸한)

## #16 유치장(낮)

누워 있는 진혁. 눈을 감고 있다. 얼굴과 머리의 상처 클로즈업.  
 새근새근 잠에 든 듯한 진혁. 편안해 보인다.

## #17 과거. 교무실(낮)

진혁, 고개를 숙이고 담임(40세, 여) 앞에 앉아 있다.  
 담임, 진혁을 보며, 답답하다는 표정.

담임 이게 벌써 몇 번째니.  
 진혁 ...  
 담임 진혁아. 이제 겨우 개학한 지 3개월째야. 벌써 이렇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 어쩌해. 선생님 힘든 거는 생각 안 하니?  
 진혁 ...  
 담임 하... 뭐 할 말 없어? 사고 쳐놓고, 죄송하다는 생각도 없어? 그래?!  
 진혁 ...  
 담임 너 자꾸 이런 식이면 쌤도 어쩔 수 없어. 마냥 봐줄 수는 없다는 말이야. 징계위원회 열고 이러면 너,  
 진혁 (말 자르는, 무덤덤하게) 전학 갈 수 있어요?  
 담임 ... 전학은 갑자기 왜?  
 진혁 ... 그냥...  
 담임 무슨 문제 있어?  
 진혁 아뇨, 그냥... 아니에요.  
 담임 전학은 안 될 거야, 아마. 멀리 이사 가지 않는 이상.

진혁 ...  
 담임 (한숨 쉬는)  
 진혁 그럼 자퇴는요?  
 담임 김진혁.  
 진혁 ...  
 담임 너 정말 왜 그러니. 조용히 학교생활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학교 다니기 싫어서 그래? 응? 학교생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보이고 그렇지? 니가 다 큰 것 같지?  
 진혁 ...  
 담임 진혁아. 너 아직 그냥 애야. 보호자 동의 없이는 자퇴도 맘대로 못 해.  
 진혁 ...  
 담임 하... 삼촌 연락은 돼?  
 진혁 ... (아래만 보는)  
 담임 니 환경이 다른 애들이랑 다르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이런 식은 곤란해.  
 진혁 ...  
 담임 무슨 말이라도 해야 내가,  
 담임, 답답한 듯 한숨 쉬고. 진혁, 아래를 보며 입을 꼭 다물고 있다.  
 입을 열 생각 없어 보이는 진혁.

## #18 과거. 교실(낮)

수업시간. 수학선생, 앞에 서 있고, 학생들, 조용하다.

수학선생 자, 10번 보자. 20퍼센트의 소금물 10그램과 10퍼센트의 소금물 100그램을 섞은 소금물의 농도를 A1퍼센트, A1퍼센트의 소금물과...  
 그때, 교실 뒷문 열리고 진혁, 들어온다. 말을 멈추고 진혁을 보는 수학선생과, 일제히 뒷문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학생들. 그 속에 철희와 유미도 있다.

수학선생 빨리 앉아라.

진혁, 비어 있는 맨 뒷자리에 앉는다. 수업 다시 진행되고, 학생들, 다시 앞으로 고개 돌리는데, 철희, 계속해서 진혁을 바라본다. 진혁, 눈빛을 느끼고 철희를 보면, 씨익 웃는 철희. 진혁, 철희에게서 시선 거두고, 그냥 책상만 바라본다.

시간 경과.

종이 치고. 하나둘 일어나는 학생들.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교실.

수학선생, 짐을 챙겨 교실을 나가고.

철희, 진혁에게 다가온다. 민규와 소연도 신나게 다가오는. 철희, 진혁의 옆으로 가면, 옆자리의 학생, 마지못해 비켜준다.

철희 (옆자리에 앉아, 비아냥거리며) 이제 왔냐?

진혁 ... (못 들은 척 책 정리하고)

철희 완전 양아치네 이거. 땡땡이도 치고.

진혁 ... 또 왜.

철희 (어이없는) 또... 왜?

민규 (진혁 뺨을 툭 때리는) 야. 뭐라 그랬냐?

진혁 ... (아래만 보는)

민규 (또 한 대 때리고) 뭐라 그랬냐고.

소연 그만 좀 해라. 진혁이가 니네한테 불만인 거 같은데.

철희 ? (소연 보는)

민규 ?! (역시 보는)

소연 아 한주먹거리 같은 것들이 나한테 자꾸 지랄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맞지 진혁아.

진혁 ...

소연 아니야?

민규 친구가 몰으면 말을 해 새끼야. (또 때리려고 손 올리면)

철희 (민규 손 막으며) 야. 됐어. 그만해.

민규 아 왜?

철희 진혁이 지금 우리가 어제 너무 놀려서 뼈졌나 보다.

민규 ... ?

철희 친구끼리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치? 진혁아.

진혁 ...

철희 우리가 어제는 미안했다. 우리 귀여운 진혁이, 혼자 도망가게 냅두면 안 되는 거였는데. (진혁의 양 볼을 두 손으로 잡는)

소연과 민규, 철희의 행동에 슬며시 미소 짓는다. 뭐 하려는지 안다는 듯.

진혁 ... 하지 마.

철희 아니 지금 화해하자고 이러는 거잖아. 미안하다 친구야. 용서해줘라 줘. 우리 귀여운 진혁이를 내가 서운하게... 근데, 니가 안 걸리고 잘 나왔으면 됐잖아... 어? 그럼 우리 다 좋았잖아. 안 그래? 친구야?

철희, 진혁의 볼을 잡은 두 손에 힘이 점점 실린다.

진혁, 괴로운 듯 으... 소리 나는 순간,

철희 (작게) 여기서 소리 지르면 재미없다.

진혁, 이를 악물고 꺾 참는다. 소연과 민규, 웃으며 보고, 철희의 힘도 점차 세지는데,

유미(E) 야. 이철희!

철희, 뭔가 싶어 뒤를 보고, 동시에 진혁의 볼을 잡고 있던 손의 힘도 빠진다. 어느새 학생들이 다 빠진 교실. 체육복 차림의 유미가 홀로 그들을 불만스레 보고 있다.

진혁, 철희에게서 빠져나와, 으... 하며 볼을 어루만진다. 눈가에는 눈물이 핑 돌았다. 파랗게 멍이 든 두 볼.

철희 (웃으며, 장난스럽게) 어. 반장 왜?

소연 무슨 불만 있어?

유미 ... (선뜻 말하지 못하는)

철희 불렀음 말을 해. (표정 굳히고) 왜, 너도 꺼줘?  
 유미 (진혁 가만 보다가) … 니네 빨리 안 나가? 다음 체육이야. 문 잠가야 되거든?  
 철희 (그럼 그렇지 하는, 자리에서 일어서는)  
 민규 (웃으며) 아 체육이야? 미안. 나갈게 지금.  
 소연 아 체육 싫은데… (갑자기 뛰어나가며) 맞다, 나 체육복 없는데!!  
 민규 (역시 뛰어나가며) 헐 나도!

민규와 소연, 이미 나가고 없고. 철희, “그런 건 미리미리 빌렸어야지.” 말하며, 진혁의 어깨동무를 하고 데려 나간다. 유미, 진혁을 슬쩍 보는데, 진혁, 유미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아래만 보고 따라 나가는.

## #19 과거. 운동장(낮)

학생들, 전부 체육복 차림이다. 운동장에는 남학생들이 우르르 모여 있고, 벤치에는 여학생들이 앉아 있다.  
 그리고 벤치 옆, 교복 차림의 진혁이 홀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고 있다. 체육선생, 축구공 하나 들고 와서 진혁을 툭 치며.

체육선생 김진혁. 일어나.  
 진혁 (말없이 일어서는, 얼굴에 빨갱게 피가 몰렸다)  
 체육선생 다음부터는 체육복 입고 와라.  
 진혁 … 네.  
 체육선생 따라와.

체육선생, 운동장의 남학생들에게 다가간다. 그 뒤를 진혁이 따른다.  
 어느새 남학생들 무리에 섞인 진혁.  
 철희, 진혁의 옆으로 다가오고, 철희의 체육복에는 ‘김진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

진혁 …  
 체육선생 (학생들에게 공 주며) 자, 팀 알아서 짜고 놀아라.

철희 (진혁에게 어깨동무하며) 난 진혁이랑 같은 팀!  
 민규 나도! 야 그냥 대충 반으로 나누자. 이쪽으로 올 사람?

남학생들, 반으로 나뉘어 서고, 철희, 나서서 인원수 세고. 스스럼없이 섞이는 철희와 민규의 모습 보인다.  
 벤치에 앉은 소연 역시 다른 여학생들과 웃고 떠든다. 전혀 위화감 없는. 진혁, 홀로 무표정하다.  
 게임 시작되고. 철희, 학생들 사이에 섞여 열심히 축구하는, 볼을 잡아 구석의 진혁에게 보내는. 진혁의 앞으로 공 굴러오는데, 진혁, 바라만 보고 있고.

철희 야! 뭐 해!  
 진혁 …

진혁, 뒤로 돌아 학교 정문 쪽으로 걸기 시작한다.

체육선생 야! 입마 너 어디 가! 일로 안 와!

진혁, 들리지 않는 듯, 계속 걷고. 남학생들, 자연스럽게 철희에게로 시선이 간다.  
 철희,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다시 웃으며 축구하고. 민규와 소연 역시 진혁에게 전혀 관심 가지지 않는다.

철희 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남학생들, 눈치 보다가, 하나들 다시 축구한다.

## #20 과거. 버스(낮)

버스에 앉아 창밖을 보는 진혁. 햇살이 따스하다. 눈을 꼭 감는 진혁. 진혁의 얼굴, 유치장 속 상처투성이 진혁 얼굴로 오버랩 된다.

#21 현재. 유치장(낮)

오버랩 되면, 눈을 감고 있는 평온한 진혁의 모습.

#22 학교 앞(낮)

은정, 텅 빈 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 걷는다. 학교 건물로 향하는.

#23 교무실(낮)

은정, 교무실 문을 열고. 진혁의 담임과 눈이 마주친다. 담임 앞에는 유미가 서 있다. 담임, 느낌으로 은정을 알아보고,

담임 아, 여은정 형사님?  
유미 ? (은정을 보는)

은정, 담임 향해 고개 꾸벅하고,

담임 (유미에게) 애들 자습하는 동안 떠들지 않게 관리 좀 해줘. 교실로 가봐.

유미, 담임을 향해 고개 꾸벅 숙이고 교무실 나가는.  
서로를 보는 담임과 은정.

담임(E) ...문제아였죠.

#24 상담실(낮)

마주 보고 앉아 있는 담임과 은정.

은정 ...  
담임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키던 애였어요. 걔 때문에 경찰서 가본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 가정환경이 안 좋아서 엇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부모님은 안 계시고, 삼촌 한 분 계신데 연락도 안 되는 것 같고, 네.

은정 성적은 뭐 당연히... 말도 없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는...  
담임 그런 애였어요.

은정 피해 학생과의 관계는,  
담임 글썄요. 저는 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눈을 피하는)

은정 ... (가만히 담임 표정 살피는)  
담임 애들이 워낙 표현을 안 해서, 아는 게 없네요 제가.

은정, 생각에 잠기는.

담임 저... 형사님.

은정 네.

담임 제가 상황을 잘 알진 못하지만, 지들끼리 싸우다 실수로 그런 걸  
거예요... 최대한 좋게, 조용히 끝낼 수 있도록...

은정 그건 제가 하는 일이 아니구요. 검찰 쪽으로 넘어가면 마땅한 결과가  
나겠죠.

담임 아... 네.

은정 그리고, 아무리 애들이라도 실수로 사람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담임 ...

은정 찻값은 치러야죠. 누구나.

#25 학교 복도(낮)

은정, 담임과 목례하고 걸어간다. 계단을 내려가기 위해 코너를 도는데,  
유미와 마주친다.

유미 저기요.

은정 ? (보는)

유미 김진혁은 지금 어디 있어요?

#26 과거. 부동산 앞(낮)

진혁, 터덜거리며 걷다가, 부동산을 발견한다.  
무언가에 홀린 듯,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진혁.

#27 과거. 부동산 안(낮)

중개인, 문 열리는 소리에 웃음 짓다가, 교복을 입은 진혁이 들어오는 걸 발견하고 표정 굳는.

중개인 (관심 없는) 무슨 일이에요, 학생?  
 진혁 ... 집 좀 볼 수 있어요?  
 중개인 어떤 집?  
 진혁 원룸이요... 반지하밖에 돈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중개인 누가 살 건데?  
 진혁 ...  
 중개인 학생이 혼자 알아보고 다니는 거야? 부모님 동의 가능해요?  
 진혁 ...

중개인, 대답하라는 듯 진혁을 뚫어져라 보고,  
진혁, 그런 중개인의 표정을 잠시 보다가, 그냥 부동산을 나가버린다.

#28 과거. 교실(낮)

시끌벅적한 교실. 담임, 앞문 열고 들어오자, 학생들 잠잠해진다.

담임 김진혁 아직 안 왔어?  
  
 학생들 학생들, 모두 말이 없고.  
  
 담임 체육시간에 갑자기 나갔다면. 어디 갔는지 누구 아는 사람 없어?  
 학생들 ...

담임 하... 진혁이랑 누가 친하지?

학생들, 역시 말이 없다. 누구도 담임 눈을 마주치지 않는.  
유미,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나 고민하는데, 그때, 번쩍 손 드는 철희.

철희 저요, 쌤.

손 든 철희를 보며 피식 웃는 소연과 민규. 다른 학생들, 다 고개 숙이고 있을 뿐이다. 유미, 그런 철희를 불만인 듯 본다.

담임 그래, 철희. 애 연락해봤니?  
 철희 연락을 안 받아요.  
 담임 너 종례 끝나고 쌤이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철희 냐!

#29 과거. 교무실(낮)

담임 앞에 앉은 철희. 공손한 자세다.

담임 진혁이랑 많이 친하니?  
 철희 네 뭐...  
 담임 뭐 서로 고민 같은 거 얘기할 정도로 친해? 밖에서도 만나고?  
 철희 어제도 같이 놀았어요. 근데 어제도 저희랑 놀다가 갑자기 가버리더라고요. 무슨 일 있는지는 저도 잘... 별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저희한테도.  
 담임 그렇구나. 누구누구 친한 거야?  
 철희 저랑, 민규랑, 정소연이요.  
 담임 어제 니들, 술 같이 마셨니?  
 철희 네? 아니요 쌤. 그럴 리가요.  
 담임 ... 철희야. 쌤은, 우리 반이 조용히 1년을 잘 보냈음 좋겠어. 그러면 만족해. 공부 잘하고 일등 하고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니. 큰 문제 안 만들면 그걸로 충분하지.

철희 … 그렇죠.  
 담임 진혁이가, 자퇴 얘기를 하더라고.  
 철희 … 자퇴요?  
 담임 니가 얘기 좀 잘 나눠봐. 쌤은 개가 안 그랬음 좋겠다.  
 철희 … 네. 선생님.

### #30 과거. 진혁 집 앞(저녁)

소연, 문을 두드리고 있고, 옆에는 철희, 민규 서 있다.

소연 진혁아~~ 문 열어봐 줘!

소연, 문을 계속 두드리는데, 인기척 없고.

민규 정소연, 비켜봐. (열쇠를 꺼내 문에 끼우며) 아니 이렇게 쳐들어가는 느낌 싫은데. 어차피 들어갈 거 좀 문 열고 환영해주면 안 되냐?

민규, 열쇠를 돌리자, 문, 쉽게 열리고.

### #31 과거. 진혁 집 안(저녁)

진혁 집으로 들어오는 철희, 민규, 소연. 텅 빈 집이 그들의 눈에 들어온다.

소연 뭐야. 어디 갔어?

민규 땡땡이치고 어딜 간 거. 학교 끝나면 재깍재깍 집에 가야지 학생이 말이야.

철희 들어가자 강. 라면 없나?

민규, 이미 찬장을 뒤져 냄비를 꺼내고 있는.

소연 라면에는 썬준데… (철희 보는)

철희 (소연 보며, 씨익 웃으며) 미친년.

### #32 과거. 거리(저녁)

아무도 없는 거리. 진혁, 휴대폰을 보며 홀로 걷고 있다.

휴대폰 통화 목록에는 '개새끼'에게 발신했으나 수신 거부당한 기록이 13건, 그 아래로는 저장되지 않은, 동일한 번호로 전화가 온 기록이 수십 건 기록되어 있다.

진혁, 다시 '개새끼'에게 전화를 건다. 신호음만 계속 들리고.

진혁, 멈춰 서서, 괴로운 듯 얼굴을 비빈다.

진혁 … 좀 받아라 이 개새끼야…

잠시 후,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고.

진혁 … 삼촌. 저 진혁이에요. 이거 들으면 연락 좀 꼭 주세요… 다른 게 아니고, 저 이사를 좀 가야 할 것 같은데… 보호자 동의를 필요하시죠. 사인만 한 번 해주시면… 귀찮게 안 할 테니까요.

담담하게 전화 끊는 진혁. 그때, 저장 안 된 번호로부터 전화가 오고. 진혁, 지긋지긋한 듯. 전화 거절해버린다. 다시 앞으로 걷는 진혁.

### #33 과거. 진혁 집 근처(저녁)

진혁, 지친 표정으로 집 근처에 도착한다. 불이 켜져 있는 집.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이고, 어렴풋이 시끄러운 소리 들려온다. 진혁, 가만히 집을 보다가, 다른 길로 걸어간다.

### #34 과거. 달동네 언덕 위(저녁)

터벅터벅 걷는 진혁. 언덕을 다 오르면, 아래 수많은 집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불이 켜져 노란빛을 내는 집들. 진혁, 한곳에 자리 잡고 앉아, 멍하니 아래를 내려다본다.

그때, 옆을 지나치는 어린아이(5세, 남)와 그의 어머니. 아이, 무언가를



재잘거리며 이야기하고, 어머니는 맛장구를 쳐주는 모습.  
그들을 멍하니 보던 진혁, 다시 아래 불빛들을 보고,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어보고, 슬픈 눈으로,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어본다.

### #35 과거. 진혁 집 안(저녁)

진혁,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은 없고 난장판이 되어 있는 집  
안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굴러다니는 라면 냄비와 그릇, 술병들, 종이컵,  
젓가락, 라면 가닥과 국물 등... 바닥에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다.

진혁 ... 제발 줌...

그때, 진혁에게 다시 걸려오는 전화.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로부터의  
전화다. 진혁, 전화 받으면,

철희(E) (취한 듯한) 친구야. 뭐 하나 빨리 안 받고!

진혁 ... 제발...

철희(E) 야 공터로 와. 놀자!

진혁 ... 제발 좀 꺼져 이 새끼들아!!!!

### #36 과거. 공터(저녁)

공터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 철희.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다. 일순간  
표정이 굳고. 공터의 전체 모습이 드러나면, 민규와 소연도 여기저기  
흩어져 앉아 있는 상황. 소연의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다.  
민규와 소연, 무슨 일이냐는 듯, 철희를 보는.

유미(E) 김진혁이 어디 있든... 여기보단 낫겠죠.

### #37 현재. 학교 앞 벤치(낮)

벤치에 앉아 있는 유미와 은정. 유미, 아래를 보며 조심스레 입을 연다.

유미 왕따였어요, 개.

은정 ... 왕따?

유미 친구 아무도 없었다구요. 이철희랑, 이철희 친구들 때문이에요.

은정 난 친하다고 들었는데.

유미 쌤들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고 싶은 거겠지.

은정 ...

유미 개들이 김진혁을 괴롭혔어요, 지겹도록. 아무도 도와주지도 못해요.  
끈지른 거 개들한테 들통나면, 김진혁이랑 똑같은 꼴 날 거 모르는  
애들 없거든요.

은정 ...

유미 개들은, 영악한 쓰레기들이예요.

은정, 생각에 잠긴다.

### #38 경찰서 / 여성청소년과(밤)

은정, 자리에 앉아 공터 앞 거리 CCTV 자료를 돌려보고 있다.

여러 날의 자료들이다. 진혁, 철희, 민규, 소연이 다 함께 걸어가는  
장면들이 노트북에 나오고 있다. 어느 날은 진혁이 맨 뒤에 따라가고, 어느  
날은 철희가 진혁의 어깨동무를 하고 가는 모습들. 그들의 표정까지는  
보이지 않아, 얼핏 보면 친한 친구 같아 보인다.

은정, 한숨 쉬며 CCTV 시간을 계속 조정하다가, 어느 부분에서 집중하며  
인상을 쓴다. 쇠파이프를 들고 걸어가는 진혁의 모습.

은정, 반대쪽 거리의 CCTV 시간을 앞으로 돌린다. 진혁이 공터에서  
나오기 몇 분 전, 화면에는 교복을 입고 뛰어가는 남녀의 뒷모습이 찍혀  
있다. 다급해 보이는 모습이다.

은정 ...

### #39 유치장 앞(밤)

은정, 진혁 앞으로 걸어오는.

진혁, 눈을 감고 누워 있다.

은정 ... 일어나.

진혁, 가만히 눈 뜨는.

### #40 취조실(밤)

은정과 진혁. 마주 앉아 있다.

은정 왜 죽었는지 말해. 다 알고 왔으니까.

진혁 그냥 죽이고 싶어서 그랬다고 몇 번을 말해요.

은정 복수한 거 아냐?

진혁 ?!

은정 괴롭힘 당했었다며.

진혁 아니에요.

은정 ... 정말 아니야?

진혁 ...

은정 도와주려는 거야. 지금.

진혁 ... 도와주려는 거라고요?

은정 그래.

진혁 뭘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데요. 내가 사람 죽인 건 변함없는데.

은정 ... 잘 아네.

진혁 (보면)

은정 너무 잘 알아서 어이가 없네. 맞아. 니가 당한 게 있다고, 니 죄가 씻기는 건 아니지.

진혁 ...

은정 근데, 그걸 아는 애가 사람을 왜 죽여... 그랬으면 안 됐어. 그리고 너는, 아직도 니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진혁 ... 잘못... 그래요. 다 내 잘못이야.

은정 ...

진혁 사람을 왜 죽여.

은정 ...

진혁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지. 그쵸.

### #41 과거. 진혁의 집(밤)

소주병, 한곳으로 치워져 있고, 냄비와 접시도 치워져 있는.

진혁, 바닥에 무릎 꿇고, 흘린 라면 국물을 닦고 있다.

그때, 문 벌럭 열리고. 손에 쇠파이프를 든 철희가 들어온다. 술에 취한, 잔뜩 흥분한 모습이다. 철희, 무릎 꿇고 앉은 진혁을 발로 찬다. 힘없이 엎어지는 진혁.

뒤이어 소연과 민규가 뛰어 들어온다. 흥분한 철희를 말리는 둘.

철희, 쇠파이프를 높이 쳐들고, 내려치려는데, 민규, 막으려고 쇠파이프를 붙잡는다.

철희 봐 이거!!

철희, 이성을 잃은 듯 민규로부터 벗어나려 몸부림치고, 그러던 과정에서 쇠파이프가 진혁의 머리를 스친다.

진혁, 머리를 감싸고 괴로워한다. 쇠파이프에 진혁의 피가 살짝 묻은.

철희, 계속 진정하지 못하고, 민규와 소연, 철희를 양쪽에서 붙잡는.

철희 봐! 이 새끼가 오냐오냐해주니까 뭐? 개새끼!?! 야, 새끼야. 내가 니 친구야? 친구다, 친구다 해주니까 진짜 친구 줄 알아!?

진혁 (웅크리고, 머리를 감싸고 괴로워하는, 덜덜 떠는)

철희, 계속 흥분해 진혁에게 달려들려 하고,

민규, 철희를 말리려다 안 되겠는 듯 철희의 얼굴을 주먹으로 친다.

민규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쇠�파이프 내동댕이쳐진다. 철희, 순간 정신이 든 듯.

민규 그러다 이 새끼 죽어!

철희, 민규를 보며 표정 굳는.

철희 ... 죽어? 그게 뭐?

민규 (당황한) ... 애 죽음 너까지 문제 된다고.

철희 ... 아... 내 생각 해주는 거냐?

민규 그럼, 너 생각하지. 이 새끼 걱정하겠냐?

철희 ... 고맙네.

민규와 소연, 난감한 듯 눈빛 주고받는.

철희 니가 대신 좀 때려보지, 그럼.

소연 ?!

민규 ... 뭐?

철희 내 걱정한다며. 나 대신 애 죽지 않을 만큼만 때려보라고.

소연 야. 이철희.

민규 ...

철희, 서늘한 눈빛으로 말없이 민규 보고.

민규, 철희를 보며 잠시 있다가, 무표정한 얼굴로 웅크린 진혁에게 다가간다. 진혁의 위에 올라타, 때리기 시작하는 민규.

음. 음. 하는 진혁의 소리와 민규의 주먹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철희, 말없이 그것을 보고 있고. 소연, 이 상황이 짜증 나는. 그러길 잠시.

소연 아 그만 좀 해!!

민규, 멈춘다. 피범벅이 되어 있는 진혁의 얼굴. 민규, 자리에서 일어난다.

말없이 진혁을 내려다보는 셋.

진혁, 눈도 못 뜬 채 바닥에 누워 괴로워하고.

철희, 쭈그려 앉아 진혁의 가까이로 다가가는.

철희 야.

진혁 ...

철희 니가 먼저 시비 건 거다.

진혁 ...

철희 담임이나 경찰한테 신고하거나 하면 알지. 니가 그래봤자 우리 보호처분 받고 끝나. 그 이후를 생각해.

진혁 ...

철희 내일 이 꼴로 학교 오기만 해. 상처 아물 때까지 학교 올 생각 마.

철희, 일어서서 가려다가, 다시 진혁 보고,

철희 참. 자퇴하고 싶다고 그랬다며. 담임이 나보고 너 고민 좀 들어주고 하라던데. 친구야. 고민 있음 나한테 털어봐. 그 정도도 못 들어주겠냐? 담임한테 가서 자퇴니 뭐니 이상한 의심 심어주지 말고. 알아들어?

철희, 일어서서 뒤돌아간다. 그때,

소연 잠깐만.

철희 ? (돌아보면)

소연 ... 우리 이대로 가도 돼?

철희 ...

소연 엘 믿냐고?

철희, 민규, 말없이 소연 보고.

## #42 과거. 진혁 집 앞(밤)

닫힌 문의 불투명 유리를 통해 보이는 안쪽의 실루엣.

진혁, 옷을 전부 벗고 서 있는 듯하다.

(E) 찰칵, 하는 카메라 셔터 소리.

### #43 과거. 육교 위(밤)

얼굴에 상처투성이인 진혁. 교복 차림이다. 육교 위를 위태롭게 걷는다. 그러다가 난간 쪽으로 가서 기대어 서는.

아래, 차들이 빠르게 달리고 있다. 한참을 바라보던 진혁, 결심한 듯 천천히, 난간 위로 오른다.

떨리는 진혁의 다리. 순간, 미끄덩하고. 진혁, 가까스로 육교 안쪽으로 떨어진다.

진혁, 사실은 너무 두렵고 무서운. 손이 덜덜 떨린다. 살았다는 생각에 안도하는, 눈에서 눈물이 마구 흐르기 시작한다.

난간에 기대어 꾸그려 앉는 진혁.

진혁 왜... 왜 내가 죽어야 해. 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죽어야 돼, 나는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는데! 잘못 있는 새끼들은 땡땡거리면서 잘만 사는데 왜 내가. 나는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 엄마... 엄마...

영영 서럽게 우는 진혁의 모습에서.

### #44 현재. 취조실(밤)

차가운 은정의 눈빛. 마주 앉아 있는 진혁을 바라보고 있다.

진혁 나는요, 계속 도망쳐야 했어요. 알아요? 도망칠 데도 없는데, 갈 데도 없는데... 그만 좀 도망치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그랬어요, 살고 싶어서.

은정 (가만히 보는)

진혁 나 도와주려는 거라고요? 그럼 적어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괜찮나 한마디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은정 ...

진혁 (울컥하는) ... 지금 당신도 그 새끼들이랑 똑같애. 내 입장은 단 한 번도 생각 못 하지.

은정

... 그렇다고 왜 개네들 죄를 니 죄로 만들어. 너는 너대로, 니 인생 살아가야지. 니 인생은 없어? 나중을 위해서라도, 나중이 어디 있어요? ... 대체 얼마나 더 참아야 그런 날이 오는데요.

진혁

진혁, 눈물 가득 찬 눈으로 가만히 은정을 보다가, 천천히 윗옷 단추를 풀기 시작한다. 셔츠를 열자, 멍과 상처가 가득한 진혁의 몸이 서서히 드러나는.

은정, 충격인.

진혁

이래도 다 내 잘못이야?

은정

(착잡한) ...

진혁

말해봐요 좀!

은정

... 그래.

진혁, 화가 나서, 책상을 광 내리친다. 절망스러운.

은정, 그런 진혁을 가만히 보는.

진혁

... 내 입에서 잘못했단 말 나오게 해준다 그랬죠.

은정

...

진혁

난 그 말, 이미 수도 없이 했어요.

### #45 과거. 공터(밤)

철희, 앉아 있고, 민규와 소연, 그 앞에 서 있다. 셋 다 기분이 좋지 않은. 민규, 쇠파이프 들고, 묻어 있는 진혁의 피를 닦아내고 있다.

민규

너는 눈이 갑자기 그렇게 도냐? 우리 아니었음 어쩔 뻔했냐고. 그 힘으로 그렇게 내려치면 바로 즉사야 진짜로. 우리 다 끝장이라고.

철희

(할 말 없는, 말 호리는) 그래도 안 죽었잖아...

민규

우리 덕에 안 죽었잖아, 우리 덕에! 다혈질 그거 좀 고치라고 몇 번 말해.

철희

아 알았다고.

소연 ... 한민규 너도 뭐 잘한 거 없어.  
 민규 ? (보면)  
 소연 거기서 애가 때린다고 때려? 그 앞에서 니들끼리 무슨 자존심 싸움하나?  
 민규 ...  
 소연 계산 좀 해가면서 놀자 우리.  
 철희 ...  
 소연 이철희. 알아들어?  
 철희 (버럭) 새끼야 내가 니 꼬봉이야?  
 소연 ?! (날카롭게 보면)  
 철희 ... 내가 알아서 한다고.  
 소연 ... 씨발. 그만 가야겠다.

소연, 돌아서서 걸어가고.

민규 하... 왜 자꾸 우리끼리 지랄이야?!

민규 역시 쇠파이프 던져버리고 따라간다.

## #46 과거. 거리(밤)

진혁, 걸어간다. 운 흔적과 상처가 얼굴에 가득한, 눈에는 독기가 서려 있다.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누르는 진혁.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지만, 익숙한 듯 망설임 없이 눌러 전화를 건다.

## #47 과거. 공터 앞(밤)

철희, 아직 제자리고, 민규와 소연 멀어져가고 있다. 철희, 홀로 남아, 짜증이 나는 듯 담배를 입에 무는데, 그때, 철희의 휴대폰 울린다. '김진혁'으로부터의 전화다. 철희, 뭔가 싶다. 받으면,

진혁(E) ... 어디냐 지금.  
 철희 ?

## #48 과거. 공터(밤)

진혁의 발자국 소리만 작게 들릴 정도로 고요하고 어두운 공간.  
 진혁, 점점 어두운 곳으로 들어간다.  
 멀리, 작은 불빛 보이고, 다가가면 담배를 든 철희가 앉아 있다.  
 그 앞, 조금 떨어진 곳에는 쇠파이프가 놓여 있다.

철희 (진혁을 발견하고, 담뱃불을 끄는) 뭐냐?

진혁, 서서히 철희에게 다가가는.

철희, 독기 품은 진혁의 눈빛에 살짝 움찔한다.

철희 (일어서며) 뭐냐고.

진혁, 철희의 가까이까지 다가가고, 쇠파이프 옆에 선다.

철희, 긴장한 채로 진혁 보고, 진혁, 역시 그런 철희를 보는. 눈에 눈물 살짝 맺힌. 둘 사이에 긴장감이 흐른다.

진혁, 한동안 말없이 철희를 보다가, 눈 내리깔고 털썩 무릎 꿇는다.

진혁 ... 미안하다.

철희 ... (그럼 그렇지 싫은, 안도하는) 뭐?

진혁 내가... 잘못했다고.

철희 하. 그치... 맞고 나면 정신이 들지. 뭘 잘못했는지 이제 알겠냐?

진혁 ... 다.

철희 (내려다보는)

진혁 ... 다 내가 잘못했어. 아까 너한테 욕했던 것도, 학교에서 너희 좀 더 살갑게 대하지 못한 것도. 담임한테, 자퇴니 뭐니... 쓸데없는 말 한 것도. 그리고...

철희 ...

진혁 3년 전에. 처음 너희랑 같은 반 됐을 때... 내가 너희한테 뭔가 맘에 안 들게 한 게 있다면... 그것도 전부 사과할게. 다 내 잘못이야. 처음부터 내가... 잘못된 것 같다. 전부. 그러니까... 용서해줘.

철희 ... 용서해야 돼, 내가?

진혁 ... (눈 내리깔고, 눈물 흐르는)

철희 야. 근데... 그냥 니가 이유 없이 맘에 안 드는 건, 어떻게 해야 용서가 되냐?

진혁 ...

**철희, 무릎 꿇은 진혁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쫓그려 앉아, 진혁을 바라보고.**

철희 말해봐. 내가 방법을 몰라서 그래. 어떻게 해야 용서가 되는지 말을 해주면, 내가 그렇게 해볼 거 아냐. 맞는 게 싫으면 우리 맘에 들게 노력을 하든가, 아님 강 꺼지든가. 맨날 알짱대면서 불쌍한 척하지 말고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철희, 진혁의 얼굴로 침을 툇 뱉는다. 진혁, 여전히 눈을 내리깔고, 답답히 손으로 얼굴의 침을 닦아낸다.**

**철희, 일어서고, 앉아 있던 자리로 돌아가려 뒤도는데, 진혁, 천천히, 옆에 놓인 쇠파이프로 손을 뺀다. 쇠파이프를 들어 올려, 조용히 일어서는 진혁.**

**진혁, 쇠파이프를 양손으로 붙잡고, 높이 들고, 철희의 뒤통수를 노려본다. 떨리는 진혁의 손. 철희가 뒤돌아보는 순간, 진혁, 철희에게 다가가려는데, 그때, 누군가, 뒤에서 진혁의 손목을 붙잡는다.**

## #49 현재. 취조실(저녁)

**진혁을 보는, 감정 없는 은정의 눈빛.**

은정 ... 더 말해.

진혁 ...

은정 잘못했다고, 반성한다고. 계속 말하라고.

진혁 ...

**은정의 눈빛, 간절하게 변한다.**

은정 이제부터 어딜 가든 그렇게 말하라고.

진혁 나는 잘못 없다고.

은정 잘못 있건 없건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란 말이야, 알아들어!!!?

진혁 ... (보면)

은정 알아듣냐고!!!!?

진혁 ...

은정 니가 왜 벌을 받아. 너 이렇게 만든 애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잘 먹고 잘 살 텐데 니가 왜...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 하루하루를 뒤우치며 살고 있다고. 그럼 어떻게든... 될 거야. 잘하면 소년원까지 안 갈 수도 있어... 법이 그래. 너도 알잖아.

진혁 ... (보는, 표정 굳은)

은정 미성년자는 전과기록도 안 남아. 벌 받지 말고 나와서, 멀리 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살아.

진혁 그딴 법 이용하기 싫어.

은정 ... 뭐?

진혁 ... 다섯 번.

은정 ?!

진혁 지난 3년 동안 내가, 그 새끼 신고한 횟수요. 그리고... 이철희는 또다시 돌아왔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은정 ...

진혁 내가 그동안, 그렇게 당하는 동안, 왜 말 한마디 못했는데요. 그 새끼들이 그딴 법 뒤에 숨어서 설치는 꼴 보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그러니까.

은정 ...

은정 그러니까 너도 니 살길 찾아야지.

진혁 ...

은정 살고 싶어서 그랬다며. 살고 싶다며... 내가 도와줄게.

진혁, 기진맥진한 표정으로 가만히 은정 보고.

은정 녹음 다시 시작할 거야.

진혁 ...

은정 그날 그때, 그 상황을 상세하게 이야기해줘야 해. 그때 거기, 둘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

진혁 ...

은정 정말로, 니가 죽었니?

진혁 ...

진혁, 눈물을 참으며, 떨리는 자신의 손을 보는.

## #50 과거. 공터(밤)

진혁, 쇠파이프를 양손으로 붙잡고, 높이 들고, 철희의 뒤통수를 노려본다.

떨리는 진혁의 손. 철희가 뒤돌아보는 순간, 다가가려는데,

그때, 누군가, 뒤에서 진혁의 손목을 붙잡는다.

진혁, 놀라 돌아보면, 민규다. 소연도 옆에 와 있는.

민규 이 새끼가...

철희 (뒤돌아보고, 직전의 상황을 깨닫고, 어이없는) ... 내가 불렀다. 부르길 잘했네.

민규, 쇠파이프를 빼앗으려 하는데, 진혁, 민규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쇠파이프를 더 꽉 쥐다. 아무렇게나 휘두르는 진혁.

민규, 순간적으로 몸을 움직여 피하고, 그 순간 쇠파이프에서 손을 떼다.

진혁, 더 꽉 쇠파이프를 잡고, 뒷걸음질 치며, 셋을 향해 쇠파이프를 겨눈다.

진혁을 경계하는 셋. 진혁과 셋 사이에, 긴장감이 흐른다.

진혁, 한참을 셋 바라보다가,

진혁 ... 사과해.

그런 진혁을 보는 셋.

진혁 지금이라도, 나한테 사과하라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러겠다고... 누구라도... 누가 그 한마디라도! 하라고 제발.

셋, 여전히, 말없이 진혁을 볼 뿐이다. 진혁, 점점 더 손에 힘이 들어가고, 손이 조금씩 떨어온다.

철희, 그런 진혁을 가만히 보다가, 피식하고 웃음이 나는. 혼자 웃음 짓다가, 점차 크게 웃기 시작한다. 재밌어 죽겠는 듯한 철희의 웃음소리. 민규와 소연, 뭔가 싶고, 진혁 역시 당황하는데,

철희 (웃음 간신히 진정하고) 아 저 새끼, 손 떨리는 거 봐.

민규와 소연, 그제야 진혁의 떨리는 손을 본다.

둘 역시 긴장 풀고, 조금 웃는.

진혁, 두려움이 사라진 그들의 모습에 당황스럽다. 쇠파이프를 잡은 손에서 힘이 조금 풀리고.

철희 재, 저걸로 사람 못 쳐.

그 말에 진혁, 겨누고 있던 쇠파이프를 서서히 내린다. 한 손으로 쇠파이프를 들고, 쇠파이프의 끝은 땅에 닿는다. 여전히 당황스러운 진혁의 표정.

철희, 비웃음을 입에 머금고, 보란 듯이, 진혁을 지나쳐 걸어간다.

철희, 조금씩 멀어지고, 진혁, 그런 철희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불현듯, 성큼성큼 철희에게 다가간다. 한 손으로 쇠파이프를 높이 들어 올리는데.

철희, 순간적으로 뒤를 바라보지만, 쇠파이프는 이미 철희의 머리를 향하고.

세게 내려치는 순간, 복잡한 감정의, 그러나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보이는 진혁의 눈빛에 이어,

## #51 현재. 공터(낮)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블랙아웃.

페이드인.

양손이 묶인 진혁, 양팔 형사에게 붙잡힌 채로 경찰 봉고차에서 내린다.

기다란 막대기를 받아 들고, 현장검증을 시작하는 모습이다.

그런 진혁을 바라보는 다수의 사람들. 몇몇은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몇몇은 웅성대기도 한다. 철희 부모 역시 진혁을 보고 있다. 철희 모, 이미  
많이 울어 기진맥진한 모습이고, 철희 부, 화를 주체하지 못한다.

철희 부 저 살인자 새끼!! 내 아들을 그렇게 만들고 어디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

진혁, 그들의 시선에 긴장되고 두렵다. 그럼에도 찬찬히 현장검증  
진행하는.

앞에 철희로 보이는 마네킹이 놓여 있고.

진혁, 앞으로 걸어가, 앞에 놓인 마네킹을 향해 막대기를 겨눈다.

그리고 그 순간, 현장검증을 구경하는 사람들 사이 서 있는 민규와 소연의  
모습이 진혁의 눈에 들어온다.

순간, 굳어버리는 진혁. 여기저기로 시선 돌리는데.

민규와 소연, 진혁을 가만히 바라본다. 그러다, 휴대폰을 들어 진혁의  
모습을 찰칵, 하고 찍는 소연. 쓴웃음 지으며, 경고하듯 휴대폰을 흔들어  
보인다.

진혁, 조금씩 손이 떨려오고. 진혁의 눈빛, 불안하게 흔들린다.

진혁, 사람들 틈에서, 은정을 찾는다. 경찰들 사이에서 자신을 보고 있는,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듯한 은정의 눈빛을 찾아낸다.

진혁의 불안하던 눈빛 점차 멎어지고. 조금씩 떨리던 손도, 잠잠해진다.

민규와 소연, 여전히 진혁을 노려보고 있고. 차분하게, 그러나 조금은  
두려운 눈빛으로 둘을 바라보는 진혁.

진혁 나는... 난...

진혁의 시선에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

진혁 ... 난 잘못 없어요.

웅성대는 사람들. 더욱 흥분하는 철희 부모.

은정, 화들짝 놀라 진혁을 제지하려 다가가는데, 앞의 사람들에게  
가로막히고.

진혁 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난 잘못 없어요. 우발적이지도 않았고,  
뉘우치지도 않는다고!

민규 (멀리서, 나지막하게) 미친 새끼...

진혁, 민규와 소연의 눈을 보다가, 철희 부모에게로 시선 돌리며,

진혁 죽이고 싶어서, 아니... 죽여야 해서 그랬어요.

은정, 절망하고. 철희 부모의 원망과 분노가 섞인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더욱 커지고. 그 모든 것이 뒤섞여, 진혁의 귀에  
들려온다.

진혁 (작게) ... 감옥 가게 해주세요. 그냥 감옥 가게 해주세요, 제발.

진혁, 눈을 있는 힘껏 감는다. 감긴 두 눈에서 눈물 흐르며.

끝.



당선작을 수정하며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이었습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했던 고민이기도 하고요. 누굴 죽일까를 고민하는 게, 사이코패스 말고는 작가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당선작은 철회가 죽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수정 과정에서 여러 피드백을 받으며 민규를 죽이는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두 이야기 사이에서 저는 한동안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그런 제게 많은 분들이 의견을 해주셨습니다. "앞의 버전은 이런 장단점이 있고, 뒤의 버전은 이런 장단점이 있어. 근데 선택은 본인이 해야지!" ...더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수정고를 버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처음 버전과 같이, 철회가 죽었습니다. 다른 건 다 제쳐둔 채, 오직 진혁이의 감정에만 집중하고, 상상하고, 따라간 결과였습니다. 제게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지점이 그거였으니까요.

철회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이 진혁이의 감정을 같이 느끼고 공감해준다면 철회도 자신의 죽음을 억울해하지마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갈 곳 없는 진혁이의 상처를, 이틀이란 짧은 시간 속에서나마 함께 아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중분을 내고 나니,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생각납니다. 애정 어린 시선으로 제 대본을 봐주시고 조언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 물비늘

# 이아연

---

## 작의

증오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여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누군가가 있다.  
사람들은 위로한다. 보란 듯이 잘 사는 게 진짜 복수라고.  
어떤 이는 그러겠지. 어차피 말로 안 될 거 돈이나 왕창 뜯어내.  
최악의 선택도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상처를 주자.

복수의 방법은 저마다 다르지만,  
내가 생각하는 '진짜 복수'는,

잊을 만하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내 상처가 더 깊어지는 것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이것은 복수의 이야기다.  
이것은 사랑의 이야기다.

이것은 잊히지 않는 기억의 이야기다.

---

## 등장인물

**윤슬(33세, 여)**

다소 거칠었지만 순수했던 열아홉 살을 잊지 않는 여자.  
잊을 만하면 고향으로 내려와 진철을 꾸준히, 사소하게 괴롭힌다.

**김진철(33세, 남)**

열아홉 살의 선택을 사과하지 않는 남자.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고요히 살아간다.

이아연

znqueen@hanmail.net

- 2007 • 계간지 한국문학 소설 「기본 좋은 날」 등단
- 한겨레 영화연출 부문 <오늘의 경기> 최우수상
- 2012 • CJ엔터테인먼트 영화 <41> 기획개발
- 2014 • 인천시 스토리텔링 공모전 우수상 트리트먼트 부문
- 영화사 시작 영화 <포졸의 탄생> 집필
- 2016 • 영화사 무비엔진 영화 <아버지의 전쟁, 각색>
- 네이버 웹드라마 <매칭! 소년양궁부> 극본
- 2017 •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애니메이션 부문
- 2018 • MBN 드라마 <커피야 부탁해> 극본
- 넷플릭스 <좋아하면 울리는> 극본
- 오픈 드라마 부문 당선
- tvN 드라마 스테이지 <물비늘> 극본

조아영(28세, 여)

누구에게도 미움 받지 않는 여자.  
조용한 남자와 미래를 약속한다.

---

줄거리

장례식장으로 들어서는 새파란 구두, 요란한 굽 소리... 1년 만에 고향을 찾은 윤슬이다. 친척들은 윤슬을 보며 인상을 찌푸리지만, 윤슬은 그런 시선을 무시한다. 영정사진에 절을 마치고 돌아선 윤슬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가득하다. 이번엔 또 어떻게 진철을 괴롭힐까...

서울에서부터 청주까지 택시를 타고 온 윤슬을 위해 대신 돈을 내주는 진철. 어느 날엔 6개월, 또 다른 때엔 3년, 이번에는 1년.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 모르는 윤슬이기에, 진철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 장례식 다음 날, 윤슬이 망가뜨린 차를 발견했을 때도 담담했다. 아니, 오히려 걱정이 되었다. 윤슬이 무슨 생각을 하며 차를 부셨을까...

은행원으로 일하는 진철을 찾아온 윤슬은 대기표를 잔뜩 뽑아 진철을 괴롭힌 후 태연하게 적금을 추천해달라고 한다. 그러자 진철은 윤슬에게 왜 남편과 이혼했는지 묻는다. 옆집 수저가 몇 개인지 다 아는 작은 소도시에 비밀은 없었던 것이다. 과거를 묻지 않았다는 윤슬의 대답에 진철은 말문이 막히고 만다. 너와 내가 '쌈쌈'이 되려면 어서 서둘러 결혼하고 이혼하라는 윤슬의 농담 반 진담 반에 고개를 끄덕이는 진철. 안 그래도 고등학교 선생님과 결혼할 거라고 고백하는데...

열아홉. 어른이라기엔 조금 모자라지만, 어리다기엔 이미 다 큰 나이에 만난 두 사람의 시작은 여느 학원몰과 다름없었다. 불량아와 반장으로, 뻘하고, 어설피고, 귀여운 시작점. 함께 순우리말을 사진에 담으며 마음을 키운 윤슬과 진철의 끝도 수면 위로 반짝이는 물비늘처럼 찬란했으면 좋았으련만, 두 사람의 엔딩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욱 비극이었다. 진철은 거기서 마침표였지만

윤슬은 그렇지 않았다. 상처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그녀에게 마침표는 없었으니까.

진철의 결혼 소식을 들은 윤슬은 이제껏 참석하지 않았던 동창모임에 나간다. 그곳에서 진철의 약혼녀 아영을 만난 윤슬은 그녀를 미워하고 싶지만 미워하지가 않는다. 오직 미운 사람은 진철뿐이라, 윤슬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뺨을 때리고 돌아서고... 진철과 아영이 웨딩촬영에 필요한 텍시도와 드레스를 맞추러 가자 윤슬은 샵 건너편에서 이를 지켜본다. 아영이 잠시 드레스를 고르는 사이, 윤슬의 전화를 받은 진철은 망설임 없이 아영을 두고 윤슬에게 향한다.

서로의 감정이 사랑인지 아니면 미움인지 알지 못하는 두 사람. 진철은 이 길고 나쁜 복수의 끝을 묻지만 윤슬은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데...

물비늘  
이야연

#1 시냇가(해질녘)

어두운 밤. 침묵만이 맴도는 찾길. 우두커니 서 있는 커다란 나무.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위로 헤드라이트의 불빛이 비추고 지나간다.  
시냇물, 불빛에 수면을 잠시 드러냈다가 이내 어둠 속에 잠긴다.  
그 위로 타이틀. “물비늘”

#2 길(해질녘)

어둠 속에 서 있는 진철을 향해 점점 가까워져 오는 헤드라이트의 불빛.  
양복 차림의 진철(33세, 남), 손을 들어 불빛을 가린다.  
멈춰 선 택시의 뒷좌석이 열리면 밖으로 나오는 새파란 구두. 새것인 듯  
흠 하나 없는 파란 구두를 신고 택시에서 내리는 윤슬(33세, 여).  
키는 작지만 눈빛이 살아 있는 윤슬, 키는 크지만 피곤한 눈빛의 진철,  
마주 서면...

진철 밥은?

윤슬 (대답 대신 택시를 향해 고갯짓하는)

진철 (창문이 열린 앞좌석을 향해 몸을 숙이며) 얼마예요?

윤슬, 진철이 계산하는 동안 혼자서 걸어간다.

또각또각 굽 소리를 따라 반대편 보면, ○○병원의 장례식장이다.

#3 장례식장(해질녘)

곡소리와 찬송가가 한데 섞여 들리는 장례식장.

완장을 찬 승재(30세, 남),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다가 윤슬을 보고

손을 든다.

승재 더 늦게 올 줄 알았더니?

윤슬 (다가오며) 택시 탔어.

승재 어디서부터? (혹시나 싶은) 설마 서울에서부터?

윤슬 (태연한) 두 시간밖에 안 걸리더라.

3호실 안을 쓱 들여다보는 윤슬,  
초췌한 표정의 외숙모가 조문객과 맞절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 위로 경찰의 영정사진, 40대 중반의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다.

승재 이럴 때보면 자식이 있긴 있어야 하나 봐.

윤슬 ...

승재 (괜히 말했다) 아니다. 외삼촌한테도 자식 있지. 국어! 국어가  
있잖아.

윤슬 ... 그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승재 화장. 여기 뿌리기로.

윤슬 (끄덕이며) 잘 생각했네.

승재 외숙모가 마을 입구 나무에다 뿌리자고 하시더라. 그게 우리 동네  
수호신이니까...

윤슬 (말 자르며) 안 돼. 그 나무 재수 없어.

승재 (뭔가 더 말하려고 하는데)

60대의 여자 친척, 나오다가 윤슬을 본다. 서로 불편하게 서 있는.

친척 (윤슬의 차림새 훑다가 구두에 시선 꽂히는) 너는 그게 뭐니?

윤슬 신발이 이것밖에 없어서요.

친척 (못마땅한) 그래도 그렇지. 장례식장 오면서...

윤슬 그럼 하나 사서 (승재를 향해 고갯짓하며) 애네 집으로 보내주세요.

친척을 지나쳐 3호실 안으로 들어가는 윤슬.

승재, 민망해하며 인상 쓰는 친척을 배웅한다.

뒤에서 이를 지켜보던 진철, 다가와 누워 있는 윤슬의 파란 구두를 잘 정리한다.

#### #4 장례식장 3호실 안(저녁)

술에 취해 목소리를 높이는 몇몇 조문객을 빼고는 조용한 실내. 음식이 담긴 상을 들고 온 진철, 탁자 위에 하나씩 내려놓는다.

진철 (윤슬 앞에 앉으며) 애들은 다 갔어.  
윤슬 (육개장에 밥을 말며) 알아. 그러니까 왔지.  
진철 너밖에 안 왔어?  
윤슬 엄마는 안 내려오지. 아닌가? 못 내려오는 건가? (밥 후루룩 먹는)  
진철 잠은?  
윤슬 (시선 주지 않은 채) 승재네. 외삼촌 방 비었잖아. (계속 밥을 먹는)

진철, 윤슬이 밥 먹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본다.

#### #5 장례식장 밖(밤)

장례식장에서 나와 걸어가는 윤슬.

진철(E) 저기!  
윤슬 (돌아보면)

진철, 쇼핑백을 내민다. 받아 드는 윤슬.  
진철, 말없이 돌아서 다시 장례식장으로 들어간다.  
진철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윤슬, 쇼핑백 안을 들여다보면 삼선 슬리퍼가 들어 있다.  
윤슬, 자신의 발뒤꿈치를 보는데... 살갓이 다 까져 있다.  
쇼핑백 안에 담긴 한 쌍의 슬리퍼로 향하는 윤슬의 시선. 무표정하게 보는데.  
윤슬, 쇼핑백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돌아선다. 또각또각 굽 소리를 남기며.

#### #6 진철의 방(아침)

진철, 커다란 화상 자국이 난 팔로 두 눈을 가리고 침대에 누워 있다. 그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진철 모의 신경질적인 비명 소리.

진철 모(E) (신경질적인) 도대체 누가 이런 거야. 누가!!!  
진철 (잠은 다 잤군... 자리에서 일어나는)

진철, 일어나 장롱을 열어 셔츠를 꺼낸다. 이때, 벌컥- 방문 열리며,

진철 모 진철아, 경찰서 좀 다녀와야겠다. (흥분) 어떤 놈이 글썽 차를... (진철 보며) 그러니까 엄마가 블랙박스 달아놓으라고 했잖아!!  
진철 (아무런 대답 없고 셔츠에 팔을 넣는)  
진철 모 (답답) 엄마 말 못 들었어?! 누가 백미러를 깨부셨다니까!! 당장 아버지 모시고 병원 가야 하는데 어떡해!!!  
진철 (셔츠를 다 입고 그제야 엄마 쪽 보며) 바퀴가 망가진 건 아니잖아.  
진철 모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다가 휴대폰 꺼내며) 안 되겠다. 일단 신고부터 하고.  
진철 (가만히 엄마의 손 막는)  
진철 모 애가 왜 이래?! (하다가 번뜩 생각이 난 듯) 설마... 깨 내려왔니?

출근 준비를 마친 진철, 가방을 들고 방에서 나온다.

#### #7 진철의 집 거실(아침)

진철 모 (따라 나오며) 개는 왜 자꾸 내려온다니?  
진철 외삼촌이 죽었잖아.  
진철 모 저번에는 누가 죽어서 내려왔던?  
진철 ...  
진철 모 뭐 먹고 산대?  
진철 (현관으로 가며) 출판사 다닌대.  
진철 모 애는?

진철 (신발장 열며) 없대.  
 진철 모 (멈춰 서며 화내는) 그걸 니가 다 왜 알아. 왜 아냐고.  
 진철 (잠시 우두커니 신발들 바라보다 검은색 구두 골라 들며)  
 진철 모 알지 마. 하나도 알지 마. 알겠어?!

검은색 정장 구두에 발을 넣는 진철을 매섭게 보는 진철의 어머니.  
 그 뒤로 휠체어를 탄 진철의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낸다. 중풍의 흔적이 느껴지는.

진철 모 그만 좀 하라 그래!! 다음엔 꼭 경찰에 신고한다고...  
 진철 (말 자르며 자조적으로 웃는) 할 수 있으면 해. 신고.

아무런 말 없이 바라보는 아버지를 향해 꾸벅 인사하고 나가는 진철.

## #8 시냇가(아침)

부는 바람에 붉게 익은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린다. 가을의 청명한 아침.  
 검은 스타킹에 파란 구두를 신은 윤슬, 커다란 나무 앞에 서 있다.  
 나무의 겉면에 날카롭게 베인 자국들. 그것들을 천천히 쓰다듬는 윤슬.  
 그 위로 여고생의 웃음소리, 목 놓아 우는 소리, 악에 받쳐 지르는 비명이 들린다. 손으로 나무의 소리를 듣다가 동작을 멈춘 윤슬, 가을 햇살이 떨어지는 잔잔한 시냇물로 시선을 옮긴다.  
 이내 굳은 표정으로 돌아서는데 빠르게 튀어나온 나무의 거친 면에 스타킹이 쓸린다. 윤슬, 내려다보면.

## #9 버스정류장(아침)

검은 스타킹의 올이 풀려 있다.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는 윤슬, 곤란한 표정이다.  
 버스가 한 대 서고, 내리는 사람들. 그중에 아영(28세, 여)이 있다.  
 아영, 스타킹을 만지작거리며 두리번거리는 윤슬의 앞을 지나치려다,

아영 (돌아와 윤슬의 옆에 앉으며) 이 근처에 슈퍼가 없어요.  
 윤슬 (아영 보며) ... ?

아영, 가방을 한참 뒤적이다가 두꺼운 사인펜 하나를 꺼내 든다.  
 윤슬은 뭔가 싶어 아영을 보는데,  
 아영, 대뜸 윤슬의 올이 나간 스타킹에 사인펜 칠을 하기 시작한다.

윤슬 어? 괜찮... (말리지 못하는)  
 아영 가까이서 보는 거 아니면 크게 티 안 나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윤슬, 이 여자가 뭐 하나 싶다가 가만히 보니 정말 크게 티가 안 난다.  
 올이 나간 자리에 검은 칠을 마친 아영.

아영 (펜 뚜껑 닫으며) 됐다. (펜으로 멀리 사거리를 가리키며) 저기 한참 내려가면 편의점 있거든요. 거기서 스타킹 사시면 돼요.  
 윤슬 (아영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아영 (윤슬에게 사인펜 건네며) 혹시 없을 수도 있으니까.  
 윤슬 (영겁결에 받아 드는)  
 아영 (자리에서 일어나며) 너무 칠하시면 안 돼요. 저번에 나가는 족족 칠했더니 나중에 스타킹 벗고 보니까 (발 들어 복숭아뼈 가리키며) 여기까지 길게 칠해져 있더라고요.  
 윤슬 (피식) 고마워요.

싱그럽게 웃는 아영, 뒤돌아서 간다.

## #10 은행(아침)

인서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소형차.  
 한쪽 백미러 깨진 채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다.

중년의 손님이 많은, 지방 소도시의 은행 풍경.

손님을 응대하는 은행원들이 나란히 앉아 있고, 끝자리에 진철이 있다. 기다리는 손님을 부르는 딩동- 딩동- 벨소리 속에서 진철의 목소리가 들린다.

진철 (벨 누르자 딩동) 87번 고객님 (둘러보는데 없는) 87번 고객님? (벨 누르는) 88번 고객님. (몸 일으켜 고개 빼며) 88번 고객님.

89번. 90번. 91번... 계속해서 이어지는 벨소리와 고객을 찾는 진철의 목소리.  
근무하는 은행원들, 진철을 쳐다보고, 손님들도 자신의 번호를 확인한다.

진철 100번 고객님. (이번에도 없나 하고 넘기려는데)  
진철의 앞에 서 있는 윤슬, 뽑아놓은 번호표를 데스크에 잔뜩 올려놓는다.

진철 (올려다보며) 밥은?  
윤슬 (자리에 털썩 앉으며) 적금 좋은 거 있으면 하나 추천해줘.  
진철 이혼했다며.  
윤슬 어디서 뭘 들었는지 옛날 일을 묻더라고. 감당도 못 할 거면서. (어깨 으쓱) 난 거짓말은 안 하잖아.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줬지.  
진철 ...  
윤슬 (손으로 턱 괴며) 평범하게 산다는 건 뭘까? (하다가 태연히 목 뒤를 긁적이며) 그게 뭐든 난 안 되는 것 같아.

진철, 잠시 가만히 있다가 옆에 꽂힌 종이를 하나 꺼내 윤슬에게 내민다.

진철 이게 이율이 제일 높아. 한 달에 100만 원씩 넣으면 1년에 12만 원 붙어.  
윤슬 오... (하며 약관을 훑어보면서) 너는 안 해, 이혼?  
진철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이혼이야.  
윤슬 그러니까. 빨리 결혼하고 이혼해. 그래야 나랑 썸썸이지.  
진철 (가만히 윤슬 보는) ...

윤슬 (약관 보며) 카드로 한 달에 60만 원 이상만 쓰면 이율 더 쳐주네...  
진철 그래서 나도 하려고.  
윤슬 (종이에 신상명세 쓰며) 뭐? 이혼?  
진철 그 전에 결혼.

쓰던 동작을 멈춘 윤슬, 고개 들어 진철 본다.  
진철과 윤슬, 팽팽한 두 사람의 시선 속에서 들리는 벨소리 딩동-

## #11 과거. 버스 안(아침)

딩동- 벨소리 오버랩 되며.  
유리창에 얼굴 딱 붙인 채 침 질질 흘리며 자고 있는 윤슬이 보인다.  
앞머리를 실핀으로 넘긴 윤슬, 열아홉의 어린 모습인데... 그 얼굴 위로,

방송 (정거장 안내하는) 이번 정류장은 열림고 사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현대슈퍼 앞입니다.

버스가 서고, 학생 몇 명이 내린다.  
다시 출발하는 버스 안에는 몇 안 되는 노인들과 아줌마가 썰렁하게 앉아 있다.  
그제야 눈 어설피게 뜨는 윤슬. 주변을 둘러보다가 눈 동그랗게 뜬다.

윤슬 (정류장을 놓쳤다!) 어? 어? 잠깐만요!

## #12 과거. 건물 뒤(아침)

후미진 건물 뒤. 쭈그리고 앉은 어린 승재와 친구1, 2. 담배를 입에 가져가려는데.  
어디선가 날아온 실내화 주머니가 승재의 뒤통수를 때린다.

승재 (머리 움켜쥐며 날카롭게 돌아보는) 뭐야?!  
윤슬 (양손 주머니에 찢러 넣고) 나다.

히익~! 화들짝 놀란 3인방, 앉은 채로 뒷걸음질 친다.  
긴 스커트에 맨투맨을 입은 윤슬, 승재 3인방을 스윽 본다.

윤슬 아침들은 자셨냐?  
3인방 (동시에 고개 설레설레)  
윤슬 (쿵쿵거리며) 그래서 아침 대신 구름빵을 드신다?  
3인방 (담배 비벼 끄며 더 강렬하게 설레설레)  
윤슬 (다가가며) 1교시는 그냥 농땡이시다?  
3인방 (더 뒷걸음질 칠 곳이 없는)

3인방 앞에 쭈그리고 앉아 손바닥을 내미는 윤슬.  
승재가 탄창을 피우자 윤슬, 스윽! 한다. 윤슬의 손바닥 위로 올라오는  
담뱃갑.  
어헤! 윤슬, 한 번 더 경고하자 손바닥 위로 빨간 말보로 세 갑이 탁! 탁!  
올라온다.

### #13 과거. 길(아침)

칼라 깃 하나 구겨지지 않게 깔끔히 교복을 입은 남학생의 뒷모습.

윤슬(E) 앞으로 니들이 꼭 지켜야 할 세 가지를 알려줄게.

남학생, 건물 뒤쪽의 작은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승재 3인방 앞에 쭈그리고 앉아 혼계하고 있는 윤슬이 보인다.

윤슬 아침은 꼭 챙겨 먹어라. 한국인은 밥심이니까. (말보로를 들어  
보이며) 국산을 애용하자. 대한민국 만세!  
3인방 (뭔가 이상한데... 고개 갸웃하면서도 손가락 두 개를 접는)  
윤슬 그리고 교복 똑바로 입어. 니들은 줄여 입으면 구려. 특히 너.  
(친구2의 너무 딱 달라붙는 바지) 아침부터 버린 내 눈 어쩔 거야.  
(세 사람을 가리키며) 니들 학교 농땡이 칠 생각들 말고. 대갈뺨에  
피도 안 마른 중뺨리 놈들이 빠져가지고.

승재 (손가락 네 개 접은 손을 보여주며) 세 가지라며. 네 가진데.  
윤슬 네 가지면 네 가지 다 지켜!! (실내화 주머니 들고 때릴 듯) 이걸 확!

실내화 주머니를 뒤로 획 짓히는 윤슬. 아뿔싸! 손잡이를 놓쳤다!  
뒤로 휘릭! 날아가는 실내화 주머니와 이어지는 남학생의 비명 소리. 약~!!

### #14 과거. 학교 앞길(아침)

교복 입은 남학생의 뒤를 따라가는 윤슬.

윤슬 (눈치 보며) 반장! 괜찮아? 뚝배기에 정통으로 맞은 거 같던데.  
(대답 않자) 일부러 그런 거 절대 아니다.  
진철 (뒷모습 보이며 걸기만 하는)  
윤슬 내가 또 다구리 이런 건 안 하거든. (대답 않자) 야! 반장! 대답 좀  
해봐.  
진철 (멈춰 서며) 나 반장 아니야!  
윤슬 선생님들이 다 너 반장이라고 부르던데. (깨달은) 헐. 너 이름이  
반장이었던 거야? 박반장? 김반장? 아니면 성이 반... 이름이 장...?  
진철 (짜증 난) 다 아니야. 다! 반장 아니라고!!

신경질적으로 돌아선 남학생, 열아홉의 진철이다. 주르륵 흐른 코피  
자국이 선명한.  
헉! 진철의 코피 자국 보고 놀란 윤슬, 말하려는데,  
교문 앞에서 등교지도 중이던 여선생, 뭔가 싶어 두 사람에게 다가온다.

여선생 (신입 티가 나는) 무슨 일인지...  
윤슬 (예의 바르게) 안녕하세요. 제가 애 누난데 새 학년 등교일이라  
데려다주러 왔어요. 몸이 워낙 약해서...  
진철 (뒤려는 거야... 윤슬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여선생, 코피가 흐른 진철의 얼굴 보며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얼렐레... 선생님까지 왜 이래... 이해가 안 가는 진철의 당황스러운 표정.



윤슬 3학년 몇 층이죠?  
 여선생 3층이에요.  
 윤슬 (고개 꾸벅하며) 감사합니다. (진철에게 팔짱 끼며) 가자, 반장.  
 진철 (팔짱 풀려고 하며) 반장 아니라니까!!!

## #15 과거. 교실 안(낮)

코에 휴지를 꽂고 있는 진철, 자리에서 일어서 있다.

경출(E) 올해 3학년 2반은 김진철이 반장으로 수고해주기로 했다. 박수!

박수 치는 학생들 사이에서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의기양양한 표정의 윤슬.  
 교탁 앞에 선 경출, 학생들 둘러보다가 윤슬에게 시선 박히며,

경출 윤슬! 너 교복을 어따 팔아먹었어?  
 윤슬 (당당한) 시내에다 팔아먹었습니다.  
 학생들 (웃는)  
 경출 (출석부로 가리키며) 따라 나와. 수업 끝!

경출이 앞문으로 나가자 입을 삐죽거리며 뒷문으로 나가는 윤슬.  
 이를 보며 진철에게 다가오는 학생1, 2.

학생1 (진철의 어깨에 손 얹으며) 고생길이 열리셨구만.  
 학생2 고생길? 아니지. 저승길이지. 저승사자가 까꿍 하는 게 여기까지 들리네.  
 진철 (뒤래... 하는 시선으로 보는)  
 학생2 재가 윤슬이잖아. 동에 번쩍, 서에 번쩍. 그 윤슬!  
 진철 (여전히 모르겠다는 표정인데)  
 학생1 우리 반장님은 계속 스카이반이시라 서민들 사정을 모르는구나.  
 학생2 너 정섭이 기억 안 나? 2학년 때 3반 반장.  
 진철 알지, 정섭이가 왜.

진철, 잠시 가웃하다가 이내 뭔가 기억이 떠오르며 경악한 표정으로 변하는데.

학생1 (진철의 어깨 토닥토닥) 그래... 원형탈모... 그게 윤슬 때문이잖아. 스트레스 받아서.

진철, 머리를 움켜쥐기 시작한다.

학생1 (학생2에게) 야, 가위 좀 가져와봐. 어차피 빠질 거 머리 삭발하자.

벌떡!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서는 진철.

진철 (머리 쥐며) 개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 #16 과거. 교무실(낮)

윤슬 (태연한) 심심해서요.  
 경출 그러니까. 심심해서 교복을 안 입고 오셨다?

교무실 안. 고개를 끄덕이는 윤슬을 보며 한숨을 푹 내쉬는 경출.

경출 주머니 다 뒤집어봐.

윤슬, 당당하게 일어나 스커트의 주머니를 뒤집어 보인다. 먼지만 탈탈 터는.  
 지나가던 중년 여선생, 긴 자로 윤슬의 맨투맨 뒤를 들추면, 뒤춤에 꽂아놓은 담배 세 갑이 보인다.

윤슬 (씨... 걸렸다) 진짜 제 거 아니에요. 저 서양 거 안 펴요. (아차 싶은)

종이 뭉치를 들고 교무실로 들어온 진철, 경출의 옆으로 다가온다.

진철 선생님. 이거 특별활동 지원서 모아온 건데.  
경찰 어. 그건 거기 두고, 복사기 위에 있는 거 가져가서 애들 나눠줘.

진철, 윤슬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더듬는다.  
벌써 빠진 건 아니겠지 싶은.

경찰 알아. 너 국산만 피는 거. 승재가 자기만 당할 수 없다고 전해달래.

윤슬 승재 이 자식... 지금 끈대한테 야리 털고 하이방 잤다 이거지?  
내가 진짜 이번엔 아봉해버린다.

경찰 (고개 갸웃하며) 끈대까진 알겠는데. 야리... 하이방? 아봉...?  
진철 (윤슬의 말 해석하는) 승재, 이 자식, 지금 선생님한테 담배를 이르고  
도망쳤다 이거지? 진짜 이번엔 아가리 봉인해버린다.

윤슬 (눈 치켜뜨고 쩌려보자)

진철 (입 다무는)

경찰 어쩔 너는 하는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비단결같이 곱니.

경찰, 윤슬의 생활기록부를 들추기 시작한다.

경찰 바른 말을 쓰지 않고 매사에 불만이 많음. (넘기고) 운동신경은  
뛰어나나 운동은 하지 않음. 표현이 거침. (넘기고) 활발하다.

윤슬 (어둡던 표정 밝아진)

경찰 근데 활발해도 너무 활발하다. 표준어에 대한 이해력 부족함.

윤슬 (이내 표정 어두워지는)

경찰 바른 표현 쓰고 살라고 이름도 순우리말로 지어놨는데. 이래서  
쓰겠니?

윤슬 윤슬? 이거 우리 아빠가 자주 갔던 술집 이름인데?

경찰 (하...) 내가 담임이 된 이상 이대로 지켜볼 순 없다. 새 학년, 새  
학기를 새로운 벌로 시작해보자.

윤슬 (새침하게) 저 고3이에요. 공부해야 하는데.

교무실에 있던 선생들이 동시에 품-! 웃자 입술을 삐죽이는 윤슬.  
경찰, 책 한 권을 툭 던진다. 『신나는 우리말 여행』 지은이 박경출.

윤슬 (책 들여다보며) 이걸로 뭐 어떻게 하라구요?

진철 (프린트물 챙겨서 교무실 나가려는)

경찰 (진철을 향해 고개 돌리며) 반장. 사진부지?

## #17 과거. 동아리실(낮)

인서트.

뚜껑을 열면 통에서 나오는 새 필름. 필름의 끝에 난 구멍을 카메라 내부의  
홀에 맞추는 손길. 탁 소리 나게 카메라 후면을 닫고, 드르륵- 필름을  
감는다.

경찰(E) 순우리말과 뜻,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걸 사진으로 찍어오도록.  
이렇게 순우리말을 의미 있게 익혀서 고운말 바른말을 쓰도록 한다!  
실시!

탈각! 첫 방을 찍을 준비를 마치는 소리와 함께 끝나는 경찰의 목소리.

인서트 끝.

아담한 사진부 동아리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진철과 그 옆에 서 있는 윤슬.

진철 (셔터) 여길 누르면 찍혀. (손잡이 레버) 여길 감아서 또 찍으면 되고.  
(윤슬 보며) 몇 장 찍어야 된다고?

윤슬 (불만 가득한) 50장. 아니, 근데 이걸 내가 왜 해야 하는 건데.

진철 (불만 무시) 50장이면 두 통 정도 쓰면 되겠다. 인화는 사진관에  
맡겨.

윤슬 (만사 귀찮은) 뭘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으니깐 일단 쥐봐 봐. (손  
내밀면)

진철 (카메라 뒤로 빼며) 이걸 왜.

윤슬 나 카메라 없어.

진철 사달라고 해, 그럼! 왜 니 숙제를 내 카메라로 해.

윤슬 ... 나 가난해서 카메라 못 사.

진철 (약간 당황스러운) 어…?  
 윤슬 (슬픈) 난 돈도 없고 교복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 아… 아빠도 없어…  
 진철 (괜히 미안한) 야…  
 윤슬 (그 틈을 타 카메라 빼앗는) 이진 어떻게 찍는 건가? 이렇게 하나?

진철, 카메라를 뺏으려 하자 도망치며 손길 피하는 윤슬.  
 그러다 떨어뜨릴 뻔하자,

진철 야! 그거 아빠가 일본에서 사다준 거야!  
 윤슬 (급 불쌍한 척) 넌 좋겠다. 아빠 있어서…  
 진철 불쌍한 척하지 마!  
 윤슬 (올 제법인데) 오… 역시 반장이라 두 번은 안 속네?  
 진철 시끄럽고. 빨리 내놔. (카메라 잡으려고 하면)  
 윤슬 (좋은 생각이 난) 너 사진 잘 찍는다며. 니가 후딱 찍어주면 되겠다!  
 그럼 난 과제 금방 마쳐서 좋고. 넌 카메라가 무사해서 좋고.  
 누이 좋고~ 누나 좋고~!  
 진철 (뒤통…) 누이 좋고, 매부 좋고고… 거기서 내가 좋은 지점은 어딘데?  
 윤슬 휴~ 반장, 왜 이래.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처럼. (진철 머리를 보면)

진철, 자기도 모르게 머릿통을 붙잡는다. 소중한 내 머리카락…

윤슬 전심 썼다! 내 아무런 사고도 치지 않으며. 네가 반장하는 2학기 내내.  
 진철 (의심의 눈초리)  
 윤슬 투명인간처럼 살아주겠어. 숨만 쉬고 조용~히. (여전히 반응 없자)  
 싫으면 할 수 없지. 내가 저번 피구 시간에 불링공 가져가서 반장 머리를 깨먹을 뻔한 적이 있는데…  
 진철 … 진짜지? 숨만 쉬고 조용히?  
 윤슬 (덤석 무는) 진짜. 숨만 쉬고 조용히! (카메라 내밀면)

진철, 의심스럽게 보다가 카메라 잡는다.  
 마주 선 채 카메라를 잡고 있는 두 사람.

## #18 은행 앞 정자(낮)

다시 현재.  
 유부초밥이 담긴 도시락과 사과를 가만히 보고 있는 진철.

윤슬 독 안 넣었어. 먹어.

커터칼을 드르륵 민 후 사과를 깎기 시작하는 윤슬.  
 날카로운 칼날 끝으로 사과 껍질이 길게 벗겨져간다.

진철 (유부초밥 먹으며 윤슬 보는)  
 윤슬 (사과 깎으며) 예뻐?  
 진철 (가만히 먹기만 하는)  
 윤슬 착해? (여전히 대답 없지만) 일은 뭐 하는데?  
 진철 선생님.

속살을 모두 드러낸 사과를 조각조각 자르는 윤슬.  
 그러다 커터칼로 진철의 허벅지를 찔 찌른다.  
 약! 진철의 짧은 비명 이어지면,

윤슬 (태연하게 자리에서 일어서며) 듣다 보니까 화나서.  
 진철 (허벅지 감싸며 신음하는)  
 윤슬 오버하지 마. (칼심이 모두 들어간 커터칼 끝을 보여주는)  
 진철 (허벅지 살펴보는데 아무런 이상 없어 머쓱한)  
 윤슬 찢리나 보지, 괜히. (가는)

아무 말 못 하고 윤슬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진철.

## #19 승재의 집 안방(낮)

허물처럼 벗어놓은 스타킹과 옷들이 바닥에 놓여 있다.  
 제 다리를 내려다보는 윤슬, 허벅지에 컴퓨터용 사인펜 자국이 있다.  
 진철을 찌른 허벅지 정도의 위치에 묻어 있는 사인펜 자국을 문지르는  
 윤슬. 손으로 아무리 문질러도 자국은 지워지지 않는다.

## #20 언덕(낮)

상복 차림의 외숙모, 유골함을 들고 승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밤나무 아래 쭈그려 앉아 있는 윤슬, 뽀족한 밤송이를 향해 손을 뻗는다.  
 그때, 두 발이 다가오자 고개를 드는 윤슬.  
 진철, 양발로 밤송이의 입을 벌리자 밤알이 매끄러운 모습을 드러낸다.

윤슬 (코웃음 치며) 혹시라도 절뚝거리면 죽어버리려고 했는데.

일어난 윤슬, 진철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주 천천히 앞발로 밤알을  
 짓밟는다.

점프.  
 언덕 끝에서 뺨가루를 뿌리는 승재. 이를 지켜보는 진철과 윤슬.

## #21 언덕길(낮)

외숙모를 부축하고 내려가는 친척 여. 승재 옆으로 다가와 걷는 친척 남.

친척 남 저수지에 뿌릴 걸 그랬나 보다. 경축이는 시원한 거 좋아했잖아.  
 승재 안 돼요. 요즘엔 뺨가루 뿌리면 벌금 맞아요.  
 친척 여 (외숙모를 위로하며) 더 아프다 갔으면 다 고생이지. 다행이라고  
 생각해.  
 윤슬 (조용히) 세상에 다행인 죽음이 어디 있어요.

외숙모, 윤슬을 물끄러미 보다가 작게 고개 끄덕이곤 앞으로 걸어간다.

승재 (옷을 털며) 누나. 뺨가루가 자꾸 옷에 달라붙어.  
 윤슬 외삼촌이 떠나기 싫은가 보다.

옷을 털던 승재, 손을 멈춘다.  
 진철, 승재의 양복 등에 묻은 하얀 가루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 #22 승재의 집(낮)

마루에 앉아 있는 승재와 진철, 부춧돈을 계산해보고 있다.

승재 (방명록 확인하며) 마지막 가는 길인데도 박한 사람 참 많다.

앞을 보는 진철.  
 어깨를 축 늘어뜨린 윤슬이 뒷모습만 보이며 평상에 앉아 있다.

승재 어쨌든 형 때문에 살았다. 형 아니었으면 다 언제 할 뻔했어.  
 여튼 우리 같은 지역사회는 형 같은 사람들이 역할을 해줘야  
 돌아간다니까.

어깨를 들썩이는 윤슬의 뒷모습. 그러더니 깔깔- 웃기 시작한다.

승재 (어색하게 웃으며) 뭐야. 왜 웃는데.

무너진 독 위로 물 넘치듯 실 새 없이 웃음을 쏟아내는 윤슬.  
 이를 지켜보던 승재와 진철, 희미하게 웃다가 폭소를 터뜨린다.  
 배를 잡고 웃는 승재에게 전화 걸러오고.

승재 (웃으며 전화 받는) 여보세요? 나? 장례식인데 뭐 좋은 일이 있겠어.  
 갑자기 다들 웃어서 웃긴 웃었는데...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가는)

승재가 자리를 비우자 웃음을 뚝! 멈추는 윤슬. 그러자 진철도 서서히 멈춘다.

## #23 승재의 집 앞(밤)

문 앞에 선 윤슬, 걸어가는 승재와 진철을 지켜본다.

승재 내 정신 봐라. 봉투 가져가야 하는데. 잠깐만. (돌아서 집으로 가는)  
진철 (윤슬 보며) 애들이랑 술 한잔 하기로 했는데. 올래?  
윤슬 개네들이 내 얼굴 보고 편하겠니?  
진철 아는 사람도 없고... 기억한다고 해도 이제 다 지난 일인데 뭐...  
윤슬 ... 지난 일?  
진철 개네들한테는 지난 일이야.

윤슬이 차가운 눈빛으로 진철을 바라보자, 진철은 괜히 발끝으로 땅만 찬다.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이 이어지는데... 이를 깨며 봉투를 든 승재가 집에서 나온다.  
두 사람이 말없이 서 있자 뭔가 싶어 눈치 살피는 승재.  
윤슬, 매섭게 돌아서 집으로 들어간다.

승재 (윤슬의 등에 대고) 누나, 좀 쉬고 있어. 금방 올게.  
진철 (윤슬의 뒷모습 보며) ...  
승재 타, 형. 가는 길에 태워줄게. (운전석으로 걸어가는)

조수석으로 걸어가던 진철, 잠시 멈춰 서서 윤슬의 뒷모습을 다시 한 번 본다.

## #24 승재의 집 안방(밤)

오래됐지만 정갈한 방. 경찰의 흔적들이 보인다.  
시집, 소설, 인문학 서적이 가득한 책장, 손때 묻은 앉은뱅이책상 등... 불도 켜지 않은 방의 한가운데, 윤슬이 홀로 앉아 있다.

두 다리 모아서 끌어안고 뭔가를 내려다보고 있는 윤슬.  
방바닥에 놓인 두꺼운 노트, 걸면엔 빛바랜 스티커들이 조잡하게 붙어 있고. “(하나도 안) 신나는 우리말 여행”이라고 투박한 글씨로 또박또박 적혀 있다.  
그 밑에 “지은이 윤슬” 윤슬 옆에는 강아지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윤슬, 한참을 망설이다가 노트를 펼친다.

첫 장. “아그데아그데” 크게 쓰인 단어 옆에 “열매가 잇따라 매달린 모양” 해석이 삐뚤삐뚤하게 적혀 있다.  
그 밑으로 붙어 있는 사진,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모습이다. 다음 장을 넘기는 윤슬의 손길.

“가을귀” 단어 옆 “가을의 예민한 소리를 듣는 섬세한 귀”라고 적혀 있고. 그 밑에는 커다란 나무에 기댄, 누군가의 귀만 보이는 옆모습 사진이 붙어 있는데...

## #25 과거. 몽타주. 여기저기

밝아지며 사진과 오버랩 되면...  
나무에 기대고 있던 옆모습의 주인공은 진철이다.  
뒤에서 인기척 느껴지자 돌아보는 진철.  
형광색 옷을 입은 윤슬이 이쑤시개를 입에 물고 꺾렁하게 걸어온다.  
창피해서 먼저 가는 진철, 목에 건 카메라가 달랑거린다.

무덤가를 둘러싼 소나무를 찍는 진철, 옆에서 귀신 흉내 내는 윤슬.

윤슬(E) 도래술. 무덤가에 둘러선 소나무.

그릇 위로 쌀이 흘러넘치는 것을 찍는 진철.  
쌀을 그릇에 계속해서 퍼 담는 윤슬.

윤슬(E) 안다미로. 담은 것이 그릇에 넘치도록 많다는 뜻.

담배를 피려던 승재 3인방. 진철이 카메라를 들이대자 얼굴을 가린다.

윤슬(E) 도담도담. 어린아이가 탈 없이 잘 놀며 자라는 모양.

어두운 밤. 잔디에 누워 하늘을 찍는 진철과 윤슬.

윤슬(E) 미리내. 은하수를 뜻하는 제주도 방언.

함께 집을 들고 가는 늙은 부부를 찍는 진철.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는 윤슬.

윤슬(E) 가시버시. 부부를 겸손하게 이르는 말.

## #26 과거. 동네(낮)

차이 나는 키만큼이나 차이 나는 옷 색깔의 윤슬(화사한)과 진철(어두운).

윤슬, 진철 (동시에) 옷이 그런 거밖에 없니?

동시에 같은 말 하고 피식 웃는 윤슬과 진철.

진철 (필름 통을 건네며) 자.

윤슬 (받아 들며) 오... 한 통 금방이네. 거봐, 내 덕분이이지?

어이가 없는 진철은 웃으며 고개만 절레절레 젓고, 윤슬은 주변을 둘러본다.

윤슬 (둘러보며) 여름 너무 좋아. 봄은 더 좋고, 가을은 더 더 좋고.

둘러보면 녹음이 짙은 여름 기운이 가득하다.

윤슬 겨울은 좀 사라졌으면~ 칙칙해. 색도 없고. 너무 싫어.

진철 (윤슬 보며)

윤슬 내가 일가친척 중에서 제일 작거든. 게다가 아빠까지 없어서 친구 가면 존재감이 너무 없어요. 튀는 색 안 입으면 내가 있는지도 모를걸? 이렇게 입고 손 흔들면서 여기 보세요~ 해야 겨우 눈길이나 주는 거지.

진철 (윤슬 가만히 보는)

윤슬 계속해야 돼. (손 흔들며) 나 여기 있어요. 나 까먹지 마세요.

어쩐지 좀 안되어 보이는... 진철, 윤슬을 보다가 이내 하늘을 본다.

진철 나도 여름 좋아. 봄도, 가을도. 하늘도 파랗고.

윤슬 파란색을 좋아하시는구먼. (훑어보고는) 근데 왜 늘 이 꼴이신가?

진철 검은색은 조용하니까. 단정하고...

윤슬 아~ 조용히 타의 모범이 되시겠다? 근데... 반장은 안 돼.

진철 ?

윤슬 (진철의 얼굴을 가리키며) 얼굴이 너무 개상이야. 나 개 싫어하거든. 뒤래. 앞뒤 맥락도 없이.

윤슬 (앞서가며) 너희 아빠 신문사 한다며. 우리 집에서 회식 좀 하라 그래. 엄마가 직접 담근 고분주도 있고...

진철 (따라오며) 내 얼굴이 개상이라 안 된다는 이야기는 벌써 지나간 거냐?

진철 모(E) (신경질적인) 김진철!

진철과 윤슬, 걸음을 멈춘다.

돌아보면 못마땅한 표정으로 서 있는 진철 모.

## #27 과거. 기사식당(밤)

영업을 마친 기사들의 노랫소리로 시끄러운 식당 안.

윤슬, 서빙 하는 어머니를 쓴살같이 지나 뒤쪽의 방으로 달려간다.

윤슬 모 (지나가가는 윤슬을 보고) 밥은?!

윤슬 (훅 지나가며) 아직. (방 안으로 들어가는)  
윤슬 모 빨리빨리 먹어! 한국인은...  
윤슬(E) (뒤쪽 방에서 들리는) 밥심이다!

## #28 과거. 뒤쪽 방(밤)

식당에 달린 작은 방. 가방을 내려놓는 윤슬, 즐거움에 상기된 표정이다.  
갈아입을 옷을 뒤적이던 윤슬, 주황색 티셔츠를 꺼내려다 파란색 티셔츠를 꺼낸다.

## #29 과거. 진철의 집 거실(밤)

고급스러운 가구가 놓인 거실로 들어서는 진철과 진철 모.  
엄한 분위기의 진철 부, 소파 중간에 앉아 책을 읽고 있다.

진철 모 니네 담임 진짜 안 되겠다. 전화 한번 해야겠어.  
진철 내가 반장이라 도와주는 거뿐이야.  
진철 모 그러니까 올해는 반장 하지 말라고 했잖아. 스카이버 미끄러진 거  
창피하지도 않니?  
진철 부 (책에서 눈을 떼지 않는) 소리.

동시에 입을 다무는 진철과 진철 모.

진철 부 (페이지 넘기며) 수능 전까진 안 찍는다며.  
진철 딱 한 통만 찍으려구요. (조용히 걸어 방으로 들어가는)

진철 모, 뭐가 더 말하려다 진철 부가 신문을 소리 내어 넘기자 그만둔다.

## #30 과거. 진철의 방(밤)

거울 앞에 선 진철, 괜히 눈을 옆으로 찌었다가 입꼬리를 내렸다가 한다.  
멍멍! 하고 짓는 진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 침대에 털썩 눕는다.

## #31 과거. 동네(낮)

카메라를 목에 멘 진철, 노트를 든 윤슬.

윤슬 두 번째 필름의 첫 방은 여기서 찍어야겠어.

보면, 철이 벗겨진 초록색 대문 앞이다. 끼익- 문을 열면.

## #32 과거. 경찰의 집(현 승재의 집)(낮)

평상에 앉아 나물을 다듬고 있던 외숙모, 들어오는 진철과 윤슬을 보고,

외숙모 슬아. 무슨 일이야? (하고 진철 보면)  
진철 (괜히 쑥스러워 카메라 들고 이곳저곳 살피는 척)  
윤슬 외숙모, 삼촌은요?  
경찰 (방에서 거실로 나오며) 니 삼촌은 왜?  
윤슬 삼촌. (평상 가리키며) 일로 앉아봐.

경찰이 윤슬의 외삼촌...? 당황하는 진철.

점프.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는 경찰의 얼굴.

윤슬(E) 눈엣가시. 몹시 미워 눈에 거슬리는 사람.

경찰, 평상에서 벌떡 일어난다.

경찰 뭐가 어찌고저째? 야! 지금 찍은 거 이리 내. 무효야! 무효!

깔깔- 웃으며 경찰의 손길을 피하는 진철과 윤슬.  
그 모습 위로 셔터 소리 찰칵!

### #33 승재의 집 안방(밤)

펼쳐진 노트의 사진으로 오버랩 되며...  
 경출과 진철이 어색하게 서 있는 모습이 사진에 담겨 있다.  
 그 위로 “눈엣가시” 단어와 “몹시 미워 눈에 거슬리는 사람” 설명 적혀  
 있고. 살짝 열린 안방 문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온다.  
 빛과 함께 새어 들어오는 싸아- 물 트는 소리.  
 이어 윤슬의 울음소리가 보태진다.  
 거칠고 구슬픈 윤슬의 울음소리. 으흐흑... 으흐흑... 이어진다.

### #34 차 안(밤)

운전하는 승재, 옆자리에 앉은 진철.

승재 사촌이라고 해봤자 슬이 누나랑 나, 딱 둘뿐인데. 도대체 어떻게  
 지내는지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진철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는)  
 승재 늘 불쑥 내려왔다가 또 불쑥 올라가고. 그때도 갑자기 사라졌잖아.  
 (눈치 살피며) 친척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데...  
 진철 ...  
 승재 형은... 슬이 누나 왜 이혼한 줄 알아?  
 진철 (그제야 승재를 보면)  
 승재 아니, 솔직히 결혼도 순식간에 했잖아. 그러더니 뭐 또 이혼이래?  
 하여간 누나도 뭐 하나 정상적인 게... (없어 하려는데)  
 진철 (대뜸 말 자르며 블랙박스 가리키는) 이걸 얼마나 해?  
 승재 (뭔 소린가 싶어) 어? (하고 블랙박스 보며) 아... 20만 원 하던가.  
 진철 (고개 끄덕이며) 음... 그리고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자기  
 마음이야. (승재를 단단히 보며) 자기 마음이라고.  
 승재 (괜히 찡끔하며) 어, 그렇지. 자기 마음이지...

다시 가만히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는 진철.  
 승재도 입 다물고 운전만 할 뿐이다.

### #35 거리(밤)

차가 길가에 서고, 내리는 진철.

승재 누나가 내려오면 형은 만나고 가는 거 같길래. 뭐라도 아나 싶어  
 헛소리한 거야. 그냥 무시해!

진철, 차 문을 닫는다. 떠나는 차.  
 현란한 네온사인 아래, 가을밤을 만끽하는 커플, 가족, 친구들...  
 그 속으로 혼자 걸어가던 진철에게 갑자기 팔짱을 끼는 누군가.  
 진철 돌아보면...

### #36 과거. 동네(낮)

진철의 팔짱을 끼고 있는 윤슬, 잔뜩 겁먹은 표정이다.  
 하복 차림의 진철, 여름 원피스를 입은 윤슬 앞에 커다란 개가 이를  
 드러내고 있다.

윤슬 (진철의 뒤로 숨으며) 같은 개상이니까 어떻게 해봐.  
 진철 (나도 무서워) 일단 진정하고... 개는 줄에 매어 있으니까...

개의 목줄이 풀어져 있다. 망했다...  
 크엉-! 하며 개가 달려들자 윤슬을 뒤로하고 막아서는 진철.

진철(E) (화면 위로 비명) 으악!!

### #37 과거. 동네(낮)

자신보다 훨씬 커다란 진철을 엉거주춤 엮고 걸어가는 윤슬.

윤슬 (깡깡거리는) 이럴 거면 내가 물렸지. 아오!!!



으!!! 힘들어 돌아가시겠는 윤슬, 나무 밑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점프.

리어카에 진철을 싣고 달리는 윤슬. 쪽팔려 얼굴을 가리는 진철.

윤슬 (달리며 리어카 미는) 비켜요, 비켜!!

식당 밖으로 나오던 윤슬 모, 뭔가 횡 지나가자 어리둥절하다.

### #38 과거. 시냇가(낮)

시냇가 앞, 커다란 나무 옆에 앉아 있는 진철과 윤슬.

진철 꼭 리어카여야만 했냐.

윤슬 야! 너 지금 나 아니었으면 광견병 걸려서 진짜 개 됐어. (진철 다리에 감은 붕대 보며) 정말 괜찮냐?

진철 (질문 여러 번 받은 듯) 괜찮다니까! 보여줘? 보여줘?

윤슬 (카메라로 진철의 다리 찰카-! 찍고는) 모질음.

진철 (윤슬 보며) ?

윤슬 고통을 견뎌내려고 모질게 쓰는 힘.

진철 (이게 진짜) 야...!

윤슬, 피식 웃으며 시냇물을 향해 고개 돌린다. 진철, 따라서 보면.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물 위로 햇살이 촘촘히 내려와 눈부시게 빛난다.

진철 너다. (하고 시냇물 풍경을 찰카 찍는)

윤슬 (진철 보면)

진철 너잖아. 물비늘, 햇살이 수면에 반짝이는 모양.

윤슬 (여전히 모르겠다는 표정의)

진철 윤슬이랑 물비늘, 뜻이 같으니까.

윤슬 (아... 내 이름이 그렇구나... 처음 안) 내 이름이 물비늘이구나...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윤슬의 옆모습을 바라보는 진철. 카메라를 든다. 진철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윤슬의 모습, 찰카!

### #39 과거. 동아리실(낮)

검붉은 조명의 암실 안. 윤슬과 진철, 서로 마주 서서 필름을 줄에 넣고 있다. 그러다 필름들 사이로 눈이 마주치는 윤슬과 진철.

윤슬, 진철의 눈빛에 멍칫-하다가 빨래집게를 바닥에 떨어뜨린다. 빨래집게를 주우려는 윤슬의 손길. 진철의 손길이 다가와 함께 빨래집게를 잡는데...

손이 겹쳐진 두 사람. 윤슬, 진철과 눈이 마주치자 괜히 시선 피한다.

그러자 진철, 자기도 모르게 윤슬의 볼을 부드럽게 감싼다.

미묘한 기운이 흐르는 가운데 다시 눈을 마주치는 두 사람.

현상액에 담긴 인화지에 윤슬의 얼굴이 흑백으로 떠오른다.

그 위로 또각또각-

### #40 술집 앞(밤)

또각또각 걸어오다 문 앞에 멈춰 서는 파란 구두.

아영(E) 어? 컴퓨터용 사인펜!

돌아보는 윤슬. 반가운 표정으로 다가오는 아영.

아영 스타킹은 괜찮아요?

윤슬 (누군가 싶다가 얼굴 알아본) 아...

싱긋 웃으며 술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아영, 문 연 채로 친절하게 서 있다.

### #41 술집 안(밤)

여러 테이블 속에서 윤슬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드는 남자 동창(학생1).

아영 (반가운) 아~ 언니가 윤슬이구나!  
윤슬 (이 여자가 나를 어떻게 알지? 하는 표정의)  
아영 (테이블로 가며) 오빠, 친구 왔어.

진철, 아영의 부름에 고개를 돌리다 윤슬과 눈이 마주친다.

아영 (진철의 옆에 앉으며) 언니, 이쪽으로 오세요.  
진철 (그저 윤슬을 바라보는)  
윤슬 (진철과 가장 먼 여자 동창의 옆에 앉는)  
아영 (고개 내밀어 윤슬 보며) 언니, 저희 운명인 것 같아요. 그쵸?  
동창 남 뭐야? 둘이 아는 사이야?  
아영 동지라고 해두죠. (진철 보고 웃으면)  
동창 남 야. 우리는 10년 넘게 안 만나주고 아영 씨랑은 벌써 동지를 맺은 거야?

메뉴판을 보며 안주를 고르는 아영. 아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진철.  
윤슬,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본다.

동창 여 출판사 다닌다며?  
윤슬 (그제야 동창들 보며) 응.  
동창 남 내가 아는 비속어는 다 너한테 배운 건데. 환골탈태했네.  
윤슬 (희미하게 웃는)  
동창 남 선생님이 너한테 과제 줬던 게 다 지금을 생각한 거였나 보다.  
윤슬 선생님이 너한테 토틀만 나면 청소벌 준 것도 그런 이유였나 보네.  
너 청소업체 사장이라며. (잔 시원하게 비우는)  
동창 남 이제야 윤슬답네. 애가 튀어. 한마디를 안 저. (웃는)  
동창들 (웃는)  
동창 여 왜 한 번도 연락을 안 했어. (뭔가 떠보려는 듯) 가끔 내려와서 진철이는 만난 모양이더만. 사람들이 너 봤다던데.  
아영 (이야기 놓치지 않은) 어? 언니랑 오빠랑 친했어요? (진철에게) 왜 한 번도 언니 얘기 안 했어?  
동창 남 때려야 떨 수 없는 사이였죠.

순간, 조금 긴장하는 윤슬과 진철.

동창 남 반장은 혹여나 사고 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사고뭉치는 언제 사고 칠까 궁리하고. 아주 톱과 제리였어요.

아영, 동창들을 따라 웃으면서도 윤슬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  
종업원, 테이블 위에 짬뽕탕을 두고 가면,

아영 (진철의 팔짱 끼며) 언니, 저희 결혼해요.  
윤슬 (아영의 눈 피하지 않으며) 네. 알아요.  
동창 남 김진철, 저 능구렁이 같은 놈. 연애하는 티 하나도 안 내고 조용히 있더니 언제 저렇게 귀엽고 예쁜 아영, 아영, 조아영 양을 낚은 거냐!  
아영 (진철의 팔에 매달려 귀엽게 웃는)  
동창 여 내일 촬영용 드레스 고르다면서요. 팔산동 웨딩샵 괜찮다던데.  
아영 안 그래도 거기 예약했어요. (싱긋)  
동창 남 (윤슬에게) 네가 나중에 애기 이름 지어주면 되겠다. 요즘 순우리말로 이름 짓는 거 유행이라던데. (아영에게) 애가 우리말 도사예요.  
아영 진짜요? 저 안 그래도 애기 이름 우리말로 짓고 싶었는데. 언니! 나중에 지어주세요.

대답 대신 짬뽕탕을 떠먹는 윤슬. 그러다 수저 탁! 내려놓는다.  
자리에서 일어나 진철에게 다가간 윤슬, 다짜고짜 진철의 뺨을 짹!  
때린다.

윤슬 (진철 내려다보며) 니가 시킨 짬뽕탕, 맛이 없어.

## #42 거리(밤)

빠르게 걸어가는 윤슬의 팔을 잡는 진철.

윤슬 (진철의 손길 뿌리치며) 난 너를 죽이고 싶어.

진철 택시 타고 가.  
윤슬 못 들었어? 다시 한 번 말해줄까? 난 너를 죽이고 싶다고. 진심으로.  
진철 알았으니까, 택시 타고 가.  
윤슬 (진철의 뺨을 때리려고 손을 드는)

진철, 윤슬의 팔을 탁! 잡는다.  
진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윤슬.

진철 (화가 터진) 도대체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럴 건데?  
윤슬 (팔 잡힌 채로) 언제까지? 하! 언제까지가 있을 거 같아?  
진철 죽여. 죽이고 싶다며. 차라리 죽이고 빨리 끝내!  
윤슬 (악에 받친) 죽이려면 진작 죽였어!! 나보고 널 죽이라고? 웃기지 마!  
내가 그렇게 쉽게 끝낼 것 같아?  
진철 (미치겠는) 그럼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윤슬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나는 너한테 그냥 알려주는 거야!  
내가 여기 있다고,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고! 아무것도 끝나지 않는다고!!  
아영(E) 오빠.

아영, 실랑이를 벌이는 윤슬과 진철을 보고 서 있다.  
윤슬이 다시 한 번 손을 뿌리치자 그제야 놔주는 진철.  
윤슬, 매섭게 찌려보고는 뒤돌아 걸어간다.

### #43 아영의 집 앞(밤)

문 앞에 선 진철과 아영.

진철 들어 가.  
아영 아무 설명도 안 하는 거야? 그 여자 왜 그러는지 얘기 안 해?  
진철 ... 짬뽕탕이 맛이 없었다잖아.  
아영 (어이없는) 그걸 말이라고 해! (눈치 살피다가) 혹시 둘이... 애인 사이였어? 그래서 그러는 거야?

진철 얼마 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어서 그래.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서 화가 난 거야.

아영, 입을 뗐다가 이내 다무는. 속는 셈 치고 믿는 척한다.

아영 (진철의 뺨 어루만지며) 어떡해...  
진철 괜찮아.  
아영 우리 웨딩촬영 하기 전에는 가라앉아야 하는데...

아영이 뺨을 어루만지게 두는 진철.

### #44 승재의 집 창고(밤)

승재, TV를 보고 있다. 문 활짝 열리며 들어온 윤슬, 이곳저곳을 뒤진다.  
이 누나가 왜 이러나... 승재, 윤슬을 쳐다본다.  
그러다 공구박스를 발견한 윤슬, 열어 살펴보다가 펜치를 꺼내 든다.

승재 그걸 어디다 쓰려고?  
윤슬 이빨을 확 뽑아버리려고.

거세게 방을 나서는 윤슬. 당황스러운 표정의 승재.

### #45 진철의 집 앞(밤)

또각또각- 파란 구두를 신고 걸어온 윤슬. 이층집 앞에 선다.  
작은 윤슬에게 이층집 대문은 넘을 수 없이 높고, 커 보이기만 한다.  
막상 들고 온 펜치도 뭔가를 하기엔 너무 작기만 하고.

### #46 진철의 방(밤)

책상 의자에 앉아 멍한 얼굴로 벽지만 바라보고 있는 진철.  
집 외벽에 뭔가가 툭! 맞고 떨어지고, 또 뭔가 툭! 맞고 떨어지는 소리가

반복해서 들리지만 진철은 그저 책상 앞만 볼 뿐이다.  
한동안 정적이 이어지다가 밖으로 난 창문 중 바깥 창문이 빠직! 깨진다.  
그제야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진철.

진철 ... 이제야 맞혔네.

진철, 커다랗게 금이 간 창문을 쳐다만 볼 뿐 열어보지 않는다.

## #47 승재의 집(아침)

방문 열고 마루로 나오던 승재, 앞을 보고 깜짝 놀란다.

승재 !! 밤새 이려고 있었어?!

윤슬, 신발도 벗지 않고 마루에 걸터앉아 있다.

승재 (걱정스러운) 누나... 무슨 일 있었어...?

윤슬 (마당만 바라보며) 이 집은 어떻게 할 거야?

승재 서울에 일 구하면 팔아야지.

윤슬 (작게 고개를 끄덕이곤) 애들 술 잘 마시더라. 예전엔 나한테  
까불지도 못했는데.

승재 지금도 못 까불걸. 누나, 뺨찌 들고 다니잖아.

윤슬 (희미한 미소 짓고) 그렇겠네.

승재 (옆에 앉으며) 진철이 형 여자 친구도 봤겠네. 이제 같이 다니던데.

윤슬 (여전히 앞만 보며) 언제부터 사귀었대?

승재 몰라. 진짜 조용히 사귀었더라. 말도 없이.

윤슬 개가 그러잖아. 의뭉스럽고.

승재 (그런가 하며 고개 갸웃하는)

윤슬 (자리에서 일어서며) 그래도 평상은 닦아. 팔 땀 팔더라도.

윤슬이 대문을 향해 걸어간다.

승재, 그런 윤슬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승재 누나, 어디 가!

윤슬,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대문을 빠져나간다.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는 승재는 한숨만 크게 쉬다가 윤슬이 있던 자리  
옆에 놓인 것을 발견한다.

승재 ?!

펼쳐진 노트. "물비늘"과 "햇살이 수면에 반짝이는 모양"이라 쓰여 있다.  
그 밑으로 붙어 있어야 할 사진이 없는데...

## #48 진철의 차 안(낮)

인서트.

블랙박스 영상의 한 장면이다.

어두운 밤, 마치 자신이 찍히는 걸 아는 듯 정면을 바라보며 서 있는  
윤슬의 모습.

운전석에 앉아 있는 진철,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돌려본다.

블랙박스 영상. 소리가 들리지 않는 가운데 2층을 향해 펜치를 던지는  
윤슬. 잠시 2층을 바라보다가 이내 다시 차 쪽을 뺀히 쳐다본다.

이때, 내비 대신 꽂아놓은 휴대폰이 진동한다. [발신자, 아영]  
전화 받는 대신 다시 영상을 돌려보는 진철.

## #49 카페(낮)

나란히 앉은 진철과 아영, 웨딩플래너와 상의 중이다.

웨딩 (책자 보여주며) 본식 드레스, 웨딩촬영용 드레스 다 픽스하셔야  
하고 신랑분 텍시도는 맞췄다고 하셨죠?

아영 네. 그건 어머님이 직접...

웨딩 네~ 그럼 일단 드레스 피팅하시고. 촬영 시작하면... (희미하게 들리는)  
진철 (의미 없이 듣다가 창밖으로 시선 던지는)

도로 건너편, 윤슬이 서 있다.  
늘 거기 있었다는 듯, 진철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는 윤슬.

## #50 길(낮)

카페를 나와 길을 걸어가는 진철, 아영, 웨딩플래너.  
앞서 걸어가는 아영과 웨딩플래너는 대화 나누기 바쁘다.  
진철, 건너편에 서 있는 윤슬과 나란히 걷는다.

점프.  
웨딩샵 앞에 도착하자 들어가는 아영과 웨딩플래너.  
걸음을 멈춘 진철, 윤슬을 돌아보며 잠시 머뭇거리다 웨딩샵으로 들어간다.

## #51 웨딩샵(낮)

기다란 옷걸이에 다양한 디자인의 드레스들이 걸려 있다.  
아영, 행복한 표정을 감추지 않으며 드레스를 살펴본다.

아영 (머메이드라인을 고르며) 이게 오빠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치?  
진철 응. 예뻐.  
아영 치. 늘 NO가 없어! (다른 드레스 가리키며) 저건 어떨까?

진철, 유리창 너머 바깥을 살피는데 윤슬의 모습 보이지 않는다.

아영 저건 어떨 거 같냐구~  
진철 응. 예뻐.  
아영 예뻐 말고 YES OR NO! (진철 따라 보는) 바깥에 뭐가 있어?

진철 아니야. 아무것도.  
아영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바깥을 살펴보는)  
직원(E) 피팅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영 네. (할 수 없이 직원 곁으로 가는)  
진철 (다시 한 번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는)

점프.  
머메이드의, 레이스가 화려한, 길이가 짧은, 여러 드레스를 입어보는 아영.  
사랑하듯 보여주는 아영을 보며 희미하게 웃는 진철.

웨딩 예비 신랑분은 늘 저렇게 웃으시더라. 조용히.  
아영 멋있죠? 화도 안 내요. (고민하는) 흠... 아닌가? 저게 화난 표정인 건가? (진철 보며) 결혼하고도 늘 그렇게 웃어줘야 돼! 내가 살림 못해도!

싱긋 웃고는 드레스 입은 제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는 아영.

아영 아무래도 첫 번째 드레스가 제일 나왔던 것 같다.  
웨딩 그렇다니까요~ 시험도 그렇잖아요. 늘 처음 쓴 답이 정답!  
아영 그러게요. (진철 보며) 오빠, 나 한 번만 더 갈아입을게!

직원, 안쪽에서 커튼을 닫는다.  
우우웅- 진철의 휴대폰이 진동한다. [발신자, 슬]

진철 (망설이다가 받는) 응...  
윤슬(F) 나한테 와.  
진철 ...

피팅룸 안. 첫 번째 입었던 드레스를 입고 있는 아영.  
커튼 밖으로 들리는 목소리.

진철(E) 나 아무래도 먼저 가야 할 거 같아.

아영 (당황스러운) 어? 뭐라고?  
커튼을 확 젖히는 아영. 밖에는 아무도 없다.

## #52 술집(낮)

버너 위에서 자글자글 끓고 있는 김치찌개.  
취한 윤슬. 팔을 괴려고 하는데 자꾸 미끄러진다. 그 앞에 앉는 진철.  
윤슬, 히- 웃으며 소주를 따르려 하자 진철, 병을 잡으며 말린다.

윤슬 (손길 피하며) 야! 불쌍한 나한테 이러지 마. 난 돈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 아빠도 없어. 아, 남편도 없다. (헤- 웃으면)  
진철 … 밥은?  
윤슬 (술병 흔들며) 여기 있잖아.

손으로 얼굴 꽃받침하고 진철을 보는 윤슬.

윤슬 아영 아영 조아영의 어디가 그렇게 조아영? (아무런 대답이 없자)  
재수 없어, 개. 오지랴이 태평양이더라.

갑자기 가방을 뒤지는 윤슬, 사인펜을 찾아들고는 바닥에 던진다. 에비!  
진철, 사인펜을 주워서 가만히 들여다본다.

진철 아영이도 나보고 개상이라. (윤슬 보며) 난 진짜 개상인가 봐.  
윤슬 그렇다니까. 넌 진짜 개상이라니까! 개새끼상!

잔에 소주를 따르는 윤슬. 술이 철철 넘쳐흐른다.

윤슬 안다미로. 담은 것이 그릇에 넘치도록 많다는 뜻. (잔 들이켜는)

눈이 풀린 윤슬, 팔팔 끓는 김치찌개를 한 국자 크게 뜬다.  
진철의 앞접시로 옮기는데, 자기도 모르게 피하는 진철.

윤슬 (피식) 쫄기는. (자기 접시에 김치찌개 담는)  
진철 (멋쩍은)  
윤슬 너 왜 이 촌 동네 안 떠났어? 수능 잘 봤잖아. 더 좋은 데서 일할 수  
있었잖아. 진짜 지역사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안 떠난 거야?  
진철 은행원 좋잖아.  
윤슬 (고개 끄덕이며) 인정. 너한테는 딱이지. 강물처럼 고요히 흘러가는  
너한테는. 똑같은 얼굴로, 똑같은 일상을, 당연하게 살아가는  
너한테는.  
진철 (윤슬 보며)  
윤슬 근데 그러다가 그 강물도 마를 거야. 언젠가는 기필코.  
진철 (한 잔 마시는)  
윤슬 니가 이 동네를 떠나면 내가 못 찾을까 봐? 그래서 안 떠나는 거니?  
진철 (자리에서 일어서며) 가자. 데려다줄게. (손 내밀면)  
윤슬 (손길 뿌리치며) 싫어! 안 갈 거야! 가도 혼자 갈 거야!

벌떡 일어난 윤슬,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쓰러진다.

## #53 길(낮)

해가 지는 오후. 어디선가 풀벌레 소리 들려오고…  
윤슬을 업고 걸어가는 진철.

윤슬 (진철의 등에 얼굴을 묻고) 그 시 또 읊어주라.

조용히, 시를 읊기 시작하는 진철. 김남조 시인의 <가을 햇볕에>

진철 (걸어가며) 보고 싶은 너 가을 햇볕에, 이 마음 익어서 음악이 되네.

## #54 과거. 교실 안(낮)

책상에 누워 자던 윤슬, 진철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고개를 든다.  
자리에서 일어나 시를 읊고 있는 진철.

진철 가을 햇볕에 눈물도 말려야지, 가을 햇볕에 더욱 나는 사랑하고  
있건만, 말은 없이 기다림만 쌓여서, 낙엽이 되네.

창밖으로 보이는 운동장의 풍경. 가을 햇살에 익은 듯 모든 것이  
갈색빛이다.

진철 (풍경과 오버랩 되며) 아아. 저녁 해를 안고 누운, 긴 강물이나 되고  
지고. 보고 싶은 너, 이 마음이 저물어 밤하늘 되네.

윤슬 (일어나서 박수 치며) 와! 너는 어쩔 시도 잘 짓니?

경철 (어이없는) 졸다가 일어났으면 맥락이라도 읽어라.

학생들의 웃음 속에서 입 꼭 다물며 자리에 앉는 윤슬.  
돌아보며 미소 짓는 진철.

## #55 과거. 체육실(낮)

체육실 창문으로 지는 해의 마지막 햇살이 쏟아져 들어온다. 먼지가  
일렁이고...  
매트리스에 마주 보고 누워 있는 윤슬과 진철. 코가 닿기 직전의 가까운  
거리다.

진철(N) (시를 읊듯) 난 잔잔한 강물이었어. 흘러가긴 흘러가는데 아무런  
기쁨도 없이 그냥 검게 흘러만 가는. 언젠가는 말라버릴 그런 강물.

진철, 햇살에 반짝이는 윤슬의 머리카락을 넘긴다.

진철(N) 근데 햇살이 비쳤어. 너야. 그게 바로 너야. 넌 나에게 와서 반짝이는  
물비늘이야.

윤슬과 진철, 서로 이마를 맞댄다.

## #56 과거. 뒤쪽 방(밤)

어느새 찍은 사진으로 가득 채워진 노트를 뿌듯하게 보는 윤슬.  
노트를 덮고 표지를 가만히 보던 윤슬, 제 이름 옆에 강아지 스티커를  
붙인다.

손으로 얼굴 꽃받침을 하고 강아지 스티커를 들여다보는 윤슬. (노트,  
깨끗한 상태)

방으로 들어선 윤슬 모, 찬장을 열어보며,

윤슬 모 뭐야. 아직도 그대로네. (윤슬 보며) 왜 생리대가 안 주냐? 평평  
써제길 댄 언제고. 너, 아껴 쓰냐?

## #57 과거. 교실 + 복도(낮)

교탁 앞에 서 있는 경철. 학생들에게,

경철 이제 와서 시험 전날 공부한다고 코피 쏟지 말고. 잠이나 잘 자라.

진철, 윤슬의 빈자리를 보고 있다.

점프.

교실을 빠져나가는 경철의 걸음으로 빠르게 다가가는 진철.

진철 (경철 보며) 선생님...

## #58 과거. 뒤쪽 방(낮)

손이 발이 되게 빌고 있는 윤슬. 단호한 표정의 윤슬 모.

윤슬 (엄마의 바지를 잡으며) 엄마, 제발. 어? 내년이면 이제 우리  
성인이고...

윤슬 모 보자마자 너 뺨부터 때리는 그런 집에서 애를 어떻게 키울래. 어? 그

집 엄마가 말하는 거 못 들었어?

윤슬 (여전히 바지 붙잡은 채) 엄마...

윤슬 모 아기 낳으면 이 가게도 밀어버리고 너도 가만 안 두겠다잖아. 어쩔 수 없어. 널 위한 일이야.

윤슬 (목 놓아 울며 매달리는) 그게 어떻게 널 위한 일이야. 내가 원하질 않는데. 우리가 원하질 않는데!!

윤슬 모 슬아... 그 남자애도 너도 그냥 어린애야. 너, 엄마처럼 이렇게 살래?

그때, 울리는 전화벨 소리.

무시해도 끈질기게 울리자 결국 전화 받는 윤슬 모.

윤슬 모 어. 왜? 학교 안 보낸다니까! 졸업? 후... 잠깐만. (수화기 내미는)

윤슬 (받아 들며) 여보세요...

진철(F) 나야...

윤슬 (놀랐다가 엄마 눈치 보고 말하는) 응... 삼촌...

진철(F) 괜찮아...?

윤슬 (울음이 터질 것 같지만 참는) 병원... 가재...

진철(F) 언제?

윤슬 (속삭이는) 내일... (아무런 말이 없자) 나 괜찮은 거지? 그치?

## #59 과거. 학교(낮)

건물 뒤에서 경찰의 휴대폰으로 통화 중인 진철.

경찰, 멀리서 통화하는 걸 지켜보며 담배 한 대 피고 있다.

진철 표 끊어놓을게... 그 시간에 거기서 보자...

전화 끊는 진철의 표정, 복잡하다.

그 위로 치익- 밥술의 김 빠지는 소리 선행하며.

## #60 승재의 집 주방(밤)

전기밥솥에서 치익- 김이 빠지고 있다.

그제야 정신 차리며 가스레인지 위를 살피는 진철.

## #61 승재의 방(밤)

치익- 소리 들리고. 담요 위에서 눈을 뜬 윤슬.

몸을 일으키다가 머리가 아픈지 인상 쓴다.

문 열리면, 음식이 차려진 상 들고 들어오는 진철.

진철 (상 내려놓으며) 밥 먹어.

고봉밥에 콩나물국, 몇몇 반찬들. 훑어보다가 짜증이 난 윤슬.

윤슬 밥! 밥! 밥! 내가 식충이야? 나만 보면 왜 밥 타령이야. 내가 많이 처먹게 생겼어? 어? (하며 밥그릇 던지는)

진철 (바닥에 떨어진 밥을 그릇에 담으며) 한국인은 밥심이라며.

하... 윤슬, 진철이 들고 있는 그릇을 훑치듯 빼앗아 들고 밥을 떠먹기 시작한다.

진철 (가만히 보다가 국그릇도 미는)

윤슬 (꾸역꾸역 먹다가 갑자기 분통 터진) 넌 사과를 해야 하잖아. 나한테. 근데 왜 사과를 안 해?

## #62 과거. 진철의 집 거실(밤)

늦은 밤. 짐을 들고 불 꺼진 거실을 나서는 진철.

별안간 등이 들어오자 돌아보는 진철. 무표정하게 서 있는 진철 부.

안절부절못하는 진철과 달리, 진철 부는 소파에 앉아 여유롭게 신문을 펼친다.



진철 부 당장 시험은 못 보겠지. 아기를 낳아야 하니까. 좀만 키워놓고 대학에  
가자. 그렇게 생각할 거야. (넘기며) 근데 분유 값을 벌어야 하잖아?  
그래, 막노동이 좋겠다. 아직 젊고 학벌 상관없으니.

진철, 그래도 문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보려고 하는데...

진철 부 (담담하게) 그래. 어느 날엔 웃을 거야. 그럴 수 있어. (신문 넘기며)  
근데 경력이라고는 열아홉 살에 애 놓고 키운 것밖에 없는 니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

진철 (짐가방의 손잡이만 더욱 꼭 잡는)

진철 부 그렇게 늙어갈 거다. 자식이 너를 원망하고, 부인도 너를 원망하고,  
너도 너를 원망하면서.

아무런 말도 못 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는 진철. 그제야 진철을 쳐다보는  
진철 부.

진철 부 그러니까 선택해. 그 여자애를. 그 여자애와의 미래를. 꼭 네가  
선택하길 바란다. (다시 신문을 펼치고 보는)

고개를 숙이고 있던 진철, 얼굴을 들면...

## #63 과거. 몽타주. 윤슬과 진철의 선택

1. 시냇물에 아직 햇살이 드리우지 않는 이른 아침.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는 윤슬, 나무 옆에서 서성이고 있다.
2. 집을 나서는 진철의 모습.
3. 윤슬,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자 밝은 얼굴로 돌아본다.

## #64 과거. 교실 안(낮)

사각사각 연필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교실 안.  
모의고사를 보는 학생들 중에 진철이 있다. 윤슬의 빈자리가 보이고...

어디선가 윤슬이 목 놓아 우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엉엉... 반장...!  
진철아...!

진철, 한 손으론 귀를 막고, 문제를 푸는 손은 더욱 빨라진다.

## #65 과거. 진철의 집 주방(밤)

진철, 혼자 식사 중이다.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부모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반찬이 호화롭게 차려져 있는데도 진철의 젓가락질이 성의 없다.

가스레인지 위에 놓인 주전자는 차츰 김을 뿜어내고 있는데...

진철 모(E) 자칫 잘못했으면 애한테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뻔했어. 돈은 또  
얼마나 뜯겼겠어요? 진철이가 말해줬기에 망정이지.

진철 부(E) 소리.

삐- 주전자가 끓으며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진철의 젓가락질은 점점 느려지고.

진철 모(E) (작아졌지만 여전히 들리는) 확실히 이사 간다고 그랬죠? 여보,  
소문내면 가만 안 둔다고 꼭 말해요! 네?

탁! 식탁 위에 놓이는 진철의 젓가락.

초점 잃은 눈빛의 진철이 자리에서 일어선다.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주전자를 드는 진철.

## #66 과거. 진철의 집 거실(밤)

뜨개질을 하며 이야기를 늘어놓던 진철 모.

진철 모 지금은 개 엄마가 나서서 했지만 또 한동네에 계속 있다 보면...

말을 잇던 진철 모, 소리를 내던 주전자가 잠잠하자 주방을 돌아보는데.

진철 모 (깜짝 놀라며) 진철아!!!

주방의 풍경이 흐릿하게 보이는 가운데 놀라서 허둥지둥 달려가는 진철 모. 충격에 휩싸인 진철 부의 표정에서.

## #67 과거. 시냇가(밤)

한 팔에 붓대를 감은 진철이 앞을 바라보고 있다.  
어둠에 잠겨 있는 나무 앞에서 있는 윤슬의 뒷모습이 보이고...

윤슬 (뒷모습 보인 채) 이 나무가 마을 수호신이라며. 못됐네... 그럼 여기서 널 좋아하게 됐을 때 말렸어야지. 수호신이면 날 지켜줬어야 하잖아.

지친 윤슬, 진철을 향해 매섭게 돌아본다. 손에는 도끼가 들려 있다.

윤슬 버렸어. 니가. (감정 점점 복받쳐 오르는) 나를! 우리를! 전부를!!

윤슬이 다가오자 천천히 뒷걸음질 치는 진철.

윤슬 (도끼를 들어 올리고 악에 받친 비명 지르는) 오아아아!!!!  
진철 (눈을 질끈 감는)

탕! 탕! 진철, 눈을 뜨면 나무를 찍고 있는 윤슬이 보인다.  
도끼는 작은 윤슬이 감당하기엔 너무 크다. 결국 힘에 못 이겨 나무에 박히는 도끼.  
윤슬, 그대로 돌아서 어둠 속으로 걸어간다.  
손을 내밀어보지만 잡을 수 없는 진철. 점점 사라져가는 윤슬.  
그대로 어둠이다.

## #68 승재의 방(밤)

윤슬, 진철을 보며 말한다.

윤슬 얼마 전엔 길을 걷는데 어떤 아저씨가 나한테 미친년이라고 하는 거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인데 말이야.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더라고. 세상은 넓고 미친놈은 많으니까 그냥 참고 지나가자.

진철 (가만히 듣는)

윤슬 그래서 그냥 지나왔어. 근데 다음 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야.

가슴을 손바닥으로 툭툭 치기 시작하는 윤슬, 점점 손동작이 세지고...

윤슬 내가 왜 그 아저씨한테 그런 욕을 들어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면서 머리끝까지 분노가 차오르더라고. 지금도 사그라지지 않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진철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윤슬.

윤슬 어떤 날은 널 용서해. 진철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 열아홉 살. 제대로 아는 게 없는 나이. 그런데 어떤 날은 널 죽이고 싶어. 김진철. 개만도 못한 자식. 제대로 아는 게 없던 건 나도 마찬가지였는데. 슬아...

진철 나는 너한테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긴 해야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그러니까! 니가 날 봐줘야 하는 거야. 나는 아직도 너 때문에 구분이 안 가. 뭐가 구분이 안 가냐면 말이...

와락- 윤슬을 끌어안는 진철. 잠시 가만히 있다가 윤슬, 진철을 본다.  
미움인지, 사랑인지, 집착인지 모를 눈빛을 주고받는 두 사람.

윤슬 너는 나한테 왜 사과를 안 해?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내가 널 이렇게 쫓아다녔을까?

진철 (윤슬을 가만히 보다가) ... 나는 실수한 게 아니야. (한참 있다 말을 잇는) 내가 선택한 거야. 그래서 사과할 자격이 없어.

윤슬, 진철 밀며 떨어진다.

윤슬 (무표정한) 다행이다. 용서할 필요 없어서. (다시 수저 들고 밥 먹는)

진철 서울엔 언제 올라갈 거야?

윤슬 일요일. 출근해야지.

밥을 국에 말아 후루룩 마시는 윤슬.

### #69 진철의 방(밤)

침대 밑을 더듬어 상자를 꺼내는 진철.

열면, 윤슬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이 담겨 있다.

사진들을 넘겨보던 진철의 손이 멈춘다. 물비늘이다.

반짝이는 수면 위에 어린 윤슬과 어린 진철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사진을 내려다보는 진철의 뒤로 벽에 걸린 탁시도 재킷이 보인다.

### #70 미용실(아침)

화장을 마친 아영, 진철에게 전화하는데 받지 않는다. 조마조마한... 그러다 문 열리며 울리는 때래랭- 종소리에 반갑게 고개를 돌리는데.

### #71 버스터미널 승하차장(아침)

[서울 방면] 간판 보이고. 파란 구두를 신은 윤슬, 의자에 앉아 있다.

진철(E) 잘 어울려. 파란색.

윤슬, 보면... 종이컵 커피를 건네는 진철.

윤슬 안 먹어. (하다가 고개 내리면)

한 단 접은 셔츠 소매 사이로 진철의 화상 자국이 슬쩍 보인다.

진철, 들고 온 검은 봉지를 내려두며 윤슬 옆에 앉는다.

진철의 팔을 슬며시 잡는 윤슬, 셔츠 소매 걷으면 큰 화상 자국이 보인다.

윤슬 많이 뜨거웠어?

진철 그걸 말이라고 해?

동시에 피식 웃는 두 사람, 이내 표정 굳는다. 둘에게 웃음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듯.

### #72 서울행 버스 안(아침)

자리에 앉은 윤슬의 무릎 위에 놓인 검은 봉지.

진철 그냥... 아플 거 같아서.

윤슬, 검은 봉지 헤쳐보면 흰 운동화 한 켤레가 들어 있다.

윤슬 ... 넌 다 싫은데... 이럴 때가 제일 싫어.

진철, 윤슬 앞에 쫓그려 앉는다.

제 발에 운동화를 신겨주는 진철을 가만히 바라보는 윤슬.

윤슬 진철아, 언젠가는 널 정말 죽이게 될지도 몰라.

진철 (조용히 운동화만 신기며) 그래... 내가 널 조심하면서 살게.

윤슬 아직도 넌 내 말을 몰라. 언젠가는 끝내고 싶어서 널 죽일지도 모른다고.

진철 ... 그래. 내가 더 조심하면서 살게.

운동화 끈을 예쁘게 묶은 진철, 잠시 운동화 신은 윤슬의 두 발을

바라본다.  
이내 자리에서 일어난 진철, 그런 진철을 올려다보는 윤슬.  
가만히 바라보는 두 사람의 모습 위로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린다.

### #73 진철의 차 안(아침)

운전하는 진철. 백미러로 서울행 버스가 멀어져가는 것이 보인다.

윤슬(E) (화면 위로 떠오르는) 또 보자.

뒷좌석에 놓인 텍시도 재킷,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흔들거린다.  
오른쪽으로 커다란 나무를 지나는 진철.

### #74 서울행 버스 안(아침)

아랫입술을 힘껏 물며 끝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윤슬,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다.  
햇살이 눈부시다. 그 햇살을 향해 잠시 손을 뻗는 듯하다가 이내 커튼을 탁! 치는 윤슬의 손길.

### #75 시냇가(아침)

커다란 나무에 난 자국을 가만히 만져보는 진철.  
손으로 나무의 소리를 듣는 듯하더니 이내 동작을 멈춘다.  
진철,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하더니 걸잡을 수 없어지고 이내 고꾸라진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시냇물 위로 드리우는 햇살.  
파르르 물비늘이 운다.

작가 후기 <물비늘이 오펬에 당선되고도 한참 동안, 이 글은 여전히 '나의 글'에 머물렀다. 작품 수정 방향은 '모두의 글'이 되기 위한 쪽으로 잡았다.

나만 알고 있고 남들에게 주지 못한 정보가 몇 개 있었다. 이를테면 여자 주인공의 이혼 사유, 남자 주인공이 여자 친구와 사귀던 기간, 서로 간의 정확한 호칭 같은 것들이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주인공의 깊이, 표현할 감정, 더 나아가 혼자 김치국을 마시는 것일지언정 캐스팅까지 염두에 두자면 놓치면 안 되는 거였다.

두 주인공이 우리말 사진첩을 만들기 위해 사진을 찍는 과정을 중요한 서사로 넣었다. 그런데 초고에는 그 사진첩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렇게나 중요한 사진첩인데! 감독님이 짚어주신 덕분에 사진첩이 수정고에 들어갈 수 있었다.

작품이라 명하기에 부끄러운 <물비늘>은 무엇보다 감정의 깊이가 중요한 대본이라고 생각한다. 오펬 식구들과 감독님들의 조언 덕분에 더 배우고, 깊이 들어갈 수 있었다. 우리 모두가 글을 쓰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나아가는 중이다. 아마도 그건 우리가 펜을 놓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는 여정일 것이다. 그 길 위에서 부디 모두가 지치지 않고 걸어가길 간절히 빌고 있다.

그런 이유로, 문집에는 초고와 완고 그 사이에 있는 2고를 실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덜 만져졌지만 거친 면이 살아 있는 2고가 어쩐지 걸어가고 있는 내 모습 같다.

끝.

# 각색은 이미 시작됐다

김도연

---

## 작의

사랑이 천재(天災)라면, 이별은 인재(人災)다.  
천재지변으로 하나의 무덤에 매장된 우리는 이별의 충구를 겨누는 가해자와  
충 맞은 피해자로 역할 분담을 새로이 한다.  
하지만 여기, 이별한 시체 한 구는 좀비가 되어서까지 이별의 부스러기를  
잡아먹고 있다.  
자신이 이별이란 재난을 일으킨 주범이란 걸 부정한 채.

---

## 등장인물

### 홍희수(30대 중반, 여)

영화도 사랑도 시작은 쉬웠다. 하지만 쉬운 경험은 때론 모든 걸 어렵게 만든다.  
데뷔작으로 신인감독상을 휩쓸며 충무로의 혜성으로 떠올랐지만 3년 전,  
차기작으로 별똥별이 되어 똥 싸듯이 낙하했다. 필기와 헤어진 해에 일어난  
일이었다. 갑자기 영화도 사랑도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3년간 마음잡기가  
힘들었다. 그런 자신 앞에 필기가 다시 나타났다. 여자 때문에 떠났으면서  
뻔뻔하게도 군다. 당연히 미웠다. 그런데 마음이 이상하다. 필기가, 다시 자신을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라도,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상받고 싶다.

### 김필기(30대 중반, 남)

누구나 뭘 해도 잘 안 되는 때가 있다. 하지만 필기 곁엔 희수가 있었다.  
영화관에서 가볍게 성공한 그녀의 곁에서 내세울 만한 각본 하나 없이 충무로를  
지박령처럼 떠돌던 시나리오 작가 필기는 자격지심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헤어진 뒤로도 희수를 미워했고, 성공하고 싶었고, 그녀 앞에 당당하게 서고  
싶었다. 다시 만난 희수에게 일부러 더 뻔뻔하게 군 건 그 때문이었다. 그런데  
몰랐다. 헤어질 때 상처 주려고 한 거짓말에 3년간 아파할 줄은 정말 몰랐다.  
복잡했다. 미안해서 솔직하기 힘들었고, 잘해주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았다. 희수를 또다시 사랑하게 될까 봐 두려웠다. 그래서... 또 거짓말을 했다.

김도연  
onlytodo@naver.com

- 2012 • 한국방송작가협회 교육원 전문반 수료
- 2013 • 웹드라마 〈방과후 북북북〉 보조작가
- 2017 • 영화 〈아빠는 딸〉 각색
- 2018 • 오픈 드라마 부문 당선
  - tvN 드라마 스테이지 〈각색은 이미 시작했다〉 극본

박상근(30대 중반, 남)

영화 제작 피디. 희수와 필기의 친구. 관계에 얽매이고 싶지 않은 무신경한 성격.

윤피디(20대 후반, 여)

영화 제작 피디. 상근의 전 여자 친구. 미련 많은 행동파.

---

### 줄거리

만난 기간 6년, 헤어진 기간 3년.  
헤어진 이유, 그놈에게 다른 여자가 생겨서.  
바로, 희수가 필기를 저주한 이유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 저주는 희수가 걸리고 말았다. 필기와 헤어진 뒤 희수가 연출한 영화는 개봉 후 악평 속에 막을 내렸고, 그로부터 3년간의 방황 끝에 완성한 차기작 시나리오엔 망할 놈의 전 남친 김필기 손에 들어가게 생겼다. 하락세로 땅굴 파기 직전인 희수와는 달리, 상승세 제대로 탄 필기는 흔쾌히 전 여친의 시나리오를 각색하기로 결정했다. 그 시나리오가 자신의 동의 없이 둘의 이별을 소재로 쓴 데다 여자주인공에 편향된 관점이 문제여서 각색을 맡겠다고 했지만, 실은 그녀의 앞에서 한 번쯤은 이렇게 잘난 척하고 싶었다. 하지만 작가 계약을 앞두고, 그들 사이에 까칠한 대화가 오가고, 결국 희수가 눈물을 보이자, 필기는 이 상황을 피하듯 희수에게서 등을 돌려 일어난다. 그런데 그 모습이 희수의 눈엔 그들이 헤어진 날과 겹쳐 보인다. 다른 여자 때문에 헤어지겠다며 피하듯 등을 돌린 필기의 마지막 모습. 그 비참하고 더러웠던 기억. 희수는 미친 여자처럼 달려가 필기를 돌려세운다. 그리고 냉정하지 못하게 각색으로 해명하란 말을 내뱉고 필기에게 등을 돌린다. 각색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런데 필기는 희수의 기대대로 각색하지 않았다. 희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별에 대한 솔직한 해명 대신 절절한 멜로영화를 표방한 엉뚱한 각색 방향만 제시했다. 그렇게 희수를 글로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희수는 제멋대로

행동하고 뻔뻔함과 비굴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필기가 편해진다. 마음이 점점 그에게 기운다. 기울고 기울다 치우쳐 필기에게 입을 맞추고 만다. 그런데 입술을 떼어낸 필기가 그 입술로 잔인한 고백을 한다. “나… 여자 친구 있어.”

멋대로 기대하고 입 맞춘 건 희수지만 희수는 필기에게 화를 낸다. 쪽팔리고 서러워서 화를 낸다. 그 뒤에 밀려온 미안함 때문에 전화를 걸어보지만, 필기는 각색고를 읽어보라는 문자로 대신한다. 복잡한 마음을 추스르며 각색고를 읽던 희수의 눈 밑이 파르르 떨린다. 글에는 필기의 쓰리고 아린 고백이 들어 있었다. 필기는 헤어질 때 거짓말을 했다.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최악의 거짓말을 했다. 그땀 거짓말에 3년 동안 아파했다 생각하니 명치가 갑갑해진다. 달려가 필기의 면전에 대고 욕을 토하듯 쏜다. 그런데 필기의 반응이 의외다. “니가 너무 미워서, 상처 주고 싶었어.”

그렇게 필기가 그동안 감췄던 속내를 드러낸다.  
그리고 희수는 알게 된다. 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  
각색은 이미 희수의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 각색은 이미 시작됐다  
김도연

#1 골목길 / 희수의 집 앞(밤)(흑백)

소리가 차단된 화면 속...  
폭우가 쏟아지는 골목길 풍경.  
그 위로, 쓰이는 타이틀. “각색은 이미 시작됐다”  
빛소리 볼륨 서서히 올라가며 타이틀 빛줄기에 지워지면,  
굵은 빛줄기에 흐릿하게 보이는 여자와 남자의 실루엣.  
온몸으로 비를 맞으며 거칠게 남자를 밀치는 여자와 힘겹이 밀쳐지는  
남자. 그 모습 점점 선명해지면,

#2 카페(낮)

희수, 얼빠진 얼굴로 눈을 껌벅이고,  
희수의 시선이 닿은 곳에 서 있는 필기,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으며,

필기 잘 지냈어?

희수 ... 방금 전까진?

필기 (거드름 피우며) 에이, 왜 그래. 잘 못 지낸 거 다 아는데.  
아, 목 탄다. (보고) 마셔도 되지? (희수의 아이스크림 벌컥  
들이켜면)

희수 (불쾌한) 아, 너 내 앞에서 뭐 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냐?

필기 그럼 뭘 해야 하는데? (희수 옷에 붙은 머리카락 떼어주면)

희수 (놀라 신경질적으로) 아! 우리가 뭐, 오랜만에 만난 친구야?  
나 만나서 반가워? 너... 뭐 하러 여기 왔는진 모르겠는데  
지나가던 길이면 그냥 지나가! (커피를 핵 뺏는데)

필기 (알미운 미소로) 안타깝게도... 지나가던 길이 아니라 못  
지나가주겠는데.

필기, 가방에서 시나리오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인서트.

시나리오 표지. <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 written by 홍희수>

희수 (인상 구겨지는) 니가... 왜 그걸 갖고 있어?

필기 (피식) 왜겠어?

희수 (불길한 시선으로) 설마...

#3 영화관 복도(밤)

상근, 벽에 기대, 무심하게 팝콘 먹으며,

상근 맞아.

희수, 상근을 노려보고는,

희수 맞다고? 박피디, 너 돌았어? 너 설마 김필기가 누군지 잊은 거야?

희수, 짜증 난 얼굴로, 고개를 핵 돌려, 좁은 통로를 걷기 시작하면,  
상근, 슬렁슬렁 따라가며,

상근 아니. 다 알지. 개가 니 서방이었던 것도, 니가 개 고무신이었던 것도.  
희수 (멈칫) 에이씨. 그만 거 말고. (어금니 꼭 물고) 헤어졌잖아.

상근, 안다는 듯, 어깨 으쓱하면,

희수, 뭐 이딴 새끼가 다 있냐 얼굴로 고개를 핵 돌려, 걷기 시작하고,

상근, 심드렁한 얼굴로 따라 걸으면서,

상근 헤어지면 꼭 원수냐? 그럼 전 여친이 만든 영화 시사회에 오는 나는?

희수 아, 그 전 여친. 너 때문에 제작사 옮긴 우리 불쌍한 윤피디?

그래. 니 전 여친 윤피디가 널 보고 뭐라디?



때마침 복도 코너에서 돌아오던 윤피디와 마주치는.  
희수와 상근, 동시에 움찔하며 걸음 느려지면,  
윤피디, 상근 보고 눈썹 한 번 싹룩대더니,

윤피디 (희수에게, 밝게) 오셨네요. 흥감독님.  
희수 (어색하게) 어, 그래! 오랜만!  
윤피디 영화 재밌게 보고 가세요!  
희수 그래!

윤피디, 희수에게만 환한 미소로, 땡- 지나가면,

상근 (땡하게) 땡까는데.  
희수 (뒤를 슬쩍 보더니, 작게) 그래 그거야. 전 남친은 땡까는 게 정석이라고.  
상근 (아니꼬운) 야, 어차피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야. 그런 거 다 땡까면서 살면 인생에 뭐가 남겠냐?

#### #4 영화관(밤)

영화 관계자들로 부산스러운 시사회 풍경.  
안으로 들어온 희수와 상근, 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리는데,  
희수, 동물적 감각으로, 핵! 상근 어깨 뒤로 숨으면,

상근 뭐야? 왜 이래?  
희수 (다그치듯, 상근의 귀에 대고) 조용히 해. 저기 김세기가 있잖아.

상근, 희수의 말에 앞을 보면,  
20대 남자 배우 김세기가 앞에서 관계자와 대화 중이다.  
희수와 상근, 코믹 콧비처럼, 얼굴을 가린 채, 계단을 올라가 자리에 앉고는,

상근 휴... 땡까는 것도 힘드네. 김배우 공백기가 3년이었나?

이번에 들어가는 드라마. 그건 잘돼야 할 텐데.

희수 (상근의 어깨 뒤에 숨어, 흘기며) 재가 왜 잘돼야 하는데?  
상근 어? (생각난) 아... 미안. '미숙한' 감독 때문에 영화 망한 거라고. 김배우가 인터뷰에서 대놓고 흥감독 짚었지?  
희수 그 기사 나오고 너 게거품 바글바글하게 문 거 기억난다.  
희수 에이씨. 그 미숙하던 말 좀 하지 마. 아니. 망한 건 같이 망한 건데. 지만 살겠다고 나를 저격하는 게 말이 돼? 그런 지는?  
지도 연기를 그따위로 했으면서 자기반성 같은 건 안 하나?  
세기(E) 흥감독님!

희수, 고개를 돌려보면, 세기가 환하게 웃으며, 희수 앞으로 다가온다.  
희수, 당황하여 눈을 깜박이더니, 앓은 채로, 당당하게,

희수 어어, 그래. 세기 씨, 잘 지냈어?  
세기 그럼요. 감독님 덕분에 3년이나 푹 쉬면서 잘 지냈죠.  
희수 (멈칫, 주변 눈치를 살피고) 어어, 그래. 푹 쉬 얼굴이긴 하네. 좋다.  
세기 (피식, 빈정대며) 감독님 여전하시네요.  
희수 (여유로운) 뭐가?  
세기 여전히... 미...  
희수 (움찔하는)  
상근 (긴장한, 희수 표정 살피면)  
세기 미...  
희수 (눈 밑이 파르르 떨리면)  
세기 ...인이세요. (하며 껄렁대는 미소를 보이면)  
희수 (일부러 호탕하게 웃으며) 세기 씨, 안 본 사이에 연기가 많이 늘었네? 좋다. 분발하는 모습. 노력하는 모습. (은근 놀리는 투로) 파이팅이야?  
세기 사람은 분발해야죠. 감독님은 변치 마세요.

세기, 기분 나쁜 웃음을 흘리며, 계단 위로 올라가면,  
희수, 열 받은 얼굴로, 상근에게서 팝콘을 뺏어 주먹으로 때려 몽갓다.  
상근, 말리며, 희수에게 콜라 건네면, 희수, 빨대로 빠는데, 콜라가 없다.

희수, 성질나선, 컵에 남은 얼음을 입으로 탈탈 털면,

상근 참아. 촬영장 분위기는 좋았잖아.  
 희수 (볼에 얼음이 가득하다, 분노를 가득 담아, 얼음을 씹어대면)  
 상근 필기랑 너도 한뼘 좋았고.  
 희수 (갑자기) 아!  
 상근 왜 그래?  
 희수 (혀 짧은 소리로) 너 때문에 혀 깨물었잖아.  
 (입에 있던 얼음을 컵 안으로 뱉고, 주먹으로 상근 팔뚝을 킁 때리면)  
 상근 아씨, 손 매워. 솔직히 말해. 너 아직도 필기 못 잊었지.  
 희수 (아픈 혀로) 못 잊고 있지. 나쁜 쪽으로.  
 상근 나쁜 쪽이든 좋은 쪽이든 못 잊는 건 미련이야.  
 희수 하? 야, 내가 아직도 개한테 미련 있으면, 그냥 나를 미친년이라 불러.  
 상근 (피식 쪼개며 끄덕이면)  
 희수 웃지 마. 그럴 일 없단 뜻으로 말한 거니까.  
 상근 (더 놀리듯이 쪼개면)  
 희수 야. (뭐라고 한마디 더 하려는데)  
 상근 어, 영화 시작한다.

영화관 그대로 암전되면,

### #5 상가 화장실 앞(밤)(#2에 이어진 상황)

희수, 똥 씹은 얼굴로, 남자 화장실 앞에 삐딱하게 서 있다.  
 필기, 화장실에서 나온다. 물 묻은 손으로 시나리오 넘기면서,

필기 사랑은 천재지만 이별은 인재다.  
 카... (감탄한 듯 검지로 시나리오 대사를 툭툭 치며) 여전하네?  
 희수 여전히 뭐.  
 필기 잘 쓴다고. (칭찬하듯 거만한 미소를 띠면)  
 희수 (거슬리는) 넌 칭찬을 똥 싸고 나와서 하니?  
 필기 요즘 일 안 풀리더니 사람 까칠해졌네. 야, 팬찮아. 기운 내.

너 신인감독상 자루로 쓸어 담던 충무로 셋별이잖아.

희수 그 별이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똥 싸듯이 추락해 지금 이려고 화장실 앞에 있잖니?

희수, 필기의 손에서 시나리오 핵 뺏는 데서,

### #6 삼겹살집(밤)

고기 굽는 연기가 자욱한 내부.  
 필기, 다리를 부산하게 떨며, 다 구워진 삼겹살을 집어 먹으며,

필기 난 그런 자세 맘에 들어. 원래 사람이 정상에 있다 추락하면 현실 부정부터 하고 보는데, 넌 참 자기객관화가 잘 되어 있어.

희수, 실컷 지껄이란 듯, 화를 담아, 불판 위의 삼겹살을 집게로 들어 가위로 자르면,

필기 근데, 그렇게 잘 되어 있는 분이 시나리오는 왜 이거밖에 못 쓰실까? 인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잖아? 아무리 그래도 '우리' 얘기인데.

희수, 삼겹살 자르던 가위질 멈추면,

필기 왜. 맞잖아. 이 시나리오 주인공 너, 나.

그 말에, 희수, 필기 앞으로 가위 들이밀면, 필기, 움찔하는데, 가위에서 필기 앞접시로 떨어지는 삼겹살 한 점.

희수 오늘 누구 때문에 가위질할 맛 나네? (가위로 삼겹살 다시 자르면)  
 필기 (젓가락으로 삼겹살 집어 올려 보며) 그래서 기억도 가위질했나?  
 희수 (멈칫하며) 뭐?  
 필기 너 (시나리오 들어 검지로 건드리며) 날 너무 왜곡했더라?  
 양심 있어?

희수 뭐 양심? (기가 차서 웃기는) 하하? 야, 왜곡된 건 내 기억이 아니라 니 기억이겠지. 원래 죄 지은 사람이 다 잊고 행복하게 산다잖아. (가위로 샅대질하며) 지금 너. (살벌하게) 아주 행복해 보여.

필기 (지지 않고 약 올리듯) 내가? 나 잘 못 지냈는데? 잘 지낸 것처럼 보여?

희수 어, 그래.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 (가엾다는 듯) ‘찌질’한 거보단 낫네.

필기 (‘찌질’이란 단어에 떨던 다리 멈추는, 싸늘한 시선 던지면)

희수 (어쩔 건데, 지지 않는다)

필기 (삼겹살을 집어 질경질경 씹는, 그러다 피식, 비꼬듯) 넌 참 여전하다. 여전히 ‘미숙’해.

희수, ‘미숙’이란 단어에 표정 관리가 되지 않는, 거친 호흡으로, 몸을 들썩이다가, 냉장고로 걸어가 소주를 꺼내 테이블에 탕! 하고 내려놓는다.

희수, 소주 뚜껑을 돌려 따고, 입에 대려는 순간,

필기, 희수 손에 들린 소주병을 잡는데,

희수 (바로) 너 각색하지 마.

필기 너나 술 내려놔.

희수 각색하지 마.

필기 술이나 내려놔.

희수 각색하지 말라고.

필기 술이나 내려놓으라고.

희수 놓으라고! 그냥 먹고 뒤통수 때려버리게!

희수, 소주병을 입으로 가져가려는데,  
일어나 소주병을 가로채는 필기.

희수 (일어나며) 야!

필기 까불지 마! 술도 못 마시는 게!

하고는, 희수가 입도 못 대게 소주 한 병을 벌컥벌컥 들이켠다.

시간 경과.

필기, 술에 취해 두 팔을 축 늘어뜨린 채, 테이블에 얼굴을 문대며 잔다.  
빈 소주 한 병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고, 불판 위의 삼겹살들은 새카맣게 탔다.

희수, 안 딱 소주를 만지작거리며, 취한 필기를 보더니,

희수 치사한 새끼. 너만 취하나.

하면서 소주 뚜껑을 따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정수리에 최악... 붓는다.  
소주 한 병으로 흠뻑 젖은 희수, 큼- 소주 냄새를 맡더니, 일어난다.  
그러곤 필기의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본다. 그렇게 한참이나 보다가...  
대뜸 필기의 뺨을 찰싹, 치고 가버리면, 놀라 잠에서 깨는 필기.

필기 (잠결에) 잘못했... (눈을 깜박이더니) 아... 꿈이네...

술이 덜 깬 얼굴로 짐을 챙겨 일어난다.

## #7 삼겹살집 앞(밤)

문을 열고 나온 필기, 삼겹살집 앞에 서 있는 희수를 발견하고,

필기 왜 안 가고? (푼린 눈으로 보면)

희수 (시선 안 주고) 비 오잖아.

필기, 희수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리면, 장대비가 짹짹.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필기, 희수처럼 가게 앞에서 일단 비를 피하고 본다.  
그렇게 나란히 선 둘, 멍하니 빗소리를 듣는데,  
빗소리가 점점 크게 들린다. 둘은 같은 때를 떠올린다.

#8 골목길 / 희수의 집 앞 / 차 안(밤)(흑백)

차창을 세게 두드리는 빗줄기들.

운전석에 앉은 필기가 희수에게 티슈를 건넨다.

얼마나 운 건지 눈, 코가 벌겋진 희수. 티슈로 눈물 닦고, 콧물 닦고,

희수 (코맹맹이 소리로) 어떻게 너는 내가 헤어지자고 말하니까 바로 연락을 끊냐? 나는 니가 당연히 날 붙잡을 거라 생각했어. 일주일 동안 니가 연락해주길 기다렸다고.

필기 미안해. (눈물 닦아주려고 하는데)

희수 (피하면서) 됐어. 필요 없어.

필기 미안하단 말밖엔... 할 말이 없다... (안쓰럽게 바라보면)

희수 됐다고... (홀쩍이곤) 다시 만나면 되지 뭐.

그 말에, 잠깐 머뭇거리는 필기, 희수에게 시선을 떼며,

필기 그건... 아닌 것 같아...

희수 뭐? (사태 파악 못 하고) 왜?

필기 다시 못 만날 것 같아...

희수 그니까 왜.

필기 (뒤편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 입술만 달싹거리면)

희수 (불길한 느낌 감지하곤) 여자... 생겼어?

필기 (고개 숙이면)

희수 (짜늘하게) 여자 생겼냐고.

그 말에, 필기, 어렵게 끄덕인다.

희수 (기막히단 미소로) 정말... 여자 생겼어? 헤어진 지 일주일 만에?

필기 (미안한) 그렇게... 됐어...

희수 그렇게 됐어? 야, (필기의 몸을 돌리며) 너 나 봐. 나 보고 솔직히 말해. 진짜 여자 생겼어? 어?

필기 (희수 눈을 못 보겠다)

희수 (화를 삭이고) 봐줄게.

필기 뭐?

희수 봐준다고. 개랑 헤어지고 와.

필기 (난감하다) 그건... 희수야. 그건 안 돼...

희수 (헛웃음 나고) 안 돼?

필기 (미안한 얼굴로 희수를 보면)

희수 (짜늘한) 잤어?

필기 ...

희수 너 설마 개 사랑하니?

필기 ...

희수 아! 말을 해!

희수의 목소리에 놀란 필기, 순간 눈에 눈물이 맺힌다.

희수 미친놈? 울어?

필기 (눈물 참으며) 아니.

희수 헤어져. 지금 당장 개한테 전화해서 헤어지자고 해.

필기 (입 꼭 다물고 고개 저으면)

희수 아, 미치겠네. 헤어지라고!

필기 (소매로 눈물 훔치자)

희수 너 지금 내가 개랑 헤어지라고 해서 우는 거야?

필기 그런 거 아니야.

희수 (어깨 밀치며) 근데 왜 우는데! 재수 없게!

필기 (눈물 닦고) 미안해.

희수 미안하면 개랑 헤어져.

필기 (그건 못 하겠단 눈으로 희수를 보면)

희수 (열불이 나선 얼굴을 잔뜩 일그러뜨리며) 야!

필기 (움찔하고)

희수 (흥분한) 야, 너 핸드폰 내놔.

필기 (시선 피하며) 왜.

희수 (차분해진 척) 궁금해서. 어떤 여자인지 얼굴이나 한번 보자.

필기 사진 없어.

희수 (헛웃음 나고) 지랄하네. 너 나 꼬실 때 사진 달라고 그렇게  
즐랐었잖아. 근데 지금 그 여자 사진이 폰에 없는 게 말이 돼?  
필기 진짜 없어.  
희수 (비웃는) 뭐, 같잖게 지켜주고 싶고, 그런 거냐? 야! 폰 내놔! 아,  
내놔!

희수, 필기의 옷을 쥐어뜯으면서까지 폰을 뺏으려 하자,  
필기, 희수의 손을 뿌리치며 차 밖으로 나간다.  
희수, 따라 차 밖으로 나가는 모습에서.

## #9 골목길 / 희수의 집 앞(밤)(흑백)

희수와 필기, 차를 사이에 두고, 비를 맞는다.  
필기, 씩씩거리다, 뒷좌석에서 우산을 꺼내, 희수 손에 쥐어준다.  
하지만 희수, 그대로 우산을 바닥에 집어 던지면,  
필기, 짜증이 확 나서는,

필기 헤어지자고 한 건 너잖아. 근데 지금 와서 왜 그래?  
희수 (기가 차선) 너... 너 내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속으로 좋았겠다? 어?  
필기 아니야.  
희수 웃기지 마. 너 나 만날 때도 그 여자 만났지? 바람 댔지?  
필기 아니라고.  
희수 (무시하고) 충무로 떠돌이 주제에 여자 꼬실 시간은 있었나 보다?  
니 글밭 후진 건 알았지만 인성까지 후진 놈인 줄은 몰랐네.  
내가 어찌다 너같이 후진 놈이랑 6년이나 만났을까?  
나, 지금 니 얼굴에 침 뱉고, 욕하고 싶어.  
니 머리통 때리고, 얼굴 찢어버리고 싶다고!  
필기 ... (참는다, 하지만 빼뺏어진다) 그래. 니 말이 맞다.  
희수 왜 그딴 식으로 말 해?  
필기 (건조하게) 미안해.

희수, 몸을 파르르 떨더니, 바닥에 떨어진 우산을 집어 바닥을 때린다.

필기, 희수를 말리려, 우산을 뺏으면, 우산 살 여기저기가 부러졌다.  
희수, 눈물 맺힌 눈으로 필기에게,

희수 나, 사실 일주일 동안 되게 아련했거든?  
너만 생각하면 아련해서 하마터면 너 못 잊을 뻔했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아련한 마음이 단 한 톨도 없어.  
넌 그냥. 나한테 ‘쓰레기’야.  
필기 (가만히 부러진 우산만 바라보면)  
희수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고 변명이라도 해봐!  
필기 (뭔가 말하려는 듯 눈동자가 움직이지만, 결국 또) 미안해...

희수, 몸을 떨더니, 차에서 가방을 꺼내, 몇 걸음 걷다 멈춘다.  
필기, 희수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희수의 어깨가 빗속에서 흔들린다.  
희수, 얼굴을 잔뜩 찡그리며, 울고 있다. 억울하다. 분해 죽겠다.  
필기, 처량하게 떨리는 희수의 어깨를 보니, 마음이 약해진다.  
여기저기 부러진 우산을 펼쳐 희수에게 씌워주는데,  
희수의 가방이 필기의 손으로 던져진다. 그대로 바닥에 나뒹구는 우산...  
희수, “이 나쁜 새끼야!” 가방으로 필기의 가슴을 때리고,  
필기, 고개 숙인 채 계속해서 밀쳐진다.  
희수, 독기 품은 얼굴로,

희수 그래 꺼져. 꺼지라고. 이 ‘찌질한’ 새끼야.

필기, 입술을 깨문 채 희수에게서 등을 돌린다. 그대로 차에 타 가버리면,  
희수, 흠뻑 젖은 채, 멀어지는 차의 뒷모습을 노려보는 데서.

## #10 영화관(밤)(#4의 시간 경과)

영화가 끝나고 밝아지는 영화관.  
자리를 지키는 관객들, 엔딩크레디트를 본다.

상근 와, 못해도 500은 가겠네. (희수 툭 치며) 어때 영화.

희수 (애써 심드렁한) 뭐, 애는 썼네.

그러다 갑자기 찡그리는 희수.

희수 각본 김필기?

상근 그니까. 애 완전 신들렸나 봐. 미쳤어. 글발이.

희수 미친 건 글발뿐이 아니지.

상근 뭐가 미쳤든 어때? 마음이 달라져? 김필기 각색 콜?

희수 ... (필기를 떠올리며) 재수 없어.

## #11 영화관 주차장(밤)

주차된 차를 찾아다니는 희수와 상근.

그 위로, 핸드폰 진동 소리(E) 계속 들린다.

희수 분명히 말하는데 나 개랑 각색 안 해.

상근 나도 분명히 말하는데 너 개랑 각색해야 돼.

(차 키 버튼을 누르며) 아, 어디다 주차한 거야. 너도 기억 안 나?

희수 주차는 니가 했잖아.

상근 그 차는 나만 탔고? 같이 탔으면서 공동체 의식이 없어 어떻게.

희수 (머쓱해 시선 허공에 굴리더니) 야, 계속 전화 오잖아. 좀 받지?

상근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러니 흥감독아, 너는 각색에나 집중해라. 응?

요즘 충무로에서 난다 긴다 하는 작가 중에 우리가 제시하는 단가 맞춰줄 작가가 몇이나 될 것 같아? 필기니까 가능한 거야.

제발 제작사 사정도 생각해라. 쫘.

희수 그래서. 3년간 붙잡고 있던 시나리오 전 남친한테 토스하라고?

상근 니가 3년간 고생해서 시나리오 이 정도까지 만든 건 나도 인정. 근데.

이 시나리오 끝까지 책임 못 진다고 각색 작가 구하자고 한 건 너야.

그리고 그에 맞는 책임자가 나타났고.

희수 알아 나도. 김필기가 각색에 딱이란 거.

근데. 개만 생각하면 열불이 나.

3년 전에 영화 말아먹은 거? 괜찮아. 내가 망친 거니까.

내 책임이니까. 근데 3년 전에 연애 말아먹은 거? 그건 안 괜찮아.

내 연애는. 김필기가 다 망쳤거든.

상근 니 책임은 없으시다?

희수 당연히 없지.

그러나는 듯 꼬덕이던 상근,

다시 차 키 버튼을 누르면 “뽁뽁” 하고 반기는 차.

상근 어, 저기 있었네.

상근, 차 있는 쪽으로 가면, 희수, 따라가는데.

차 옆에 필기가 서 있다. 필기, 둘을 보고, 기다렸단 듯이,

필기 영화 잘 봤어?

## #12 포장마차(밤)

희수 아니.

포장마차 테이블을 빙 둘러앉은 희수, 필기, 상근.

필기 할게.

희수 싫어.

상근 하자.

희수 안 해.

필기 한다?

희수 됐어.

상근 하자.

희수 싫다니니까!

상근 아, 쫘! (주먹으로 테이블 내리치며) 흥희수! 좀 쿨할 순 없냐?

희수 왜? 왜 내가 쿨해야 하는데? 왜 상처 받은 사람이 쿨해야 하는데?

상근 너만 상처 받았어? 헤어질 땐 두 사람 다 상처 받는 거야.

희수 (턱을 들이밀며) 니가 뭘 알아.  
 상근 (턱을 들이밀며) 내가 왜 몰라. 니가 시나리오에 구구절절 다 써놨잖아.  
 희수 (말문 막히다) 근데! 근데 왜 내 편이 아닌데!  
 상근 내가 각색하자고 한 이유가 그거야. 너무 여자주인공 위주잖아. 마치 내 편이 돼주세요. 저 쌍놈을 옥해주세요. 그런 시나리오잖아. 그게 영화가 돼? 아무리 남자가 '쌍놈'이더라도 (필기에게) 미안.  
 필기 (괜찮다는 듯 손을 슬쩍 올리면)  
 상근 그렇더라도 남자 주인공의 시선에선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넌 왜 들으려고도 하지 않냐 이거야. 너 감독이잖아. 내가 뭐 너네 다시 사귀라고 부추겨? 글 쓰라고. 영화 만들라고. 오버하지 말라고. 흥희수.  
 필기 잘한다.  
 상근 야이씨.  
 희수 이러는데? 이러는데 나보고 쿨하라고?  
 상근 흥감독아. 쫄음! 우리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은 분리 좀 하자.  
 희수 (가소로운) 그래. 우리 박피디는 공사를 너-무 분리할 줄 아는 거지. 그러니까 윤피디가 니 욕 하고 다니는 거야.  
 상근 (표정 바뀌며) 윤피디가 내 욕 하고 다녀?  
 희수 그럼 안 하겠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상근 (진동 올리는 핸드폰을 가슴에 얹고) 알았어. 전화 한 통만 하고.

상근, 일어나 포장마차 밖으로 나가면,  
 희수, 짜증 나는 듯 오이를 아작아작.  
 필기, 그런 희수가 재밌어 보고 있자,

희수 (시선 느끼고) 뭘 봐.  
 필기 그냥. 귀여워서.  
 희수 지랄.  
 필기 (기막힌 반응에 낄낄 웃다가) 흥희수, 너는 우리가 왜 헤어졌다 생각해?  
 희수 (기가 찬) 그걸 몰라 물어?

필기 모르는 건 너 같아서. 왜 그렇게 썼어?  
 희수 (빈정대는) 왜? 쪽팔리니? 글로 보니까 쪽팔려? 왜 그러긴. 니가 그랬어.  
 필기 (기분 상해선, 굳은 얼굴로) 니가 나에 대해 알아?  
 희수 그럼, 내가 널 몰라?  
 필기 어. 넌 몰라.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안다고? 아니. 넌 몰라.  
 내가 말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모를 거야.  
 너, 니 영화가 왜 망했는지 알아?  
 이는 척하다 망한 거야. 이는 척하다 망한 거라고.  
 그니까. '아는 척' 좀 그만해. (차분하게 상처 줄 말을 다 했다)  
 희수 (눈물 날 것 같다. 겨우 참고는) 내가 이래서 너랑 각색하기 싫은 거야. (호흡이 가빠지더니) 니가 나 버렸다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 같아?  
 필기 (황당한, 인상 쓰며) 흥희수.  
 희수 그래, 김필기. 내가 모른다고? 뭘 몰라.  
 니가... 나 사랑하지 않아서 버린 거잖아.  
 필기 (단호하게) 난 너 버린 적 없어.  
 희수 (바들바들 떨며) 내가! 버림 받았다고 느꼈으면! 버림 받은 거야!

희수의 눈에서 참고 참아 끓어진 눈물이 똑똑 떨어진다.

필기, 희수의 눈물에 방금 한 말들이 후회된다.

필기 미안해...  
 희수 됐어. (고개 돌려 눈물 훔치면)  
 필기 미안해. 희수야... 정말... 미... (안하다 말하려는데)  
 희수 야, 너 그 미안하단 말 좀 안 하면 안 돼?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니가 미안하다는데, 왜 내 기분이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할까?  
 필기 (미안하다)  
 희수 그 불쌍한 표정 좀 짓지 마. 불쌍한 건, 나야.  
 필기 (미안해)  
 희수 (소매로 볼에 흐른 눈물 벽벽 닦곤) 박피디 앤 왜 이렇게 안 와?



희수, 상근에게 전화 걸려고 하면, 밖을 가리키는 필기.  
포장마차 커튼 사이로, 저 멀리 상근과 윤페디가 보인다.  
윤페디, 상근의 품에 안겨 상근의 등을 툭툭 때리며 울고,  
상근, 윤페디를 달래듯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있다.

희수 (눈을 깜박이며) 뭐지. 저 난잡한 그림은. (홀쩍, 눈물 쪽 들어가는데)  
필기 (희수가 바깥을 보는 사이, 주섬주섬 일어난다)  
희수 (보는) 어디 가.  
필기 너, 나 불편하잖아. (짐 다 챙기곤) 각색은, 내가 다른 작가 추천해줄게.  
희수 야.  
필기 잘 지내.

필기, 도망치듯 희수에게 등 돌려, 포장마차 밖으로 나가버리면,  
혼자 남은 희수, 갑자기 속이 갑갑해진다.

### #13 포장마차 앞(밤)

포장마차에서 뛰쳐나온 희수.

희수 야!  
희수의 목소리에 놀란 상근과 윤페디, 희수 눈치 보며, 프레임 아웃되고,  
필기, 희수의 목소리에 뒤돌아보면, 희수, 필기에게로 달려간다.

희수 누가 먼저 일어나래!  
필기 어?  
희수 왜 나 내버려두고, 너 먼저 가냐고!  
필기 그건…  
희수 나한테 등 돌리고 걷지 마! 나한테 먼저 간다고 말하지도 마!  
작별인사는 내가 할 거야! 등 돌리는 것도, 먼저 가는 것도!  
내가 할 거라고! (눈물 그렇그렁한 채로) 알겠어?

필기 그래…  
희수 (작별인사를 해야 하는데…) 그냥… 니가 각색해.  
필기 (복잡한 표정이면)  
희수 니가 하라고. 그래서. 그때 나한테 왜 그랬는지 글로 해명해.

말이 끝나자마자 필기 어깨를 스쳐 지나가는 희수.  
필기, 희수의 뒷모습을 본다. 안타깝다… 희수의 상처가 생각보다 깊었다.

### #14 필기의 원룸(밤)

필기, 셔랍을 열어, 잡동사니 사이, 반지 케이스를 꺼내 본다.  
반지 케이스 속, 소박한 디자인의 반지.  
필기, 반지를 물끄러미 보는 데서,

### #15 희수의 원룸(밤)

희수, 자려고 침대에 눕는데, 울리는 핸드폰 톡 소리.  
희수, 핸드폰을 보면,

인서트.  
핸드폰 화면. [김필기 작가: 자니?]

희수 (짜늘한) 미친…

### #16 라면 가게(낮)

가게 직원이 라면 두 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다.  
하지만 라면엔 관심 없는 희수, 팔짱 끼고,

희수 다신, 밤에 톡 따위 보내지 마.  
필기 아니. 깨어 있으면 회의 좀 하려고 했지.  
희수 내가 너랑 밤에 통화를 왜 해? 전화도 하지 마.



필기 그럼 새벽엔?  
희수 새벽에도 하지 마. 자다가 니 전화에 깨고 싶지 않으니까.  
필기 그럼 낮에?  
희수 낮에도 하지 마. 바이오리듬 깨지니까.  
필기 그건 좀 억지다.  
희수 아무튼 하지 마. 개수작 부리지 말라고.  
필기 (황당한) 개수작? (어이없어 다시) 개수작?

필기, 어이없단 듯 실실 웃으며 일어나 셀프바로 간다.

희수, 라면을 먹기 시작하는데,

필기 착각은 셀프라지만. 적당히 해라.

필기, 희수의 라면 앞에 무심히 반찬 그릇 내려놓으면,  
희수, 눈앞에 김치 대신 수북이 쌓인 단무지 발견하고,

희수 (찜찜) 이런 게, 이런 게 개수작이란 거야. (단무지 두 개나 집어 먹으면)  
필기 (피식) 개수작은 무슨. 그냥 솔직히 말해. 다시 봐도 잘생겼다고.  
희수 (질색) 아, 뭐래? 재수 없는 게 컨셉이야?  
필기 (느끼하게) 어서 와. 이런 미남은 처음이지? (웁크를 날리면)  
희수 아씨, 토 나와. (젓가락 테이블에 세게 탕! 내려놓는)

그 행동에, 필기, 웃음 터지는 데서.

## #17 제작사 회의실(낮)

열린 문 밖으로, 인쇄기 앞에 선 직원이 보인다.

희수와 필기, 각자 인쇄된 시나리오 보며, 수정할 부분 체크 중인데,  
상근, 테이크아웃 커피 세 잔을 들고 들어온다.

상근 일찍들 왔네? 내가 좀 늦었지?

상근, 태연하게 테이블 위에 커피를 내려놓고 앉으면,

희수 (기다렸다는 듯) 박상근. 너, 딱 걸렸어.  
상근 뭐가.  
희수 그래. 다들 그런 반응이지. 딱 걸렸을 때의 반응. (입술 사이로 웃더니) 야, 임마.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말이야. 어?  
삼류 드라마 찍냐? 어?  
상근 (대꾸 않고, 필기에게 커피 건네며) 김작가, 홍감독 시나리오는 읽었지?  
필기 읽은 지가 언젠데. 메일 확인 안 했어?  
희수 (상근에게) 안 들리는 척하지 마라. 김필기 애도 다 봤거든.  
상근 (필기에게) 그래. 그럼 우리 각색 방향에 대해 얘기해볼까.  
(목이 타는 듯 커피를 벌컥벌컥 마시는데)  
희수 잤냐?  
상근 (바로 커피 뽑으면)

필기, 티슈를 뽑아 상근에게 건네고, 테이블 위를 닦는다.

희수 (그럴 줄 알았던 얼굴로) 했네, 했어. (필기에게) 거봐, 애네 했다니까.  
상근 (티슈로 옷에 튄 커피를 닦다, 열린 문 밖을 보고 흠칫, 문을 닫으며) 야, 홍희수, 열린 공간에서 했네 했어가 뭐냐? 그렇게 날 망신 주고 싶냐?  
희수 (내가 뭘 어쨌냐는 듯, 어깨를 으쓱하면)  
상근 (필기에게) 야, 재 대학 때 안 저랬는데 어찌다 이렇게 됐냐?  
필기 (내가 어찌 알겠냐는 듯, 어깨를 으쓱하면)  
희수 (별일 아니란 듯) 사람이 살다가 큰 충격을 받았잖아? 그럼 이렇게 되더라. (다 젖은 시나리오 털면서) 에이 디러. 다시 뽑아올게.

희수, 회의실을 나가며, 문을 열어놓으면,  
상근, 아이씨, 또 문 열었네, 문 밖을 노려보다가,

상근 (테이블 뒤편, 작게) 나는, 너네 다시 잘되길 바랐는데, 그른 거냐?  
 필기 (테이블 뒤편, 인쇄 중인 회수를 힐긋 보곤) 바랄 걸 바래.  
 상근 그래.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건 아니지. 그건 진짜 아니야.  
 필기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러냐는 눈빛으로 보면)  
 상근 (단호하게) 아니라고.  
 필기 (혀를 끝끝 차는 데서)

## #18 골목길 / 회수의 집 앞(다른 날 / 낮)

회수, 다 말리지 못한 머리에 민낯으로, 빌라에서 후다닥 나온다.  
 그런데 “뽕!” 골목길에 세워져 있는 구형 SUV.  
 운전석에 앉은 필기, 타라고 손을 흔드는데.  
 회수의 눈 안에 들어온 익숙한 이 구도.  
 먹구름 낀 날씨, 이 골목, 구형 SUV, 차가 멈춘 위치까지,  
 번개 치듯, 헤어지던 날(#9. 골목길)과 번갈아 교차된다.  
 식겁한 회수, 핵 하고 차를 지나쳐 걸어가면,  
 황당한 필기, 문을 내리고 회수 옆을 서행하며,

필기 뭐 하나? 늦는데서 나온 김에 데리러 왔는데. (힐긋) 썩얼이라 그래?  
 회수 넌 비위도 좋다. 그 차를 타고 여길 오고 싶어?  
 필기 내 차가 어때서? 여기가 어때서?  
 회수 아, 요즘 잘나가잖아. 좀 바꾸고 살아.  
 필기 (위아래로 힐긋하더니) 너나 바꿔. 하여간, 그 옷 엄청 좋아해?

필기의 말이 끝나자마자 멈춰 선 회수.  
 회수가 오늘 입은 옷은,

플래시백.

#9. 가방으로 필기의 가슴을 때리는 회수의 옷.

그렇다. 헤어진 날 입은 그 옷이다.

## #19 도로 / 차 안(낮)

회수의 집 근처 도로.

인서트.

빨간 신호가 뜨고, 필기의 차가 정지선에 멈춘다.

운전 중인 필기, 유난이다 싶은 얼굴로,

필기 그렇다고 갈아입을 필요는 없잖아? (보면)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회수. 차 안에서 베이스부터 화장 중이시다.

회수 시끄럽고. 넌 남자주인공 감정선만 손보라고.

그냥 니 과거사를 글에 녹여내면 되는 거야. 쉽지?

필기 이 영화 투자만을 생각은 있는 거고?

회수 시비는 사절. 요점만 말해. (아이라인 그리는데)

인서트.

초록 신호가 뜬다. 출발하는 차 위로, 필기, “씩 갈아엎자.”

회수 (아이라인 빼끗한 눈으로) 뭐?

필기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이런 걸 보려고 돈 내고 영화관에 오냐 이거지. 너 또 망하면 안 되잖아. 너 이번에도 망하면 진짜 기술이라도 배워야 돼.

회수 (침 문힌 손으로 아이라인 지우면서) 좋네. 젊은 나이에 영화도 찍고 기술도 배우고.

필기 아니. 진짜. 너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단니까. 니 미래가 걱정돼서 그래.

회수 아이고. 점쟁이세요? 그래서 제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도사님. (다시 아이라인을 그리려는데)

필기 시한부 어때.

희수 (손이 빠끗) 뭐?  
 필기 남자 주인공 시한부 어쩌냐고. 눈물 콧물 쪽 빼게.  
 멜로는 눈물이잖아.  
 희수 (아이라인 빼죽 솟은 눈을 부라리며) 그래. 그럼 눈물 콧물 쪽 빼게  
 여자주인공도 시한부로 가자. 엔딩은 관 뚜껑 닫고 영혼결혼식 어때.  
 합장까지 하면 더 좋고. 콜?  
 필기 빼딱하게만 듣지 말고.  
 희수 어이, 김작가, 당신께서 영화관에서 잘나가는 거 인정해. 인정하는데.  
 나한테 왜 이래. 시한부가 뭐야, 시한부가. 너 컨셉이 걸림돌이야?

인서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방지턱 넘고 덜컥대는 차.

## #20 두물머리 화장실 앞(새벽)(흑백)

원피스를 입은 희수, 실망한 얼굴로 남자 화장실 앞에 서 있다.  
 필기, 화장실에서 나오면, 희수, 말없이 걷는 데서,

## #21 두물머리(새벽)(흑백)

두물머리 풍경. 물안개가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필기, 감탄하며, 핸드폰으로 물안개 사진을 찍는데,  
 희수, 팔짱 낀 채, 심드렁하게 물안개 바라보는 데서,

## #22 두물머리 핫도그(낮)(흑백)

필기, 희수에게 핫도그를 건네는데,  
 희수, 받지 않고 보는,

필기 왜?  
 희수 (떨떠름한) 아니. 뭐가 없어서.  
 필기 (실없이 웃으며) 핫도그에 초 꽃을라고?

희수 (뻘히 필기 얼굴을 보다가 핫도그 가져가면)  
 필기 (핫도그를 부딪치며) 생일 축하해. (한입 크게 베어 물면)  
 희수 (핫도그 먹는 필기를 한심하게 쳐다본다)  
 필기 (시선 느끼고, 설탕과 케첩이 잔뜩 묻은 입술로) 왜?  
 희수 질려서.  
 필기 (입에 핫도그가 잔뜩 든 채로) 뭐가?  
 희수 (한심한 시선으로) 핫도그.

## #23 모텔 전경(낮)(흑백)

남양주 허름한 모텔 전경 위로, TV 코미디 프로 속 웃음소리가 들린다.

## #24 모텔(낮)(흑백)

체리색 테이블 위, 촛농 자국이 묻은, 먹다 남은 케이크 조각이 지저분하게  
 놓여 있다.

카메라 서서히 빠지면, 선풍기가 달려 있는 허름한 모텔 내부가 보인다.  
 필기, 티셔츠에 팬티 바람으로, 바닥에 앉아, 컵라면을 게걸스레 먹는다.  
 희수, 원피스 차림에, 체리색 침대 헤드에 등을댄 채로, 필기를  
 내려다본다.

필기, 눈치를 못 챈 건지, 신경을 안 쓰는 건지, TV만 보고 실없이 웃는데,

희수 가자. 시간 다 됐어.

희수, 일어나, 리모컨 TV전원을 누른다. 하지만 꺼지지 않는 TV.

희수, 계속 전원 버튼을 누르며,

희수 아, 왜 안 꺼져? 꺼져라. 쏘... (성질나서 리모컨 던지듯 내려놓으면)

필기, 리모컨 TV전원을 누른다. 그래도 꺼지지 않는 TV.

희수 (이 상황이 한심한) 넌 저런 게 재밌니?

필기 (기분 상하지만, 참는, 웃으며) 왜? 난 재밌는데?  
희수 (기가 찬) 요즘 글 안 쓰고 저런 거나 보는 거였어?  
필기 (참기 힘든, 짜증스레) 뭐 어때. 어차피 써봤자 거지 같은 글인데.  
희수 아, 듣기 싫어.

희수, 리모컨을 뺀어 짜증스레 전원을 누르는데,

필기 맞잖아. 내 글 거지 같은 거. 나 재능 없어.  
희수 (리모컨으로 필기 가리키며) 야, 너 말하지 마.  
필기 뭐? 말하지 마?  
희수 어, 말하지 마. 듣기 싫다는데 왜 자꾸 말해?  
필기 하... 야, 난 그럼 뭐, 니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해야 돼?  
여기 와서도 감독질 하나 넌?

그 말에 희수, 리모컨을 내려놓고, 자기 머리를 쥐어뜯더니,

희수 감독질? 야... 너 워딩 진짜 더럽게 쓴다. 너, 니 기분 따라 쓴다, 안 쓴다, 왔다 갔다 하는 거 내가 처음 봐? (짜증을 누르며) 지금이 몇 번째인데.  
필기 (짜증 난)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  
희수 왜 니 힘든 걸 나한테 푸는데.  
필기 너니까 하지. 그럼 내가 누구한테 그래?  
희수 (짜증과 서운함이 서서히 폭발하듯) 아니-이! 오늘 내 생일이잖아!! 왜 오늘까지 그러냐고!!!  
필기 ... 미안해.  
희수 ... (저 남자가 한심하고 꼴 보기 싫다) 참... 쉽다.

희수, 가방을 들고 나가버리면, 필기, 홀로 바닥에 앉아 있다.  
그 위로, TV 속 웃음소리만 낯설게 퍼지는 데서.

## #25 모텔 앞 주차장(해질녘)(흑백)

희수, 화난 얼굴로, 모텔 입구를 걸어 나오고,  
필기, 급하게 바지를 입으면서, 뛰어나오다, 신발이 벗겨진다.  
뒤돌아가 신발을 신고는, 뛰어가 희수 팔을 잡으며,

필기 희수야, 내가 잘못했어.  
희수 (잡힌 채로) 됐어. 놔.  
필기 (달래듯, 희수 손을 잡으며) 에이, 괜히 그런다. 가자.  
지금 출발하면, 영화 시간 딱 맞아.  
희수 싫다고.  
필기 (달래는) 왜. 너 자동차극장 좋아하잖아. 일단 차부터 타자. (하는데)  
희수 (짜증 난) 됐어. 그 똥차 너나 타.

희수, 핫김에 말해놓고 아차 싶다, 필기를 보면,  
필기, 화를 삼키며 바닥만 쳐다보다가, 희수 손을 놓으며,

필기 넌 내가 저 똥차 같지.  
희수 왜 시비아?  
필기 타고 싶지 않은 똥차 같은 놈은 왜 만나냐?  
희수 시비 걸지 마.  
필기 똥차 맞잖아.  
희수 시비 걸지 말라고.  
필기 (욱해서) 시비는 니가 걸었잖아! 너 진짜 이기적인 거 알아?  
희수 (말문이 턱) 허, 내가? (울컥 치미는) 내가 이기적이라고?  
필기 이기적인 건 너지. 오늘 내 생일인데 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해봐.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고, 뭘 또 그렇게 이기적이었어? 넌 또 뭐가 그렇게 매일 힘들고!  
희수 모르면 됐어. (차갑게 시선 피하면)

희수,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이 부득부득 차오른다.

희수 (한참을 노려보다가) 너 그거 알아?  
필기 (사나운 눈으로) 뭐.  
희수 너한테서... 똥차 냄새 나.

필기, 자존심이 구겨진다. 턱을 파르르 떨다 입술이 터질 정도로 깨문다.  
희수, 등 돌려 걷는다. 그러곤 핸드폰을 꺼내, 울면서, 특을 작성한다.  
필기, 흥분 상태로 서 있는데, 울리는 특 알림음.  
필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보면,

인서트.  
핸드폰 화면. [희수: 헤어지자]

필기, 울컥 치민다. 벌건 얼굴로 울면서 희수의 뒷모습을 본다.  
하지만 이번엔 붙잡지 않는다. 대신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 던진다.  
희수, 울면서도, 앞만 보고 걷는 모습에서.

## #26 골목길 / 희수의 집 앞(낮)

희수, 안쓰러운 눈으로 아래를 응시한다.  
보면, 필기가 차 안에서 꾸벅꾸벅 잔다. 안쓰러울 정도로 고돼 보인다.  
희수, 시선을 필기 옆으로 옮기면,  
조수석에 놓여 있는, <우리가 헤어진 이유, 김필기 각색1고> 표지.  
희수, 잠시 보다가, 손으로 툭툭 문을 두드리면,  
잠에서 깬 필기, 피곤하지만 웃는 얼굴로 희수를 맞이하는 데서,

## #27 카페(낮)

심기 불편한 희수, 필기의 시나리오를 반쯤 읽더니 덮는다.  
필기, 예상했던 바다. 어렵게 시선 올려 희수와 눈 마주치면,

희수 (서늘한) 감정선 손보라 했더니 (엄지로 목을 그으며) 생명선을  
손봤네?

필기 (어색한 미소로) 너무 잤나...  
희수 완전 잤지. (까칠하지만 전보단 누그러진 투로) 그냥 좀  
솔직해지라니까?  
필기 (시선 피하는)  
희수 솔직해지려니까 겁나?  
필기 ...  
희수 (답답한) 아 진짜... 왜 그래? 왜 매번 사람 세워두고 혼자  
판생각이냐고.  
필기 수정할게.  
희수 (지친 듯 시나리오 덮으며) 언제까지.  
필기 열흘. 아니... 일주일?  
희수 (피로한, 한숨이 절로 나오는) 이번엔 지어내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어?  
필기 ...  
희수 어?  
필기 어...

희수, 피로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고, 필기도 뒤따라 일어선다.

## #28 카페 골목(낮)

희수와 필기, 카페 건물에서 나온다.  
희수, 가라고 손짓하는데, 필기, 멍뚱뚱 서 있는 모습에,

희수 (뚱한 얼굴로) 안 가고 뭐 해?  
필기 먼저 가라고?  
희수 그래.  
필기 정말? 정말 먼저 가?  
희수 (이해 안 가는) 그래. 먼저 가라고.  
필기 알았어. 그럼... 진짜 나 먼저 간다? (손 흔드는데)

희수, 어이없는 표정으로,

희수 뭐 해?

보면, 뒷걸음질로 걸어가는 필기.

필기 (계속 뒤로 걸으면서) 등 돌리지 말라며.

희수 (내심 싫지 않아 피식) 이제 내 말 듣는 거야?

필기 (계속 뒤로 걸으면서) 나 원래 니 말 잘 듣잖아.

희수 니가? 껍이나? (그러다 걱정되는) 야, 제대로 걸어. 넘어져.

필기 (계속 뒤로 걸으면서) 너나 등 돌려. 그래야 내가 등 돌리지.

희수 야, 넘어진다니까?

희수 걱정이 무섭게, 필기, 쪽 파인 보도블록을 밟고 엉덩방아를 찢는다.

놀란 희수, 필기에게 달려가, 필기의 팔을 잡고,

희수 못 산다. 엉덩이 안 깨졌어? (필기가 안 일어나자) 왜 안 일어나?  
아파?

필기 (고개 푹 숙인 채로 손짓)

희수 (필기에게 다가가 귀를 대면)

필기 (희수의 귀에 대고) 쪽팔리니까 조용히 말해.

희수 폼! (크크크 웃어대자)

필기 (아프고 쪽팔린) 웃지 마...

희수, 고개를 숙인 채 크크크, 참으려 해도 웃음이 멈추지 않는다.

필기, 바닥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쪽팔려 하더니,

웃는 희수의 얼굴에, 찡그렸던 얼굴이 미소로 변한다.

## #29 한강 다리(밤)

조명이 켜진 한강 다리. 왠지 따스한 풍경.

강바람 쐬며 걷던 희수, 갑자기 뒤돌아선, 뒤로 걸어본다.

중심을 못 잡아 몇 걸음 건너니 비틀, 피식 웃는다.

그러다 이내 쓸쓸한 표정에서...

## #30 필기의 원룸(밤)

필기, 노트북에 시나리오 띄워놓고 고민 중인데. 그 위로 진동 소리. 보면,

인서트.

핸드폰 화면. [홍희수: 잘자]

알 수 없는 표정의 필기, “잘자”라는 글자를 뺀히 보더니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키보드 소리 따라, 모니터에 도장처럼 쿵쿵 찍히는 열네 글자.

인서트.

노트북 화면. [니가 너무 미워서 상처 주고 싶었어]

## #31 제작사 사무실(낮)

한 장씩 출력되어 나오는 시나리오.

〈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 김필기 각색2고〉 제목이 쓰인 표지까지 출력되어 나온다.

## #32 제작사 회의실(낮)

희수, 커피 마시며, 시나리오 앞부분을 읽는 중이다.

필기가 고친 각색고가 마음에 드는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보고 있는데,

상근(E) 나 윤편디 다시 만난다.

희수, 아무도 없는 방에서 상근의 목소리가 들리자 깜짝 놀란다.

일어나 상근을 찾다가 책상 밑에 쭈그리고 앉은 상근을 발견하고,

희수 너도 참... 별나다.

상근 (시큰둥하게) 고마워.

희수 (어이없는) 그래. 어쨌든 축하해. 잘됐네.  
 상근 그런가.  
 희수 그런가? 반응이 뭐 그래?  
 상근 흥감독. 아니 흥희수. 너는 절대 필기랑 자지 마라.  
 희수 미친놈. 뭘 소리아.  
 상근 그니까아- 이 미친놈아. 대체 왜 자냐고. 왜!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희수 미친놈...  
 상근 그래. 나 미친놈이다.  
 희수 그냥 없던 일로 해. 잔다고 다 사귀어? 다 만나?  
 상근 남의 일이다 이거나?  
 희수 그럼 다시 만나든가. 잘 해봐.  
 상근 남의 일이지 아주.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필기.

상근(E) 혼자 있고 싶어. 다 나가줘.

필기,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상근의 음성에 두리번거리면,  
 희수, 나가라 손짓하며, 시나리오를 챙겨 회의실을 나간다.  
 책상 밑에 쭈그리고 앉은 우울한 상근의 모습에서.

### #33 제작사 건물 앞(낮)

희수와 필기, 제작사 건물에서 나와 걸으며,

필기 왜? 상근이 뭐 일 있어?  
 희수 어? (딴 곳을 보다가) 뭐... 그런 일이 있어. 직접 들어.  
 필기 뭐길래... (눈치 보며) 시나리오?  
 희수 어, 봤어. (상근이 생각에 헛웃음 피식) 진짜 골 때린다. 박상근.  
 필기 봤어? 그래... (표정 편안해지며) 점심은 뭐 먹을까?  
 희수 글썽? 별로 배가 막 고프진 않은데... (하고 두리번거리면)

필기 핫도그 먹을래?  
 희수 (걸음을 멈추며) 갑자기 웬 핫도그??  
 필기 (따라 멈추며) 너 핫도그 좋아하잖아.  
 희수 내가?  
 필기 왜, 너 두물머리 갈 때마다 핫도그만 다섯 개 먹었잖아. 기억 안 나?  
 희수 넌 참- 이상한 데서 디테일을 발휘하더라. 거기 핫도그가 맛있었던 거지. 내가 아무 데서나 핫도그를 다섯 개 먹는 줄 알아?  
 필기 그럼 거기나 갈까?  
 희수 어디?  
 필기 양평.  
 희수 응?  
 필기 핫도그 먹으러.  
 희수 잉?

### #34 지방 국도 / 차 안(낮)

시골길을 달리는 필기의 차. 그 위로 핑퐁처럼 주고받는 둘의 대화.

희수(E) 편지.  
 필기(E) 약속.  
 희수(E) 접속.  
 필기(E) 동감.  
 희수(E) 시월애.  
 필기(E) 클래식.

차 안의 희수와 필기.

희수 음... 아, 8월의 크리스마스. (안도의 미소를 보이는데)  
 필기 (바로 봄날은 간다.  
 희수 아, 거 되게 빠르네. (생각이 안 나는 듯) 음...  
 필기 뜬 들이지 마라. 하나, 둘...  
 희수 야, 재촉하지 마. 재촉하면 더 생각 안 난단 말이야.

필기 됐고, 둘, 셋, 땡! 앓싸 핫도그.  
 희수 아, 진짜...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나...  
 (말하곤 번뜩) 아! 내 머리 속의 지우개! 아... (머리를 헝클어뜨리면)  
 필기 니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걸 이제 알았어?  
 시나리오 보고 짐작은 했다만, 심각하다.  
 희수 야, 나 기억력 좋거든?  
 필기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거겠지.  
 희수 지는. (툭툭했지만 피식 웃는 데서)

### #35 두물머리 핫도그(낮)

희수, 핫도그 두 개 받아 들고, 계산하려는데,  
 필기가 핫도그 값을 내버린다.

희수 계산 못 해서 안달 나는 병이라도 생겼어? (핫도그 하나 건네면)  
 필기 (핫도그 받아 들며) 안달 났지.  
 희수 그래? 그럼 쏘는 김에 더 싸. 나 더 먹는다?  
 (한입 베어 물면, 입 주변에 설탕이 수염처럼 묻는다)  
 필기 거 입은 좀 닦고 먹지? (핫도그 베어 무는데, 마찬가지로)  
 희수 (웃음 나는) 야, 너나 닦아. 너 지금 완전 엉망이야. (또 한입 물면)  
 필기 (케첩 묻은 입술로) 야, 내가 엉망이면 너도 엉망이거든?

바보 같은 서로의 얼굴을 보고 웃는 둘.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 #36 두물머리(노을)

희수, 쌀쌀한지 어깨를 들썩이며, 두물머리의 노을을 바라본다.  
 희수의 시야에 들어오는 한 커플, 남자가 추위에 떠는 여자를 뒤에서  
 안아준다.  
 남자와 여자, 고개를 돌려 서로를 보면, 과거의 희수와 필기다.  
 희수, 희미한 미소로, 과거를 떠올리듯, 노을을 보고 있는데,  
 필기, 따뜻한 커피 두 잔을 들고 다가와선, 커피를 건네며,

필기 그래서. 다 읽어본 소감은?  
 희수 (커피를 받으며) 어? (생각난) 아... 맞다... (미안한) 아까 상근이  
 때문에 읽다 스탱... 그래도 중간까진 읽었거든? 디테일 좋더라.  
 감성선도 괜찮고.  
 필기 아... (실망한) 그럼 끝까지 안 읽어본 거네.  
 희수 어. 이따 집에 가서 보려고. (장난스레) 긴장해라?  
 필기 어...

할 말을 감추는 듯 필기의 얼굴이 역광으로 그늘진다.  
 반면, 필기를 보는 희수의 얼굴은 노을빛에 발그레해지는데...

### #37 경강로(밤)

도로를 달리는 차.  
 희수, 힐긋힐긋 운전하는 필기를 보면,

필기 (시선 느끼고) 뭘 봐.  
 희수 (무안한, 재치로 넘기는) 그냥. 귀여워서.  
 필기 (덤덤하게, 희수를 따라 하듯) 지랄.

희수, 필기의 말에 웃음이 터진다. 그러다 자동차극장을 발견하고,

희수 어? 자동차극장이다!  
 필기 (고개 돌려 발견하고) 어? 그러네.  
 희수 (반가운) 예전에 우리 자주 갔던 자동차극장 저기 맞지!  
 필기 (모르는 척) 그런가?  
 희수 (커진 목소리로) 저기 맞아! 두물머리 갈 때마다 자동차극장  
 들렀었잖아. 흥희수 김필기 단골 코스. 두물머리, 핫도그, 자동차극장.  
 필기 (기억 안 나는 척) 그랬던 것 같네.  
 희수 여기 온 김에 저기나 갈까?  
 필기 (흔들리는 눈빛으로) 어딜?  
 희수 저기. (고갯짓으로 자동차극장 가리키며 환하게 웃는 모습에서)



### #38 자동차극장 매점 앞(밤)

희수와 필기, 매점에서 나와, 주차된 차로 걸어간다.  
필기의 한 손에 과자와 음료가 든 봉지가 들려 있는데,

희수 (들뜬) 와, 진짜 오랜만이다.

희수, 힐끗 필기를 보면, 필기, 생각에 잠긴 얼굴로 말없이 걷는다.  
그때, 다정하게 손을 잡은 과거의 희수와 필기가 현재의 희수를 지나  
매점으로 들어간다.

희수, 과거를 떠올리듯 매점 쪽을 보더니,  
필기의 손을 잡을까, 손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는데,  
필기, 마치 희수의 손을 피하듯,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보고,  
희수, 쓸쓸한 얼굴로, 손을 움켜쥐는 데서,

### #39 자동차극장(밤)

커다란 스크린에서 영화가 상영 중이다.  
영화를 관람 중인 관객 같은 자동차들.  
그 자동차들 사이에 자리 잡은 필기의 차.  
영화에 몰입한 필기의 옆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희수, 영화에 집중하지 못한 채, 아래를 보다가, 입을 떼는,

희수 필기야...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필기, 고개를 돌리면,

### #40 자동차극장 / 차 안(밤)

희수, 눈물을 꼭 참아 붉게 부은 눈으로 필기를 바라본다.  
동요하는 필기, 카오디오 볼륨을 줄이고,

필기 (걱정스러운 얼굴로 보면)  
희수 (울먹이는) 나... 다시 사랑해주면 안 돼?

속내를 알 수 없는 필기의 안타까운 눈빛과 사랑을 갈구하는 희수의  
간절한 눈빛.  
다른 말을 하는 두 시선이 허공에서 엇갈리고...  
희수, 필기에게 입을 맞추는 데서.

### #41 주꾸미집(밤)(흑백)

필기 결혼하자.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  
희수, 뜻밖의 말에 당황한 듯 시선이 흔들린다. 그 위로 전화벨 소리.

### #42 다시 자동차극장 / 차 안(밤)

희수, 전화벨 소리에 놀라 필기에게서 입술을 떼다.  
핸드폰 꺼내 보면, [윤��피디]  
타이밍하고는... 희수, 아쉬운 마음으로 전화 받는다.

희수 어어... 윤��피디. 왜? 나 밖인데. (듣다가) ... 어? 에이 왜 그래...  
(듣다가) 어... 알았어. 갈게. 빨리 갈게. (듣고 마무리하는) 어어.

희수, 전화를 끊고, 어색하게 머리를 만지며, 필기를 보는데,  
차 안의 그늘이 필기의 눈을 가린다.

### #43 아파트 단지 공원(밤)

희수, 만취한 윤��피디를 부축하며 걷다, 아파트 벤치에 앉히고는, 숨을  
물어쉬는데,

윤페디 (고개를 숙인 채) 개자식... 분명해... 나랑 한 번 자려고 그랬던 거야...

희수 (놀라선) 아니야? 박피디 그런 쓰레기 아니야.

윤페디 그래요...? 그럼 그 새끼 대체 나한테 왜 그랬을까요?  
왜 나랑 잤을까요? 왜 나랑 자서 착각하게 만들었냐고요!  
나는 사랑인 줄 알았어요. 사랑해서 잔 줄 알았다고!

희수 (누가 들을까 신경 쓰이는, 윤페디 달려들듯)  
알았어. 박피디 쓰레기. 박피디 쓰레기. 됐지?

윤페디 왜애... 왜 박피디가 쓰레기야아... (목이 뒤로 꺾어지게 울면)

희수 미안해. 취소! 취소! 어휴... (우는 윤페디를 안쓰럽게 보더니)  
착각은 윤페디만 한 게 아닐 거야. 착각은... 박피디도 했을 거야.

윤페디 (흠쩍이며) 근데요?

희수 착각이란 걸... 먼저 알아버린 거지.

윤페디 아아... 먼저 알았다? 개자식... 연애도 같이하고 이별도 같이하는 건데 왜 나 따 시켜? 맨날 지만 알아. 맨날 나는 몰라.  
치사한 자식. 췌췌한 자식! 치사해... 치사해! 후우... (고개를 숙이면)

희수 그러게... 참 치사하다...

윤페디를 다시 일으키는 희수의 모습에서.

#### #44 아파트 단지 앞(밤)

희수, 피로하게 걸어 나오는데, 차 안에서 희수를 기다리는 필기.  
희수, 필기를 보고, 미소를 짓는 데서,

#### #45 도로 / 차 안(밤)

희수의 집 근처 도로.

인서트.  
빨간 신호가 뜨고, 필기의 차가 정지선에 멈춘다.

필기, 고개를 돌려 시선을 내리면, 희수가 필기의 손을 잡았다.  
시선을 올리면, 희수, 필기를 보며 웃는다.  
그러자 복잡한 얼굴을 돌려 앞을 응시하는 필기.

필기 희수야.  
희수 응?  
필기 나...  
희수 응.  
필기 나... 여자 친구 있어.

여전히 웃고 있는 희수의 얼굴에서.

인서트.  
초록 신호가 뜬다.

출발하는 차의 옆모습. 서서히 앞으로 나아가면,  
창 안으로 보이는 희수. 표정이 죽어버린 멍청한 얼굴이다.

#### #46 골목길 / 희수의 집 앞(밤)

필기의 차가 빌라 앞에 서자,  
희수, 눈물을 참은 듯 벌건 눈으로 차에서 급히 내린다.  
우는 모습 보이기 싫어 빌라 입구로 뛰어 들어가고,  
필기, 차에서 내려 희수 뒤를 따라 달려간다.

#### #47 빌라 계단(밤)

희수, 계단을 뛰어 올라가지만, 뛰어 들어온 필기의 속도에 붙잡힌다.  
필기, 희수를 붙잡아 세우면,

희수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왜, 뭐.  
필기 걱정돼서...

희수 걱정되면 니가 뭘 어쩔 건데. 이거 놔. (팔을 빼면)  
 필기 (아무 말 없이 서 있고)  
 희수 (등을 돌린 채) 나 진짜 멍청하다. 너 때문에 참 불행했는데,  
 잊으려고 그렇게 발광을 했는데, 그새 또 까먹었어. 등신같이…  
 사랑받고 싶었나 봐… (헛웃음이 피식… 눈물을 오기로 참고 또  
 참는데)  
 필기 희수야… (손목을 잡는다)  
 희수 (고개 돌린다, 쩡그리며) 그만해… 나 진짜 너무 쪽팔려.  
 너한테 쪽팔릴 것 했다는 게 못 견디게 쪽팔리다고.  
 그니까, 나 좀 내버려둬. 제바알…

희수, 뿌리치려는데, 필기, 더 세게 손목을 잡자,

희수 (팔을 빼려 안간힘을 쓰며) 아파… 좀 놔줘. 놔달라고. 아프다고!

희수, 필기의 손을 확 뿌리치고, 계단을 올라가면,  
 필기, 홀로 계단에 남는다. 그 위로, 희수가 문 닫는 소리, 처량하게  
 들리고, 계단 등이 꺼진다.

## #48 빌라 앞(밤)

빌라에서 나온 필기. 착잡한 표정이다.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데…

## #49 희수의 원룸 현관(밤)

희수, 불 꺼진 집 안에서 서성인다.  
 현관문을 열고 나갈까, 손이 몇 번이나 문고리에 닿기를 반복하다가,  
 차 시동 소리에 창가로 뛰어가면, 필기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간다.  
 그러자 희수, 꺾꺾 참았던 울음이 터지고.

## #50 도로 / 차 안(밤)

운전 중인 필기, 자조적인 얼굴로,

필기 등신 같은 놈…

페이드아웃.

## #51 제작사 회의실(낮)

페이드인.

각색2고 표지를 보는 상근. 심각한 얼굴로 희수에게 전화를 건다.

상근 어, 홍감독, (목소리 듣고) 너 아직도 자냐?

## #52 희수의 원룸(낮)

멍하니 누워 있는 희수.

희수 왜…

상근(F) 왜라니. 오늘 회의하기로 했잖아.

희수 아. 맞다… 근데 나 아직 안 읽었는데.

희수,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면, 그 위로,

상근(F) 야, 지금 급해. 어제 김팀장 만나서 한번 털어봤는데,  
 필기가 각색한다니까 시나리오 되는대로 보여달라고 하더라고.  
 잘하면 내년 라인업으로 투자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니까 얼른 읽어봐. 필기한테 최종고까진 뽑아내야지.

옆에 놓인 시나리오 보는 희수.

희수 아... (읽기는 싫고, 영화는 잘돼야겠고) 아!!! (포효하면)  
상근(F) 뭐야! 뭘 일이야?

희수, 침대에 벌렁 누우며,

희수 (시큰둥한) 허 깨물어서.

상근(F) 또?

희수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상근(F) 그럼. 그래야지. 그래서. 어쩔 건데?

희수 오늘은 허가 아파서 안 될 것 같고... 회의는 내일.

희수, 복잡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는 데서,

## #53 다시 제작사 회의실(낮)

마찬가지로 복잡한 얼굴의 필기. 책상 위 핸드폰이 진동한다.

보면, '홍희수' 이름 떠 있다. 멍하니 그 이름만 보는데.

상근 (맞은편에 있었다. 핸드폰에 뜬 '홍희수' 이름 보고) 안 받을 거야?

필기 희수 아직 안 읽었다며.

상근 그렇지.

필기 그럼 지금 통화해봤자야.

상근 그렇지. (핸드폰 진동음 들으며 필기 눈치를 보다가)

야,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필기 (말 끊듯) 술 마실까.

상근, 이 대낮에 술을 마시냐며 썩한 창밖을 보는데,

(E) 계속 웅웅대는 핸드폰.

## #54 희수의 원룸(초저녁)

(E) 계속 웅웅대는 핸드폰.

창밖으로 어스름한 초저녁 풍경이 보인다.

침대 위에 앉아 시나리오를 읽는 희수.

심각한 눈동자가 시나리오를 빠르게 읽어 내려가고,  
마지막 장까지 넘긴 희수의 손이 핸드폰처럼 진동한다.

## #55 포장마차(밤)

(E) 계속 웅웅대는 핸드폰.

필기, 재킷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보면, '홍희수' 이름 떠 있다.

상근 이모. 여기 소주 한 병. 또라이 하나요. 아, 또라이는 애... (필기를 보며 앞니 사이로 시시시 웃는다. 이모가 소주병을 놓는데 이르듯)  
이모, 이 새끼 완전 또라이래요. (이모 귀찮다는 듯 대꾸도 안 하고 가면) 아이, 민망해. (시시시 실없이 웃어대다 필기를 보고) 야.

필기 왜.

상근 너... 진짜로 그런 거냐?

필기 또 그러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 #56 도로(밤)

(E) 계속 웅웅대는 핸드폰.

정체된 도로에 갇힌 택시. 그 위로,

상근(E) 아니. 믿기지가 않아 그렇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택시 안의 희수, 갑갑해 미치겠는 듯, 돈을 내고, 택시에서 내려 달린다.  
그 위로,

상근(E) 헤어지려고 바람 뽀다는 거짓말을 해?

## #57 다시 포장마차(밤)

필기 그러게… (라며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올려놓으면)

드르르륵! 하고 시끄럽게 테이블 위에서 몸을 떠는 핸드폰.  
그리고 확 젓혀지는 포장마차 커튼.  
격한 상태의 희수, 필기에게 다짜고짜,

희수 야! 김필기!

상근 (술이 확 깨는 듯) 아, 깜짝이야. 흥감독. 여긴 어떻게 왔어?

희수 전화 받으라니까!

필기 (덤덤하게) 전화로 무슨 말을 해. 글로 다 해명했잖아. (소주를 따르며)

희수 (기가 차선) 야… 너 왜 이렇게 뻔뻔해?

(필기의 어깨를 자신 쪽으로 돌리며) 너 왜 그랬어.

필기 글 읽었잖아.

희수 그래서 문잖아! 왜 그랬냐고!

상근 저기… 진정하고… (희수를 진정시키려는데)

필기 글 읽었잖아! 니가 너무 미워서 상처 주고 싶었다고!

희수, 분해서 벌벌 떠다.

상근, 필기의 고성에 놀라, 주변 눈치 보더니,

상근 자, 우리 일단 진정하고… 차분하게… (희수와 필기의 팔 잡으면)

희수 (뿌리치면서) 이번에도 거짓말이지.

상근 응? 뭐. 또 뭐?

희수 이번에도 여자 있던 말. 그거, 거짓말이지?

상근 ? (진짜난 얼굴로 필기를 보면)

필기 어.

말이 끝나자마자, 희수, 필기 앞의 소주병을 든다.

상근, 필기의 얼굴에 뿌리려는 줄 알고, 막으려는데,

희수, 그대로 소주병을 입으로 가져간다.

하지만 필기, 가만히 보기만 하고,

오히려 상근, 놀라선, 희수의 손에서 소주병을 뺏으면,

희수, 입술에 살짝 닿은 쓴맛에, 잔뜩 얼굴을 찡그리더니,

희수 (필기에게, 경멸의 시선으로) 진짜 짜질하다. 너! 진짜 짜질해.  
(가려는데)

필기 너는! 니가 받은 상처만 기억하지.

희수 (멈추는)

필기 나도 그래. 나도! 내가 받은 상처만 기억나고 그게 제일 커!  
그럼 공평한 거 아냐? 근데 왜 너만 상처 받은 척해?  
글로 해명하라며. 그래서 해명했잖아. 너 때문에! 상처 받아서  
그랬다고!

희수, 듣기 싫어 포장마차를 나가면, 필기도 따라 나간다.

혼자 덩그러니 남은 상근.

상근 (주변 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숨 푹) 이게 뭐 꼬라지냐…

소주 한 잔 들이켜려는데, 핸드폰 진동을 울린다.

주머니에서 꺼내 보면, 저장되어 있지 않은 전화번호다.

하지만 상근, 보자마자 한숨 쉰다. 지워버린 유피디 전화번호인가 보다…

상근 (받는) 어… 왜…

## #58 포장마차 도로(밤)

희수, 필기를 피해 택시를 잡는다. 하지만 택시들 희수 지나치고,  
필기, 희수 잡아 돌리면, 희수, 기다렸단 듯이 쓰아붙인다.

희수 너 나 제대로 엮 먹인다. 너, 내가 키스했을 때 속으로 비웃었지?  
그랬지?

필기 그렇게 꼬지 말고.  
 희수 내가 꼬인 거라고? (기가 차선) 그럼 넌 뭔데?  
 이번에도 상처 주려고 거짓말했어? 아직도 내가 미워?  
 필기 (수그러진 태도로) 아니야. 이번엔... 내가 등신 같았어.  
 희수 그래. 넌 늘 그랬어. 늘 인간이 방어적이야.  
 그러니까 등신같이 거짓말이나 하지.

희수, 다시 택시 잡으려고 하면,  
 필기, 희수 손잡아 내리며,

필기 넌 늘 니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 말은 안 들어.  
 그때마다 내 기분이 얼마나 옛 같았는지 알아?  
 희수 그래서 여자 있다고 나 옛 먹었잖아! 두 번이나!

희수, 책 등 돌려 걸어가면, 필기, 따라가며,

필기 그래. 미안해. 미안하단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건 정말 미안해.  
 다시 만날 수 없는 이유를 구구절절 말하기 싫었어.  
 근데 왜 나만 미안해야 돼? 넌 미안한 거 없어?

황당한 물음에 멈춰 선 희수.

희수 그게 뭔데. 말만 해. 사과해줄게.  
 필기 왜 모르는 척해?  
 희수 (황당해선) 뭘 모르는 척해. 그건 너도 각색할 때 안 썼잖아.  
 말해봐. 내가 너 상처 받게 한 말 있으면 말해보라고.  
 필기 (보다가) 그런 건 없어. 그냥... 어떤 말도 없었지.

## #59 레스토랑 앞(밤)(흑백)

필기, 캐리어를 끌고, 레스토랑 앞으로 걸어간다.  
 희수, 피로한 얼굴로, 트로피 박스를 안고, 따라가다, 간판을 보고 멈추며,

희수 파스타? 느끼해... 이번에 칸에 갈 때 고추장이니 컵라면이니 하나도  
 못 챙겨갔단 말이야. 나 매운 거 먹고 싶어.  
 필기 (당황한) 저번엔 파스타 먹고 싶다며.  
 희수 그건 촬영 중일 때고. 크랭크업 한 지가 언젠데.  
 필기 그랬구나. (난감한, 나직이) 예약했는데...  
 희수 (못 들은) 어?  
 필기 아냐. 가자. 매운 거 먹으러.

## #60 주꾸미집(밤)(흑백)

필기, 주걱으로 주꾸미를 볶으면,  
 희수, 젓가락으로 주꾸미를 먹더니, 맛있는 듯, 찡그리며,

희수 음, 맛있다. 나 진짜 이거 너무 먹고 싶었어.  
 나 한국에 없는 동안 뭐 하고 지냈어? 글 썼어?  
 필기 (맛있게 먹는 희수가 사랑스러워선) 희수야.  
 희수 (먹으면서) 응?  
 필기 나 사랑해?  
 희수 뭐야 갑자기. (싱긋 웃으며) 당연하잖아.  
 필기 그런가? 당연한가? (가방에 손을 넣고) 그러면...  
 희수 (무슨 말을 하려나 싶어 필기를 보면)  
 필기 결혼하자. (반지 케이스를 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데)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  
 희수, 뜻밖의 말에 당황한 듯, 시선이 흔들린다.

필기 올해로 6년이야. 오래도 연애했다. 이제, 그만 연애했고 결혼하자.  
 희수 (당황한 듯 굳어 있으면)  
 필기 (굽적이며) 너무 갑작스러웠나? (쑥스러워하는데)  
 희수 일단... 먹고 얘기하자. (젓가락으로 주꾸미 집으면)  
 필기 (장난치는 건가? 웃으며 묻는) 반응이 뭐 이래? 나랑 결혼하기 싫어?  
 희수 (답 대신 주꾸미를 먹으면)

필기 (장난치는 거겠지?) 흥희수.  
 희수 (말 끊는) 필기야. (피로하게) 나 배고파.

필기, 희수의 피곤한 반응에, 웃는 얼굴로 굳어버린다.  
 희수, 필기의 반응은 상관없이, 묵묵히 주꾸미만 먹는다.  
 필기, 웃으려 애써보지만, 턱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한다.  
 울 것 같아 주꾸미를 급하게 입에 넣는데, 사레가 걸린다. 콜록! 콜록!  
 목에 고춧가루가 켜나 보다. 모양 빠지지만 울고 싶었는데 잘됐다.  
 콜록콜록...!  
 필기, 허기진 사람처럼 주꾸미를 허겁지겁 집어 먹는다. 등신처럼  
 흘쩍이면서...

### #61 주꾸미집 앞(밤)(흑백)

희수, 계산대에서 카드와 영수증을 받아 나온다.  
 앞에 나와 기다리고 있던 필기에게,

희수 내 생일에 뭐 할까?

희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필기 손을 잡으려는데,  
 필기,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희수에게 등 돌려 앞서 걷는다.  
 희수, 필기의 뒷모습에, 저러다가 말겠지 싶은 표정으로 따라가는 데서.

### #62 다시 포장마차 도로(밤)

바보 같은 표정으로 서 있는 희수.

희수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싫어진 거야? (보면)  
 필기 솔직히... 니가 싫었던 적은 없어. 싫은 건... (시선 떨구며) 나왔지.

필기의 말에 말문이 막힌 희수.  
 도로의 신호가 몇 번이나 바뀐 뒤에야 굳어버린 입 간신히 떴다.

희수 미안해...

희수, 힘겹게 다리를 움직여 필기의 옆을 스쳐 지나간다.  
 필기의 눈이 붉게 부어오른다.

### #63 도로 어딘가(밤)

멍한 얼굴로 정처 없이 걸던 희수. 혼자 걷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밑을 바라보니, 길게 드리운 그림자가 따라오고 있다.  
 설마 싶어 멈추니, 따라오던 그림자도 멈춘다.  
 희수의 뒤에 서 있는 필기.  
 눈물이 뚝뚝... 필기의 그림자를 본 희수는 마음이 무너진다.  
 그렇게 사람 없는 거리를 눈물을 흘리며 걷고, 또 걷고.  
 필기는 그저 그 뒤를 묵묵히 따라 걷는다.

### #64 한강 다리(새벽)

안개와 먼지로 어슴푸레한 한강의 새벽.  
 그제야 진정된 희수. 한강 다리에 멈춰 서고,  
 뒤따라 걸던 필기도 걸음을 멈춘다.  
 희수, 어둑하고 흐릿한 허공을 보며, 과거를 곱씹어본다.

플래시백.  
 #60. 주꾸미집(밤)(흑백)

희수 (말 끊는) 필기야. (피로하게) 나 배고파.

#24. 모텔(낮)(흑백)

희수 (리모컨으로 필기 가리키며) 야, 너 말하지 마.

#25. 모텔 앞 주차장(해질녘)(흑백)

희수 너한테서... 똥차 냄새 나.

#9. 골목길(밤)(흑백)

희수 그래 꺼져. 꺼지라고. 이 '찌질한' 새끼야.

희수, 자조적인 미소를 띤다. 씩씩한 표정으로 다시 걷기 시작하면...

#65 횡단보도(새벽)

횡단보도 앞에 선 희수와 필기.

희수가 앞의 신호등을 바라보며 얘기를 꺼낸다.

희수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없는 이유가 뭐야...

필기가 답을 머뭇거린다. 그러다 희수와 마찬가지로 앞을 보고,

필기 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 그게 이유야.

서로의 질문과 답에 머리와 가슴이 복잡한 희수와 필기.

한 번은 필기가 고개 돌린 희수의 얼굴을 봤다가,

한 번은 희수가 고개 돌린 필기의 얼굴을 봤다가,

서로가 서로에게 고개를 돌린다.

그리고 입을 여는 희수.

희수 각색... 잘 마무리하자.

필기 ... 그래.

그때,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고, 희수의 마지막 한마디.

희수 먼저 가도 돼.

필기,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더니, 어렵게 희수에게 등을 보인다.

횡단보도를 걷는 필기의 모습에서 씩씩함이 느껴진다.

희수, 멀어져가는 필기의 뒷모습에 눈물이 가득 차오르고,

차오른 눈물에 필기의 뒷모습이 번진다. 이제 그 모습마저도 점점 멀어진다.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고, 그제야 희수, 어렵게 돌아서는데...

그 순간이 미련하게 길다.

끝.



“혹시 경험담 아니세요?”

이 작품을 읽은 분들에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누군가의 희수였고, 필기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쉽게 잊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쉽게 잊기가 힘들었습니다. 로맨스 장르 안에서 글을 써 내려갔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때문에 외롭고 피롭고 지겹던 일들, 다들 겪으니까요.

제 작품에 대해 멘토 김규태 감독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마라.”라는 감동을 주는 긍정적 주제가 아닌, “상처 받은 당신 또한 상처를 줬다.”라는 자신을 반추해보는 객관적 주제의 작품이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멘토님과 작품의 주제와 인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당선작 대본을 수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잡았지만, 그 후, 영상을 위한 대본으로 수정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초고의 매력, 주제를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수정 작업이 진행되었고, 고민이 많았지만 작품집에는 현재 기준, 마지막 버전의 대본을 신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정에 있어, 방향을 잃지 않도록, 제가 잡은 주제에 대해 확신을 주신 멘토 김규태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작품을 읽은 누군가가 울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다만 당신처럼 상처 받은 사람이 있고 상처를 준 사람 또한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리고 서투니까요.

## 막걸리에 설탕 두 스푼

백선영

---

## 작의

농촌의 노총각 문제, 도시의 노처녀 문제, 양극화된 사회 문제 속에서, 그렇다면 “농촌에 사는 노처녀는?”이라는 의문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다. 그저 흙이 좋아 흙을 지키며 살고 싶은 소박한 꿈을 지닌 ‘노처녀 농부’의 이야기를 통해, 따뜻한 아날로그 감성이 담긴 힐링을 전하고 싶다. 더불어 설당 섞인 막걸리처럼 달달한 사랑 이야기까지.

---

## 등장인물

### 이유미(38세, 여)

20대 때 도시에 나가 직장생활을 한 경험이 있지만, 정성을 쏟는 대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배추의 마음이 좋아 고향으로 돌아왔다. 힘쓰는 일이라면 장정 못지않지만, 싹싹하고 속정 깊고 아기자기한 것도 좋아한다. 빈둥대는 아버지를 대신해 벼짓농사, 피망농사, 벼농사를 혼자 다 짓는다.

### 박재석(34세, 남)

충청남도 당상군청 문화행정과 8급 공무원. 서울 토박이다. 본적이 충청도라 지방공무원 시험에 지원해 합격했고, 7년 차 당상군민이다. 차가운 도시 남자 스타일에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원칙주의자다.

### 이호섭(40세, 남)

유미의 첫(짝)사랑 옆집 오빠. 결혼해서 서울에서 살다가 얼마 전 이혼하고 귀농했다.

### 이복창(71세, 남)

유미의 아버지. 농부도 정년이 있다는 신념으로 일흔 살부터는 놀고먹는 중이다.

백선영

cumulus01s@naver.com

2013 • 한국방송작가협회 교육원 전문반 수료  
2015 • MBC 드라마 〈빛나거나 미치거나〉 보조작가  
2018 • 오펜 드라마 부문 당선

그 외

국계장(40대 후반, 남), 호섭이네 일꾼1, 2(40대 후반, 노총각들), 재석의 동료(30대 중반, 남), 과장, 술집 할매, 동네 할매, 국밥집 김사장, 유미 맞선남, 당상군청 공무원들.

---

### 줄거리

소처럼 우직하고 순박한 '노처녀 농부'의 파란만장 인생기

“나랑 같이 서울엘 가든가, 시집을 가든가 혀.”

충청남도 당상군 월천리에 사는 농촌 노처녀 이유미. 평생 같이 살 것 같던 아버지 복창이 땅 팔고 집 팔아서 서울의 큰아들 집에 갈 테니 아버지를 따라나서든가 시집을 가든가 결판을 지으란다. 고향땅에서 농사지며 흙냄새 맡으며 살고 싶은 유미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복창은 유미가 가장 아끼는 하우스마저도 팔아버리겠다.

“시집은 뭐 혼자서 가요?”

당상군 군수는 행복한 농촌을 만들겠다고, 군청 주최의 국제미팅을 추진한다. 국제미팅 소식에 온 마을 (노)총각들은 들뜨고, 곧 손자 보게 생긴 비주얼의 유미의 맞선남도 스무 살짜리 필리핀 여자와의 국제미팅을 꿈꾸며 유미에게는 관심조차 없다.

“호섭 오빠가 국제미팅 참가 신청을 했다고? 그 명단 좀 봅시다.”

군청에 우박 피해 복구비를 받으러 갔던 유미는 국제미팅 접수처에서 호섭을 본다. 호섭의 국제미팅 신청 여부가 궁금해진 유미는 담당 공무원 재석을 찾는다. 개인 신상이라 보여줄 수 없다는 재석과 잠깐만 보자고 막무가내로 들이치는 유미. 동네 노총각들이 유미도 국제미팅 신청을 하러 왔으며 유미를 놀리는데, 농담도 진담으로 알아듣는 융통성 없는 재석은 유미가 정말로 국제미팅을 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오해한다.

“전국 최초!! 농촌 노처녀가 국제미팅을 신청하다.”

재석의 오해로, 국제미팅을 신청하려는 농촌 처녀가 있다는 소문이 군수의 귀에 들어간다. 이슈 만들기를 좋아하는 군수는 “전국 최초로 남녀 평등한 국제미팅”이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내고 싶어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유미의 신청서가 꼭 필요하다.

사회적 분위기가 잘되면 곧 있을 도지사 후보 등록에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재석에게 유미의 신청서를 반드시 받아오라는 미션이 떨어진다. 신청서 받아오면 꿈에 그리던 서울로, 받아오지 못하면 깡촌으로 좌천될 위기에서, 재석은 꿈수 안 부리고 정통으로 유미에게 신청서를 전달한다. 매일매일 퇴짜를 맞으면서도.

“일급비밀로 하는 조건이요. 아버지가 알면 난 죽어요.”

서로의 필요에 의해, 사실은 정(情)에 끌려 국제미팅 신청서를 써주기로 한 유미. 대신 조건이 있다. 아버지에게는 절대적으로 비밀이다. 재석은 신청서를 받는 조건으로 유미의 토마토 하우스에서 일을 해주기로 한다. 수확철이라 매일매일 고된 노동의 연속인데... 잔피 하나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는 재석의 모습은 진짜 농부인 유미의 모습과 닮아 있다.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살아와서, 교집합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두 사람이 참 많이도 닮아 있다. 둘은 서로에게 익숙해진다.

“아버지, 다 포기해도 하우스는 내 꺼 할래요.”

유미가 가장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아버지가 알아버렸다. 아버지만 알았으면 다행이었겠지만, 온 동네방네, 먼 친척까지 모두 알아버렸다. 주요 일간지에 홍보기사가 대대적으로 떴다. 망신스러워 죽겠다는 복창에게 다 버리고 이모 집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유미. 하지만 시들어가는 하우스의 희망과 토마토를 보며 도저히 애들은 버릴 수가 없다. 유미는 하우스를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한밤중에 찾아대는 똥개 설기는 누구를 보고 짚어낸 걸까?

## #1 읍내 다방(낮)

트로트 음악이 흐르는 한가한 시골 다방.

장기 두는 할아버지들 테이블에 종업원이 쌍화차 가져다놓고,  
시골 노총각들 서너 명들 모여 앉았고, 그 건너 테이블에 유미와  
맞선남(45세) 있다.

맞선남 을 엄마가 하도 성황 해서 나오긴 했구먼, 그쪽은 왜 여직 못 갔대요?  
유미 아버지도 모시고, 또 제가 농사도 짓다 보니깐…  
맞선남 (따분한 듯 하품) 아이고. 누구는 농살 안 짓고 사나 보네.  
유미 예에?  
맞선남 됐슈. 근디 이유미 씨는… (쓴 입맛 다시며) 참말로 곱상해가꾸…  
유미 어우 제가 뭘요?! (귀밑머리 이쁘게 넘기며) 아녀요.  
맞선남 고 이름 말여요 이름. 이름만 곱상해가꾸,  
유미 !!  
맞선남 속아먹기 딱 좋겠슈. 원체 얼굴이랑 안 어울려유.  
그러고 이는 어쩔라고요? 노오산 노산이 참말로 위험한 건데.  
유미 어이구 기막혀. 그러는 그쪽은 왜 여직 안 했대요?  
맞선남 남자랑 여자랑이 같은가야. 그리고 나는 눈이 좀 높아요.  
노총각1(E) 군에서 단체미팅을 시켜준더.

‘단체미팅’이란 말에 돌아보는 맞선남.

노총각1 필리핀 마을이랑 자매결연을 딱 맺었대요.  
노총각2 하여간 우리 민중기 군수가 인물은 인물이어.  
노총각1 (속삭이듯) 그뿐인 줄 알아 소문엔 말여…

쑥덕대는 노총각들, 궁금해 죽겠는 맞선남, 아예 몸을 반쯤 그쪽 테이블로 기울인다.

노총각2 (입은 귀에 걸려) 그류? 스무 살부터 온대여?! 어이쿠야.

맞선남, 입맛 다시다가 유미 보는데, 앞에 있는 유미가 새삼 못났다.  
유미의 눈가 주름살, 굵은 팔뚝, 투박한 손이 보인다. 움츠러드는 유미.

맞선남 그류 더 앉아 있어 뭐 한대유. 불일 다 봤음 인나유. 근디 이유미 씨.  
그쪽이 먹은 코피 값은 그쪽이 내고 가요. 난 딱 불일이 있어서.

생 돌아서 노총각들 테이블로 가 앉는 맞선남, 어이없는 유미.

## #2 다방 앞길(낮)

유미 (다방 올려다보며) 멍충아. 드응신이여. 거서 왜 암 말도 못혀.  
나도오 싫다. 어?! 어디 손주 보게 생긴 얼굴을 해가꾸는.  
뭘어? 코피 값은 각자 내?! (힘주어) 그쪽도 내 스타일 아니거든요.

흔жат말 애잔하게 하는 유미 앞으로,  
테이크아웃 커피 손에 든, 세련된 스타일의 재석이 스쳐 지나간다.

## #3 장터 앞 큰길(낮)

장날이라 사람들로 북적북적하다.  
장터 입구 중앙에 현수막 내걸고 있는 인부들, 현수막 체크하는 재석.

재석 예예. 딱 거기요. 중심 맞추시고요,

힘없이 걸어오는 유미 앞으로 현수막이 확 펼쳐진다.  
그 중앙에 멈춰 서서 현수막을 올려다보는 유미.

[제1차 당상군 주최 국제 단체미팅 / 참가 대상: 군면읍 미혼자 / 참가비:

군에서 전액 지원 / 문의: 당상군청 문화행정과]  
주먹 꼭 쥐는 유미 앞으로, 흠바람이 요란스럽게 싸아 분다.

그 위로 타이틀. “막걸리에 설탕 두 스푼”

#### #4 장터 / 돼지국밥집(낮)

반찬 위로 똥파리 날아다니는 테이블에, 돼지고기 두껍게 썰어진 국밥 놓였다.  
돼지껍질에 꺾이다 만 털이 뽀뽀하고, 차마 먹지 못하고 돼지털만 보고 있는 재석.  
그 앞의 국제장은 게걸스레 국밥 말아 먹고 있고, 카운터의 김사장은 무좀 긁고 있다. 결국 숟가락 내려놓는 재석.

국제장 (못마땅한) 서울선 국밥에 금가루라도 뿌려주나벼. 까탈스러워.  
김사장 암만. 서울서 온 박주임이 토배기인 우리랑 같을 수 있나아?!

국제장 (국물까지 싹 비우고는) 거 안 먹을 거면 일어나.  
  
재석, 김사장에게 국밥 값으로 2만 원 낸다.

김사장 (재석 손에 돈 다시 쥐어주며) 아서. 우리 사이에 정 없이 왜 그러어.  
국제장 야, 박주임. 됐다 됐어. (김사장에게) 형님! 밥 자알 먹고 가요.  
재석 (다시 돈 내밀고) 아닙니다. 공무차 나온 거라 원칙에 어긋나서요.

김사장, 난감해서 국제장에게 눈짓하는데. 국제장은 재석이 짜증스럽다.  
“아이고 별나다 별나.” 하고 나가버리는 국제장, 결국 거스름돈 건네주는 김사장.  
김사장, 재석에게 “박주임. 잘 좀 부탁혀.” 하는데, 재석은 대답 없이 꾸벅하고 간다.

국제장 (재석 보며 비죽이는) 형님 내 다 알아서 해줄 테니 걱정 마요.  
김사장 그류 아우밖에 없어. (3만 원 쥐어주며) 선하게 빙수라도 하고 가.

국제장 (챙겨 넣고) 형님도 차암. 이래 챙겨요.

재석, 돈 오가는 것 씹쓸하게 본다.

#### #5 유미 하우스 앞(밤)

유미 하우스 두 동 옆으로 호섭이네 대규모 표고버섯 하우스들이 붙어 있는 구조다. 유미의 하우스 안에서 대형 선풍기 돌아가고, 유미는 하우스로 물통을 나른다.  
호섭이네 일꾼들은 표고버섯 포장 작업 하고 있다.

일꾼1 소개비 하나 안 받는다는데 신청할꺼?  
일꾼2 당연한 걸 뭘 물어요오. 하여간 우리 군수님이 항상 일을 잘혀요.  
유미 (그 옆을 지나며, 구시렁대는) 일은 개나 소나 잘한대여.

트랙터 몰고 오는 호섭, 유미는 힐끗 보곤 관심 없는 듯 새침하게 열일 하는데,

호섭 온도조절기도 말뚝이라며 거까지 그려? 더워지는데 큰일이네.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는데도 그만이여?  
유미 예에.  
일꾼1 호섭아. 일손 팔려 죽겠는데 아르바이트는 오긴 오는겨?!  
호섭 예. 구해보고 있어요.

트랙터에서 내려 옷통 벗어재끼는 호섭. 구릿빛 피부, 성난 복근과 팔뚝이 보인다. 생수통 통째로 들이켜는 호섭, 목젓이 울렁울렁한다.  
발그레해서 눈을 못 떴는 유미, 혼잣말로 “시상에나. 왜 저런대 왜 저런대.” 한다.

#### #6 유미 집 / 안방(밤)

복창, 비스듬히 누워 낄낄대며 TV 보고 있다. 밥상 들고 들어오는 유미.

호박전, 피망버섯볶음, 된장찌개, 정갈한 밑반찬들까지, 정성 가득한 한 상이다.

복창 (상 쓱 훑고는) 씹주는? 정신머릴 어따 놓구 땡기는겨.

유미, 소주 챙겨와서 복창 앞에 따라놓고는, 할 말 있는 듯 눈치 본다.

복창 씨잘데기 없는 소릴 서울 오래비한테까지 했간? 절대 안 돼어.

유미 아버지. 금방 더워져요. 200만 원만요. 예?!

복창 돈이 찍어났나? 인제 팔아치울 하우스에다가 뭐 한다고 돈을 써.

유미 팔긴 누가 팔아요. 그럼 아버지 돈 말고 내 돈 줘요.

작년에 피망조합에 넘긴 거랑...

복창 사료값, 비료값은 하늘에서 떨어졌대냐? 남은 건 시집갈 때 줄겨.

유미 아버지가. 이러다가 애들 다 죽어요. 그리고 시집은 뭐 혼자 가요.

남자가 하늘에서 툭 떨어진대요?

복창 진즉에 갔음 좋잖여. 널린 게 총각이구먼 대에충 하나 골라.

유미 아버지!!!

## #7 유미 집 / 마당(밤)

흰색 시골 개(백설기)가 꼬리를 살래살래 치며 된장찌개 밥 먹고 있다.

유미 (옆에 쭈그리고 앉아) 언젠 애들 다 소용없다고 안 했냐. 설기야. 울 아버지 왜 저러냐. 서울 오란다고 쪼르르 땅 팔고 집 팔면 나중엔 어쩔라고. 그리고 니랑 나는 사람도 아니여?!

설기, 밥 먹다 말고 사람은 아니지 않겠냐는 듯, 고개 가우뚱하고 유미를 뵈히 본다.

유미 뭐 어쨌든 말여. 우린 어서 살라고. 설기 니도 시집이나 갈래? 너는 맘에 드는 놈 없냐? (비죽, 웃음 새어 나오고) 근데 설기야. 호섭 오빠 된 생각으로 내 앞에서 옷을 흘랑흘랑 벗고 그러냐.

(땀엔 새침하게) 누가 관심이나 갈 줄 알고? 이혼남을 무슨.

그러면서도 밝게 뜬 달 올려다보며, 수줍게 싱긋 웃는 유미.

## #8 유미 집 / 유미 방(밤)

소박하지만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방이다. 책장에 농업서적들 꽂혀 있고, 방바닥에 얹드려 농업일지 정성껏 쓰고 있는 유미, 4월/5월 호박고구마 최아 낱자, 애호박 수확 낱자, 느타리버섯 종균 깬 낱자 등 빼곡히 적혀 있다. 미스트 장비 교체, 온도조절 장치 교체 비용 등 적혀 있는 곳에 수없이 더했다 뺐다 계산한 흔적 있다. 한숨 쉬는 유미.

## #9 당상군청 / 민원센터(낮)

벽 곳곳에 행사 포스터 붙어 있고, 품바축제 ‘요리 경연대회’ 포스터도 보인다.

애처롭게 민원실 직원(40대 초반, 여)을 보고 있는 유미와 무미건조한 직원.

유미 가뭄 피해 복구비랑, 작년에 우박 복구비요. 작년 게 왜 여직이래요?  
직원 (모니터만 보며) 가뭄은 예산 아직 안 잡혔구요,  
우박은 피해 심한 농가부터 지원이라고, 한 댓 번 말씀드렸는데.

유미 그게 급해서 그러죠. 둘 중 하나라도 안 돼요? 예?! 절대루?  
직원 다들 다 급하시죠. 순서 되면 군청에서 문자 갈 거니까 기다리세요.

직원, 다음 순서 벨 땡 누르지만, 유미는 미련스럽게 그 앞을 지키고 섰다.

## #10 당상군청 / 로비(낮)

떠들썩하게 복도 빠져나가는 호섭과 일꾼1, 2.

민원실에서 나오는 유미, 호섭네를 봤다. 시선은 호섭을 좇고.

유미, “복구비를 떼로 받으러 왔나? 아침부터 일들은 안 하고.” 하고

나가려는데,  
복도 중앙에 [제1차 국제 단체미팅 참가 신청] 안내판이 보인다.

유미 !!! 설마아. 이혼도장에 잉크도 아직 촉촉할 텐데.

## #11 당상근처 / 국제미팅 접수처(낮)

재석, 임시데스크에서 미팅 참가 신청서 받고 있다. 한 무리의 총각들 빠져나가면, 재석의 정면에 유미가 부담스러운 포스를 풍기며 우뚝!! 서 있다. 재석은 왜 저러고 섰나 하고 유미를 보는데, 유미는 재석이 자기 몸을 훑는 것 같다.

유미 (옆에 있는 참가 신청서 들어서 배를 가리며) 뭘 봐 뭘 봐. 시상에나.

재석 (시선은 신청서 따라가며) 내실 겁니까?

유미 음마음마. 이거 아닌데요.

재석, 유미의 시선 피하며 신청서 정리하려는데, 갑자기 유미의 얼굴이 쑥 들어온다.

재석 왜... 왜 이러십니까?

유미 (관심 없는 듯 시크하게) 그거 명단 한번 보여줘봐요.

재석 예에?! (명단 가리며) 누구신데요?

유미 (빈틈으로 신청서 이름들 보며) 군민이요.

재석 (온몸으로 가리며) 저... 저기요. 진정하시구요.

왜, 왜요. 가족 중에 신청자가 있습니까? 아드님이라든가...

유미 아 이 아저씨가!! 그냥 군민이라구요. 잠깐만 좀 쭈봐요.

재석 (파일을 아예 덮으며) 안 됩니다.

유미 (파일 사이에 손 끼워 넣고) 그냥 잠깐만, 잠깐만 봐요 쫌요.

재석, 파일 사이로 들어온 유미 손을 꼭 막았는데... 손을 꼭 잡은 꼴이다. 순간 어색하게 흐르는 유미와 재석의 눈빛. 재석이 먼저 시선 피하며 손 놓는다.

재석 (그래도 팽팽하게) 절대로 안 됩니다. 손 빼세요.

유미 (버티는데)

호섭(E) 유미 아녀?!

유미 !!!

유미, 엉거주춤하게 돌아보면, 호섭과 일꾼1, 2가 유미를 보고 있다.

혁!!! 명단 잡고 있던 손을 확 놓으면, 뒤로 휘청하는 재석.

일꾼1 유미가 웬일이여. 니도 신청하러 왔나아?! 그러어 니도 급하지어.

(재석에게) 저기유 선생님. 잘생긴 필리핀 총각도 좀 소개해줘유?

재석 필리핀 총각이요? (새삼 유미를 보며) 아...!!! 그래서 오셨습니까?!  
유미 (안쓰럽게 보는 재석의 시선을 느끼며) 왜유?! 왜 이래요?

킵킵대는 일꾼1, 2, 유미가 썰러보면 움찔하다가, 또 킵킵댄다.

창피해 죽겠는 유미, 도망치듯 나가려는데... 재석이 유미 팔을 확 잡는다.

재석 저... 군민님. 잠시만요.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보여달라고 하신 걸 제가 몰라보고... 여자 신청자분은 아직 없지만...

유미 뭘요오. 이거 좀 봐봐요오. 내가 언제 명단을 보여달랬다고.

재석을 뿌리치고 도망치듯 나가는 유미.

재석 저기... 그냥 군민님!! 군민님!! 일단 신청하고 가세요. 신청하시면... 맞선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킵킵대는 일꾼1, 2.

호섭 형님도 차암. 유미 재 빼치면 무서운데. 어쩔라고 그래요.

일꾼1 농담한 걸 뭘. 유미 재가 참말로 신청하러 왔것어?!

## #12 당상군청 앞길(낮)

유미      뭘 망신이여. 호섭 오빠도 본겨어? 봤을까?! 봤겠지이…  
  
부끄러워 얼굴 가리고 가는 유미 뒤로, 품바축제 포스터들 보인다.

## #13 당상군청 / 문화행정과(밤)

혼자 당직 중인 재석, 국제결혼 전문업체 견적서들 비교하고 있다.  
한쪽에 놓인 국제미팅 신청서에 눈길이 가는데.

플래시백.  
#11에서 간절한 표정으로 한 번만 보여달라던 유미, 도망치듯 나가는 유미.

재석      용기 내서 온 걸 텐데… 신청이라도 하고 가지…

## #14 유미 토마토 하우스(낮)

토마토 하우스 안에 연결된 작은 문 있고, 그 안에 하우스(피망)가 연결된 구조다.  
유미, 찌그리고 앉아서 토마토 묘목에 비료 뿌리고 있다.

플래시백.  
#11에서 “유미 아녀?” 했던 호섭의 표정.

유미      (시름겨운 한숨, 토마토에 부러운 눈길 주며) 니들은 작아서 좋겠다.  
귀엽고, 이쁘고, 숨고 싶을 때 숨을 수도 있고.  
(자기 몸 내려다보며) 500년 묵은 왕소나무나 있음 숨기나 해보지.

복덕방 아저씨(이하 복덕방)가 젊은 부부 데리고 들어온다.

복덕방      첨엔 여만한 데가 농사짓기 딱 좋아요. (유미 보고는) 마침 있네.  
(피망 하우스 가리키며) 이쪽으로다가 작은 하우스가 하나 더 있슈.  
햇빛도 잘 들게 자알 지었슈. 지금 안에 뭐 피망 있나?

유미      암것도 없어요. 작년에 태풍 오고, 겨우겨우 살려왔더니,  
그냥 돌맹이만 한 우박이 떨어져서, (젊은 부부 딱 보며) 망했슈.  
어차피 울어름도 태풍 안 오겠어요? 천상 접어야지 하구 있어요.  
복덕방      (젊은 부부 의식하며) 허허. 부지런히 지으면 금방 복구되는데,  
사람이 게을러유. 그러도 한번 보셔유.

복덕방 아저씨 안에 들어가려 하면, 유미는 문 앞을 딱 막아선다.

복덕방      (유미 밀어내며) 오째 이려어?!  
유미      (꿈쩍도 안 하고) 꿈광내 나서 못 열어요. 문 안 연 지 한참 돼서.  
복덕방      그러도 한번 봐야지이. (또 밀어보고) 아이고 짱하게 왜이려어.

복덕방, 묵중한 바위처럼 꿈쩍도 않고 서 있는 유미를 당해낼 수가 없다.  
그 모습 어이없게 보는 젊은 부부.

## #15 토마토 하우스 + 피망 하우스(시간 경과)

복덕방과 젊은 부부 나가고, 조용한 하우스다.  
유미, 버티고 섰던 피망 하우스 문 활짝 열면, 안쪽 하우스에 피망 묘목들  
가지런히 심겨 있고, 싱싱한 피망 열매들 반짝인다.

유미      이쁘다. (영킨 거 풀어주고) 아부진 왜 자꾸 그런대냐.  
서울선 일주일도 못 버틸 양반이. 속상하개.

유미, 결순 따고 있는데, 하우스 밖으로 호섭과 일꾼1, 2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그닝께, 호섭인 맞선 신청을 할꺼 말꺼?” 하는 일꾼1의 소리에,  
더 바짝 귀 기울이는 유미. 궁금해 죽겠다. 숨죽이고 호섭의 답을  
기다리는데,



호섭(E) 전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일꾼1(E) 아이구 그러어?! 왜애?!  
 유미 (흐뭇한 미소, 혼잣말) 그봐. 호섭 오빠 신청 안 한겨.  
 일꾼2(E) 근데 유미 말어!!! 봤슈?  
 유미 ?  
 일꾼2(E) 아까 나보고 팽 하고 가드만, 아직도 빠친 거 아녀?!  
 일꾼1(E) 우리 때때 그래간? 개가 메칠 전에 선을 봤대여. 그것 때문에 그러.  
 유미 !!!  
 호섭(E) 유미가 선을 봤대여?  
 일꾼1(E) 응. 이번에도 차였다. 유미 나이가 많다고 그기가 싫다고 했대여.

굉!! 점점 어두워지는 유미의 표정.

일꾼1(E) 아도 못 낳을 것 같은 여잘 어따 쓰냐고 했다고, 아주아주 유미 아버지가 속상해 죽겠다고, 동네방네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애길 하드라구우.

“그류?! 그래서 유미가 그렇게 뿌루통한겨?!” 하며 멀어지는 소리.  
 유미, 조리게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아.부.지…!!!” 분노의 외침.

## #16 유미 집 / 마당(밤)

한 손에 삽 움켜쥐고 이글이글한 눈빛으로 들어서는 유미.  
 안방을 무섭게 노려보고 서 있는 유미, 설기는 눈치 없이 꼬리 살래살래 치며 반긴다.

복창(E) 유미냐?! 유미 왔냐아? 유미야아. 아버지 저녁 굶길겨어? 유미야아.  
 유미 예!! 굶길겨!!! (팽 돌아서며) 오늘은 아버지가 챙겨 드셔요.

## #17 유미 집 / 부엌(밤)

가지나물, 냉이국, 고등어구이, 들기름으로 구워진 김 등 정성 가득한 밥상

보이고, 김 모락모락 나는 밥 올려놓는 손. 유미다. 심통은 잔뜩 났지만 손길은 정성스럽다.

유미, 상에 소주 올리려다가, 안방 훑어보고는 소주를 한 잔 따라 지가 마시고는, 술병을 찬장 뒤편에 숨긴다. “오늘 반주는 없슈.” 하고는 손 탁탁 터는 유미.

## #18 유미 집 / 마당(밤)

안방에서 TV 소리, 복창의 킬킬대는 소리 들리다가,

복창(E) 유미야. 저녁은 아직인겨어? 유미야아.

한참 만에 나와보는 복창, 방문 앞에 밥상만 놓여 있다.  
 “유미야아.” 둘러보는데, 마당 한쪽에서 냉이국밥 먹고 있는 설기만 보인다.

## #19 읍내 호프집(밤)

한가한 분위기의 가게. 재석, 회사 동료(40대 초반, 남)와 맥주잔 기울이고 있다.

동료 (놀라며) 국제미팅을 신청하러 왔다고?! 여자가?!  
 재석 예. 근데 저 때문에 신청을 못 하고 간 것 같아 신경이 쓰입니다. 인적사항이라도 알면 대신 신청해드렸을 텐데…  
 동료 (생각하다가) 아깝네. 아까워. 한 건 올릴 수 있었는데.  
 재석 한 건이요?  
 동료 군수님이 그 큰돈 들여서 국제미팅을 왜 하겠어?! 다 밑밥이지. 도지사 후보 등록 전에 기사도 내고, 인지도도 높이고.  
 재석 (듣는)  
 동료 근데 우리 군에서 노처녀랑 젊은 필리핀 청년이랑 미팅이 딱 해봐. 전국 최출 거 아녀. 기자들 몰려오는 소리가 막 들리네 들려.  
 (농담처럼) 박주임. 군수님이랑 같이 도청 입성할 뻔한겨.

멀리서 “형님, 동상” 하며 몰려오는 소리 들린다. 보면, 국계장과 일행들이다. 재석과 동료, 일어나서 국계장에게 인사하는데, 국계장은 못마땅하게 본다.

동료 (재석에게만 작게) 몰려 있음 지 욱하는 줄 알아요. 박주임아 미안.

동료, 국계장과 일행에 반갑게 “아이고 형님들. 저만 빼고 모이셨슈.” 하고 술잔 챙겨서 테이블 옮긴다. 재석, 씩씩하다. 남은 맥주 마시고 조용히 일어나는 재석.

### #20 할매술집 앞(밤)

어둑하고 한적한 거리다. ‘할매술집’ 들여다보는 재석, 가게 안이 텅 비었다. 가게 벽엔 “맥주, 소주, 부침개, 오뎅탕” 등 메뉴 붙었다. 망설이다가 들어가는 재석.

### #21 할매술집(밤)

주인 할매, 주방에서 얼굴 빼꼼 내밀고는 “주문허유.” 한다.

재석 사장님. 맥주 두 병이랑 어묵탕 주세요.

다시 고개 숙 넣는 할매. 칼질 소리만 드문드문 들린다. 재석, 어색하게 앉았는데, 어깨 축 처진 유미가 들어와 제 집인 양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 꺼내고 자리 잡는다. 재석과 등지고 앉은 유미, 재석은 유미의 등쪽만 보인다. 훌쩍이며 소주 마시는 유미.

할매 (어묵탕은 재석 앞에 놓고, 유미에게) 요번에 선 본 것도 황이여?

유미 그런 거 아녀.

할매 아니긴. 느 아버지가 버얼썌 얘기 안 했간디?

유미 아 진짜 아버지!!! 언제요?

할매 보건소서 침 맞음서 안 혀. 거기만 싫대는겨? 니는 맘에 들고?!

유미 (그제야 돌아보며) 아 진짜 아니라니깐. 할매!!! 안주는 안 줘요.  
재석 (유미 얼굴을 봤다) !!!  
할매 (주방에 가며) 을냐? 허리가 아파서 그르지 컷구녕은 멀쩡혀.  
유미 아... 진짜 아버지!!! (원샷하는)

이것저것 안주 챙겨 나오는 할매, 안주 내려놓는 대로 꾸역꾸역 집어 먹는 유미.

할매 (유미 보다가) 누워 있을라니까 속상해도 오쎄. 술 살살 혀.  
재석 (들어가는 할매에게) 저... 사장님. 제가 맥주를 아까 주문했는데요.  
할매 그류? (벽 아래 떨어진 종이 보며) 저건 날마다 떨어진다.

종이 주워 벽에 붙이는 할매. 종이에 “술은 셀프, 냉장고에”라고 쓰여 있다.

재석 (어이없지만, 냉장고로 가 여는데) 사장님. 맥주는 없는데요.  
할매 다 떨어졌슈? 소주는 들었쥬?  
재석 전 맥주밖에 못 마셔서요.  
할매 아아 그류? 그럼 어쩐대유?  
재석 질문은 제가 사장님께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할매 보고 자꾸만 사장님이라. 서울 사람들은 낮간지럽게 오쎄 그려.  
재석 맥주가 없는 줄 알았으면 애초에 안주도 주문 안 했을 겁니다.  
할매 그려유. 서울 사람이라 따박따박 말도 잘하네.  
재석 그리고 저 서울 사람 아닙니다. 말씀 돌리지 마시구요. 장살 하시려면,  
유미 (순가락 딱 놓고 돌아서) 거참 할매한테 꼬박꼬박. 없는 걸 어쩐대요. 오밤중에 맥줄 사러 갈 수도 없고. 당상군민이면 정 없이 안 그래요.  
재석 !!! (반갑게) 맞으시죠? 어제 그 그냥 군민님.  
유미 예?!  
재석 안 그래도 제가 꼭 다시 뵈고 싶었는데, 연락처를 몰라서...  
유미 어제 군청 국제미팅 접수처에서 봤는데... 저 모르시겠어요?  
유미 어제 군청에서요? (가만 보다가, 혀...) !!!

플래시백.

#11에서 신청자 명단을 유미에게서 지켜내려던 재석의 표정과 몸짓들.

유미(E) 모를 리가요... 유미야 진정해. (격한 호흡) 표정 관리도 하고!!!  
 유미 (어색한 표정, 소심하게) 도통 뭘 말이래요? 서울 사람이든 아니든...  
 재석 (피식)  
 유미 맥주가 드시고 싶음 다른 뭘 가시면 되겠네요. 그... 그 오텍당은...  
 제가 먹고 계산할 테니까. 걱정 말구 얼른 가세요.  
 할매 유미 니랑 아는 사이여?  
 유미 (정색) 할매는 무슨!!! 오늘 딱 여기서. 처음 보는 분이셔요.  
 할매 그럼서 뭘. 니가 돈이 어딴다고.  
 유미 끄!!!

시간 경과.

재석의 테이블에 막걸리와 설탕통이 놓였다. 잔에 막걸리 쿵쿵 붓는 손길... 유미다.

유미, "음내에 싸고 썩 게 맥주집인데..." 구시렁대며 잔에 설탕 두 스푼 퍼 넣는다.

유미 아니 뭘 여기서 이렇게까지 그래요? 이해가 도통 안 가네.  
 (휘휘 저어서 재석 앞에 놓고) 드셔봐요. 달짝지근하니 먹을 만해요.  
 재석 (의심의 눈으로 보는데)  
 유미 그냥 잡쉬봐.  
 재석 (조심스럽게 맛보는데, 맛있다.)  
 유미 (빈 잔 확인하고는) 설탕 두 스푼 넣고, 살살 저어요.

유미, 설탕통을 재석 앞에 바짝 놔주고는 자기 자리로 가 앉는다.

할매 그려 그림 이걸로 통친겨어. (주방으로 들어가며) 아이고 허리 쭈셔.

정적 속에 아무 말 없이 각자 술 마시는 유미와 재석.  
재석, 설탕 타서 금방 막걸리 한 병 다 비우고 한 병 더 꺼내온다.

유미 (슬쩍 보고) 달달해도 것도 금방 취해요.  
 재석 (발그레해져서, 유미 등쪽만 보이지만) 저 군민님. 전 군민님께서...  
 용기 내셔서 꼭 접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끄!! 소리 내는 유미, 마지막 잔 비우고 일어나려는데, 재석이 와 앉는다.

유미 왜애요?!  
 재석 (흐뭇) 막걸리가 이렇게 달달한 걸 군민님 덕분에 처음 알았습니다.  
 군민님. 사실은 제가 꼬옥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이게 정말 나쁜 건데.  
 군민님 같은 노. 처. 녀. 도 있을 거란 생각을 전 왜 못 했을까요?  
 농촌엔 당연히 노총각만 있을 거란 저의 편견 때문에 상처 받으셨죠?  
 유미(E) 왜 저러? 아버지 하나만으로도 내가 오늘 무척 힘든데...  
 (두 손 곱게 모으고, 하늘 올려다보며) 저한테 왜 이러셔요.  
 재석 (곱게 모은 유미 손 꼭 잡고) 제가 군민님을 책임지고 싶습니다.

해사하게 뚝뚝뚝한 눈빛으로 유미를 바라보는 재석. 잘생겼다.

유미 (순간 발그레해졌다가) 뭘 뭘 책임진다고 그래요?!  
 재석 국제미팅요!!! 부끄럽다고 생각 마시고 접수하세요. 제가 군민님을...  
 유미 아 진짜. 뭐얼 자꾸 접수 해요. 보자 보자 하니깐 내가 보자기로...

쿵!! 재석의 머리가 곱게 모은 손 위로 푹 쓰러진다.

유미 음마나... 시상에나...

## #22 음내 도로 일각(밤)

깜깜한 하늘에 박힌 별들 보이고, 끄끄대는 유미의 숨소리만 들린다.  
눈감고 해맑게 미소 짓고 있는 재석 얼굴, 무얼 탔는지 흔들흔들한데.

재석 (해룡해룡, 큰 소리로) 용기 내세요, 군민님!!! 할 수 있습니다.  
유미 (세상 잃은 표정으로 하늘 보며) 오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정말.

보면, 유미가 취한 재석을 손수레에 태워 끌고 가는 중이다.

재석 (노래 부르듯이) 농촌 노처녀 군민님~ 힘내세요 힘~~  
부끄러워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군민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재석, 또 박자 맞춰 “농촌 노(처녀)~” 하려는데  
저도 모르게 재석의 머리채를 확 쥐어 잡는 유미.

유미 그만해요!! 나한테 진짜 왜 그래요.

### #23 당상군청 경비실(밤)

군청 경비에게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꾸벅 인사하고 나오는 유미.  
유미 가고 나면, 손수레 채로 경비실에 맡겨진 재석이 잠들어 있다.

### #24 뚝길(밤)

한밤이지만, 드문드문 들리는 풀벌레 소리로 적적하지 않다.  
별들 쏟아질 듯한 하늘 바라보며 걷는 유미, 하늘 보며 흥!치!뽕!을 날리고,  
흥얼흥얼 걸어가는 유미 뒤를, 청개구리가 발 맞춰 팔짝팔짝 쫓는다.

### #25 유미 집 / 부엌(낮)

찹쌀가루에 물 붓고, 착착착착 익반죽하는 손길, 유미다.  
찬물에 담가놓은 꽃잎(진달래, 장미 등)을 건져서 마른 수건에 물기  
뺀고, 반죽된 찹쌀을 밤틀 크기로 떼어서 납작하게 빚어서 꽃잎을  
얹는다. 기름 넉넉히 두른 철판에 올리면 지글지글 먹음직스럽게 익어가는  
화전이다.  
접시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꿀도 종지에 담고, 상에 올린다. 올려놓고

보면 이쁘다. 유미, 하나 집어 먹고는, “맛있네.” 한다. 안방을 향해 찌릿  
한번 찌리고는, #17에서 숨겨놓은 소주병 꺼내 상에 올리고, 밥상보  
덮어놓는다. 그리고는 철판에 남아 있는 화전을 한참을 보다가.

플래시백.  
#15에서 “전 그런 거에 전혀 관심 없어요.” 하던 호섭.

생각하고 흐뭇하게 웃는 유미.

### #26 유미 집 / 마당(낮)

유미, 도시락통 들고 나오면, 설기가 냄새 맡고 쿵쿵거린다.

유미 년 안 돼. 떡이라 목 맥혀.  
(가면서, 시크하게) 그냥 남는 거 갖다주는겨.

### #27 호섭이 하우스 앞(낮)

화전 싸 들고 오는 유미, 일꾼1, 2만 일하고 있고 호섭은 보이지 않는다.

일꾼1 (쿵쿵거리며) 꼬소한 기름넵네?!  
유미, 일꾼1의 반대편으로 돌아서서, 혼잣말로 “귀신이어 귀신.” 하는데…  
멀리서 호섭이 오는 모습이 보인다. 흐뭇하게 바뀌는 유미의 표정.  
유미, 찬찬히 돌아서서, 사뿐사뿐 걸음으로 한쪽 테이블에 가서, 최대한  
천천히 화전을 내려놓으면, 딱 때맞춰서 호섭이 도착한다.

유미 (크게) 아버지가 화전을 드시고 싶다고 해서. 남은 거 쯤 싸 왔어요.  
호섭이를 의식한 어색한 유미와 유미에 따라붙는 일꾼1의 의미심장한  
눈빛.

유미(E) (일꾼1의 눈길 피하며) 아 왜애. 티가... 났나?!  
 일꾼1 (유미와 호섭이 번갈아 보다가) 유미가 혹시... 호섭이한테...  
 유미 (긴장해서, 침 꿀깍)  
 일꾼1 돈 꾸려고 이러는겨?! 니 필요한 돈이 200이지?!  
 (화전 집어 먹으며) 이웃이래도 함부로 돈 꾸주고 그러는 거 아녀.  
 유미 끄!!

호섭, 화전 집어 먹는데, 맛있다. 만족스럽게 웃고 또 하나 집어 먹으면,  
 유미, 저도 모르게 또 해~~ 웃는다.  
 (E) 유미 핸드폰 벨소리.

유미 (전화 받고) 당상군청이요?!

## #28 당상군청 / 로비(낮)

급하게 들어서는 유미, 지나가던 재석이 유미를 본다.

재석 (유미에게 다가가서, 반갑게) 군민님. 군청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가까이 대고, 작게) 국제미팅 접수하러 오셨으면 저쪽으로...

유미, 정색하고 재석을 못 본 척 지나쳐서, 생하게 민원센터로 들어간다.

유미(E) 애개개개개.

## #29 당상군청 / 민원센터(낮)

#9의 직원과 마주 앉아 있는 유미, 둘 다 답 없는 표정으로 뻘히 본다.

유미 작년에 우박으로 피해 본 게 얼마데 고작 5만 8천 원이요?!  
 직원 피해 농가가 워낙 많아서요. (종이 내밀고) 수령 사인하세요.  
 유미 아니 조합에서도 아버지가 와야 대출해준대고, 그럼 난 어떡해요.  
 직원 그러게요. 근데 사인 안 하시면 그거마저 못 받아요.

버티다가 결국 사인하는 유미, 동시에 다음 순번 민원 벨 땡! 누르는 직원.  
 유미, 또 미련스럽게 서 있는데, 직원 책상에 비죽 튀어나와 있는 포스터가 보인다. 포스터 전체는 보이지 않고 “우승 상금 200만 원”만 반짝반짝 빛을 내는 듯 선명하다.

유미 (직원 책상으로 손을 쭉 뻗어 포스터 빼내서) 이게 뭘까요?  
 직원 아, 요리 경연대회요?  
 유미 (읽으며) 당상군민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 상금이 200만 원!!!인데...  
 (의아해서) 왜요?! 도대체 왜? 왜 여직 말을 안 해줬대요?  
 직원 (시계 보고) 신청 기간이... 이미 지났네요.  
 유미 예예?  
 직원 오늘 정오까진데 지금 정확히 5분 지났네요.  
 유미 인정머리 없게 왜 그래요 우리 사이에. (하다가... 아차!!)  
 아니 내 말은 인정머리가 없단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직원 담당자는 이쪽이 아니라 저쪽에, 마침 딱 저기 계시네요.

유미, 직원이 가리키는 곳 돌아보면, 재석이 있다. 헉!!

유미 (직원에게 속삭이듯) 저분 말고 다른 담당자는 누굴까요?  
 직원 문화행정과 박재석 주임님. 딱 저분 한 명인데.  
 (작게 속삭이듯) 인정머리가 저보다 없으셔서 아마 안 될 거예요.

## #30 당상군청 / 문화행정과(낮)

12시 15분쯤을 가리키는 벽시계, 재깍재깍 움직이는 초침 보며 침 꿀깍 삼키는 유미. 재석 책상 한쪽에 요리 경연대회 참가 신청서가 보인다.

재석 오늘 정오 마감이고, 지금은 점심시간이라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유미 (세상 다소곳한 자세로) 부탁드립니다. 제예발.  
 재석 아까 로비에선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시던데.  
 유미 죄송해요. (애처로운 눈빛 날리며) 제가 얼마나 후회 했게요.  
 정말 꼬옥 참가해야 하는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재석, 곱게 두 손 모으고 있는 유미를 보고 웃는다.  
재석의 미소에 안심하는 유미. 저도 같이 웃고는 신청서 달라고 두 손 내미는데.

재석 왜요? 더 하실 말씀이라도?  
유미 (신청서 있는 쪽으로 손 더 내밀며) 저거... 신청서를 주셔야죠.  
재석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유미 예예?! 아니... 그럼 왜 줄 거처럼... 로비에서 모른 척하고 지나간 애긴 했대요?  
재석 그건 그냥 궁금해서 했습니다. 그게 이거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유미 (아!! 속이 터진다. 결눈질로 신청서 노리며) 정말 이거예요?  
어제 그쪽을 안전하게 군청에 데려다놓은 게 누구게요?!  
재석 그래서 아까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가셔서.  
유미 그러니까요. 정말로 감사하면 좀 해줘요. 딱 5분 지난 건데. 네?!  
재석 제가 그 일과 이 일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유미 (그제야 다시 미소 짓는데...)  
재석 이걸 해드리면, 어제 그 일이 대가성 청탁이 될 것 같아서,  
유미 아 뭐래는겨!!! (신청서 가져가려고 손 딱 뺏는데)  
재석 (신청서 딱 잡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 #31 당상군청 / 문화행정과 앞 복도(낮)

막 나오는 유미, 두 주먹 부르르 떨고 섰는데...  
군수와 비서진들, 우르르 문화행정과로 들어간다.  
복도에 품바축제 포스터, 요리 경연대회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이  
이제야 보인다. 상금 "200만 원" 글자를 아련한 눈빛으로 보는 유미.

플래시백.

#21. 할매 술집에서 "제가 꼬옥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제가 군민님을 책임지고 싶습니다." 하던 재석  
#22. "제가 군민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래하던 재석.  
#28. 반갑게 유미에게 다가서던 재석.

#30. 활짝 웃다가, 손으로 신청서 딱 잡으며 "절대 안 됩니다." 하던 재석

유미 또라이여 또라이. 죄송하고 도와주고 싶은데, 절대 안 됩니까아?!  
미친놈이여 미친놈.

### #32 당상군청 / 문화행정과(낮)

군수 앞에서, 바짝 긴장하고 서 있는 직원들, 재석, 국제장, 동료, 과장 등.

군수 (꼬며) 일들은 하고 있는겨?!  
3월부터 5월까지 쭉우욱! 주구장창! 쉬지 않고! 축제를 했는데 왜  
일간지에 기사 하나가 안 나는지 나는 통 모르겠단 말이여.  
군수, 직원들에게 눈길 쪽 돌리는데... 모두 죄지은 듯 눈길을 피하고 고개  
숙인다.

군수 원체들 일하는 데 긴장감이 없어.  
기이껏 온다는 게 충청일보 기자고, 기껏 온다는 얼굴이 가가 가여.  
서울서는 왜애 멀어서 취재를 못 온다?!  
일간지 기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군청으로 올까, 연구들은 하는겨?  
권과장이랑 국제장은 손 꼭 잡고 육이오 때 우리 할매가 피난 갔던  
옹구리 마을로 좌천을 한번 가고 싶어서 그러는겨?

과장과 국제장 표정 굳고, 모두 고개 숙이는데 죽을 맛이다.  
동료, 나설까 말까 망설이다가, 눈 꼭 감고 군수 앞으로 나온다.

동료 저어기 군수님! 이번에 국제미팅 신청자 중 여자가 한 명 있습니다.

재석은 헉!!이다. 동료는 자기만 믿어보라는 듯 눈 사인 보내고는 계속 말  
잇는다.

동료 국제미팅을 남자들의 전유물로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왔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안 그래도 요즘 페미니즘이 화두인데 시대에 발맞춰 우리 당상군청에서 전국 최초로 남녀 차별 없이 국제미팅을 개최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동료, 군수의 표정 살피는데, 군수의 표정에 변화가 없다. 말 괜히 꺼낸 것 같은데...

동료 (점점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어떨까 합니다만...  
군수 (뻘뻘 보다가, 급 미소) 뭘 어쩌?! 좋지. 좋아. 아이주 좋구먼.  
그런 좋은 일이 있음서 뜰 들이고 그려.  
그니까 충청도 사람이 느리다고 욕을 먹고 그려는겨.  
(다정하게) 그 국제미팅 담당자가 누구여?

재석, 아직 신청받은 거 아니라고 동료에게 손으로 엑스엑스엑스 사인을 보내지만,

동료 여기, 박재석 주임입니다.  
재석 (엑스엑스 하던 손길 어색하게 내리고) 저기 그제... 아직...  
과장 (채서) 아직!!! 미숙하지만 저희 문화행정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수 (만족한 미소) 그려그려. 어이쿠. 여자가 국제미팅을 신청했다 말여?!

### #33 당상군청 / 문화행정과(시간 경과)

군수와 비서진들 싹 빠지고 난 후, 재석이 과장 앞에 불려가 있다.

재석 과장님. 그제... 아직... 그분이 신청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서...  
과장 (바로) 그럼 우리 박주임이 후딱 가서 받아오면 되겠네.  
재석 그 군민님께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으셔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국제장 (끼어들어) 불가능?! 불가능응?! 이래서 옛적부터 타지 놈헌텐 정 주지 말랬다고, 지금 과장님이랑 나랑 옹구리로 좌천 가란 소리여 뭐여?!

재석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국제장 가라 가라 고사 지내고 있는겨. 일부러 이려는겨.  
과장 국제장아. 나도 말 좀 하자.  
(재석에게) 그거 하나 받아오는 게 뭐 어렵다고. 당장 받아와.

재석 (망설이는) ...  
국제장 봐요 봐요. 아주 지만 아는 서울각쟁이여.  
속 터져 죽겠네 진짜. 동료의식이고 뭐고 하나도 없슈.  
(성질 확 내며) 박주임아 너는 도대체 원하는 게 뭐여?  
옹구리 발령만 나와 아주. 내가 박주임 너를 가만두나 안 두나...

동료, 재석이 쪼이는 거 보니 미안하다. 자기가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나서려는데,

재석 (한발 앞서 나오며) 신청서 받아오면...

모두, 재석을 본다.

### #34 논길(낮)

논밭 펼쳐진 길, 햇볕 내리쬐는 정오다.  
양복 반듯하게 입고, 신청서 들고, 유미네 찾아가는 재석. 논길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 #35 유미 하우스 앞(낮)

천연비료(소똥)와 진흙이 쌓여 있고, 유미는 물 뿌리면서 소똥과 진흙 섞고 있다.  
일꾼1은 소똥 들여다보다가, “고 소똥은 잘 묵혀진겨? 아이고 냄새. 천연비료 쓴다고 유난이여. 대에총 쓰지.” 하고는 진흙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풍당풍당 간섭한다. 유미는 대답 없이 묵묵히 일만 하는데.  
주소 보며 걸어오는 재석. 유미를 본다. 멀리서 유미를 지켜보는 재석. 일꾼1, 진흙 한 줌 들어서 질감 테스트하듯 만져본다. 재석도 그 모습



유심히 본다.

일꾼1 (냄새도 맡아보고) 요번 진흙도 별론 거 아녀?!  
 유미 (섞은 만큼 구루마에 옮겨 담는다.)  
 일꾼1 아이고 미련해라. 유미야아. 요령 있게 혀. 오늘 안엔 끝내겠냐?!  
 (자랑하듯) 유미는 힘으로 하고, 나는 꺾로 하는겨.  
 유미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입으로 떠들고 요령 쓸 시간이면 다 하겠슈.  
 시골 사람은 힘이 있어야지. 꺾로 하다가는 백날 해도 다 못 해요.

유미, 구루마 들고 하우스로 들어가면, 일꾼1도 또 풍당거리며 유미를 쫓아 들어간다.  
 재석, 한참 동안 유미를 기다리고 섰는데, 나올 기미가 없다. 지루하다.  
 유미가 비료 섞던 곳까지 가서 소똥과 진흙을 유심히 관찰하듯 보는 재석.

### #36 유미 하우스 앞(시간 경과)

유미, 빈 구루마 들고 나오다가... 멈춰 선다. 헉!!!  
 뒤따라 나오던 일꾼1, 놀란 유미의 시선 따라가다가, 헉!! 뜨억!! 흠!!!  
 보면, 재석이 한 손으로 소똥 한 줌을 손에 쥐고, 일꾼1이 진흙을 쥐고  
 그랬듯, 손으로 가능해보다가, 뭉개고 있다.

일꾼1 (양복 입은 재석을 쭈욱 훑으며) 이 깔짚한 양반을 어디서 봤는데.  
 시방 뭐 혀유?!  
 재석 (돌아보며) 아. 안녕하십니까. 군민님.  
 유미 누구 때때 안녕은 못 하구요, (소똥 바라보며) 아... 뭐 한대요?!

재석, 손에 묻은 소똥을 한 손으로 털어내려는데 잘 안 된다.  
 가지고 온 신청서 거드랑이춤에 끼워놓고, 이번에 양손 비비며 손가락  
 마디마디 묻은 소똥을 떼어내는데, 더 뭉개진다.  
 일꾼1, 볼수록 더럽다. 우웁!! 헛구역질 나오고.

재석 (시선 느끼며, 뭔가 이상하다, 어색한 웃음) 생각보다 끈적입니다.

일꾼1 그류. 끈적이쥬.  
 재석 진흙에서 이렇게 독특한 냄새가 나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일꾼1 (손으로 반대쪽 가리키며) 진흙은 이쪽!!  
 재석 (흔들리는 시선) 그럼 이걸...  
 일꾼1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슈.  
 재석 (유미에게, 어색하게 웃으며) 그럼 이걸...  
 유미 예상되는 그거요. (애잔하게 보다가) 똥!! 소똥!!

웁!! 재석, 저도 모르게 자동반사로 바지춤에 손을 문지르다가... 뜨억!!!  
 멈춰!!! 유미와 눈이 딱 마주친다.

유미 (더 애잔하게) 별이 좋아서 빠아짜 말리면 잘 떨어져요.

### #37 논길(낮)

빛바랜 청록색 추리닝 입고 한 손에 양복바지 둘둘 말아서 들고, 왔던 길  
 다시 되돌아가는, 처량한 재석의 뒷모습. 논길과 나름 잘 어울린다.

재석(E) (힘없이) 군민님이 용기를 내셔서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38 유미 하우스(낮)

신청서 들여다보고 있는 유미. 어이가 없다.  
 보면, 국제미팅 참가 신청서다. 여기저기 재석의 똥 묻힌 지문 자국이  
 있다.

유미 또라이여 또라이. 미친놈이여 미친놈.

유미, 신청서 구겨서 버리고, 미스트 틀면, 물이 찰끔찰끔 나온다. 토마토  
 잎이 누렇게 변해 있다. 가져다둔 비료 뿌리고, 물 뿌리고를 반복하다가,  
 무언가 결심을 한 듯 밖으로 나간다.



### #39 호섭이 하우스 앞(낮)

호섭의 하우스로 들어가려는 유미, 갑자기 멈춰 멈춰 선다.  
무언가를 듣는 듯 잠시 멈춰 서 있는 유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진다.

### #40 산 어귀 밭 일각(다른 날 / 낮)

헉헉거리며 산 올라오는 재석, 저질 체력이다. 그래도 오늘은 양복이 아닌 청바지다.

재석, 어디쯤 올라와서 누군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다가, 시선 멈춘다. 보면, 유미가 산 밑 경사진 밭에서 트랙터 몰며 쌓아둔 비료를 나누는 중이다. 한 손으로 핸들 잡고, 상체 45도로 틀고 기술적으로 빠꾸도 하며 트랙터 모는 유미.

재석, 다가가서 “저… 군민님.” 불러보지만, 유미는 집중한 듯 듣지 못한다. 유미,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도록 쉬지 않고 트랙터 몰며 거름을 옮기고, 재석은 그러한 유미를 한참 동안 지켜본다.

한참 만에 트랙터 멈추는 유미. 유미는 근심 가득한 얼굴로 무언가를 생각하다가, 허탈하게 피식 웃고는 고개 드는데.

유미 (재석과 눈이 딱 마주친다. 어이없다) 뭐예요?!!  
재석 (반갑게) 군민님!! 여기 계시다고 해서… 왔습니다.  
(초록색 추리닝 들어 보이며) 그때 빌려주신 옷도 가져다드려야 하고, (국제미팅 신청서도 꺼내서 흔들며) 이것도.  
유미 (감정 없이) 옷은 거따가 두고 가요.  
재석 아닙니다. 여기서 일 끝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 #41 산 어귀 일각(시간 경과)

유미가 나눠놓은 비료들이 간격 맞게 밭에 드문드문 쌓여 있다.  
재석은 지루한 듯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멀리서 허리 구부정하게 굽은 동네 할매(80대)가 새참을 이고 온다.

재석 (얼떨결에 새참을 받고, 얼떨결에 인사) 안녕하세요.  
동네 할매 아이고. 유미랑 선 본 그이여?!  
유미 (트랙터 세우고, 다가와서, 단호하게) 아녀.  
동네 할매 (딱 돌을 번갈아 보다가, 흐뭇) 송 볼까 봐서 그려?!  
유미 아니여!!!  
동네 할매 (또 번갈아 보고, 흐뭇한 미소) 젊어 좋다.  
유미 아 진짜 아녀.  
동네 할매 (재석에게) 유미 혼잔 줄 알고 챙겨온 거라 양이 적어유. 어찌나?!  
애가 말은 통통하게 혀도 착혀유. 살아보면 알꺼.  
유미 아, 할매!!! 나 오늘 그만하고 갈까요?!  
동네 할매 가면, 트랙타는 누가 몰라구우?! 그럼 올해 발농사는 그만인겨.  
유미 내 발인가?! 할매 밭 짓든지 말든지 나랑 뭐 상관이라구.  
동네 할매 (재석에게) 여봐유. 말은 이렇게 통통하게 해유.  
유미 없음 내가 발농사를 못 겨유. 매년 와서 이렇게 해주니. 이빠.  
(재석이 손 꼭 잡고) 싸우지 말구. 사이 좋게 노나 먹어유. (간다)

유미, 솔뚜껑을 여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밥, 반찬, 비빔국수다.  
재석, 밥과 유미를 번갈아 보며, 이걸 혼자 다 먹자는 놀라운 표정이다.  
유미, 민망하지만 애써 모른 척, 밥 퍼먹고 싶지만, 차마 목구멍으로 안 들어간다.

재석 (비빔국수 보며 침 꿀꺽 삼키며)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손가락 딱 놓는 유미.

### #42 산 어귀 일각(시간 경과)

유미와 재석,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서 밥 나눠 먹고 있다.

재석 (신청서 주섬주섬 펼치며) 저… 저기.  
유미 (찌릿하게 보며) 암 말 말고 먹어요.  
재석 예. 아니, 저… 저기… 군민님…

유미 (더 무섭게 찌릿)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구. 먹고 가요.  
 내가 지금 기분이 어때 보여요?!

재석 (안 좋아 보인다. 쫓아서) 예.

아무 말도 없이 먹는 유미와 재석.  
 유미, 다 먹고, 그릇 대충 정리하고는, 퐁퐁 열려진 냉커피 한 잔 따라  
 마시고는, 재석 쪽으로 냉커피 병 밀어놓고 일어나 발으로 간다.  
 재석도 유미가 해놓은 대로 그릇 정리하고는, 냉커피 한 잔 후딱 마시고는,  
 유미를 따라나선다. 따라오는 재석의 기운 느끼며 돌아보지도 않고 딱!!  
 멈추는 유미.

재석 (유미의 포스에 기죽지만) 원칙적으로 공짜로 밥을 먹으면 안 돼서…  
 유미 (훅 찌러보며) 아 그놈의 원칙은 진짜.  
 재석 (눈길은 피하지만 지지 않고 쫓아가며) 커피까지 마셨습니다.  
 (발 넘어 들어가며) 저 뭐든지 시켜주소.

유미, 구석에 샵 하나를 확 집어 들고 걸어온다. 재석… 무섭다. 침 꼴깍  
 삼키는데… 유미, 재석을 지나쳐 간다. 나눠놓은 비료를 퍼서 구석부터  
 골고루 뿌리는 유미.  
 재석도 샵 하나 집어 들고. 유미가 하는 대로, 비료 뿌리고, 보고, 비료  
 뿌리고 한다. 고개 들 때마다 저를 보고 있는 재석과 눈이 마주치는 유미,  
 불편하다.

유미 가는 게 도와주는 건데요.  
 재석 아닙니다.  
 유미 (통명스럽게) 아닌 걸 왜 그쪽 맘대로 결정을 하고 그런대요.

정오의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다. 별말 없이, 햇볕이 내리쬐는 줄도 모르고,  
 열 맞춰서 퇴비 뿌리는 재석. 이마에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다.  
 유미, 한참 만에 허리 펴보는데, 재석은 아직도 열심이다. 보다가,

유미 (챙 넓은 모자 건네며) 써요. 별이 좋아서 금방 시골 사람 돼요.

재석 (받아 쓰면)  
 유미 (정말 안 어울린다. 처음으로 웃고) 진짜 시골 사람 같네.  
 재석 (피식)

다시 말없이 거름 뿌리는 두 사람.  
 이제 재석도 제법 유미를 보지 않고 잘 뿌린다.

유미 이유나 한번 들어봅시다.  
 재석 (보면)  
 유미 이렇게까지 하면서 나를 미팅에 보내려고 하는지, 궁금하네.  
 재석 저 그건…

## #43 당상군청 / 문화행정과(낮)

재석의 회상.  
 #33 연결.

국계장 봐요 봐요. 아주 지만 아는 서울각쟁이여.  
 속 터져 죽겠네 진짜. 동료의식이고 뭐고 하나도 없슈.  
 (성질 확 내며) 박주임아 너는 도대체 원하는 게 뭐여?  
 옹구리로 발령만 나와 아주. 내가 박주임 너를 가만두나 안 두나.

동료, 재석이 쪼이는 거 보니 미안하다. 자기가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나서는데,

재석 (한발 앞서 나오며) 신청서 받아오면…  
 모두 (보면)  
 재석 저 서울 갈 수 있습니까?  
 과장 (어이없고) 뭘 뜬금없이 서울이야?!

재석 트레이드 일순위로 올려주십시오. 서울로 가고 싶습니다.  
 동료 아이고 그놈의 서울은. 아직도여.  
 국계장 저, 저봐요. 정 붙이고 살 생각은 안 하고.

재석 (과장의 눈길 피하지 않고) 서울로 가고 싶습니다.  
 과장 서울로 트레이드 신청한 지 얼마나 됐지?! 한 3년 넘었나?!  
 재석 예.  
 과장 (뻘히 보다가) 좋다!!! 충청도 사람은 충청도에 살고, 서울 사람은 서울로 가야지. 가서 신청서 받아와!!!

## #44 산 어귀 일각(낮)

#42 연결.

유미 (보면)  
 재석 군민님이 미팅 신청을 하시면...  
 제가 서울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미 (보는)  
 그때, 후드득 떨어지는 빗방울. 두 사람 가만 보고 있는데...  
 빗줄기가 갑자기 굵어진다. 여름을 알리는 장대비.  
 유미 뭐 해요. 달리지 않고.

유미, 재석을 잡아끌고 달리기 시작한다.

## #45 숲속 길(낮)

비를 피해 막 뛰어가는 유미와 재석. <소나기>의 한 장면 같다.

재석(E) 거름요. 방금 뿌린 거 어찌죠?  
 유미(E) 비 그치면, 가서 골고루 섞어줘야죠.  
 재석(E) (지친 목소리) 또요?!  
 유미(E) 아이고, 누가 들으면 억지로 시킨 줄 알겠네.

## #46 원두막(낮)

멀리 원두막이 보이고, 원두막을 향해 뛰는 유미와 재석.  
 원두막에 겨우 뛰어 들어와서 마주 보는 유미와 재석.  
 이미 비에 흠뻑 젖었다. 서로 꼴 보면서 웃는 유미와 재석.

## #47 원두막(시간 경과)

유미와 재석, 걸터앉아서, 비 내리는 모습 말없이 가만 본다.  
 여우비인 듯, 빗줄기 사이로 햇빛이 보인다.

유미 그냥 폼잇이죠. 여긴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도와드려야 해요.  
 할매 혼자 사시는데 트랙터를 못 모니까.  
 재석 그럼 아까 그 할머니도 군민님 발일을 도와줍니까?  
 유미 (기막혀서) 네에?!  
 재석 아니, 원칙적으로 폼잇이는 서로 돕는 거라서.  
 유미 아 진짜 뭘 그렇게 자꾸 원칙 원칙 따져요. 그냥 정으로다가 하는 거지.  
 재석 아... (새삼 유미를 보다가) 정이요?

플래시백.

#4에서 국밥집 김사장이 “정 없이 왜 그러어.” 하던 모습.  
 비죽이던 국계장의 표정, 3만 원 챙겨주고, 챙겨 넣던 모습들.  
 #19에서 “형님, 동상” 하며 몰려오는 국계장 무리 모습.

재석 (비 갠 하늘 보며) 제가 당상군에 내려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정으로 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정으로다가, 정으로다가...  
 저는 그 말이 참 싫었거든요. 근데 군민님 정은... 참 예뻐니다.  
 유미 (될 말인지 모르겠고, 퉁퉁하게) 뭐가 예쁘다구요?!  
 재석 정이요.  
 유미 예?!

비 갠 하늘에 무지개가 열게 비친다.

재석 무지개가 예쁘다구요.  
유미 (참 싱겁다) 비 그쳤네. 그쪽은 이제 가요.  
재석 (먼저 가는 유미를 보며, 혼잣말로) 말은 통통하게 해도, 예쁩니다. 군민님 마음도.

### #48 산 어귀 밭(낮)

유미, 샅으로 빗물에 흘러간 비료 다잡고 있는데, 재석도 밭으로 들어오려 한다.

유미 들어오지 마요!!

동시에, 밭으로 들어오는 재석. 질퍽한 퇴비 밭에 운동화가 폭!!! 빠진다.

유미 그러게 말 좀 듣지.

### #49 산길(밤)

노을 깔린 초저녁이다. 뭉게뭉게 구름 진 사이로 짙붉은 노을이 곱게도 깔렸다.

청바지 밑단 걷어 올리고, 장화 신고, 한 손에 운동화 든 재석의 모습이 산길의 분위기와 나름 잘 어울린다. 터벅터벅, 나란히 걸어 내려가는 유미와 재석.

재석 정말 신청 안 해주실 겁니까.  
유미 예에.  
재석 해주셔야 제가 서울을 가는데요.  
유미 말이라도 이쁘게 하든가. 빈말이라도 멋진 외국인 소개해준다고...  
재석 (진지하게) 멋진 외국인이... 왜 굳이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유미 아. 진짜 뭐래는겨. (재석 손에 들린 쇼핑백에서 추리닝만 빼서 들고)

그 장화는 신고 버려요. 어차피 다된 거니까. 장화 핑계 대고 또 오지 마요. 신청 절대로 안 해요.

유미, "서울을 가든가 말든가." 구시렁대며 잔걸음으로 저만치 앞서간다.

동료(E) 그래서 진짜 그냥 왔다가?!

### #50 당상군청 / 문화행정과(낮)

한심한 표정으로 재석을 보고 있는 동료.

동료 아... 답답하다 답답해. 감언이설로 어르고 달래도 모자랄 판에, 멋진 외국인이 왜 여길 오냐구 했다가?!

난 또 아주 당당하게 서울 보내달라기에, 뭘 수가 있나 했더니.

재석 잘 설득해보려고 했는데...

동료 박주임. 계장국이 버르고 있어. 계장국뿐인가.

이제 과장님도 가세할 건데.

국계장과 과장, 막 출근해서 들어온다.

동료 (들으라고, 크게) 그래서 오늘 신청서 써준다고 했다고?! 잘됐네. (재석에게, 작게) 안 되든 그 여자 인적사항 아는데 뭐. 야메로라도 써.

### #51 호섭이 하우스 앞(낮)

일꾼1, 2 슬슬 걸어오는데, 하우스에서 유미가 박스 작업 끝낸 표고버섯을 수레에 싣고 나온다.

일꾼1 유미 니가 왜 거서 나오는겨?

유미, 말없이 박스 옮기는데, 호섭이 막 오면서.

호섭 유미가 한 달간 아르바이트 하기로 했어요.  
일꾼1 아이고 유미 아버지도 애지간혀. 웬만하면 미스트 교체 좀 해주지.  
낮엔 여서 일하고, 밤엔 저서 하고?!  
(농담조로) 하긴 우리 유미가 황소보단 힘이 세잖여.

유미, 아무 반응 없이, 박스 다 옮겨놓고는 하우스로 들어간다.

일꾼2 (호섭에게) 왜 저기압인겨?  
일꾼1 (호섭에게) 왜 저러는겨?!  
호섭 (난들 알겠냐는 표정)

## #52 호섭이 하우스(낮)

표고버섯 박스에 차곡차곡 담고 있는 일꾼들. 유미도 그 사이에서  
열심이다.

## #53 호섭이 하우스 앞(밤)

유미, 호섭의 트럭에 마지막 박스를 옮겨놓는다.  
일꾼1, 2도 마지막 박스를 옮겨놓는다.

일꾼2 유미가 있으니까 아주 일이 수월혀.  
호섭 그러네요. 유미야 수고했어.  
유미 (무뚝뚝하게) 뭐 돈 받고 하는 일인데. 들어들 가세요.

유미, 꾸벅 인사하고, 자기 하우스로 발길 돌리는데...  
새 장화 하나 들고 유미의 하우스 쪽으로 오고 있는 재석과 딱 마주친다.  
서로 보는 두 사람.  
멀리서, 유미와 재석이 모습 의아하게 보는 호섭, 일꾼1, 2  
유미, 말없이 자신의 하우스로 들어가고, 재석도 유미를 따라 들어간다.

## #54 유미 하우스(밤)

유미, 들어와보면, 토마토들이 생기가 하나도 없다. 한숨 나는 유미.  
재석, 하우스 한쪽에 새로 사 온 장화 내려놓고, 유미 눈치 살살 보고  
섰는데.

유미 (빈 물통 들고 나가며) 뭐 해요. 썼지 말고, 일 좀 해요.  
재석 네?! (예상치 못한 유미의 반응이지만) 예. (물통 들고 쫓아 나가는)

유미와 재석, 몇 번을 물통 옮겨 나르고는,

유미 (조리개에 물 담아서) 와봐요.

재석이 다가오면, 유미는 토마토에 물 주는 거 시범 보인다.

유미 많이씩 말고 이만큼씩. 할 수 있어요?  
재석 예.

재석, 허리가 부러질 것 같다. 힘든데, 허리 두드리다가도 유미가 보면  
아닌 척 물 열심히 준다. 두 사람 말없이 토마토에 물 준다.  
재석의 눈에 시든 토마토 잎이 눈에 들어온다. 시든 잎을 딸까 말까  
망설이는데...

유미 (재석 쪽을 보지도 않고) 시든 건 따요.  
재석 (어떻게 알았지?!) 네.  
유미 힘들죠?!  
재석 예.  
유미 열흘만 더 할래요?!  
재석 예에?!  
유미 그쪽은 내 신청서가 필요한데, 원.칙.적.으로. 공짜는 없어요. 그쵸?!  
내가 그거 써주는 대신, 열흘만 와서 일할래요? 딱 오늘만큼 힘들  
텐데.

재석 네!!!  
유미 신청서는 가져왔어요?  
재석 (보는)

## #55 독방길(밤)

풀벌레 소리 자욱한 독길이다. 까만 하늘에 별이 총총히도 박혀 있어 예쁘다. 독길 양쪽에 들꽃들 피어 있고, 유미와 재석의 걸음을 맞춰 청개구리도 폴짝 뛰었다.

유미와 재석,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는데.  
(E) 꼬르르륵. 재석 배에서 밥 달란 소리.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E) 유미의 배에서도 들리는 꼬르륵 소리.

유미와 재석, 민망해서 모르는 척하고 가는데...  
(E) 동시에 들리는 꼬르륵 소리. 그제야 꾹! 하고 보는 두 사람.

유미 미팅 신청한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요. 첩피하니까.  
재석 예.  
유미 얼굴 가리고 가발 쓰고 갈 거예요.  
재석 예.  
유미 저 아버지가 알면, 죽어요.  
재석 예. 걱정하지 마세요.

## #56 당상군청 / 문화행정과(낮)

재석, 과장에게 유미의 신청서를 건넨다.  
재석, 허리가 쭈서서 저도 모르게 허리를 툭툭 치고 있다.

과장 (신청서 쪽 읽고는, 흠족하다) 됐네.  
국계장 (와서 들여다보며) 그러네요. 된 거 같슈.  
          웅구리 얘기 나온 담부터 얼마나 마음이 풀렸는지.  
재석 저, 과장님. 홍보기사 나올 때 군민님 신상에 대한 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는 거죠?!  
과장 (별일 아닌 듯) 당연한 걸 뭘 물어.  
재석 군민님께서 특별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알면 큰일 난다고.  
국계장 민원이나 그런 거가 다 비밀 보장 아녀?! 뭐 특별나게 유별이여.  
          (재석에게) 오늘 끝나고 술이나 한잔하고 가.  
재석 저는 선약이 있습니다.  
동료 박주임. 무슨 선약인데 그래. (눈으로 재석에게 가자고 사인하는데)  
재석 중요한 선약이 있습니다.  
국계장 (꼬며) 아주 누가 보면 군수님이랑 약속 있는 줄 알겨.

## #57 유미 하우스(밤)

재석이 들어와서 보면 유미는 없다. “군민님.” 하고 둘러보다가, 토마토 나무의 누런 잎을 따기 시작한다.

유미(E) 와요. 밥 먹어요.

재석, 고개 들어보면, 그 앞에 유미가 와 섰다. 유미 보니 반갑다.

재석 토마토 나무가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유미 따라 테이블 쪽으로 가며) 어디 다녀오세요?

테이블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버섯칼국수와 피망 사이에 고기 넣어 부친 피망 고기완자가 놓였다. 재석, 침이 절로 고인다.

유미 어젠 미안했어요. 일 시키고 밥도 안 주고.  
재석 군민님도 못 드셨잖아요. 꼬르륵 소리가 많이 나던데.  
유미 남 말은. 먹어요.

재석,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를 한 입 먹는데, 국물이 끝내준다.

재석 (피망 고기완자도 먹고) 맛있습니다.

유미 많이 먹어요.  
 재석 왜 신청서 써주셨습니까?  
 유미 알바시키려구요.  
 재석 (보다가) 그리고 또요?!  
 유미 그쪽은 거짓말 잘 못 하죠?  
 재석 (보면)  
 유미 그래서요. 멋진 외국인이 여길 왜 오겠냐고 했던 그 말이 너무 정직해 보여서요. (սսսսս) 그런 사람이 여길 왜 오겠어요.  
 재석 그건 일단 보편적인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 아주 특별한 경우엔...  
 유미 짜내지 말고, 먹어요.

### #58 독방길(밤)

걸어가는 유미와 재석.

재석 (천천히 걸으며) 여기 정말 좋습니다.

### #59 당상군청 / 문화행정과(밤)

미팅업체에서 보낸 사진 열어보는 재석이다.  
 여러 장의 필리핀 여자들 사진 대충 넘기고, 세 명의 필리핀 남자 사진을  
 뚫어져라 보는 재석. 셋 다 비슷하게 생겼다.  
 국제장, 사진 속 보고는 “거가 거여.” 하며 간다.

동료 (사진 들여다보면서) 뭔데? 이상형으로다가 해달래?!  
 재석 좀 멋진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동료 멋진 남자가 여길 왜 오냐?!  
 재석 그래서 잘 찾아보는 중입니다.  
 정말 착하고 괜찮은 분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E) 재석 핸드폰 문자 알림음.  
 [오늘은 오지 마요. 여기 하우스에서 야간작업 한다니까, 나도 오늘은 못

가요.]  
 답문자 바로 보내는 재석.  
 [가서 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뭐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바로 답문자 오고, [그냥 하루 휴가라고 생각하세요.]  
 문자를 보고 피식 웃는 재석, 그러는 재석을 빤히 관찰하고 있는 동료.

동료 뭐 하나? 연애하나?  
 재석 (웃음 지우고) 그럴 리가요.

### #60 호섭이 하우스(밤)

유미, 표고버섯 박스 작업 열중하고 있는데, (E) 삐빅~ 올리는 문자음.  
 보면, 재석이 보낸 토마토 나무 사진이다.  
 [군민님, 이거 뽑습니까?] 물음에 [아뇨]라고 답문자 보내는 유미.  
 또 일하고 있는데, (E) 삐빅~ 문자가 계속 올린다.

### #61 유미 하우스(밤)

유미, 하우스로 들어서는데...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다. 반짝반짝 깔끔해진  
 느낌이다. 음악 소리도 들리고, 토마토 나무 주변의 흙 만져보면 촉촉하게  
 젖어 있다. 보면, 미니 스피커에서 불빛 번쩍이며 음악 흘러나오고, 재석은  
 나무에 물을 주고 있다.  
 테이블엔 재석이 세팅해놓은 편의점 음식(도시락)이 짝악 놓였다.

유미 이걸 다 뭐예요?!  
 재석 음악 같이 들으려고 스피커를 챙겨왔습니다.  
 유미 누구랑요?! 나랑?!  
 재석 아뇨. 토마토랑.  
 유미 (궁!!)  
 재석 (누가 봐도 편의점 도시락인데) 제가 만든 건 아니구요, 사 왔습니다.

재석, 도시락 뚜껑 열고, 유미가 먹는 거 본다.

유미가 한 입 먹으면 재석도 먹는다.

재석 (기대하며) 맛있습니까?  
유미 아뇨?  
재석 그쵸?!  
유미 (웃는)

## #62 독길(밥)

풀벌레 소리 드문드문 들리고, 고즈넉한 밤이다.  
유미와 재석이 나란히 걷는다.

유미 힘들었죠? 그 많은 걸 언제 다 했대요?  
재석 제가 아는 농부가 한 분 있으신데, 그분이 그랬거든요.  
농사는 피부될 시간에 열심히 짓는 거라고.  
잘은 모르지만, 그 말을 믿고 열심히 했습니다.

플래시백.

#35에서 유미가 일꾼1에게 했던 말 “그 입으로 떠들고 요령 쓸 시간이면  
다 하겠슈. 피로 하다가는 백날 해도 다 못 해요.” 하던 유미.

재석 잘했습니까?  
유미 (보는, 표정) 네.  
재석 전 본적이 충청도인데요, 충청도엔 공무원 합격하고 처음  
와봤습니다.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여기 와서 잘했다는 말은…  
오늘 군민님한테 처음 들어봅니다.  
유미 (보다가) 참 어렵죠. 나무도 새 자리 찾아 옮겨 심으면 적응할 수  
있게 기다려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나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럼 좋은데… 뿌리를 내릴 만큼 가만 기다려주질 않아요.  
(웃어주며) 그래도 잘했어요.

## #63 당상군청 / 문화행정과(낮)

오후 2시를 가리키는 벽시계를 재석이 보고 있다.  
오후 3시 30분을 가리키는 벽시계를 재석이 보고 있다.  
오후 5시 10분을 가리키는 벽시계를 재석이 또 보고 있다.  
재석, 서랍 열면 초콜릿이 가지런히 놓였다. 초콜릿 보고 흐뭇하게 웃는데.

국계장 (불쑥 나타나서) 뭔데?!  
재석 (서랍 닫고) 아닙니다.  
국계장 (서랍 억지로 열려고) 뭐여?

재석, 난처하다. 서랍 막으려는데,  
(E) 국계장 전화 소리.

국계장 (전화 받고) 예에.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통화가 되네그러.

국계장, “우리가 보낸 거 보셨슈?! 그류그류.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겨.”  
하면서 나가는데.

## #64 호섭이 하우스(낮)

유미, 표고버섯 박스에 차곡차곡 담고 있다. 호섭이 유미에게 다가와서.

호섭 그 군청 공무원은 왜 매일 오는 거 같어.  
유미 예에.  
호섭 너도 서울살이 해봤고, 나도 해봐서 알지만, 서울 사람 가까이해서  
좋을 거 하나 없어.  
유미 (보다가) 그럼 고향 사람은, 믿어도 되구요?!  
호섭 결 말이라고. 고향 사람을 안 믿음 누굴 믿어.



## #65 호섭이 하우스 앞(낮)

유미 회상.

#39에서 가려졌던 장면이다. (#39 연결)

호섭의 하우스로 들어가려는 유미, 갑자기 멈춰 멈춰 선다.

호섭의 하우스에서 호섭과 일꾼1의 대화 소리가 들린다.

호섭(E)

아이고 형님도, 유미를 어떻게 저한테 갖다 대요.

일꾼1(E)

왜애?! 유미는 영 아니여?! 그때 화전 부쳐서 올 때 보니까 유미가 니를 맘에 두고 있나 싶기도 하고 해서 묻는 거지.

호섭(E)

유미랑 결혼했을 거였음 벌써 했죠.  
개가 저를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는데.

점점 어두워지는 유미의 표정. 유미, 돌아서서 자신의 하우스로 가는데.  
호섭이 막 나온다.

호섭

(사람 좋은 목소리로) 유미가 요즘 고생이 많다. 온도조절 장치며...

유미

(돌아보지 않고, 주먹 꼭 쥐고 참았다가) 그래서 말인데요.  
(표정 감추고, 돌아서서) 오빠네 아르바이트 필요해요?!

## #66 호섭이 하우스(낮)

#64 연결.

유미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오빠도 조심해요. 고향 사람한테 사기당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않겠어요. 고향 사람이나. 서울 사람이나.

일꾼1

(유미 뻘뻘 보면서) 애가 쪼오꿈 변한 것도 같고.

유미

또 이상한 소리 할래면 하지 마요.

일꾼1

아녀. 혈색이 좀 안 좋은 것도 같고. 유미 너 어디 아픈 거 아녀?!  
장정이라도 낮밤 안 가리고 일하다간 큰일 나는겨.

## #67 몽타주

1. 재석이 주머니에서 초콜릿 꺼내서 유미와 함께 나눠 먹는다.
2. 유미와 재석, 함께 하우스로 물동이 나른다.
3. 유미, 흐뭇하게 웃으며 도시락 싣다.
4. 유미와 재석, 도시락 함께 먹으며 이야기 나눈다.
5. 유미와 재석, 제법 익은 토마토들 수확한다. 상자에 담다가, 먹기도 한다.

## #68 유미 하우스(밤)

토마토 나무 밑에 뺨은 걸가지 잘라내는 유미다.  
옆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재석.

유미

걸가지가 뺨어나가면, 옆에 나무도 밀어내고, 영양분도 빠져나가서 열매까지 못 가요. 이렇게 잘라내고, (흙을 꼭꼭 누르며) 나무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해줘요.

재석도 걸가지 잘라내고, 흙을 꼭꼭 누르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다.  
유미, “그렇게 말고 이렇게.” 하며 꼭꼭 시범을 보이다가, 재석과 손이 닿는다. 멍칫!!! 서로 눈길 피하며 어색한 유미와 재석.

## #69 독방길(밤)

오붓하게 걷는 유미와 재석.

재석

왜 농사를 짓는지 알았어요.

유미

(보면)

재석

잘 자라주니까요. 정성을 쏟는 만큼 정직하게.

유미

(웃고)

재석

비웃었죠?

유미

아녀요.

재석 에이 비웃었는데. 틀렸나 보네. 근데 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군민님이랑 저랑 정성 들인 만큼 정말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유미 농사가 정직한 건 애네들은 잘 숨기지를 못해서 그래요.  
 아프면 아프다고, 다쳤으면 보살피달라 하고, 또 좋으면 건강하게  
 웃어주고, 그래요 애네는.

재석 어쨌든 정직하게.

유미 예.

재석 이 길은 참 좋습니다. 마음이 참 깨끗해집니다.  
 저 달도 좋고, 꽃도 좋고… 그리고… (유미를 보며 흔들리는 눈빛)

호섭(E) 유미 아녀?!

재석과 유미 돌아보면, 호섭이 있다.

호섭 (경계하는 눈빛으로 재석 보며) 웬 남의 동네는 그렇게 자주 온대요?  
 어울리지도 않게, 괜히 애한테 바람 넣고 다니지 말구…

유미 (어이없지만, 참는다.)

재석 여기가 왜 남의 동네입니까?! 여기 애는 또 어디 있고.  
 유미 씨, 여기 더 있을 겁니까?!

유미 (고개 저으면)

재석 (박력 넘치게) 가요!!

재석이 유미 끌고 가면, 어이없는 표정으로 보고 서 있는 호섭.

## #70 유미 집 / 마당(밤)

고개 가우뚱하며 보고 있는 설기.  
 보면, 유미가 낮 나간 얼굴로 설기에게 “군민님 말고, 유미 씨이~~~  
 이랬어.” 하고는 또 멍한 표정이다.

유미 저 달도 좋고… 꽃도 좋고… 그리고… (설기 보며) 그다음은 뭐지?!  
 설기가 정신 차리라는 듯, “알!!!” 짓는다.

유미 나도 알아. 그냥… 그래서 그러. 너도 알지?!

유미, 밝게 뜬 달을 씩씩하게 본다.

## #71 유미 집 / 부엌(낮)

바쁘게 움직이는 손길, 유미다. 김에 들기름 발라서 정성스럽게 굽고,  
 봄나물, 생선조림, 부침개, 만들어서 도시락 통에 담는다.  
 유미, 도시락 뚜껑 딱 덮는데… 좀 힘들다. 혈색도 없고, 식은땀도 난다.

## #72 호섭이 하우스 앞(낮)

유미, 버섯 박스 작업하고 있는데 식은땀이 계속 난다.

동네 사람(E) 형님!!! 형님!!! 아이고. 복창이 형님임!! 이게 이것 좀 봐요. 아주  
 큰일이 났슈.

## #73 논두렁길(낮)

동네 아저씨 한 명이 신문을 손에 들고 급하게 뛰어가고,  
 그 뒤를 쫓아가는 마을 사람들 몇 명.

## #74 당상군청 / 문화행정과(낮)

재석, 모니터 보며 필리핀 청년 신청자들 사진과 프로필을 보는데, 왠지  
 씩씩하다.  
 국제장, 신문 펼쳐 들고 호들갑스럽게 들어온다.

국제장 과장님, 보셨슈? 아주 기사가 잘 나왔슈.  
 역시 기자 불러서 밥 좀 먹였더니 신경을 좀 썼네.  
 (기사 읽는) 충청남도 당상군에서 전국 최초로 여성 지역민을 위한  
 국제미팅을 개최한다. 민중기 당상 군수는…

재석, 일어나서 국제장에게 다가가 신문 보는데.  
[첫번째 여자 신청자는 충청남도 당상군 월천리에 사는 38세 이모씨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재석, 놀라서 국제장의 신문 채서 다시 들여다본다.

국제장 이게 이게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여.  
재석 계장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밀 지켜달라고.  
국제장 그러. 그래서 여봐 여봐. 이모씨라고 썼잖여. 이름 안 나오게.

재석, 무섭게 국제장을 쏘아보고는, 신문 움켜쥐고 달려 나간다.

국제장 저저저 미친 거여 미친 거. 아주 서울 간다고 뵈는 게 없어.

## #75 호섭이 하우스 앞(낮)

복창, 신문 움켜쥐고 씩씩거리며 온다. 동네 사람들 몇몇도 구경 왔다.  
복창, 버섯 박스 작업하고 있는 유미의 등짝을 사정없이 때린다.

복창 이놈의 기지배가 미친겨. 미쳤어. 미쳐도 한참 미친겨.

호섭과 일꾼1, “유미 아버지. 왜 이러세요.” 하고 복창을 말리고,  
유미는 영문도 모르고 피하면서 “아버지 왜요. 왜 그래요?!” 하면,

복창 이제 동네 망신스러워서도 더는 못 사는 겨.  
(신문으로 마구 때리며) 기껏 이 꼴 보여주려고 남아서... 아이고.

유미, 복창이 들고 있는 신문 빼앗아서 본다.  
[충청남도 당상군 월천리 38세 이모씨]가 눈에 들어온다. 충격이다!!!  
이제는 복창이 때리는 손길 피하지도 않고, 멍하게 서 있는 유미다.  
막 달려온 재석, 복창에게 맞고 있는 유미를 본다.  
유미, 복창에게 맞으며 원망스러운 시선으로 재석을 본다.

플래시백.  
#55에서 “저 아버지가 알면 죽어요.” 하던 유미.

갑자기 구경하던 사람들이 동시에 “유미 아버지!!!” 한다.  
보면, 복창이 쓰러져 있다. 유미도 “아버지!!!” 하면서 복창을 흔든다.

## #76 유미 집 / 안방(밤)

이부자리 깔고 드러누워 있는 복창, 유미는 그 옆에서 복창의 팔다리 주무르며,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있다.  
유미의 얼굴에도 식은땀 방울이 송송 맺혔다.  
복창은 이불 뒤집어쓰며, “아이고 망신스러워. 아이고.” 한다.

## #77 유미 집 / 마루(낮)

안방 문 열리고 복창이 나온다. 유미의 방문은 꼭 닫혀 있다.

복창 (유미 방에 대고) 아직도 자는겨?! 유미야. 나와봐.

유미의 방에서 기척이 없다. 복창이 문 살짝 열어보는데, 유미가 끄꿍 앓고 누워 있다.

## #78 유미 집 / 유미 방(낮)

복창이 유미를 들여다보면, 혈색 하나도 없이 땀 뻘뻘 흘리며 앓고 있는 유미다. 복창이 유미의 이마에 손대보면, 유미 눈에서 눈물인지 땀방울인지 모르는 것이 또르르 흐른다.

유미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아버지, 괜찮아요?!

복창 (무너지듯) 아주 애비를 말려 죽일라고 그러 니가.

#79 유미 집 / 부엌(낮)

복창, 어설피게 버섯 썰고, 양파 썰어서, 버섯 죽을 만든다.  
밥상에 찬 몇 개 올리고, 죽 올려놓는 복창.

#80 유미 집 / 유미 방(낮)

유미, 링거를 맞고 누워 있다. 복창은 밥상 들여놓고 유미를 일으켜 앉힌다.

복창 (한 숟가락 떠서) 안 들어가도 먹어.  
유미 (못 먹겠다) 이따가 먹을게요.

복창, 숟가락 안 내리고 기다리면, 유미는 어쩔 수 없이 먹고 힘겹게 넘긴다.

복창 (한 숟가락 또 떠서) 아버지랑 서울 갈터?  
유미 서울은 싫어요.  
복창 곧 죽어도 서울은 싫어?! 그럼 시집갈터?  
호섭인 어때?! 요즘 이혼은 흠도 아녀.  
유미 (고개 젓고는) 이모 집에 갈래요.

#81 유미 하우스(밤)

하우스에 들어서는 재석. 토마토 잎들이 누렇게 뒸다.  
물 길어 나르는 재석, 물도 주고, 시든 잎도 따다.

시간 경과.  
재석이 나가고, 잠시 후에 유미가 들어온다. (엇갈리는 유미와 재석)  
유미, 하우스를 쪽 둘러본다.  
시든 잎을 따려고 손 올렸다가, 쓰윽, 손 내리는 유미.

#82 유미 집 / 유미 방 + 마루(밤)

이불 뒤집어쓰고, 숨죽이고 우는 유미.  
유미 방 앞 마루에서 유미 우는 소리 듣고 또 속이 터지는 복창.  
방문 사이에 두고.

복창 엄마도 없이 키운 딸년한테 여직 내가 밥을 얻어먹었어.  
유미야. 그런 딸년한테 내 병수발까지는 못 시켜.  
아버지랑 서울 가아. 니 아직 젊은데 참말로 뭐가 걱정이여.  
유미 (울음 멈추고 듣다가) 아버지 병수발 안 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나랑 있음 되잖아요.  
복창 기집애 혼자 나 죽으면 어찌 살려고.  
큰오래비 장사라도 도우면서 서울서 살아야지.  
응?! 유미야. 인제 알아들었지. 다 털고 아버지랑 서울 가는겨.

#83 할매술집 앞(밤)

텅 빈 술집, 홀에 TV 뉴스 켜 있는 모습 보이고,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

기상캐스터(E) 제주도에 상륙한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루사는 빠른 속도로 북상해서 전라도 충청도 지역을 거쳐 내일 오전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술집 앞을 지나가는 재석, 잠시 멈춰 망설이다가, 지나쳐 간다.

#84 유미 집 / 유미 방(밤)

유미, 잠들어 있는데. 천둥소리 들린다. 천둥소리에 잠 깨는 유미.  
문 열고 보는데, 폭우가 내린다. 문 닫고 다시 눕는 유미. 한참을 뒤척이기만 한다.  
또 천둥소리 들리면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쓴다.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는 유미.

유미, 도저히 안 되겠다. 정신없이 옷 챙겨 입고, 우비도 걸치고, 나간다.

### #85 유미 하우스 앞(밤)

비를 뚫고 급하게 뛰어오는 유미. 하우스 와서 보면, 하우스 한쪽이 기울어져 있다.  
유미, 하우스의 한쪽 기둥 바로 세우려는데, 꿈쩍도 안 한다.  
재석도 우산 쓰고 걸어오다가, 기울어진 하우스 한쪽 보고 달려오는데, 유미가 있다.  
유미도 재석을 봤다. 서로 잠시 보다가, 유미는 재석 무시하고 기둥 세운다. 유미에게 우산 씌워주는 재석.

유미 치워요.  
재석 유미 씨. 이 비를 왜 다 맞고 있어요.  
유미 (밀어내며) 치우라고요.  
재석 이유미 씨!!

재석, 그러는 유미 보다가. 저도 우산을 던져놓고, 유미와 같이 비를 맞는다. 기둥 세우는 유미, 재석도 유미 돕는다. 아무 말 없이 기둥 세우는 두 사람.

### #86 유미 하우스(낮)

아침이다. 언제 그랬냐는 듯 맑은 햇살 내리쬐는 아침이다.  
전 썬과 다르게 말끔하게 옷 갈아입은 유미, 천천히 하우스를 둘러보고 있다. 쓰러져 있는 나무도 보이고, 잎이 누렇게 뜬 나무도 많다.

플래시백.  
#85에서 쏟아지는 비 맞으며 있었던 재석과 유미.  
“이유미 씨!!” 하던 재석.

누렇게 뜬 잎을 하나 잡고는 망설이다가, 떼어낸다.

### #87 당상군청 / 문화행정과(낮)

컴퓨터 모니터에, 트레이드 신청 결과 떠 있다.  
신청 허가와 발령지 날짜 등이 써 있다. 모니터를 뺀히 보고 있는 재석.

과장 박주임. 축하해. 국제미팅 마무리만 잘 하고 가면 되겠어.  
국제장 박주임. 내일 비행기 시간이랑 다 체크한거?!  
군수님도 직접 가신다고 했으니까...

재석, 벌떡 일어나서 나간다. 황당해서 보는 과장, 국제장, 동료.

국제장 미친놈 아녀. 이제 서울 가는 거 정해졌다고 막 나가는 거?!

### #88 유미 하우스 / 피망 하우스(낮)

재석, 들어서는데 아무도 없다.  
재석, 토마토 하우스 다 둘러보고, 유미 없는 거 확인하고는 나가려다가, 안쪽에 피망 하우스 쪽으로 간다. 문 살짝 열고 보면, 유미가 있다.  
재석 들어가려는데, 피망 하우스 바깥에서 호섭과 일꾼1이 하는 대화가 들린다.

일꾼1(E) 유미네 하우스는 어쩐다?! 우리 건 그나마 다행이여.  
호섭(E) 유미야 어차피 팔아버리고 떠날 건데 뭐 상관있겠어요?  
일꾼1(E) 암만 그래도, 유미가 하우스 고치겠다고 알바까지 하고...  
개가 며칠을 앓았대요. 그럴 만도 하지. 지금 심정이 오죽할까.  
그리고 나는 사실 좀 그려. 호섭이가 유미한테 관심 하나도 없는 줄 유미가 알른 여기 와서 일 하겠다고 했잖어?!

유미, 돌아서서 나가려는데, 재석이 있다.  
재석과 마주 보며, 호섭의 속마음 애길 들어야 하는 유미, 굴욕적이다.

호섭(E) 형님. 괜히 쓰잘떼기 없는 애길 유미한테 해서 굶어 부스럼 만들지

마요. 유미 오고 나서 우리 수확량이 두 배가 늘었어요.  
2주는 더 일해야 하니깐. 불편하면 일 못 시켜먹어요.

유미, 어금니 꼭 문다. 쪽팔린다. 재석은 그런 유미를 보다가, 뛰어나간다.

### #89 호섭이 하우스(낮)

호섭과 일꾼1, 막 하우스에서 나오는데...

재석, 다짜고짜 호섭에게 달려가 주먹 날린다. 그 모습 보는 유미.

얼떨결에 맞고 어이없는 호섭인데, 재석이 다시 덤빈다.

호섭, 정신 차리고 재석을 커버하는데, 재석은 꺾도 안 된다.

호섭에게 실컷 얻어터지는 재석.

유미, 나뭇가지로 만든 어른 키만 한 빗자루 하나 들고 와서 호섭을  
후려친다.

싸움 멈추는 재석과 호섭. 호섭 황당해서 유미 보는데 또 세계 후려친다.

호섭이 “유미 너 미쳤어.” 하고 도망가면, 쫓아가면서 또 후려치는 유미.

유미 어차피 팔아치울 하우스도 아니구요, (호섭이 딱 찌리고는)

나는 앞으로 말조심해라. 이호섭!!

일꾼1 아니 재가 왜 이런다?!

유미 아저씨도요. 피망 하우스에 있음 밖에서 하는 소리 다 들려요.  
(호섭에게) 니가 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도 했거든 아르바이트.

재석, 유미를 안쓰럽게 보고 있다.

유미 (재석에게) 그런 눈빛으로 나 보지 마요. 내가 다 알고도 한 이유는.

이호섭 마음 따위보다 나는 내 하우스가 더 중요하니깐.

사람 마음 갖고 장난치는 게... 제일 나쁜 놈이여.

일꾼1 (나와서) 암만 젤루 나쁜 놈이지.

유미 (일꾼 찌리고는, 빗자루 집어 던지고) 거짓말하는 놈이랑!!

둘 다 나쁜 놈이여.

하고는, 재석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가는 유미.

### #90 당상군청 / 문화행정과(낮)

단체미팅 전날이다. 모두 분주한데.

재석은 책상 위에 쌓인 미팅 명단 중에 ‘이유미’ 이름표 꺼내서 보며, 고민  
중인 얼굴이다.

동료 이유미 안 오면 박주임 말짱 도루묵이여. (유미의 이름표 챙겨가며)  
이건 내가 챙길겨. 박주임만 도루묵인가. 우리 썩다 옹구리로 발령  
날겨. 아파 옹구리 귀신으로 늙어 죽을겨.

(E) 재석의 핸드폰 소리. 받으면,

유미(E) 잠깐 봐요.

### #91 당상군청 일각(낮)

유미와 재석이 마주 보고,

유미 따져보니깐, 그쪽이 약속한 만큼 딱 열흘을 일했어요.  
거짓말한 건 싫지만, 그래도 약속이니까, 국제미팅은 나갈 거예요.

재석 그럴 거 없어요.

유미 왜 서울 가기 싫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서울 가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재석 ...

유미 (대답 없는 재석을 보니 씩씩하다.) 내일 나갈 거니까, 걱정 말고.  
그쪽은 서울 잘 가요. 찻잔할까 봐 말하는 건데, 배신감은  
들지만, 그쪽이 나한테 막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니까, 내가  
용서해줄게요.

돌아서 가는 유미, 그 모습 지켜보는 재석.

#92 유미 집 / 안방(밤)

유미, 복창 앞에 반듯하게 앉아 있다.

유미 아버지. 이모 집 안 갈래요.  
 복창 아버지랑 서울 갈터?  
 유미 아니요. 아버지, 하우스는 나 줘요.  
 복창 ...  
 유미 하우스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누워서 생각해보고, 앉아서도 생각해보고, 암만 생각해도, 그건 나 줘요.  
 복창 (보는)  
 유미 아버지, 나는요, 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내가 혼자 살기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버지니까 그래요.  
 나요. 아버지 없어도, 오빠 없어도, 내 하나 건사할 수 있어요. 기집애가 혼자 농사지을 수 있구요. 나요 아버지 어른이에요.  
 복창 (가만 보는)

#93 유미 집 / 부엌(낮)

새벽이다. 순두부국, 감자전, 호박무침, 조기구이, 밥상 정성껏 차리는 유미다. 밥상 차려서 밥상보 덮어두는 유미.

#94 유미 집 / 유미 방(낮)

정장 꺼내서 차려입고 나서는 유미, 예쁘게 꾸미고 얹게 화장도 했다.

#95 군민회관 앞 / 도로(낮)

[제1회 당상군청 주최 국제 단체미팅] 현수막 크게 붙어 있다. 일꾼1, 2도 들어가고, 양복 빼입은 노총각들, 한껏 들뜬 표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유미, 오긴 왔는데, 영 들어갈 자신이 없다. 구석에서 쭈뼛거리다가,

심호흡 크게 하고, 들어가려는데... 유미 팔을 잡는 손. 보면, 재석이다.

유미 뭐 한대요?!  
 재석 내가 유미 씨한테 막 중요한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못 보내겠습니다. 그쪽을요.  
 유미 ???  
 재석 유미 씨가 나한테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못 보내겠어요.

군수, 국제장, 과장, 기자들이 몰려온다.

국제장 아이구, 월천리에 사는 이유미 씨 오셨슈? 힘든 걸음 했어유.

국제장, 군수와 기자들에게 “여가 거요.” 하며 소개시키려는데,

재석 유미 씨는요. 말해봐요. 정말로 내가 그렇게 막 중요한 사람이 아닌지.  
 유미 (침 꼴각 삼킨다)  
 국제장 이것이 뭐 하는겨? 왜 이러는겨?!

유미 팔 잡고 있던 재석의 손, 유미 손으로 옮겨 잡으며 유미와 손 꼭 잡는다.

재석 대답 안 하는 건 긍정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재석, 유미 손을 꼭 잡고, 달리기 시작한다.

유미(E) 우리... 어디로 가요?!  
 재석(E) 전부터 먹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 갈까요?  
 막걸리에 설탕 달달하게 타서 먹읍시다 우리.

달리는 유미와 재석 모습에서.

## #96 에필로그

국제미팅장이다. 필리핀 청년 세 명이 한쪽을 보고 밝게 웃고 있다.  
보면, 그들 앞에 #9의 무뚝뚝한 군청 민원실 여직원이 앉아 있다.  
설레는 표정으로 활짝 웃는 민원실 직원. 윈크 땡!!

끝.

작가 후기 많이 부족한 작품이었는데, 덜컥 당선이 먼저 돼서 기쁨과 불안함이 늘 함께였습니다. 대본의 후반부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오랫동안 답을 찾지 못해서 고민만 했습니다. 오픈 동기들의 리뷰에서 “사건이 너무 많아서 산만하다. 주인공들의 감정라인이 급작스럽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깨작깨작 수정했는데 정답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감독님의 조언대로 남자주인공의 캐릭터를 강화했고, 세 가지의 사건 중에 하나에만 집중하기 위해 두 사건을 빼기로 했습니다. 수정 방향을 결정하니 15쪽 이후를 전부 지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당선된 이유가 있을 텐데, 더 나빠진 대본이 나올까가 가장 걱정됐지만, ‘나’를 믿고 수정해보기로 했습니다. 두 개의 큰 사건을 빼고 존스러움과 서정성을 강화해서, 더 지루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은 되지만, 저의 정답에는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모든 의견을 존중해주시고, 정성을 다해서 멘토링 해주신 김규태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체적과 당근을 함께 주시는 김지일 센터장님, 그리고 고민 상담해주시고 해결책을 찾아주시는 임고은 피디님, 김동완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조언과 칭찬을 아끼지 않는 오픈 2기 작가님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 오픈 드라마 작품집 상권

1판 1쇄 인쇄. 2019년 1월 21일

1판 1쇄 발행. 2019년 1월 21일

글. 김지훈, 김민경, 이정연, 정수훈, 안은빈  
류솔아, 이아연, 김도연, 백선영, 유경민  
김보겸, 홍혜이, 최이륜, 문민정, 김효진, 송진  
김민주, 최성준, 구옥선, 김의정

제작. 오픈

디자인. 오혜진(OYE), 권수진

교정 및 교열. 문유진

인쇄. 책공감

발행처. (주)씨제이이엔엠

발행인. 허민희

등록번호. 제 2015-000016 호

등록일자. 2015년 1월 13일

주소. 서울시 서초구 과천대로 870-13, 1층

전화. 02-371-9139

ISBN 979-11-965232-6-8 04680

ISBN 979-11-965232-0-6 (세트)

© 2018 CJ ENM

이 책의 모든 내용은 CJ ENM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8035705)